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조선의 왕실 의례인 종묘 제례에서 공연된 종묘 제례악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종묘 제례악은 악인이 제례 절차에 따라 연주를 하면 이에 맞춰 무인들이 춤을 추는 종합 예술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악기와 연주에 반영된 음양의 조화에 대해 설명한 다음, 춤에 반영된 음양의 조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연주가 시작될 때 축을 세 번 칩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화면을 보시죠. 네모난 절구통처럼 생긴 악기가 바로 축입니다. 축은 방망이를 잡고 아래로 쿵쿵쿵 세 번 두드려 연주하는 것으로, 양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자료의 아래쪽에 있는 호랑이 모양의 악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인데, 연주가 끝날 때 사용했습니다. 여기 호랑이의 머리가 보이시죠? 연주자는 채로 머리를 세 번 친 다음, 등을 세 번 굽었습니다. 이 악기는 음을 상징하여 축과 조화를 이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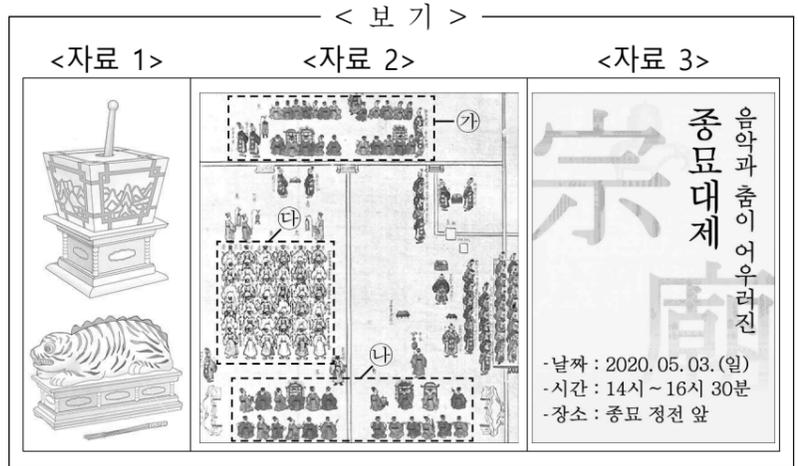
(자료를 보여 주며) 여기 앞의 자료는 종묘 제례악의 공연 장면을 담고 있는 ‘오향친제반차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도 축과 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림에서 ㉠로 표시된 부분이 상월대이고, ㉡로 표시된 부분이 하월대입니다. 상월대와 하월대의 오른쪽에는 축이, 왼쪽에는 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음을 상징하는 하월대에서는 양의 음악인 양률이 연주되고, 양을 상징하는 상월대에서는 음의 음악인 음려가 연주되어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줄로 서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들은 춤을 추는 무인들입니다. 종묘 제례악의 춤은 조상의 문덕을 찬양하는 문무와 무공을 찬양하는 무무로 나뉩니다. 문무는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음을 상징하는 몸을 숙이는 동작부터 시작하고, 무무는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을 상징하는 몸을 펴는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춤에서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이 포스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매년 5월 첫 일요일이면 종묘에서 종묘대제가 거행됩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현대의 종묘대제에서도 이 그림의 ㉠, ㉡, ㉢처럼 악단과 무인들이 위치하여 종합 예술로서의 종묘 제례악을 공연합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그래서 이 포스터에서도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음양의 조화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발표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발표를 시작할 때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2.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축과 어의 모양과 연주 방법을 설명한다.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상월대와 하월대에서 이루어진 음양의 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종묘 제례악이 공연되는 행사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소개한다.
- ④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상월대와 하월대에서 사용하는 축과 어가 만들어진 유래를 제시한다.
-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종합 예술로서의 종묘 제례악이 현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3. 다음은 발표를 듣고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중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청자 1: 얼마 전에 종묘 제례악 공연을 영상으로 봤어.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되어 좋았어. 축과 어 이외의 다른 악기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 청자 2: 문무가 양을 상징하고 무무가 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는데, 문무와 무무가 왜 각각 양과 음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워. 내가 자료를 찾아 봐야지.
- 청자 3: 음악 시간에 제례악에는 종묘 제례악 외에 문묘 제례악도 있다고 배워서 알고 있어. 그런데 서로 어떻게 다를까? 관련 내용을 알아봐야겠어.

- ① ‘청자 1’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② ‘청자 2’는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발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 ③ ‘청자 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청자 1’과 ‘청자 3’은 발표의 일부를 언급하며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청자 2’와 ‘청자 3’은 발표를 듣고 생긴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4~기 (가)는 동아리 학생들의 회의 중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교지 담당 선생님께서 교지의 건강 상식 코너에 실을 글을 우리 의학 동아리에서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지에 실을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2: 그래, 좋아. 그럼 먼저 글의 제재부터 정하도록 하자.

학생 3: 나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을 글감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학생 2: 보건 선생님께서 지난달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 교육을 하셨잖아. 아마 많은 학생들이 독감 예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야. 학생들에게 새롭게 알려줄 것이 없을까?

학생 1: 그럼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어떨까? 근래에 교지에서 다룬 적이 없고 보건 교육을 통해서도 제시된 적이 없어서 척추 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학생 3: 좋아.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다 보니 목이나 허리가 빠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 거야.

학생 2: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전문적인 용어나 개념이 많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거야.

학생 3: ㉡ 척추 건강에 대해 알려 주는 전문 잡지의 기사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모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

학생 2: 좋아. 그럼 이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학생 3: ㉢ 얼마 전에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기사를 읽었어. 이를 활용하여 글의 시작 부분에서 척추 질환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학생 2: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할까? 척추 질환의 원인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맞아. 학생들의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2: ㉣ 척추 건강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학생들이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학생 1: 그 다음에는 척추 질환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학생 2: ㉤ 그보다는 제시된 원인을 바탕으로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거야.

학생 1: 알았어. 그럼 예방하는 방안으로 척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에 대해 소개하자.

학생 2, 3: 응, 그래.

(나)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해마다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들이 연평균 5만 명에 이르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척추 질환은 성장을 저해하고 학업의 효

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척추 질환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앉은 자세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서 있는 자세에 비해 1.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도 청소년 척추 질환의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기립근과 장요근 등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 가운데 주 3일 이상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약 33%, 여성이 약 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비교적 쉽게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바른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 넣고 등받이에 반듯하게 상체를 기대 척추를 꼳꼳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아래로 많이 숙이는 행동은 목뼈가 받는 부담을 크게 늘려 척추 질환을 유발하므로 책상 높이를 조절하여 목과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앉아 책을 보는 것이 좋다. 둘째, 틈틈이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 준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어깨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그리고 발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서서 양손을 허리에 대고 상체를 서서히 뒤로 젖혀 준다. 이러한 동작들은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척추가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것을 막아 준다. 따라서 이런 운동은 척추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회의 안건을 제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 ③ ㉢: 앞서 논의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제안이 지닌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이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자고 한 것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 ② '학생 3'이 '학생 1'의 제안에 동의한 것은 척추 건강에 관한 정보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③ '학생 2'가 내용의 수준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독자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다.
- ④ '학생 3'이 척추 질환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한 것은 '학생 2'의 제안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 ⑤ '학생 1'이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설명하자고 한 것은 '학생 2'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6.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척추 질환의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려 주며 척추 질환의 위험성을 제시한다.
- ② 척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을 제시하고 척추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연평균 인원을 제시하여 청소년 척추 질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한다.
- ④ 앉은 자세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 언급하며 청소년에게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한다.
- ⑤ 의자에 앉아 있을 때와 책을 볼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 주어 척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안내한다.

7.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끝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선생님의 조언**: 척추 건강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척추 건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렴. 이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해.

- ① 청소년뿐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들도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꾸준한 운동을 하여 척추가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것을 막도록 하자.
- ② 우리 몸의 보배인 척추가 건강해야 신체적 성장이 원활해지고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바르게 앉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 ③ 척추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척추 질환을 방치할 경우, 심폐 기능과 소화 기능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척추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 ④ 고정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목을 움츠리고 있는 것은 척추 건강에 독이 된다. 그리고 턱을 괴고 있는 습관 역시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에 제일 좋은 보약이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이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상황]

- 목적: 게임 중독세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힘.
- 주제: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독자 분석]

- 일부 학생들은 게임 중독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 게임 중독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학생들도 있다. …… ㉡

(나) 학생의 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 즉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부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게임 중독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게임 중독세란 게임 중독에 대한 책임 부담의 일환으로 게임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게임 업체가 납부하는 세금을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게임 중독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게임 중독세는 세금 징수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으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려면 검증을 통해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담배에 건강 증진 기금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담배가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세금 징수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은 유해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게임 중독세는 게임 업체에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다. 게임 업체는 이미 매출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게임 중독세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카지노, 복권 등 사행 산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추가 징수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게임 산업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지 사행 산업이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중독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유독 게임 중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게임 중독세는 게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여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공식화한다. 게임 중독은 게임 이용자의 특성이나 생활 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게임 중독이 이용자 개인의 책임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게임 업체에 사회 문제를 조장하는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게임 중독세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이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 세금의 과도한 부과로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임 중독세의 도입으로 게임 산업이 퇴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8. ㉠, ㉡을 고려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활용된 글 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게임 중독세의 개념과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제시한다.
- ② ㉠을 고려하여, 게임 중독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시한다.
- ③ ㉡을 고려하여, 게임 산업을 카지노, 복권과 같은 사행 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다.
- ④ ㉡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들어 게임 중독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 ⑤ ㉡을 고려하여, 세금으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을 밝히고 게임 중독세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9.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게임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세를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 ①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는 게임 중독세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 ② 게임 중독세를 부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③ 게임 중독의 책임을 세금을 통해 게임 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유해성을 성찰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 ④ 게임 중독세를 통해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⑤ 게임 중독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10. 다음은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검	[B]에는 (㉠)해야겠다.
----	--

↓

고친 글	<p>게임 중독세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 2010년 7.4조 원이었던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12.5조 원에 달한다. 세금의 과도한 부과로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임 중독세의 도입으로 게임 산업이 퇴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p>
------	--

- ①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문장 간 연결이 긴밀하지 않으니 연결 표현을 추가
- ②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
- ③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지가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글 전체를 마무리하는 문장이 없으니 이를 추가
- ④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문장이 없으니 이를 추가
- ⑤ 앞 문단에서 다룬 중복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 없으니 이를 추가

11. <보기>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학습 내용**: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음운 변동은 한 단어를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낮’과 ‘한때’를 각각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낮[난]’은 교체가 일어나고 ‘한때[한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낮’과 ‘한때’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 ‘낮 한때[나탄때]’로 발음된다.

○ **학습 과제**: 아래의 ㄱ과 ㄴ에서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찾고, 그 유형의 적절한 예를 제시하시오.

ㄱ. 잘 입다[잘립따]

ㄴ. 값 매기다[감매기다]

	공통적인 음운 변동의 유형	예
①	교체	책 넣는다[챙넌는다]
②	교체	좋은 약[조:은약]
③	교체	잘한 일[잘한닐]
④	첨가	슬픈 얘기[슬픈내기]
⑤	첨가	먼 옛날[먼:넨날]

12.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관형절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데 관형절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 등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절은 안은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문장에 대해 관형절과 명사절에 주목하여 분석해 볼까요?

㉠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들이 많았다.

㉡ 마지막 문제를 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빵을 형과 함께 먹었다.

㉣ 그는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했다.

㉤ 그들은 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이미 알았다.

- ① ㉠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명사절은 없습니다.
- ② ㉡에는 관형절이 없고,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
- ③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명사절은 없습니다.
- ④ ㉣에는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부사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
- ⑤ ㉤에는 관형절이 없고,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

1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 중 선행 요소는 다양한 품사의 단어이지만 후행 요소는 일반적으로 명사이다.

<보기 2>
㉠ 새해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갔다. 할머니께서 점심으로 ㉡ 끓은소금 위에 새우를 올려놓고 구워 주셨고, 저녁에는 ㉢ 산나물을 넣은 비빔밥을 해 주셨다. 내가 할머니께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알려 드리자 “㉣ 척척박사로구나.”라며 ㉤ 어린이처럼 좋아하셨다.

- ① ㉠은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② ㉡은 동사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③ ㉢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④ ㉣은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⑤ ㉤은 형용사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동생이 지금 밥을 ㉠ 먹는다.
○ 우리 아기가 무럭무럭 ㉡ 자란다.
○ 이곳에 따뜻한 난로가 ㉢ 놓였다.
○ 신랑, 신부가 ㉣ 입장하겠습니다.
○ 나는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 꿘다.

- ① ㉠은 동사의 어간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는-’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
- ② ㉡은 동사의 어간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ㄴ-’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
- ③ ㉢은 동사의 어간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였-’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
- ④ ㉣은 동사의 어간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겠-’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
- ⑤ ㉤은 동사의 어간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었-’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시간 표현 중 하나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는 것이다. 동사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ㄴ-’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데, 동사의 어간 말음이 자음인 경우에는 ‘-는-’이, 모음인 경우에는 ‘-ㄴ-’이 결합한다. 이와 달리 형용사와 ‘이다’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이다’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았-/-었-’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데, 어간 ‘하-’ 다음에는 선어말 어미 ‘-였-’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이다’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겠-’을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데, 추측이나 의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시간 표현은 ㉠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여 나타내는 경우와 ㉡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동사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를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였고, 형용사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표현하였다. 또한 동사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했고, 회상의 의미가 있는 선어말 어미 ‘-더-’를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했다. 형용사도 선어말 어미 ‘-더-’를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하였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는 추측의 의미가 있는 선어말 어미 ‘-리-’를 어간에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였다.

15.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너도 쏘 이 ㉠ 글쎄다
(너도 또 이와 같다.)
○ 네 이제 쏘 ㉡ 물는다
(네가 이제 또 묻는다.)
○ 五百 도즈기 ... ㉢ 도죽히더니
(오백 도적이 ... 도둑질하더니)
○ 이 智慧 업슨 比丘ㅣ 어드러셔 ㉣ 오노
(이 지혜 없는 비구가 어디에서 왔느냐?)
○ 이 善女人이 ... 다시 나디 ㉤ 아니히리니
(이 선녀인이 ... 다시 나지 아니할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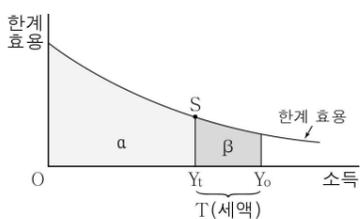
- | | | |
|---|---------|---------|
| | ㉠ | ㉡ |
| ① | b, c | a, d, e |
| ② | a, e | b, c, d |
| ③ | d, e | a, b, c |
| ④ | a, c, d | b, e |
| ⑤ | b, c, e | a, d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 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A]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0.1(10%) + 2천만 원×0.2(20%) = 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3천만 원)가 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누진 세율 구조를 ㉢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에 ㉣ 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0 였던 사람이 세액 T 를 내면 세 후 소득이 Y_t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β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 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β 를 면적 $\alpha + \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지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S 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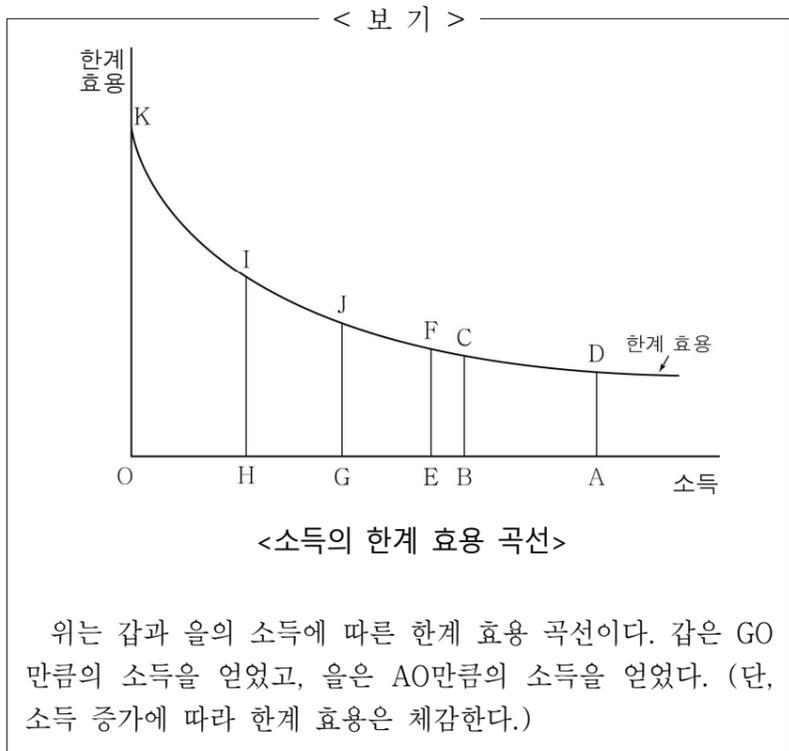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 부과와 효율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누진적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며 조세 행정의 목적을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세율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1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 ② 납세 부담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 ③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 ④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와 AB라면 GHIJ의 면적과 ABCD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D/AOKD일 때에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 면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 ④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일 경우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의 세액이 GH라면 을의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이 HI가 되도록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②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③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만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④ 동일한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20.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소득세 제도			
과세 표준	(가)	(나)	(다)
100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위에 제시된 표는 어떤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소득세 제도 (가)~(다)와 그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다. (단, 과세 표준은 위의 3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역진 세율 구조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이다.
- ⑤ (가), (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이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산하여 냄.
- ② ㉡: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③ ㉢: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
- ④ ㉣: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⑤ ㉤: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쓴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혜여 보소서 <제2수>

추성 진호루* **빛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 뉘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안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 진실로 임금을 잇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 -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나)

신묘년 가을, 북쪽으로 유배 가게 되었다. 말이 없었기에 가산을 털어 말 여섯 마리를 사서 내 몸을 싣고 입을 것 먹을 것을 싣고서 삼천 리 떨어진 변방 땅까지 갔으니, 그곳은 바로 부령이었다. 짐을 풀어놓자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어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얻을 방도를 알려 주겠소. 변방에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니, 소 한 마리를 몇 달 동안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 몇 섬을 얻을 수 있소. 그러니 데려온 말을 팔아 소를 사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요.”

[A]

내가 말했다.

“아니오. 내 걸음을 대신하고 내 짐을 싣고서 험한 고갯길을 넘어, 내가 길가에 쓰러지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이 말들이요. 말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데리고 있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남에게 팔아 버린다면, 말은 내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말을 저버리는 것이요. 말이 비록 미물이지만 내가 차마 저버릴 수 있겠소?”

㉤ 어떤 이가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신의는 고루하구려.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바꾸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 그 주인은 일정하지 않소. 말은 남의 말이었는데 당신이 샀고, 당신의 말인데 남에게 파는 것이요. 소는 남의 소인데 남이 당신에게 파는 것이니, 말은 남에게 가고 소는 당신에게 오는 것이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주인이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주인이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꾸어 어려운 처지를 넘기는 법,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소? 그러므로 옛날 군자는 사람

에게 신의를 지켰지 애써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지는 않았소.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동물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당신은 우활한 사람이요. 신의를 어디다 쓰겠소?”

나는 그제야 퍼뜩 깨달았지만 서글피 한탄했다. 소와 말은 천지 사이에 있는 공공의 물건이니, 반드시 내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남이 주인인 것도 아니다. 저 사람이 주인이면 저 사람의 소유이고, 내가 주인이면 나의 소유이다. 주인을 찾기만 한다면야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이 아니었다면 저 소와 바꾸지 못했을 것이고, 이 소가 아니었다면 이 곡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인데, 소와 말을 바꾸어 잠시나마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해가 되겠는가? 그 사람의 말이 맞다.

그렇지만 한탄스러운 점이 있다. 나는 젊었을 적 학문에 뜻을 두어 오로지 독서를 일삼았다. 그러다가 늙어서는 태평성대에 죄를 짓고 불모지로 유배되었다. ㉥ 가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주어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먹을 것이 내게 큰 누를 끼쳤구나. 말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지 못했고, 소는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여 이 동물들이 편안히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들을 몹시 그르쳤구나. ㉦ 이 입 때문에 이 몸에 누를 끼치고 이 동물들을 그르쳤으며 끝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나는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중간에는 마음이 풀렸으나 결국은 서글피져 혀를 차며 이 글을 지었다.

- 홍성민, 「마환우설」 -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2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이다.
- ③ ㉠은 화자가 호감을 지닌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반감을 지닌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존재이고, ㉢은 글쓴이의 판단을 비판하는 존재이다.
- ⑤ ㉠은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이고, ㉢은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와 (나)의 작가는 사대부 신분으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유배를 당해 외롭고도 힘든 격리 생활을 체험하였다. 사대부의 유배 문학은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면서 충신연주(忠臣戀主)나 우국의 심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곤궁한 생활이 심해질수록 작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 ① ㉠은 화자가 ‘되’와 ‘물’의 속성을 통해 자신이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② ㉡은 화자가 ‘외기리기’를 통해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③ ㉢은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성과 ‘아버이’에 대한 효심이 결국 하나라는 발상을 통해 충신연주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④ ㉣은 글쓴이가 자신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 계층으로 바뀌었음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⑤ ㉤은 글쓴이가 자신의 행위를 책망하며 곤궁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2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그 밭과 여남은 일’은 화자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려는 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는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곧은 지조를 변함없이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제4수의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는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다가 좌절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26. <보기 1>을 바탕으로 윗글의 [A]와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1 > —

선생님 : <보기 2>는 (나)의 작가가 지은 「무염관속설」의 일부입니다. (나)와 <보기 2>는 동일한 유배지에서 체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시차를 두고 창작한 작품들로, 개인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당대 유배지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입니다.

— < 보기 2 > —

부령에 유배 온 지 몇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다.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일러 주었다.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합니다.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팔고 곡식을 산다면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나 될 것이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은 장사꾼이 하는 일이니 나는 차마 할 수 없다고 한참 동안 주저했다.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 그 방법대로 하려니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 몇 말 곡식을 가지고 구십 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 오게 하니 소금이 열 말 정도 생겼다. 이 소금을 말에 싣고 백이십 리 떨어진 북관(北關)으로 가서 곡식을 사 오라 하자, 곡식이 스무 말 정도 생겼다.

- ① [A]와 <보기 2>는 모두 유배지의 풍속을 인용함으로써 그곳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와 <보기 2>에는 모두 글쓴이가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언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2>는 모두 글쓴이의 면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는 대화의 과정에서 동물에 대해 신의를 지키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보기 2>는 글쓴이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종을 시켜 물건을 매매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워드라고 한다. 예를 들어 64비트의 컴퓨터는 64개의 비트를 1워드로 처리한다.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0으로 표시하여 양수를 나타내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낸다. 0111의 경우 가장 왼쪽 자리인 '0'은 양수를 표시하고 나머지 '111'은 정수의 절댓값 7을 이진수로 나타낸 것으로, +7을 표현하게 된다. 이때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데이터 비트라고 한다.

그런데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한다. -3을 표현한다면 -3의 절댓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에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이면 된다. 이러한 음수 표현 방식을 ㉠ '부호화 절댓값'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호화 절댓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7-3을 계산한다면 7+(-3)인 0111+1011로 표현된다. 컴퓨터에서는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1에 1을 더하면 바로 윗자리 숫자가 올라가 10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0111에 1011을 더하면 10010이 된다. 10010은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오버플로라 한다. 부호화 절댓값에서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계산값이 부정확하다. 또한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내어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 '1의 보수법'이 있다. 보수란 보충을 해 주는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수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의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예를 들어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고,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다.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리의 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1의 보수는 각 자리의 수에 대해 합이 1이 되는 수이므로, -3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한다면 -3의 절댓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에 대한 1의 보수 100이 데이터 비트가 된다. 여기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 1100이 된다.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하여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산값이 0000 또는 1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음수 표현 방식이 '2의 보수법'이다.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는 방식이다. 2의 보수법으로 -3을 표현한다면, -3의 절댓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에 대한 1의 보수 100을 구한 다음, 1을 더한 101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 1101이 된다.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가정하여 7-3을 2의 보수법으로 계산해 보자.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의 보수법이나 2의 보수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7-3은 7+(-3)이므로 2의 보수법으로 0111+1101이 된다. 이를 연산하면 10100이 되어 4비트를 초과하게 된다. 2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초과된 비트를 버려야 하므로 그 결과 0100이 나온다.

*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이진수: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 십진수 0, 1, 2, 3, 4, 5, 6, 7은 이진수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로 나타냄.

27. 밑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② 부호화 절댓값에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컴퓨터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④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 ⑤ 부호화 절댓값의 연산이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

28.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과 ㉡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에 비해 ㉡에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가 많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이다.
- ④ ㉡에 비해 ㉠에서의 계산값이 더 정확할 것이다.
- ⑤ ㉠으로 표현한 음의 정수를 ㉡으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 비트가 나올 것이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1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4-7을 계산한다.
 (나)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3-4를 계산한다.

- ① (가)의 경우 0100에 1000을 더하면 1100이 되어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겠군.
- ②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모두 계산 과정에서 1의 보수가 활용되겠군.
- ③ (가)의 경우 4의 데이터 비트는 100, (나)의 경우 -4의 데이터 비트는 100으로 같게 나타나겠군.
- ④ (나)의 경우 오버플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된 비트는 버려야 하겠군.
- ⑤ (나)의 경우 -4의 절댓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 1을 더하면 -4에 대한 2의 보수가 되겠군.

30. <보기>와 같이 ㉠의 이유를 설명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으로 표현된 ㉡이 2의 보수법에서는 ㉢(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	㉢	㉣
①	1의 보수법	0000	0001
②	1의 보수법	1111	0000
③	부호화 절댓값	0000	0001
④	부호화 절댓값	1000	1111
⑤	부호화 절댓값	1111	0000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증은 조직 손상이 ㉠ 일어나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의식적인 자각을 주는 방어적 작용으로 감각의 일종이다.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는 강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기계적 자극, 높은 온도에 의한 자극, 상처가 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때 세포에서 방출하는 화학 물질에 의한 화학적 자극 등이 있다. 이러한 자극은 온몸에 퍼져 있는 감각 신경의 말단에서 받아들인데, 이 신경 말단을 통각 수용기라 한다. 통각 수용기는 피부에 가장 많아 피부에서 발생한 통증은 위치를 확인하기 쉽지만, 통각 수용기가 많지 않은 내장 부위에서 발생한 통증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후각이나 촉각 수용기 등에는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수용기의 반응이 감소되는 감각 적응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통각 수용기에는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감각 적응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위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통각 수용 신경 섬유에는 Aδ 섬유와 C 섬유가 있다. Aδ 섬유에는 기계적 자극이나 높은 온도 자극에 반응하는 통각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C 섬유에는 기계적 자극이나 높은 온도 자극뿐만 아니라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하는 통각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다. Aδ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로 전달되면, 대뇌 피질에서는 날카롭고 쭉시는 듯한 짧은 초기 통증을 느끼고 통증이 일어난 위치를 파악한다.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로 전달되면, 대뇌 피질에서는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을 느낀다. 이는 두 신경 섬유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Aδ 섬유는 직경이 크고 전도 속도가 빠르며, C 섬유는 직경이 작고 전도 속도가 느리다.

머리 아래쪽에서 발생한 **통증 신호의 전달**은 통각 수용기가 받아들인 자극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통각 수용기와 연결된 1차 신경 섬유를 따라 전도된 후, 척수에서 나오는 2차 신경 섬유를 따라 전도되어 시상을 거쳐 중추인 대뇌로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진다. 1차 신경 섬유와 2차 신경 섬유는 척수에서 서로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 통증 신호의 전달을 위해서는 1차 신경 섬유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야 한다.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탐산은 1차 신경 섬유 말단에서 분비되어 2차 신경 섬유에 있는 ㉡ AMPA 수용체 및 ㉢ NMDA 수용체와 결합하여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NMDA 수용체는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 억제되어 있어 소량의 글루탐산에는 AMPA 수용체만 먼저 활성화된다. AMP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2차 신경 섬유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어 1차 신경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2차 신경 섬유로 전달되며, 통증 신

호는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AMPA 수용체에 의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 뒤이어 NMDA 수용체도 활성화되어 나트륨 이온뿐만 아니라 칼슘 이온도 유입된다. 이 경우 칼슘 이온으로 인해 대뇌 피질로 통증 신호의 전달은 일어나지 않지만 통각 수용기의 민감도가 높아져 약한 자극에 대해서도 통각 수용기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한다.

신경 전달 물질 서브스틴스 P는 1차 신경 섬유 말단에서 분비되어 2차 신경 섬유에 있는 NK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통증 신호를 2차 신경 섬유로 전달한다. 통증 신호는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로 들어가 통증을 느끼게 하고, 망상체와 시상 하부 등 뇌의 여러 부분을 포함하는 대뇌변연계로 전달되어 자율 신경과 내분비계를 자극하여 통증으로 인한 행동이나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

한편 망상체에서 1차 신경 섬유의 말단으로 뻗어 있는 신경 섬유 말단에서는 엔도르핀, 엔케팔린, 다이노르핀 같은 진통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이 물질은 1차 신경 섬유의 말단에 있는 아편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1차 신경 섬유에서 서브스틴스 P가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여 통증 신호가 2차 신경 섬유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증 억제 시스템은 신체가 외상을 입은 상황에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느끼지 못하게 하여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시냅스: 한 신경 섬유의 말단 부위와 다른 신경이 수십 nm의 간격으로 가까이 접해 있는 것.

3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Aδ 섬유는 C 섬유보다 직경이 크고 전도 속도가 빠르다.
- ② 통각 수용기가 많은 부위일수록 통증 위치를 확인하기 쉽다.
- ③ 망상체에는 1차 신경 섬유의 말단으로 뻗어 있는 신경 섬유가 있다.
- ④ 기계적 자극이나 높은 온도에 반응하는 통각 수용기가 Aδ 섬유와 C 섬유에 모두 분포되어 있다.
- ⑤ 통각 수용기는 수용기의 반응이 감소되는 감각 적응 현상을 일으켜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킨다.

32. 밑글의 ‘통증 신호의 전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는 대뇌 피질로 전달되지 않는다.
- ② 1차 신경 섬유와 2차 신경 섬유가 시냅스를 이루는 부위는 척수이다.
- ③ Aδ 섬유를 통해 초기 통증을 느끼고, C 섬유를 통해 지연 통증을 느낀다.
- ④ 대뇌변연계에 통증 신호가 전달되면 통증에 의한 행동이나 감정 반응이 일어난다.
- ⑤ 글루탐산과 서브스틴스 P는 모두 1차 신경 섬유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3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2차 신경 섬유에 있는 수용체이다.
- ② ㉠은 1차 신경 섬유에서 분비된 글루탐산과 결합하여 활성화된다.
- ③ ㉡은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 억제되어 있다.
- ④ ㉡에 의해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까지 전달된다.
- ⑤ ㉠이 활성화되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 ㉡이 활성화된다.

3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손상된 세포에서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역치*를 낮추어 통증을 잘 느끼게 하는데,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 한편 강력한 진통제인 모르핀은 엔도르핀의 분자 구조와 유사하여 아편 수용체와 잘 결합한다. 하지만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해서 통상적인 진통제가 효과가 없을 때 투여하는 최후의 진통제로 쓰인다.

*역치: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

- ① 아스피린은 통각 수용기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여 자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모르핀은 아편 수용체와 결합하여 통증 신호의 전달을 억제하겠군.
- ② 아스피린은 손상되었던 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모르핀은 망상체 및 시상 하부에 전달되어 엔도르핀의 분비를 활성화시키겠군.
- ③ 아스피린은 통증 자극의 세기를 줄여 통각 수용기의 반응을 감소시키고, 모르핀은 엔도르핀과 반응하여 2차 신경 섬유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겠군.
- ④ 아스피린은 통각 수용기를 둔감하게 하여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지 못하게 하고, 모르핀은 서브스텐스 P와 반응하여 서브스텐스 P의 기능을 강화시키겠군.
- ⑤ 아스피린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고, 모르핀은 진통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서브스텐스 P의 생성을 촉진하겠군.

3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 ② 감기로 오한과 두통이 일어났다.
- ③ 겨울 외투 속의 솜털이 일어났다.
- ④ 망해 가던 회사가 일어나 안정을 찾았다.
- 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할머니와 어린 ‘나’는 밤마다 집 앞을 지나며 울부짖는 절름발이 사내가 참전한 ‘둘째 삼촌’을 데려갈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며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인 주호를 따라 시립 병원에 가서 전쟁에 나가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을 보게 된다.

주호 말마따나 술 탓인지, 아니면 난롯불에 익은 탓인지는 몰라도 사내의 얼굴은 대낮부터 별정계 상기되어 있었다. 기형의 그 흉측스런 오른쪽 뺨만 아니라면 지난날 틀림없이 미남 소리를 들었을 법한, 매우 잘생긴 얼굴 바탕의 새파란 청년이었다. 어쩐지 우리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인상으로 느껴졌다.

[A] “내가 개냐, 도야지냐? 요따위를 음식이라고 날더러 먹으라는 거냐?”

식탁 위의 식판을 노려보며 청년이 식당 안에다 요란하게 천둥을 내리쳤다.

“이 자식들이 나라에 몸 바친 나를 뭘로 알고!”

다음 차례로 청년은 곁에 놓인 보조 장구를 집어 들어 사정없이 번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한차례씩 보조 장구를 휘두를 적마다 청년의 입에서는 짐승의 포효 같은 울부짖음이 터지곤 했고, 한 방씩 되알지게 얻어맞을 적마다 철제 식판은 쟁쟁쟁강 튀어 오르면서 숨넘어가듯 쇳소리로 비명을 내지르곤 했다.

“저승사자다!”

크위어웁! ㉠ 많이 귀에 익은 그 울부짖음을 듣고 있자니까 내 입에서 절로 감탄이 새어 나왔다.

“저승사자가 뭐여? 상이군인*이지!”

영문도 모르면서 주호란 놈이 옆에서 방정맞게 참견하고 나섰다.

“아니다! 저승사자다!”

“아니다! 상이군인 아자씨다!”

“아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승사자라고 했다!”

뻑뻑 우겨 대는 나를 보고 주호는 자존심에 몹시 상처를 입는 눈치였다.

(중략)

함석 대문을 나서자 한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된바람이 사정없이 엄습해 왔다. 야간 통행금지 때문에 인적이 완전히 끊긴 을씨년스런 한길 위를 늦겨울 바람이 종횡무진 치닫고 내리닫는 중이었다.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마저 멀찌감치 달아나 버린 길거리를 맹수의 포효 같은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가로로 누비고 세로로 누비는 중이었다. 우리 유씨 일가족은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대문 앞에서 울부짖음이 접근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안 된다, 안 되야! 우리 병권이만은 절대로 안 된다야!”

마침내 어둠을 뚫고 저승사자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 상대방 울부짖음에 대항해서 할머니가 마주 울부짖기 시작했다.

“염라대왕 아니라 염라대왕 할아버라도 우리 병권이한테는 손을 대들 못허니께, 애시당초 손을 대서는 안 되니께 그리 알거라야!”

갑자기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딱 그쳐졌다. 땅바닥을 저주하던 지팡 몽둥이의 움직임도 덩달아 멈춰졌다. 시커먼 모습으로 눈앞에 버티고 서서 저승사자는 우리 식구들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었다.

“차라리 날 델꼬 가거라! 우리 병권이 대신 차라리 이 늙은

이를 텔꼬 가란 말여, 이 썩어 문드러질 잡것아!”

“이게 무슨 소리지?”

드디어 저승사자가 입을 열어 음산한 가락으로 대거리 해왔다. 시립 병원에서 일차로 부닥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승사자의 지팡 몽둥이로 부터 어떡하든 집안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나는 발끈 용기를 쥐어짜면서 앞으로 나섰다.

㉠ “우리 병권이 삼촌은 내비두라니께요! 춘삼월 호시절에나 우리 할머니 텔꼬 가라니께요!”

“병권이는 또 웬 놈이지?”

그제야 비로소 나는 상대방이 시립 병원의 그 저승사자가 아니라 딴 저승사자인 줄을 알아차렸다. 목청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다. 덩치가 훨씬 더 우람한 데다가 미남형 얼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둘째 삼촌이라니께요! 동부 전선서 하사로 싸우고 있 다니께요!”

비명 삼아 도나캐나* 뿔아 올리는 내 말을 저승사자가 음산하게 맞받았다.

“느이 삼촌 안 데려갈 테니까 걱정도 말아라!”

그러나 ㉡ 할머니는 땅바닥에 첩피덕 쓰러지는 바람에 정작 저승사자의 약속을 듣지도 못했다.

할머니는 그길로 시난고난* 앓다가 며칠 후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해토머리*가 오기 전이었다. 할머니의 장례 덕분에 나는 난생처음 북망산을 내 발로 직접 밟아 볼 수 있었다. 그곳은 결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었다. ㉢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세계가 공동묘지 그 너머에 그득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렸던 해토머리가 오자 어느 날부턴가 저승사자는 우리 동네 근처에 일절 범접하지 않게 되었다.

[B]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삼촌이 나무로 된 보조 장구를 양쪽 겨드랑이에 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나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는 마음으로 둘째 삼촌의 오른쪽 뺨 부위를 일삼아 쳐다보고 또 쳐다봐야만 했다.

- 윤홍길, 「묘지 근처」 -

* 상이군인: 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
* 도나캐나: 되는대로 마구.
* 시난고난: 병이 심해지는 양으면서 오래 앓는 모양.
* 해토머리: 얼었던 땅이 녹아서 풀리기 시작할 때.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가 병원에서 만난 청년을 보고 저승사자를 떠올렸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물러서지 않고 저승사자와 맞서는 할머니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 ‘나’가 저승사자에 대한 할머니의 인식에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저승사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할머니의 죽음은 ‘나’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37.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서술자와 [B]의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 제시된 인물 간의 갈등이 [B]에서 심화되도록 구성하여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③ [A]가 [B]의 사건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도록 구성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A]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B]에서 밝혀지도록 구성하여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A]에서 정신적 상처를 받은 인물이 [B]에서 그 상처를 극복하도록 구성하여 인물의 내적 성숙을 보여 주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전쟁을 다룬 소설에서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경험한 다양한 인물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다각적으로 그려진다. 특히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되는 인물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그 괴로움을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인물들은 가족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며 특정 행동에 매달리기도 한다. 한편 전쟁 상황은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며 어린이들이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 ① 길거리를 누비는 ‘저승사자’의 ‘울부짓음’은,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희생된 상이군인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청년’이 ‘나라에 몸 바친 나를 뭘로 알고!’라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상이군인으로서 갖는 불만을 말과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집 앞에서 울부짓던 ‘저승사자’가 병원에서 본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가 알게 된 것은, ‘나’의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할머니’가 상이군인을 ‘저승사자’로 대하며 ‘병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가족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할머니’의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동일한 인물을 두고 ‘주호’와 ‘나’가 서로 다르게 부르기를 주장한 것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한림이 인향의 오라비인 인형과 같이 인형의 집으로 돌아와 인형에게 이르되,

“인향 소저 나와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필연 나를 위하여 의복을 지어 두었을 것이니 들어가 찾아보리라.”

하니 인형이 즉시 누이가 있던 방에 들어가 세간을 열고 보니 과연 비단 의복이 겹겹이 있는지라. 인형이 일장통곡하다가 가지고 나와 한림께 드리니, 한림이 의복을 받아 보고 더욱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이 옷깃을 적시더라. 수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칭찬 왈,

“아깝도다, 이 재주를 어디 가서 다시 볼꼬.”

하며 탄식하다가 인형을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니라. 한림이 저녁을 먹은 후 노곤하므로 일찍 취침하더니, 비몽사몽간에 인향 소저 소매로 낮을 가리고 한림 앞에 와 재배하고 여쭙오되,

“한림은 나를 모르시나이까. 첩은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심천동에 가서 죽은 인향의 혼백이로소이다. 가련한 혼백의 지할 곳도 없고 위로하여 줄 사람도 없사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삽더니 천만에 한림의 덕택으로 축문까지 읽어 주시고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니 귀신이라도 어찌 그 은혜를 모르오리까. 제문에 하시기를 죽은 귀신이라도 한림 닮 귀신이라 하시오니 그 은혜를 어찌 다 측량하며 하해 같은 덕택을 입사와, 첩이 전생의 죄 중하여 일찍 모친을 이별하고 계모의 누명을 애매히 쓰고 죽사와 철천지한을 설원할 길이 없삽더니 명찰하신 성주님을 만나 원수를 갚았고 또한 한림이 금의환향하사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었사오니 이제는 한이 없는지라. 한림은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든 하늘께 축수와 금생 연분을 이루게 하옵소서. 첩의 모친은 옥황상제께 상소하시었삽고 첩은 염라대왕께 발원하였사오니, 한림은 진심으로 하옵소서.”

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가거늘 한림이 언덕에 미끄러져서 깨니 ㉠ 꿈이라. 한림이 날이 새기를 기다려 부모께 몽사(夢事)를 아뢰고, 일가친척과 원근 제족(諸族)을 모으고 각 처에 법사를 불러 심천동으로 나아가니 산천은 첩첩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못 새소리 사람의 심회를 돕는 듯하더라. 심천동에 다다라 묘전에 제물을 차려 놓고, 모든 중들이 가사를 입은 후 하늘께 축수하며 옥황님을 불러 축원하고,

“옥황상제님은 살피사 불쌍하온 김 낭자를 다시 회생케 하옵소서.”

하며 무수히 축원하고,

“김 낭자가 지부(地府)의 왕께 발원하였나이다. 만일 회생하면 어찌 황천후토께서 모르시리이까.”

이와 같이 지성껏 축원하니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더라. 석양이 되매 제전을 파하고 집에 돌아와 등축을 밝히고 있더니, 홀연 김 낭자 완연히 들어와 한림께 절하고 여쭙오되,

“오늘 정성하심을 하늘이 감동하옵시고 첩을 측은히 여기사 다시 환생케 하오니, 한림은 명일 아침에 음식과 이 약물을 가지고 심천동으로 오소서. 이 약물은 옥황상제께서 주신 회생수오니 그리 아옵소서.”

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나가거늘, 놀라 깨니 ㉡ 꿈이라. 한림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 옆에 약병이 있거늘, 한림이 대회하여 날 새기를 기다려 부친 전에 이 사연을 고하고 즉시 제물을 차려 가지고 인형과 같이 심천동으로 찾아가니 ㉢ 낙락장송은 희색을 띠어 한림을 반기는 듯, 산간에 두견새는 한림을 부르는 듯, 비금주수(飛禽走獸)가 모두 다 입을 보고 환영하는

듯하더라. 한림 일행이 심천동에 당도하여 묘전에 제물을 차려 놓고 분향재배한 후 제문을 읽으니, 그 제문에 하였으되,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감소고우* 한림은 옥황상제 전에 일배주로 축원하오니 불쌍하온 김 낭자를 다시 회생케 하옵시면 미진한 인연을 다시 이어 백년동락으로 지낼까 하오니, 복원 옥황상제님은 다시 회생케 하옵소서.”

하며 빌기를 무수히 한 후 제물을 파하고 다시 제물을 차려 묘전에 벌여 놓고 재배한 후 축문을 읽으니, 하였으되,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한림 유성운은 일배주를 김 낭자 좌하에 올리나니 흠향*하옵소서. 도시 액운이 한림의 죄오니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구히 축원하는 한림을 보아 회생하여 인연을 다시 이어 살았으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하고 즉시 인형과 같이 분묘를 헐고 신체를 보니 목과 얼굴이 조금도 썩지 아니하고 인향과 동생 인함이 자는 듯하거늘 한림이 즉시 회생수를 뿌리니, 얼마 후에 숨을 후유 쉬고 두 소저 서로 돌아눕는지라. 한림이 일변 하인들에게 명하여 보교를 가져오라 하여 두 소저를 태워 가지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유공 부부 한림을 심천동에 보내고 궁금히 여기더니 이윽고 하인들이 보교를 메고 들어오는 지라.

유공이 물어 왈,

“뉘 닮 내행(內行)을 우리 집으로 뵈시는다.”

하니 하인들이 여쭙오되,

“댁내 행이오이다.”

하는지라. 유공 부부 즉시 보교 문을 열고 보니 두 소저 앉았거늘 이때 한림이 들어와 전후수말을 고하고 즉시 방에 불을 더웁게 때고 소저를 누인 후 한림이 친히 사지를 주무르니, 얼마 후에 두 소저 정신을 차리는지라. 유공 부부며 한림과 인형이 매우 기뻐하여 그 즐거움은 이루 측량하지 못할러라. 노부인이 즉시 의복을 갈아입히니, 전일 보던 인향과 인함이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이 소문이 평안도 일경에 자자하니, 일가친척들이 신기하게 여김은 물론이요 일읍에 노소 부인이 구경오는 자가 구름 같더라. 인형이 두 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에 대한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못내 좋아라 춤을 추더라.

이러구러 세월이 여류하여 어언간 원려(遠慮)가 지나매 유공 부부 즉시 장 승지 택에 통혼하여 인형을 혼인시키니 장 소저의 아리따운 태도가 선녀 같은지라. 유공이 즉시 또 택일하여 한림과 인향 소저의 혼례를 지낼새 일가친척이며 동네 남녀 빈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

- 작자 미상, 「김인향전」 -

* 감소고우: 감히 밝혀 아뢰.

* 흠향: 신명(神明)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39.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형은 한림과 달리 인향의 옷을 지은 솜씨에 감탄했다.
- ② 인형은 한림으로부터 인향과 인함의 재생 소식을 들었다.
- ③ 한림이 심천동에 갈 때 한림의 부모는 그 이유를 몰랐다.
- ④ 한림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사들을 심천동에 데리고 갔다.
- ⑤ 한림은 제문을 통해 인향과의 연분을 이어 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모티프들은 서로 결합해 서사적 의미를 생성한다. 「김인향전」의 서사에는 전처의 소생이 계모와 갈등하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원한을 해소하는 계모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혼사 장애를 극복하고 혼인을 하는 혼사 장애 모티프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인물들의 노력으로 혼사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 ① 한림이 인향에게 제물을 올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데서 계모에 대해 남아 있는 인향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한림과 인향의 혼인에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군.
- ② 한림이 자신을 위한 의복을 인향이 지어 놓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데서 인향이 죽은 혼사 장애의 상황에서 그가 인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림이 인향과의 인연을 이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인향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인향이 한림의 노력을 통해 희생하고 혼인을 하는 데서 계모에 의해 초래된 비극적 사건의 해결과 혼사 장애의 극복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인향이 계모의 누명을 애매히 쓰고 죽었다고 한림에게 말한 데서 인향과 계모 간의 갈등이 혼사 장애의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41.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인향은 한림에게 자신을 위로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 ② ㉠에서 인향은 혼백으로 의지할 곳 없이 쓸쓸하게 지냈던 처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에서 인향은 자신의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 증표를 한림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④ ㉡에서 인향은 한림의 정성으로 자신이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림에게 전하고 있다.
- ⑤ ㉠, ㉡을 통해 인향은 자신의 재생을 위해 한림이 해야 하는 일을 일러 주고 있다.

42.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 ③ 사건의 빠른 전개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의 비약적인 변화를 감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이 초월적 세계에서 현실적 세계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늘,
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그늘,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늘 — 너에게서……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늘,
㉡ 오월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

이깔나무 — 네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가리니…….
— 김현승, 「오월의 환희」 —

(나)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 놓아 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 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 놓고
㉢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 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 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 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근거리는 생애를 벗어 놓아 보렴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 놓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 놓고
바람처럼 잘 씻긴 알몸으로 앉아 보렴
㉤ 더 걸어야 닿는 집도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 놓고
벚꽃 그늘처럼 청정하게 앉아 보렴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 삶
벌 때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알 것이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 이기철,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말줄임표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적 고뇌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성장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와 (나)는 모두 ‘그늘’을 제재로 삼고 있다. (가)에서 ‘그늘’은 ‘밝음’과 대립하지 않고 결합되어 신의 은총인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도 ‘그늘’이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나)의 ‘그늘’은 깨끗하고 순수한 곳으로,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 ① (가):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늘’이 ‘밝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 ‘그늘’을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는 ‘빛’은 신의 은총인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갈 수 있는 ‘이깔나무’의 ‘아래’는 ‘그늘’이 안식처가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 ‘청정하게’는 ‘벚꽃 그늘’이 깨끗하고 순수한 곳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 ‘우리 삶’이 ‘넉넉하고 싱싱해’진다는 것은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벚꽃 그늘’에서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군.

45.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 ② ㉡은 자기 성찰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찾은 기쁨의 상태를 의미한다.
- ③ ㉢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은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⑤ ㉤은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된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고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답안지

1 교시 국 어 영 역

학 교	고등학교
성 명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수험번호									
학교번호				학년	반		번호		
				3					
1	0	0	0	0	0	0	0	0	0
2	1	1	1	1	1	1	1	1	1
3	2	2	2	2	2	2	2	2	2
4	3	3	3	3	3	3	3	3	3
5	4	4	4	4	4	4	4	4	4
6	5	5	5	5	5	5	5	5	5
7	6	6	6	6	6	6	6	6	6
8	7	7	7	7	7	7	7	7	7
9	8	8	8	8	8	8	8	8	8
0	9	9	9	9	9	9	9	9	9

감독관
확 인

서명 또는 날인

반, 번호 등의 표기가 정확하지 반드시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빈칸없이 왼쪽부터 기재)

ㄱ	가	ㄴ	나	ㄷ	다	ㄹ	라	ㅁ	마	ㅂ	바	ㅅ	사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ㄴ	나	ㄷ	다	ㄹ	라	ㅁ	마	ㅂ	바	ㅅ	사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ㄷ	다	ㄹ	라	ㅁ	마	ㅂ	바	ㅅ	사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ㄹ	라	ㅁ	마	ㅂ	바	ㅅ	사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ㅁ	마	ㅂ	바	ㅅ	사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ㅂ	바	ㅅ	사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ㅅ	사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ㅈ	차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ㅊ	차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ㅋ	카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ㆁ	안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ㅇ	아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사포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뒷면의 수험생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번	답	란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문번	답	란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문번	답	란
41	1	2 3 4 5
42	1	2 3 4 5
43	1	2 3 4 5
44	1	2 3 4 5
45	1	2 3 4 5

제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체험 학습 때 저희 천문대에 오셔서 별을 관측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대답을 듣고) 천체 망원경으로 별자리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체 망원경이 없었던 조선 시대에도 하늘을 관측해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응을 보고) 잘 모르는 학생이 많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는 조선 건국이 천명에 따른 것임을 밝히기 위해 큰 비석에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새겼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겠어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컴퓨터로 재현한 것입니다. (화면의 글자들을 가리키며) 여기 '천상(天象)'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하늘의 형상을 뜻합니다. 옆의 '열(列)'은 무슨 뜻일까요? 펼쳐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次)'와 '분야(分野)'는 구획을 나눠 체계적으로 별을 표시했음을 의미합니다.

제목 바로 아래를 보시면, 가운데에 '天'이 표기된 원형의 중성기가 있습니다. 중성기는 24절기의 황혼과 새벽에, 남중하는 별자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에 따른 별의 위치로 밤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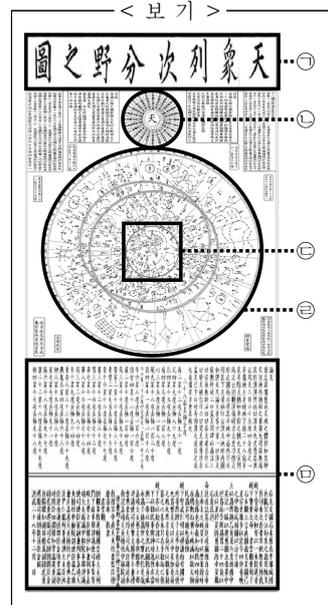
(화면을 가리키며) 천문도 중앙에는 원형의 별 그림인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문대에서 봤던 별자리가 보이시나요? (반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찾으셨군요. 그럼 지난번에 직접 관측했던 북극성도 잘 찾으셨겠네요. 여기 북극성을 중심으로 작은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원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화면을 바꾸며) 이 부분은 성도의 외곽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별들을 보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한 예로, 여기 경계선 주변의 두 별을 보십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이 차이는 별의 밝기가 다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별을 모두 동일한 크기로 표시한 동시대 중국의 천문도와 다른 점입니다.

성도의 아래에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천문을 관측해 중성을 바로잡는 것은, 요와 순의 정치를 본받는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천문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하늘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절기를 알리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천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선조들의 열과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을 시작할 때 강연 순서를 미리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의 흐름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② 질문을 던져 청중이 강연자와 다른 관점에서 강연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의 변화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강연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마무리하여 강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보기>는 강연에서 활용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글자들을 가리키며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② ㉡의 가운데에 있는 글자를 언급하며 밤의 시각을 알기 위해 중성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③ ㉢을 확대해 보여 주며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 년 내내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의 범위가 성도에 그려져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④ ㉣의 외곽 경계선 주변의 별들을 확대해 보여 주며 성도와 동시대 중국 천문도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 ⑤ ㉤의 일부를 인용하며 선조들이 천문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제시하였다.

3. 다음은 강연을 듣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생 1: 천체 망원경 없이 하늘을 관측했다니 놀랍네.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또 어떤 기준으로 '차'와 '분야'의 구획을 나누었는지도 알아봐야겠어.

○ 학생 2: 조선 시대에 별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천문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그런데 '남중', '중성' 같은 말의 의미가 궁금했는데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웠어. 이 말들의 의미는 따로 찾아봐야겠어.

○ 학생 3: 태조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어. 천문이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

- ① '학생 1'은 강연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강연 내용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강연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강연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강연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7기 (가)는 도서부원들 간의 토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안내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도서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 독서 대화'의 참여 인원이 제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줄었어. 오늘 토의에서는 이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학생 2: 작년에는 모든 모둠에서 읽어야 할 도서가 한 권뿐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 선정 도서의 내용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은 독서 대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야.

학생 3: 맞아. 그리고 홍보의 부족도 참여가 적었던 이유라고 생각해. ㉡ 작년에는 도서관 앞 게시판에만 일주일 정도 안내문을 붙여 놓았거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독서 대화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거야.

학생 1: ㉢ 선정 도서가 한 권밖에 없었고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야겠구나. 이밖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

학생 3: 작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화제가 잘 맞지 않아 대화가 산만하게 이루어져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어.

학생 2: ㉣ 우리 모둠에서도 화제가 잘 맞지 않아 책의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

학생 1: ㉤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먼저 책 선정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

학생 2: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도서를 선정 도서에 포함해 주는 것은 어때?

학생 3: 그러면 선정 도서가 다양해지겠지만, 학생들의 선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독서 대화를 위한 모둠을 꾸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 도서부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추천을 받고, 추천 받은 도서들 중에서 세 권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어. [A]

학생 2: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네. 그렇게 세 권을 선정하도록 하고, 세 권 중 어떤 책을 선택했는지 기입하도록 참가 신청서를 만들자.

학생 1, 3: 그래, 좋아.

학생 1: 모둠별로 독서 대화를 할 때에, 화제를 서로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 3: 우리 도서부에서 선정 도서별로 화제를 미리 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학생 2: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할 거야. 우리가 제시한 화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것이라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학생들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B]

학생 3: 그게 좋겠다. 그러면 질문을 중심으로 모듬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면 되겠어.

학생 1: 홍보가 부족했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학생 2: 학교 신문에 안내문을 실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내가 초고를 써 올게.

학생 1, 3: 그래. 초고를 써 오면 다 같이 모여 수정하자.

(나)

'○○ 독서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우리들의 소중한 추억이 될 독서 대화

여러분, 좋은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지 않은가요? 도서부에서는 매년 '○○ 독서 대화'를 진행하여 책 속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일 금요일 17시에 도서관에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작년과 달리 선생님과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도서부에서 세 권의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독서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월 □일까지 도서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신청서에 꼭 기입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독서 대화'에 참여를 신청한 분들은 선택한 책을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행사 3일 전까지 도서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중심으로 모듬을 구성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독서 대화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 저희가 준비한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토의에서 논의할 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② ㉡: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③ ㉢: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④ ㉣: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⑤ ㉤: 토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5.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학생 3'이, [B]에서는 '학생 2'가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학생 2'가, [B]에서는 '학생 3'이 상대 의견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학생 2'가, [B]에서는 '학생 3'이 상대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상대 의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A]에서와 달리 [B]에서는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하며 자신의 제안을 수정하고 있다.
- ⑤ [B]에서와 달리 [A]에서는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6. 다음은 '학생 2'가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올해와 작년 독서 대화의 차이점 제시 ㉠
- 독서 대화에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 제시 ㉡
- 독서 대화를 위해 선정할 도서의 분야 제시 ㉢
- 독서 대화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의 준비 사항 제시 ㉣
- 독서 대화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 제시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되고 과정에서 나는 대화이다. 이를 참고해 ㉡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1: 마지막 부분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나눔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추가하도록 하자.

학생 3: 부제의 내용을 활용하면서 함께한다는 의미도 드러 내면 더욱 좋을 것 같아.

- ① 책을 읽으며 독서 대화를 위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보세요. 책을 깊이 읽고 내면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② 도서부는 독서 대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가 준비한 행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③ 누구나 책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④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⑤ 한 권의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넓고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경험은 확장 시점의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독서 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일기

○○로부터 최근에 겪은 일을 들었다. ㉠ 친구 관계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잠시 썼다가 지웠던 글이 △△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 난처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잊힐 권리'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 학급 친구들 중에는 잊힐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친구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학급 신문에 잊힐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 전체 응답자 중 70%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그리고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널리 퍼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년 연속 67%, 69%, 73%로 증가했다. ... (중략) ...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에 ㉢ 잊힐 권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런데 ㉣ 이 법률에서는 현재 잊힐 권리를 소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중략) ... ㉤ 전문가들은 현실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법률 전문 잡지 -

(다) 학생의 초고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남겨 놓은 개인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흔적'의 노출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상에서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를 막기 위해서 '잊힐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잊힐 권리는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과거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가령 A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글, 사진, 동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A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명한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조항이 없다. 한편 사생활 침해라고 소명하기는 어렵지만 삭제하고 싶은 정보가 존재하는데, 그럴 때에 삭제할 법적인 방법이 없다. 이처럼 현재는 잊힐 권리에 대한 보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인터넷을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그에 따라 개인의 사진이나 자유로운 생각 등이 여러 인터넷 공간에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주로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 사진첩이나 일기장 등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여러 인터넷 공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기록들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잊힐 권리의 적극적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권리들보다 개인의 존엄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찬성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면 더욱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8. (가)의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 ② ㉡을 고려해, ‘잊힐 권리’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 ③ ㉢을 고려해, ‘잊힐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을 제시한다.
- ④ ㉣을 고려해, ‘잊힐 권리’에 대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 ⑤ ㉣을 고려해, ‘디지털 흔적’을 삭제하는 기술의 한계로 잊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② ㉡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원치 않는 개인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 ③ ㉢의 내용을 찾아,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 ④ ㉣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한계를 제시했다.
- ⑤ ㉣를 일반화하여, 인터넷 공간이 우리 삶의 편의를 높여 주는 만큼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적인 기록들 중에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 후보자의 디지털 흔적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디지털 흔적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성을 검증한다면, 개인 정보를 검열의 도구로 악용하게 될 것이다.
- ② 법적 장치를 통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까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은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 ③ 디지털 흔적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각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흔적을 더 많은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④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자신의 표현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 ⑤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이 통제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1. <보기>의 ㉠~㉣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 발음을 하며 발에 ㉡ 발힌 별을 보았다.
- ㉢ 술한 시련을 이겨 내 승리를 ㉣ 굳혔다.

- ① ㉠에서는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② ㉠에서는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트’이 연음된다.
- ③ ㉡와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④ ㉡와 ㉢에서는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와 ㉣에서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는’, ‘-(으)ㄹ’ 등으로, 이들이 용언의 어간에 붙으면 관형절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분류된다.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과, 그렇지 않은 관형절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처럼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대표적인 관형사형 어미는 ‘-(으/오)ㄴ’과 ‘-(으/오)ㄹ’로, 각각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관형절에서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ㄴ’ 앞에 선어말 어미 ‘-느-’를 붙여 나타냈다. 예컨대 ‘八姪女の 기론 찻드리 모즈랄썩(팔체녀가 길은 찻물이 모자라므로)’에서 ‘八姪女の 기론’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고, ‘주글 싸라미어니(죽을 사람이니)’에서 ‘주글’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 관계 관형절이다. 그리고 ‘本來 求ᄃᆞᆫ 밋 습 업다(본래 구하는 마음 없었습니다)’에서 ‘本來 求ᄃᆞᆫ’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난 동격 관형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ㄴ’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곧 ‘-ㄴ’이 붙은 절 뒤에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없는 상태로, ‘그뵈 혼 조초(그대 한 것 좃아)’에서 ‘그뵈 혼’을 예로 들 수 있다. ‘혼’[ᄃᆞᆫ-+-오-+-ㄴ]에서 선어말 어미 뒤에 쓰인 ‘-ㄴ’은 ‘-ㄴ 것’ 정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威化 振旅ᄃᆞᆫ시노로(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킨 것으로)’에서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ㄴ’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도 있었다. ‘ᄃᆞᆫ시노로’[ᄃᆞᆫ-+-시-+-ㄴ+오로]는 ‘-ㄴ’ 바로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 예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a~c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福이라 호ᄃᆞᆫ[ᄃᆞᆫ-+-오-+-ㄴ+을] 나스라 (복이라 한 것을 바치러)
- b. 智慧 너비 비ᄃᆞᆫ[비취-+-ㄹ] 느시오 (지혜가 널리 비칠 조짐이오)
- c. 法 즐기ᄃᆞᆫ[쥬-+-이-+-ㄴ-+-ㄴ] 밋스미 잇던덴 (법 즐기는 마음이 있더라면)

- ① a의 ‘호ᄃᆞᆫ’에서 조사가 어미 ‘-ㄴ’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a의 ‘호ᄃᆞᆫ’에서 ‘-ㄴ’은 ‘-ㄴ 것’으로 해석되며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b의 ‘비ᄃᆞᆫ’에서 ‘-ㄹ’을 통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b와 c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절 뒤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b와 c에 있는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13. 윗글을 근거로 <보기>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탐구 자료]

- ㉠ 험찬 합성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 누나는 ㉡ 자동차가 전복된 기억을 떠올렸다.
- 나는 ㉢ 형이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 ㉡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변함없다.

[탐구 과정]

동격 관형절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 [A]

↓ 예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요 → [B]

↓ 예

[C]

- | | | | |
|---|------------|------------|------------|
| | <u>[A]</u> | <u>[B]</u> | <u>[C]</u>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그곳에서는 빵을 아주 쉽게 구울 수 있다.
 - ㄴ. 그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잘 잤다고 말했다.
 - ㄷ. 멋진 형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지어 왔다.

- ① ㄱ의 ‘그곳’과 ㄴ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 ② ㄱ의 ‘아주’와 ㄴ의 ‘잘’은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 ③ ㄱ의 ‘구울’과 ㄷ의 ‘지어’는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이다.
- ④ ㄱ의 ‘쉽게’와 ㄷ의 ‘멋진’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⑤ ㄴ의 ‘가’와 ㄷ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15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남북한의 사진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와 (나)의 자료를 비교해 볼까요?

(가) 표준국어대사전

대로¹ 「의존 명사」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본 대로.
(2)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라.
(3)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즉. 『뜸나는 대로 찾아 보다.

대로¹⁰ 「조사」 (체언 뒤에 붙어)
(1)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나) 조선말대사전

대로⁶ [명](불완전)
(1) (앞에 오는 단어가 뜻하는것과) 다름없이. 『명령대로 집행하다.
(2) (앞에 오는 단어가 나타내는 대상이나 현상과) 같은 모양대로. 『책이 그가 펼쳐놓은대로 있었다.
(3) 앞에 온 단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즉즉. 『생각나는대로 적다.
(4) 《서로 구별되게 따로따로》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초소는 달랐다.

* 불완전: 의존 명사를 뜻하는 말.

- ①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¹⁰'과 (나)의 '대로⁶'은 앞말에 붙어 사용되었습니다.
- ②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¹⁰-(1)'은 (나)의 '대로⁶-(4)'와 쓰임이 유사합니다.
- ③ 품사 정보를 보니 (가)의 '대로¹', '대로¹⁰'과 (나)의 '대로⁶'은 문장의 첫머리에 쓰일 수 없는 말입니다.
- ④ 뜻풀이를 보니 (가)의 '대로¹', '대로¹⁰'과 (나)의 '대로⁶'은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말입니다.
- ⑤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길을 가다.'의 '대로'는 (가)에서는 조사이지만, (나)에서는 명사입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아득한** 뱃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승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갈나무의 **슬피하는**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붙드든**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나와 **울든**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모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쌈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① **아득한** 새 뱃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뱃 한울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
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

* 오로촌: 오로촌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멧돌: 멧돼지.
* 솔론: 솔론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앞대: 평북 내지 평안도를 벗어난 남쪽 지방. 황해도·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에 이르는 각지.

(나)

대숲 바람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흐르는 게 아니라요
서느라운 모시옷 물맛 나는 한 사발의 냉수물에 어리는
우리들의 맑디맑은 사랑

봉당 밑에 깔리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고여 흐르는 게 아니라요
대패랭이 끝에 까부는 ① **오백** 년 한숨, 샷갓머리에 후득이는
밤 쏘낙 빗물소리.....

머리에 흰 수건 쓰고 **죽창을 깎던, 간 큰 아이들**, 황토 현을
넘어가던
정소리 팽과리 소리들.....

남도의 마을마다 질펀히 깔리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흰 연기 자욱한 모닥불 그을음 내, **몽당 빗자루**도 개 터럭도
보리 승년도 땀별도
 열개빗도 쇠그릇도 **문둥이 장타령**도
 타는 내음.....

아 창호지 문발 틈으로 스미는 남도의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눈 그쳐 뜨는 새벽별의 **㉠ 푸른 숲소리**, 청정한 청정한
 땀뺏파리의 **㉡ 맑은 숲소리**.

- 송수권, 「대숲 바람소리」 -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각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와 (나)는 화자가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북방에 간 화자가 명멸하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다. 화자는 축소된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현실과 연결하여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수탈과 억압에 맞서고자 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① (가): 2연의 ‘슬퍼하든 것’, ‘붙드든 말’, ‘울든 것’ 등은,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면서 벌여졌을 이별의 정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상상한 것이겠군.
- ② (가): 3연의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는 것은, 축소된 영토인 ‘먼 앞대’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③ (가): 6연의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북방으로 간 화자가 과거의 역사를 자신이 처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연결하여 느낀 상실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 3연의 ‘죽창을 깎던, 간 큰 아이들’, ‘징소리 땀과리 소리들’은, 억압된 현실에 저항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이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 4연의 ‘몽당 빗자루’, ‘보리 승년’, ‘문둥이 장타령’ 등은, 남루한 삶 속에서도 민중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겠군.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으로의 변주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에서 ㉡으로의 변주는 과거에 이어 현재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 ㉢로의 변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하여 화자가 새롭게 인식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화자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양태백은 첩 송녀에게 미혹되어 부인과 세 남매를 내쫓는다. 부인은 병을 얻어 죽게 되고, 세 남매는 양태백을 찾아간다. 양태백은 송녀의 뜻에 따라 세 남매를 노복처럼 부리다가, 수년이 지나 장녀인 채옥을 송녀의 사촌과 결혼시키려 한다. 채옥이 이를 거절하자 양태백은 세 남매를 모두 내친다.

채옥 등이 또 불의지경을 당하매 더욱 망극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정신을 차려 생각하되, ‘다시 영산으로 갈밖에 없다.’ 하고, 인하여 풍을 이끌고 영산으로 찾아간즉, 할미가 이미 죽었는지라. 흥격이 막혀 모친 묘하에 가 일장통곡하고, 일신이 고달파 잠간 졸더니 문득 모친이 곁에 앉으며 왈, “너희 나를 보려 하거든 옥룡전을 찾아오라.”

하거늘, 채옥 등이 놀라 깨어 채옥하다가 생각하매, ‘모친 영혼이 아무리 옥룡전을 찾아오라 하신들, 십여 세 여아가 어찌 누만 리를 찾아가리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지하에 가 모친을 뵈옵만 같지 못하다.’

하고 자결코자 하더니, 다시 생각하매, ‘나는 죽어 관계치 않거니와, 어린 동생을 어찌 차마 버리리오.’

하고, 설은 마음을 억제하고 동녘을 바라보니 버들가지 난만한지라. 그것을 취하여 먹은즉 적이 요기되매, 다시 모친 묘에 하직하고 동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른즉 산수는 기구하고, 송죽은 소슬하여 슬픈 마음을 돕는 곳에 일색이 저물고 인적이 끊인지라.

서로 붙들고 앉았다가 동편을 바라보니 한 누각이 있거늘, 마음에 반가이 여겨 찾아들어 가니, 사람은 없고 전상(殿上)에 일위 부인이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몸에 황포를 입고 앉았으니, 보기에 가장 거룩한지라. 나아가 재배하니, 부인 왈, “너희 어떤 사람으로 이 심산에 들어왔느냐?”

채옥이 대왈,

“소녀 등이 당금 승상 양태백의 자녀러니, 부친이 애첩 송녀의 참소를 듣고 모친과 소녀 등을 내치시매, 모친은 영산에서 기세(棄世)하사 동해 승산 옥룡전으로 가시고 소녀 등이 방금 찾아가다가 이곳에 이르렀사오니, 바라건대 부인은 어여뻐 여기사 앞길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이다.”

부인이 듣고 가궁히 여겨 시녀를 불러 음식을 가져오라 하여 주거늘, 채옥 등이 받아먹기를 다하매, 부인 왈, “송산이 여기서 만 사친 리나 되니 너희 어찌 가려 하느냐. 오늘은 이미 저물었으니 이곳에서 머물고 명일에 떠나가라.” 채옥 등이 사례 왈,

“죽게 된 인생을 선찬으로 먹이시고, 또 앞길을 가르쳐 주시니, 은혜 태산이 낮사옵거니와, 감히 묻잡나니 부인 칭호를 듣고자 하나이다.”

부인 왈,

“나는 이 산 지키는 후토부인이노라.”

하고, 인하여 간 데 없거늘, 채옥 등이 대경하여 살피본즉, 누각은 없고 나무 아래 바위 밑에 있는지라.

그제야 산신인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배사하고, 그 바위 밑에서 밤을 지내더니, 문득 큰 범이 발톱을 세우며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물려 하거늘, 채옥 등이 대경실색하여 죽는 줄로 알아 이에 담을 크게 하고 경계 왈,

〔“우리 남매 물욕을 탐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서모의 [B] 참소를 만나 모친을 여의고, 우리들이 길로 헤매이다가 이 곳에서 삼 남매 목숨이 진할 줄 어찌 알았으리오.”

하며 대성통곡하니, 그 범이 듣는 체하다가 한 번 끈두치더니, 문득 중이 되어 채옥 등을 붙들고 왈,

“나는 이 산 신령이더니, 너희 정성을 시험코자 하여 내 변하여 범이 되어 너희를 놀래이러니, 도리어 불안하도다.”

하고, 바람을 열어 실과를 내어 주며 왈,

“이것을 먹으면 기갈을 면하리라.”

하거늘, 채옥 등이 받아먹은즉 정신이 쇠락*한지라 끓어 사례 왈,

“어린 인생을 이같이 관대하시니 은덕이 망극하거니와 동해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 결초보은하리이다.”

그 중이 왈,

“너희 소원을 아노니, 이 고개를 넘어가면 천황보살이 있을 것이니, 거기 가 지성으로 빌면 길을 가르쳐 줄 것이며, 부디 조심하여 가라.”

(중략)

석불이 가로되,

“네 말이 심히 가공한지라 길은 가르쳐 주려니와, 네 능히 득달할소냐.”

채옥 왈,

〔“십여 세 아이로 누만 리 득달함을 어찌 기필(期必)하리오 [C] 마는, 다만 주야 원하는 바는 한 번 모친을 뵈옵고 죽고자 하니, 가다가 길에서 죽사와도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석불 왈,

“네 정성이 감천(感天)할지라, 네 모친을 만난 후 돌아와 내 제자 됨이 어떠하뇨.”

채옥 등이 왈,

“모친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 가이없삽거든, 하물며 제자를 삼고자 하시니, 이는 가위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오니 어찌 거역하리이까.”

석불 왈,

“그러하면 내 낙화*를 주나니 이를 가지고 내 말을 자세히 들어 행하라. 이곳에서 동으로 삼십 리를 가면 돌문 돌이 있오되, 좌편은 서양국으로 가는 길이요, 우편은 용궁으로 가는 문이라. 낙화를 흔들면 우편 문이 열릴 것이니, 그 문에 들어 십 리쯤 가면 길을 막는 선관(仙官)과 짐승이 있을 것이니, 낙화를 흔들며 여차여차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구하여 줄 선관이 있을지라. 이렇듯 하여 자연히 옥룡전에 이르러 너의 모친을 볼 것이니, 부디 조심하여 가라.”

하거늘, 채옥이 절하러 몸을 굽힐 즈음에 잠을 깨니 남가일몽이라.

몽중의 수작이 명백하고, 또 곁에 낙화가 놓였거늘 채옥이 기이히 여겨 천황보살의 영험함에 감격하여 즉시 백배 하직하고, 인하여 동으로 삼십 리를 가서 과연 돌문 돌이 있거늘, 낙화를 한 번 흔들니 그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 작자 미상, 「양풍전」 -

* 쇠락: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마음속으로 간절하지만 감히 청하지 못한 것이나 본디부터 바라던 바.

* 낙화: 모란의 별칭.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채옥은 화관과 황포를 통해 후토부인이 산신임을 알아차렸다.
- ② 범으로 나타난 신령은 시험을 통해 채옥 남매가 지닌 능력을 알아보고자 했다.
- ③ 집에서 쫓겨난 채옥 남매는 영산에 가 할미가 죽은 것을 알고 절망감을 느꼈다.
- ④ 채옥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자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 ⑤ 석불은 채옥 남매가 자신의 말대로 용궁으로 가더라도 옥룡전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양풍전」은 환상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환상의 여로’가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 여로는 인간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 난관이 있어 이르기 힘든 천상계를 향해 가는 것으로 인간계와 천상계를 매개하는 서사적 장치들 통해 비롯되고 있다. 여로에서 인물들은 당대 서민들이 복을 기원했던 여러 초현실적 존재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성이 지극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서민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여로에서 현실성과 교섭하고 있는 환상성은 인물들이 여로에서 마주치게 되는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① ‘옥룡전’을 ‘누만 리’ 떨어져 있어 득달하기 어려운 곳으로 설정한 것은 천상계가 인간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르기 힘든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채옥 등’이 후토부인이 제공한 ‘음식’과 ‘범’이 준 ‘실과’를 받은 것은 환상성이 여로의 난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채옥이 모친으로부터 ‘옥룡전을 찾아오라’는 말을 들은 꿈은 인간계와 천상계를 매개하며 환상의 여로를 시작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석불’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행한 행동으로 ‘채옥 등’이 ‘석불’의 인정을 받은 것은 정성이 지극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서민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채옥이 꿈에서 ‘석불’로부터 받은 ‘낙화’를 ‘석불’이 알려 준 대로 현실에서 사용하여 ‘돌문’이 열리는 것은 환상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21.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도움이 필요한 인물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다.
- ② [C]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느낀 인물의 한을 표출하고 있다.
- ③ [A], [B]는 인물들 간의 대립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 ④ [A], [B]는 인물들이 겪은 일을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A], [C]는 인물이 품고 있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야란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한쪽 눈의 시야는 시선을 중심으로 코 쪽으로 60°이고, 귀 쪽으로 100°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두 눈의 시야는 약 200°가 된다. 그러나 물체가 두 눈의 시야에 있다고 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120°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두 눈의 시야가 겹치지 않는 양 귀 쪽 40°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경우 '보는 것'은 두 눈이 하나의 물체를 주시하는 것이다. 물체를 주시할 때 물체의 상은 각막과 동공을 거쳐 안쪽 막인 망막에 맺히는데, 주시한 두 눈의 시선을 물체 쪽으로 돌려 물체를 똑바로 응시하여 물체의 상이 동공의 중심을 통과해 망막의 황반에 맺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주시하는 시선이 주시선이 되고 응시하는 물체가 주시점이 된다. 망막에는 시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어 물체의 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망막의 황반에는 시세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물체를 뚜렷하게 보려면 물체의 상이 두 눈의 황반에 맺혀야 한다.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하거나 움직이면서도 물체를 주시할 수 있는 것은 눈 운동을 통해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게 하기 때문이다. 눈 운동은 눈알 바깥에 붙어 있는 4개의 끈은근과 2개의 빗근이 뇌 신경의 지배를 받아 ㉠ 눈알 전체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동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각 눈의 주시선을 코 쪽으로 모으는 폭주 운동이 필수적이다. 이때 폭주 운동의 양을 폭주량이라고 하고 폭주량은 미터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미터각은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에 대한 역수, $\frac{1}{\text{물체까지의 거리}}$ 로 표시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동공 간의 거리인 동공중심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같더라도 실제 폭주량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폭주량을 알려면 미터각에 동공중심거리를 곱한 값인 프리즘디옵터를 구해야 한다. 만약 동공중심거리가 6cm인 사람이 1m 떨어져 있는 물체를 주시한다면 이때의 미터각은 $\frac{1}{1m} = 1\text{MA}$ 이 된다. 그리고 1MA에 동공중심거리인 6cm를 곱하면 프리즘디옵터는 6△가 된다.

그런데 눈 운동에 이상이 생겨 주시선이 주시하려는 물체를 향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편위가 일어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발생하여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복시는 크게 생리적 복시와 사시성 복시로 나눌 수 있는데 생리적 복시는 피로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며, 사시성 복시는 뇌 신경의 이상으로 끈은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생긴다.

[A]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위되어 나타나는 복시를 비교차성 복시라고 하고, 귀 쪽으로 편위되어 나타나는 복시를 교차성 복시라고 한다. 복시인 경우에는 물체의 상이 망막의 황반에 맺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이 비교차성 복시라면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위되기 때문에 물체의 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코 쪽으로 치우쳐 맺힌다. 하지만 뇌에서는 오른쪽 눈이 편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주시선이 실제보다 귀 쪽으로 향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의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생리적 복시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편위가 발생한 눈을 가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반면 사시성 복시는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복시에 따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프리즘은 두 개 이상의 평면이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는 투명체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프리즘의 평면이 교차하는 점을 꼭지, 교차각을 꼭지각, 꼭지의 반대쪽을 기저라고 하는데,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스넬의 법칙을 따라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굴절률이 n인 소재의 직각 프리즘이 공기* 중에 있다고 가정할 때 굴절률(n)에서 1을 뺀 값에 꼭지각(α)을 곱하면 빛의 꺾임각(δ)을 알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직각 프리즘을 통과하여 꺾인 빛이 1m 떨어진 평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연장선에서 수직으로 1cm 간격에 있을 때의 꺾임각을 1△라 한다. 만일 오른쪽 눈의 주시선이 귀 쪽으로 편위되어 폭주량이 작다면 빛이 프리즘 렌즈를 통과할 때 코 쪽으로 굴절되게 하여 차이 나는 폭주량만큼 꺾임각을 형성하여 주시선을 바꿀 수 있다.

*공기의 굴절률은 1이라고 가정함.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미터각은 커진다.
- ② 끈은근과 빗근은 뇌 신경에 의해 움직임이 통제된다.
- ③ 생리적 복시는 피로가 회복되면 치유될 수 있다.
- ④ 프리즘은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⑤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는 120°이다.

23. 빛깔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는 오른쪽 눈에 사시성 복시가 있다. 검사 결과 동공중심거리는 6.4cm이고, 1m 떨어져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주시선이 정상일 때보다 귀 쪽으로 3.2cm 편위되어 있다.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주시선을 교정하려 한다.

- ① 굴절률이 4.2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교정이 되었다면 직각 프리즘 렌즈의 꼭지각은 1△이겠군.
- ② 주시선의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직각 프리즘 렌즈를 굴절률이 큰 소재로 만들수록 꼭지각을 작게 할 수 있겠군.
- ③ 꺾임각이 3.2△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한다면 1m 떨어져 있는 물체의 상이 오른쪽 눈의 황반에 맺히겠군.
- ④ 직각 프리즘 렌즈를 통해 주시선을 정상적으로 교정하면 폭주량은 6.4△보다 커지겠군.
- ⑤ 곧은근이나 빳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차성 복시라고 할 수 있겠군.

24.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왼쪽 눈이 ㉠ 복시라면 주시하려는 물체의 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에 맺히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 위치보다 ㉢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 | | | | |
|---|------|-----|-----|
| | ㉠ | ㉡ | ㉢ |
| ① | 교차성 | 코 쪽 | 오른쪽 |
| ② | 교차성 | 귀 쪽 | 왼쪽 |
| ③ | 비교차성 | 코 쪽 | 왼쪽 |
| ④ | 비교차성 | 코 쪽 | 오른쪽 |
| ⑤ | 비교차성 | 귀 쪽 | 왼쪽 |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② 망막에서 황반이 편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복시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동공중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 ⑤ 폭주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재가 파탄에 직면한 것은 우묵배미의 맨 꼭대기 부자집 김 씨네에서 어쩔 수 없이 맨 아랫집 불들네로 방을 옮기면서 부터였다. 불들네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들은 박살이 나기 일쑤였고, 그런 이유 말고도 매달 털미를 물고 늘어지는 생활비의 중압, 게다가 여성지 연재인데 설마 어쩌랴 싶은 다소 시건방진 속계산이 소설의 치열성을 많이 빼앗아가 버린 때문이었다. 해서 「달래강」의 장편 연재는 그 희석되고 석고화된 관념의 특세와 원고 매수나 채우려는 군더더기로 인하여

①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으로 끝장을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의 식어 빠진 「달래강」의 연재를 『소설계』에까지 끌고 가 2부를 써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1년 안에 장편 하나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잡지사로부터 미리 타 쓴 계약금 2백만 원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소설을 끄적이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었다.

독서를 게을리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였다. 책들은 반도 채 못 읽어서 방바닥을 굴러다니다 관심권 밖으로 사라졌고, ㉠아랫마을 출입이 잦아지고 쓸데없는 술추렴이 늘고, 공연히 남의 집 우사를 들랑거리며 송아지 자랑이나 떠벌리고..... 위기였다. 이거 낼 방법이 없었다.

아내에게는 감히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내면서 혼자 곰곰이 또 이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집안의 시끌썩한 분위기 탓이었다. 그들을 한 가구씩 차례차례 내보내야 했다. 안주인에게 애당초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 한두 가구를 내보내라고 종용했다.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달이 차면 정 씨를 내보내고 쌀값에 안채를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안주인은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탄 방들도 방세가 네댓 달씩 밀려 있었고 또 그들은 선뜻 방을 비워 줄 사람들이 못 되었다.

② 아니었다. 그것은 분위기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쓸모없는 비계로 가득 찬 나의 대뇌 탓이었다. 더 이상 샘플을 저어 올릴 수 없는 나의 소설적 비재(非才) 탓이었다. 고갈되고 고갈된 나머지 나는 농부보다 못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

③ 아니었다. 그건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죄가 아니었다. 제2, 제3 장편이 연이어 안겨다 준 물질적 궁핍 때문이었다. 출판 경기의 지독한 불황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양가주망적 지식인의 황금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70년대 말기 정치경제 사회 현상의 전 분야에다 겹도 없이 진찰기를 들이댈 수 있었던, 저 끝 간 데 없이 치솟던 문학 종사자들의 야심을 일거에 잠재워 버리고 만 일련의 격변 때문이었다. 한차례의 폭설과 함께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겨울의 주인은 입에다 마스크를 대지 않고 함부로 거리를 나돌아 다니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을 것 등등의 몇 가지 시민적 준수 사항을 공개리에 엄격히 하달했다. 글을 쓰는 우리 동료들은 연신 아얏아얏 소리를 내며 흩어져 가고 있었다. 문인들의 발길이 뜸해진 광화문과 낙원동의 술집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은근히 걱정이었다. 광장을 잃은 급진주의자들은 피켓을 철수하고 지하로 강당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인세를 받으며 할랑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대작을 꿈꾸고 있던 몇몇 동지들은 어쩔 수 없이 끼니에 털미를 잡혀 천방지축 출판사로 기업체로 신문 연재로 대학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었다. 비평가와 신문 문화 면은 연일 작품 기근, 신인 부재를 속삭여 대고, 소설에의 기대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70년대가 막을 내리자 기대를 잃은 다수의 독자 대중은 도시락을 싸서 들로 산으로 전자오락실로 TV의 스포츠 화면 속으로 뒤돌아볼 새 없이 때를 지어 달아나고 있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나'는 여름 내내 고군분투한다. 겨우 이사를 하게 된 '나'는 절친인 '유 형'이 작품전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 급히 전시장을 찾는다.

“뭘, 대중대중 고르지. 그까짓 방 하나 구하는 걸 갖구선 뭘 그래? 방 구한다는 게 대체 언제부터야?”

말은 거칠고 화를 참느라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실 뜨끔했던 나는 슬쩍 농으로 받아들이 속셈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비난은 세찬 것이었다. 나는 이 야속한 친구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 주고 싶었으나 무안을 참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모인 간단한 술자리에서도 친구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친구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긴 것이었고, 그는 왜 친구 한 사람이 방 한 칸 때문에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던가를 이해해 보기를 어언간 싫어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원주 가기 전의 문막은 유 형의 고향이었고 그쪽에는 그의 고향 동료들이 많았다. 그가 문막 읍내에서 썩 떨어진 시골 마을에다 아틀리에를 마련한 것은 그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㉔가 비단 친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자가용을 굴리는 편한 상식인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일지도 몰랐다. 인간은, 특히 예술가는,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정한 초월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그에게 들려줄 용기를 나는 못 갖고 있었다. 그건 나 자신부터가 충분히 생생한 신념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였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㉔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놓인 이 구질구질한 지상의 눈물들을 생략해 버려야 한다고 그는 믿는 것일까? 그는 어쩌면 그까짓 방 한 칸 때문에 짙짙한 저 한여름의 고투가 한갓 생선 장수의 고민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이었을까. 친구가 던진 그 슬픈 말 한마디가 잠시의 실수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 박영한, 「지상의 방 한 칸」 -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집단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7.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㉒: 창작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대작을 쓰겠다는 꿈 대신에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문인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유 형의 태도는 상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짐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㉔: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에 놓인 고통을 외면해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유 형의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질적 곤궁, 정치적 격변, 그리고 대중문화의 범람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 하는데, 그것은 ‘지상의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형상화된다.

- ① 군더더기로 여성지의 연재 원고 매수나 채우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소설가로서의 치열성이 희석되어 버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나기 일쑤였던 붙들네에서의 생활은, 소설가로서의 존립을 위협받는 주인공의 열악한 상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땀 흘리며 보낸 시간들은, 현실의 열악함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소설에 대한 기대를 잃은 다수의 대중이 전자오락실과 TV의 스포츠 화면 등에 몰려들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 소설가로서 품었던 의욕을 약화시키는 상황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군.
- ⑤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에 대하여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주인공의 모습은,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을 외면해 버린 데서 오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29. ㉑와 ㉒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는 ㉒와 달리 창작과 관련된 인물의 자존감이 자기 성찰을 통해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㉒는 ㉑와 달리 인물이 추구해 온 예술 세계가 자신의 의식 속에서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㉑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㉒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㉑에 이어 ㉒를 제시하여, 인물이 작가로서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인 것에서 비판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㉑와 ㉒가 연결되면서, 자신의 창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30~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일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성·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양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이 쓰이는데, 그 중 정책 수립, 기업 관리, 의학 분야 연구, 마케팅 등에 널리 쓰이는 것이 연관성 분석이다. 마케팅 분야를 예로 든다면, 연관성 분석은 수집한 자료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하며, 연관 규칙은 ‘고객이 X를 사면 Y도 산다.’의 형태를 띤다. 이때 ‘고객이 X를 산다.’는 조건이 되고 ‘고객이 Y를 산다.’는 결과가 된다. 연관 규칙은 ‘X→Y’와 같이 조건과 결과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계학의 확률을 기반으로 한다.

연관성 분석을 통해 유용한 연관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연관성 측도의 기본은 발생 빈도로, 이와 관련한 주요 측도에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다. 먼저 지지도는 전체 거래에 대해서 조건과 결과에 있는 품목들이 함께 구매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X→Y’의 지지도는 X와 Y를 모두 구매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으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동시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는 다섯 가지의 품목만 취급하는 편의점에서 다섯 명의 고객이 한 번씩만 거래했다고 가정한 것이다. <표>에서 생수와 빵을 모두 산 경우는 다섯 번의 거래 중 두 번이므로, ‘생수→빵’의 지지도는 2/5(40%)이다.

고객	구매 품목
1	빵, 생수, 우유
2	빵, 휴지, 우유
3	빵, 세제, 우유
4	빵, 생수, 세제
5	생수, 휴지, 우유

<표> ‘빵→생수’의 지지도도 2/5이므로 ‘X→Y’와 ‘Y→X’의 지지도는 같다.

신뢰도는 조건의 구매가 발생하였을 때 결과의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다. 즉 ‘X→Y’의 신뢰도는 X와 Y를 모두 구매하는 거래의 수를 X를 구매하는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조건의 구매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의 구매가 많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표>에서 생수를 구매한 세 번의 거래 중에서 두 번만 빵을 샀으므로, ‘생수→빵’은 2/3(약 66.7%)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런데 ‘빵→생수’의 신뢰도는 2/4(50%)이다. 이처럼 ‘X→Y’와 ‘Y→X’의 신뢰도는 같지 않을 수 있다.

향상도는 어떤 연관 규칙에 대하여 조건 없이 결과가 일어날 확률보다, 조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더 향상되는지를 알려 주는 측도이다. 향상도는 신뢰도를 기대 신뢰도로 나눈 값이다. 기대 신뢰도란 ‘X→Y’에서 Y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이다. ‘X→Y’에서 향상도가 1이라는 것은 X와 Y의 구매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X→Y’에서 향상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확률이, 전체 거래에서 Y를 구매할 확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관 규칙은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연적 기회보다 우수하여 마케팅 전략을 ㉔ 세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반면에 ‘X→Y’에서 향상도가 1보다 작다는 것은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확률이, 전체 거래에서 Y를 구매할 확률보다 작다는 것이므로 이 연관 규칙을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상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의 연관 규칙을 만들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음의 연관 규칙은 결과에 ‘이다’ 대신에 ‘아니다’를 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관 규칙과 유

[A]

사하다. 예컨대 ‘X→Y’의 신뢰도가 30%이고, ‘X→Y’의 기대 신뢰도가 40%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X→Y’의 향상도는 3/4으로 1보다 작다. 따라서 이를 음의 연관 규칙, 곧 ‘X를 사면 Y를 사지 않는다.’로 전환하면, 신뢰도는 70%(100% - 30%)가 되고, 기대 신뢰도는 60%(100% - 40%)가 되므로 향상도는 7/6로 1보다 커지게 되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 분석은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연관 규칙의 형태로 주어지므로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기도 좋다. 그러나 분석하려는 품목의 수가 늘어나면 연관 규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방법으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을 제거하는 최소지지도 가지치기가 있다. 이는 지지도가 낮은 품목을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하위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여 품목들이 분석자가 임의로 설정한 최소지지도를 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관성 분석은 사건들의 발생 순서는 분석의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선후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이를 ㉕ 시차 연관성 분석이라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여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면, 이러한 연관성을 토대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거나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차 연관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나 순서를 알려 주는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 동일한 분석 대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 주는 분석 대상의 식별 정보도 필요하다.

30.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관성 분석에 쓰이는 측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시차 연관성 분석의 특징과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을 밝히고 있다.
- ③ 연관성 분석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연관성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분석 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3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관성 분석에서 분석하려는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면 연관 규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 ② 최소지지도 가지치기에는 지지도가 낮은 품목을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
- ③ 연관성 분석은 결과가 명확하고 유용한 연관 규칙의 형태로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 ④ 향상도가 1이라는 것은 조건과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 ⑤ 연관성 측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발생 빈도이다.

32. 밑글의 <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빵 → 생수'가 '빵 → 휴지'의 지지도보다 높은 것은 '빵'을 '생수'와 함께 구매한 경우가 '빵'을 '휴지'와 함께 구매한 경우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 ② '휴지 → 우유'의 신뢰도가 100%인 것은 '우유'를 구매한 모든 경우에 '휴지'를 구매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생수 → 빵'과 '생수 → 우유'는 '생수 → 휴지'보다 신뢰도가 높다.
- ④ '우유 → 생수'의 지지도와 '생수 → 우유'의 지지도는 같다.
- ⑤ '빵 → 세제'의 신뢰도와 '세제 → 빵'의 신뢰도는 다르다.

33. ㉠을 활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어느 병원에서 □□ 질환을 앓은 환자들을 추적하여, 이들 가운데 이전에 ○○ 질환을 앓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에는 □□ 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도 하도록 하였다.

㉡. 대형 유통 업체에서 10월 한 달간 라면과 계란의 판매대를 붙여 놓았을 때와 멀리 떼어 놓았을 때의 판매량을 조사하여, 멀리 떼어 놓았을 때의 판매량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두 상품의 판매대를 멀리 떼어 놓기로 결정했다.

㉢. 백화점에서 자사의 백화점 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TV를 산 고객들이 재방문하여 고성능 스피커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를 토대로 TV를 산 고객들에게 고성능 스피커에 대한 상품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회원들의 웹 페이지 방문 순서를 분석하여, 주로 'A 웹 페이지 → B 웹 페이지 → C 웹 페이지 → ……' 순으로 방문한다는 규칙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 경로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회원 전용 웹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34.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어느 매장에서 고객들이 팥빙수를 만들기 위해 구매한 팥(A), 인절미(B), 콩가루(C)의 전체 거래 정보에 대해 연관 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이를 통해 발견한 연관 규칙의 일부이다.

연관 규칙 (X → Y)	기대 신뢰도	신뢰도	향상도	
A → B	42.5%	55.6%	1.308	…… ㉠
B → C	40.0%	35.3%	0.883	…… ㉡
C → A	45.0%	50.0%	1.111	…… ㉢
:	:	:	:	

- ① ㉠의 연관 규칙에서 B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은 ㉡의 연관 규칙에서 A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보다 크다.
- ② ㉡의 연관 규칙에서 B를 구매했을 때 C를 구매할 확률은 전체 거래에서 C를 구매할 확률보다 작다.
- ③ ㉡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는 ㉢의 음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보다 크다.
- ④ ㉡의 연관 규칙이 ㉠의 연관 규칙보다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 유용하겠다.
- ⑤ ㉢의 연관 규칙을 음의 연관 규칙인 'A → C'로 전환하면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3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변호사는 그를 증인으로 세웠다.
- ②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
- ③ 과장은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데 공을 세웠다.
- ④ 목수는 목재를 잘 자르기 위해 톱날을 세웠다.
- ⑤ 우리 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통을 세웠다.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 자로 돌아 서천(西天)을 가리키니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秋氣)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의 들거고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의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한다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일 공생한다
 백곡의 이삭 패고 엮을 들어 고개 숙여

㉠ 서풍의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백설 같은 면화 송이 산호 같은 고추 다래
 처마의 닐었으니 가을별 명량하다

㉡ 안팎 마당 닭아 놓고 밭채 땅구* 장만하소
 면화 따는 다락기의 수수 이삭 콩 가지오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 다래 산파로다
 뿔뿔산의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 ㉞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 대어 쓰게 하소
명주를 끊어 내어 추양에 마전하고*
- 쪽 들이고 잇 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 ㉟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그 남아 마로 제어* 자녀의 혼수하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 -

*발제 망구: 농사 도구들.

*마전하고: 표백하고. *마로 제어: 재단하여.

(나)

㉑ 정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로난고
이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디잔디 속입 나니
만물이 화락(和樂)한디 우리 임은 어디 가고
춘기 든 줄 모로난고

삼월 삼일 날의

㉒ 강남서 나온 제비 왓노라 현신(現身)하고
소상강(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행화방초(杏花芳草) 훗날된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로난고

사월 초파일에

관동하러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遠近) 고저(高低)의
석양은 빗겨는데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이며 중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박등 마늘등과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우희 천녀(天女)로다 배등 집등 산디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獅子) 탄 채팔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노 특 차 구울등에 일월등 밝아 잇고
칠성등 버러난디 동령(東嶺)의 월상(月上)하고
곳고지 불을 현다 우리 임은 어디 가고
관등(觀燈)할 줄 모로난고

[A]

- 작자 미상, 「관등가」 -

*답교: 다리를 밟는 풍속.

*임고대하니: 높은 곳에 오르니.

(다)

서리병아리*와 달리, 새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 병아리는
아름답고 튼튼하다.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궁뎅이
를 내두르며 아그작 아그작 걷는 어미 닭의 당찬 모습도, 봄빛
이 무르녹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어미 닭은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바람이 물
아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애는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나서곤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흙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
미 닭이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
싸 주곤 했던 것이다. 오일장에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
니를 따라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

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열 개쯤 심겨 있었다.

아무튼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
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중략)

[B]

언 대지를 녹이는 봄기운이 초목의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 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들이 여기
저기 생기고, 강가에는 빙렬(氷裂) 현상이 일어난다. 얼음
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
을 만들어 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 닭의 오랜
포란(抱卵)의 인고가 끝나고 십여 개의 달걀들이 부화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테기를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
다.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은 즉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 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테기를 깨뜨리는 일을
출탁동시라고 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
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해
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딱딱한 알껍테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이 놀랍다. 병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이 그렇다. 어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
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
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려진 노란색
인 것도 흥미롭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목의 새싹·햇순·
속잎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르죽어 있던 ㉓ 햇빛이 노란색
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으레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시끌썩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복숭이 봄 병아리가 생
각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신생의 이미지 때문
이다.

- 현기영, 「신생」 -

*서리병아리: 이른 가을에 알에서 갓 병아리.

3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정
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
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7.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화자는 천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천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다.
- ② [A]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게 된 이유를, [B]의 글쓴이는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 ⑤ [A]의 화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B]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품의 형식이 일 년 열두 달을 차례대로 맞추어 가며 구성된 시가를 '월령체'라 한다. 조선 후기의 '월령체'는 내용상 농사요와 애정요로 나눌 수 있는데 (가)와 (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농사요 (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창작한 작품으로, 달의 변화에 따른 농사 일정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한 시가이다. 애정요 (나)는 부녀자가 창작했다고 추정되는 작품으로, 부재하는 임에 대한 상사와 연정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 시가인데, 각 연에서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놀며 즐기는 유락적(遊樂的) 요소를 지녀 서민들이 보다 즐겨 감상하였다.

- ① ㉠은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는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는 부모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는 상사의 매개가 되는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는 유락적인 속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 해소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은 내적 갈등의 해소와, ㉣는 내적 갈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
- ④ ㉠과 ㉣ 모두 세월의 흐름과 관련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발견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병아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푸른 하늘'을 선회하는 '술개'를 통해, 진취적 기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을 통해, 약자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어린 새싹'을 통해, 성장할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바디우는 ㉠ '사건'을 계기로 ㉡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이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면서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바디우는 사건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사건의 대표적 예로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코뮌을 들고 있다.

바디우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부르고 이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본다. 사건이 사라지고 난 후, 개인이나 집단은 사건의 이름을 통해 사건을 떠올리며 사회 안의 각 요소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시도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 그것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안의 요소들 중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가려내는 이러한 작업을 바디우는 '탐색'이라고 부르고, 탐색의 판단 기준을 '충실성'이라고 부른다. 이때 탐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회 안의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 그것의 충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요소들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한다.

바디우는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 이룬다고 말한다. 즉 바디우에게 있어 진리란 거기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자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

의 집합체이다. 바디우는 이러한 진리는 정치 이외에도 과학, 예술, 사랑의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바디우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진리 절차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라고 부른다. 진리를 만들어 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발언 중에서 충실한 요소들이 모여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곧 주체는 아니며,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바디우의 시각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활동은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면서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말한다. 이는 바디우가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 바디우에게 있어 용기란 진리를 좇는 용기, 즉 사회 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용기이다. 결국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41. 윗글에 제시된 '바디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 ①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 ②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 ③ 개인은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 ④ 거것이 아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
- 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다.
- ② ㉠은 ㉡이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 자체가 ㉡은 아니다.
- ③ ㉡을 이루는 요소는 ㉠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 ④ ㉠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며 ㉡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진다.
- ⑤ ㉡보다 ㉠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

4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을 하나의 진리 절차에 헌신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② 개인을 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③ 개인을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④ 개인을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⑤ 개인을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에만 동참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4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화평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임시 국방정부의 수반인 아돌프 티에르가 국민 방위군의 무장 해제를 명령하고 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몽마르트 언덕에 모여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적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여성 참정권 실현, 아동 야간 노동 금지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자치 정부는 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이 일은 역사에서 시민 계급이 자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최초라고 평가되며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 ①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에 의해 혁명적 자치 정부가 수립된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겠군.
- ② 바디우는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은 파리 시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이 사회 안에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겠군.
- ③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으킨 '파리코뮌'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겠군.
- ④ 바디우는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요소들과 '파리코뮌'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바디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파리코뮌'을 이어 가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45.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構成)한다고
- ② 성취(成就)한다고
- ③ 탐구(探究)한다고
- ④ 포괄(包括)한다고
- ⑤ 표방(標榜)한다고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자발적 고독’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된 심리학과 교수 ○○○입니다.

여러분, ‘TMI’나 ‘관태기’와 같은 신조어를 들어 보셨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네, 많이들 알고 있네요.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머리글자로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한 거부감을, ‘관태기’는 ‘관계 권태기’를 줄인 말로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에 대한 권태를 드러내는 말이지요. 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거나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자발적 고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발적 고독’은 타인에 의한 ‘고립’과는 구별됩니다. 남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립되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이는 불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오히려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 타인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멍하게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별다른 인지 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은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창의적 사고력이 증진되며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셈이지요. 또한 ‘유도된 상상’을 떠올리는 것도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 위해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여유롭게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숨 가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매 끼니처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1인분의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내용은 제 SNS에 남겨 주세요.

1. 다음은 위 강연을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강연 계획이다. 강연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발적 고독’의 방법을 안내해야겠군.
- ②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신조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해야겠군.
- ③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 할 수 있으니 ‘자발적 고독’의 효과를 제시해야겠군.
- ④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과 타인에 의한 ‘고립’을 혼동할 수 있으니 그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군.
- ⑤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겠군.

2.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련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강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 ③ 강연 진행 순서를 처음에 안내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강연의 마무리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전체 강연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다음은 위 강연을 들은 청중들이 강연자의 SNS에 남긴 댓글이다. 강연 내용을 고려하여 청중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지] 강연 후기를 남겨 주세요.

심리학과 교수 ○○○

오늘 제 강연에 귀 기울여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중 1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겠어요.

청중 2

겨울 방학 때 여행 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렸던 이유가 ‘유도된 상상’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네요.

청중 3

저는 교수님께서 자발적 고독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채웠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청중 4

교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바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중 5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멍하게 있는 시간’이 창의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의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 ① ‘청중 1’은 강연 내용을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 ② ‘청중 2’는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③ ‘청중 3’은 비판적 태도로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청중 4’는 강연자의 의도를 확인한 후 강연자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 ⑤ ‘청중 5’는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며 강연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4~7] (가)는 학생회에서 개최할 ‘나눔 장터’ 행사의 홍보를 위한 토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자, 먼저 홍보용 안내 게시물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지부터 말해 보자. 내 생각에는 학생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나눔 장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2: 잠깐. ㉠ 게시물의 형식부터 먼저 결정하면 게시물에 들어갈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3: ‘밤샘 독서’ 행사 때에도 오랫동안 토의하면서 게시물 내용을 정했지만, 그 형식이 뒤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내용 선정 토의를 다시 해야 했잖아?

학생 1: 그랬었지. 그럼 이번 안내 게시물은 광고 포스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개최 시기나 장소 등과 같이 ‘나눔 장터’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포스터 형식이 좋을 것 같아. [A]

학생 3: 그것도 좋지만, 작년에 행사가 끝난 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행사의 취지와 참가 방법을 몰라 참여를 못 했다는 의견이 많았잖아?

학생 2: ㉡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

학생 1: 그럼 행사 취지와 물품 판매 방법 등은 안내 글 형식으로 설명하고, 그 옆에는 ‘나눔 장터’의 개최 시기와 장소와 같은 행사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함께 게시하는 것은 어떨까?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럼 안내 글은 내가 작성할게. 작년 행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설문 자료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학생 1: 그럼 안내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말해 보자. 행사 제목은 그대로 해도 괜찮겠지?

학생 3: 작년 행사 제목은 너무 식상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학교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목이나 교화를 활용하자. 둘 중 어느 것이 좋을까?

학생 2: ㉢ ‘나눔 장터’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교화보다는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교목인 느티나무를 활용하자. 그리고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행사의 의의를 소개하는 문구도 넣자.

학생 3: 좋아. 그리고 포스터만 봐도 ‘나눔 장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포스터 중앙에는 행사 진행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어때? [B]

학생 2: 그래. 그리고 그림 우측에는 ‘나눔 장터’의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좌측에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 1: 포스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행사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학생 3: ㉣ 그럼 그림의 양쪽에 제시할 정보는 일부 내용만 선별해서 제공하도록 하자.

학생 2: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는 작년 설문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그림 아래에 행사 참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어때?

학생 3: 그게 좋겠다. 그리고 ㉤ 이번 ‘나눔 장터’를 준비하는데 후원을 해 준 단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그 단체들의 이름을 제시하는 건 어때?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럼 포스터 제작과 관련된 일정은 다음에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나)

한 번만 읽고 책장에 꽂아 놓은 책, 책상 서랍에 방치된 장난감이나 문구류. 나에게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 ‘나눔 장터’는 이처럼 자신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남들에게는 쓸모 있는 물건을 행사 참여자들이 직접 사고팔아 재사용을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또 행사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에도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물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나눔 장터’ 게시판에 의류 및 문구류, 도서류와 같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판매 가격, 물품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 동·식물, 고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전자 제품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 수량과 판매 물품의 가격은 판매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구름다리 미술 전시회, 먹거리 시장, 체험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나눔 장터’에서 모은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므로, 판매 수익금은 기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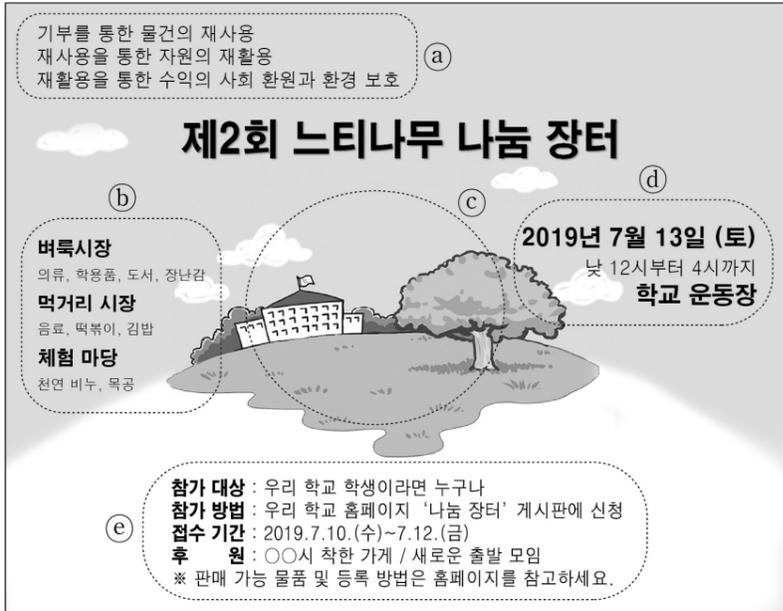
4.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 제안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토의 안건의 논의 순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② ㉡: 설문 결과를 근거로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을 채택하자는 상대의 의견과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발화이다.
- ③ ㉢: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가 발언한 제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발화이다.
- ④ ㉣: 포스터를 제작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전달할 정보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화이다.
- ⑤ ㉤: 행사에 도움을 준 단체를 밝히려는 자신의 제안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발화이다.

5. [A], [B]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2’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의견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3’이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3’이 ‘학생 2’가 제시한 의견들을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포스터’이다.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나눔 장터’ 행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대구법과 연쇄법을 활용한 문구를 제시하였군.
- ② ㉡를 보니 학생들이 ‘나눔 장터’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항목화하여 나타내었군.
- ③ ㉢를 보니 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눔 장터’의 개최 시기와 목적이 드러나는 그림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겠군.
- ④ ㉣를 보니 포스터에 실릴 정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행사 일시와 장소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록하였군.
- ⑤ ㉣를 보니 작년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고려하여 행사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였군.

7. <보기>는 ‘학생 3’이 (나)를 쓰면서 활용한 질문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구매한 꽃이 금방 시드는 바람에 판매자와 언쟁을 벌인 경우가 있었음.
-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술 전시회나 체험 마당에 참여한 학생이 적었음.
-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알지 못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은 판매자도 다수 있었음.
- 많은 학생들이 행사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 방법을 알지 못해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① 판매 수익금의 기부를 권장하기 위해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제시하였다.
- ②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의 종류를 안내하였다.
- ③ 행사의 취지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나눔 장터’의 개념과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 ④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나눔 장터’ 행사 때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⑤ 물품 판매 방법을 몰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판매 물품을 등록하는 방법과 참가 자격을 안내하였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동아리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 작성
- **예상 독자** : 동아리 업무 담당 교사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발명 동아리 ‘사고몽치’의 부장을 맡고 있는 문호영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항상 마음 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점이 없어 불편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저희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미니 자판기를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일 기억하시지요? 이처럼 저희 동아리는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아리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무한 상상실’과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한 상상실이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기기나 공작 도구가 마련된 공간을 말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무한 상상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고안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제품을 만들 때마다 인근 대학교의 무한 상상실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시설을 예약하는 것이 어렵고, 이용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이 설치된다면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동아리 학생들도 이 공간에서 다양한 제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두 번째, 발명에서 특허 출원까지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동아리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열심히 만든 발명품들을 상품화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를 도와줄 전문가가 있다면 발명품의 완성도도 높이고, 발명가라는 꿈에 다가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8. [A]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물음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경향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 내용의 실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9.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가) 통계 자료

1. ○○광역시 소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율 (단위: %)

연도	설치율 (%)
2016년	1.2
2017년	5.1
2018년	10.3

2.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복 응답, 단위: %)

이유	응답률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 부족	45.7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부족	40.5
활동 예산 지원 부족	28.4
동아리 신설 제약	15.2
기타	7.0

(나) 신문 기사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 제작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하는데, 최근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이커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교육정책관 ◇◇◇은 미국, 중국 등은 이미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이 진로·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미래 메이커 양성을 위해 발명 및 특허 과정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 인터뷰

발명 활동을 통해 제가 생각해 낸 작품을 제작하며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한 상상실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며 디지털 제작 도구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다른 학생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 주는 발명품을 만들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고 발명 동아리 부장 학생

- ① (가)-1을 활용하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 주어 우리 학교에도 무한 상상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② (가)-2를 활용하여,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의 부족이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임을 밝히고, 발명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발명품 제작 활동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명 동아리에 대한 지원 확대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임을 언급해야겠어.
- ④ (가)-2와 (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익혀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발명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부각해야겠어.

10.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A]에 제시된 건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고, 건의 주체와 관련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낼 것.

- ① 발명 활동을 통해 창의적 상상력의 싹을 틔우고 특허 출원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② 우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을 설치한다면,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미래의 발명가를 양성해 나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③ 다양한 창작과 공작이 가능한 공간에서의 활동은 저희들의 아이디어에 현실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전문가를 통한 배움은 발명에 대한 흥미와 잠재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 ④ 무한 상상실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발명품을 제작하며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를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끈기와 소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⑤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11.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담장이 낮다. → 동네 사람들이 담장을 낮춘다.
- ㉡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었다.
- ㉢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
-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 읽게 하셨다].
- ㉤ [아기가 웃는다. → 아빠가 아기를 웃긴다.
철수가 짐을 졌다. → 형이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

- ① ㉠: 형용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되었군.
- ② ㉡: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는군.
- ③ ㉢: 사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군.
- ④ ㉣: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의 의미로,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는군.
- ⑤ ㉤: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군.

12.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에서 ‘ㄴ’과 ‘ㄹ’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ㄹ’과 ‘ㄴ’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산란기 | 표현력 |
| ② 줄넘기 | 입원료 |
| ③ 결단력 | 생산량 |
| ④ 의견란 | 향신료 |
| ⑤ 대관령 | 물난리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씻다’처럼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쓰다’처럼 활용할 때 기본 형태가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반면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불규칙적으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신다’와 같은 ‘ㄷ’ 불규칙, ‘젓다’와 같은 ‘ㅅ’ 불규칙, ‘돕다’와 같은 ‘ㅂ’ 불규칙, ‘푸다’와 같은 ‘우’ 불규칙처럼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하다’와 같은 ‘여’ 불규칙처럼 어미가 바뀌는 경우, ‘파랗다’와 같은 ‘ㅎ’ 불규칙처럼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중세 국어 용언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쁘다’가 ‘뻬’처럼 활용하는 ‘ㅍ’ 탈락이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ㅍ’ 탈락에 대응한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신다’의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실-’로 교체되는 현상은 현대 국어의 ‘ㄷ’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돕다’와 ‘젓다’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뉘-’과 ‘젓-’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교체는 ‘빙’이 ‘ㅍ’ 또는 ‘ㅅ’ 앞에서 반모음 ‘ㅇ/ㅑ[w]’로 변화하거나 ‘ㅍ’ 또는 ‘ㅅ’와 결합하여 ‘ㅇ’ 또는 ‘ㅑ’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서 ‘ㅂ’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ㅅ’은 소실되어 현대 국어에서 ‘ㅅ’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간이거나 어간의 일부인 ‘ㅎ-’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가 ‘-야’가 아닌 ‘-야’로 나타나는 것은 현대 국어의 ‘여’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13.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용언의 활용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탐구 과제]
다음 자료를 보고, 용언의 활용 양상을 탐구해 보자.

[탐구 자료]
따르다 : 따르- + -고 → 따르고 / 따르- + -어 → 따라
푸르다 : 푸르- + -고 → 푸르고 / 푸르- + -어 → 푸르려
묻다[問] : 묻- + -고 → 묻고 / 묻- + -어 → 물어
묻다[埋] : 묻- + -고 → 묻고 / 묻- + -어 → 묻어

[탐구 결과]
‘따르다’는 (㉠)처럼 ‘ㄷ’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하는 반면, ‘푸르다’는 (㉡)에서 ‘따르다’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또한 ‘묻다[問]’는 (㉢)에서 ‘묻다[埋]’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 | | | |
|--------|----|----|
| ㉠ | ㉡ | ㉢ |
| ① 잠그다 | 어간 | 어미 |
| ② 다다르다 | 어간 | 어미 |
| ③ 부르다 | 어미 | 어간 |
| ④ 들르다 | 어미 | 어간 |
| ⑤ 머무르다 | 어미 | 어간 |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중세 국어	(나) 현대 국어
○ 부텃 德을 놀애 지서	부처의 덕(德)을 노래로 지어
○ 人生 즐거븐 쁘디	인생(人生) 즐거운 뜻이
○ 一方이 변ᄃ야	일방(一方)이 변하여

- ① (가)의 ‘지서’는 ‘젓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짚-’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즐거븐’은 ‘즐겁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즐겅-’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의 ‘지서’가 (나)에서 ‘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이 소실된 결과이군.
- ④ (가)의 ‘즐거븐’이 (나)에서 ‘즐거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탈락한 결과이군.
- ⑤ (가)의 ‘변ᄃ야’와 (나)의 ‘변하여’는 모두 활용을 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이군.

15.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한⁰¹ ㉠

①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②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③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④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한⁰² ㉡

① (‘-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는 한이 있어도’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무릅써야 할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
 ②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보기 2>

결승점을 ㉠한 200미터 앞두고 달리고 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며 훈련했던 동료 선수들의 응원 속에 나는 온 힘을 다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힘이 남아 있는 ㉤한 포기는 하지 말라고 외치던 ㉥한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힘을 낸다.

- ① ㉠은 ‘한⁰¹④’의 뜻으로, ㉡은 ‘한⁰¹③’의 뜻으로 쓰였겠군.
- ②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과 ㉡의 품사는 모두 관형사이겠군.
- ③ ㉡과 ㉣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④ ㉢의 ‘한’은 ‘한⁰¹①’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걸음’으로 띄어 써야겠군.
- ⑤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의 ‘한’은 ㉤과 같은 의미로 쓰였겠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유 자금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이 필수적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한 재무 보고서를 말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활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의 기업의 수익 규모와 수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제시된 포괄손익

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인 자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산은 현금과 토지, 건물 등과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부채란 갚아야 할 돈으로 흔히 말하는 빚이다.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자본 거래 및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여 축적된 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자산을 활용해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 전부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은 숫자 그 자체보다는, 다른 숫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는 기간별로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을 해야 한다. 재무비율 분석 중 널리 쓰이는 비율로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화학 기업인 듀폰은 자기자본순이익률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듀폰 ROE 분해’를 창안했다. 듀폰 ROE 분해에 따르면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자산회전을 그리고 재무레버리지를 곱한 값과도 같으므로 이 세 가지로 분해하여 각각의 재무비율을 파악하면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듀폰 ROE 분해 중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익성 지표이다. 만약 1,0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을 다 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120만 원이라면 매출액순이익률은 12%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한 회계 기간 동안의 매출액 중 당기순이익의 비중을 보여 주어서 산업별 평균값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듀폰 ROE 분해 중 ‘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의 효율성 지표이다. 자산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 A와 B 모두 매출액이 1,000만 원이고 A와 B의 평균총자산이 각각 1,00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 B는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A는 B의 2.5배인 1,000만 원이다. 따라서 A와 B의 자산회전율은 각각 1과 2.5로 B가 A에 비해 자산의 이용이 2.5배 효율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듀폰 ROE 분해 중 재무레버리지는 평균총자산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안정성 지표이다.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지면 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진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무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상승한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높은 재무레버리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레버리지를 산업별 평균값 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A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10이고 자산회전율(회)이 2, 재무레버리지가 2라고 한다면 A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40%(10×2×2)가 된다. 따라서 듀퐁 ROE 분해는 다른 기업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비교하거나 각 기업을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재무비율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자본: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만의 자산, 즉 순자산을 회계 용어로 자본이라고 부르며, 타인자본인 부채와 구분하여 자기자본이라고도 함.

16.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무제표의 개념을 제시한 후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②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 원칙을 밝히고, 재무비율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듀퐁사가 ROE 분해를 창안한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재무비율 분석의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 ④ 듀퐁 ROE 분해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재무제표를 투자의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②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하면 그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듀퐁 ROE 분해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안정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보면 그 기업의 안정성 지표를 알 수 있다.
 - ⑤ 기업의 자산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재무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총자산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②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③ 평균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④ 평균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재무레버리지가 낮아지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진다.
 - ⑤ 평균총자산이 일정할 경우 평균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19~20> <보기>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단위: 억 원)

구분	과목	A기업	B기업	
		2018년	2017년	2018년
재무상태표	평균총자산	200	100	200
	부채	100	50	150
	평균자기자본	100	50	50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	500	100	400
	당기순이익	20	10	20
매출액순이익률 (%)		㉠	10	5
자산회전율(회)		㉡	1	2
재무레버리지		㉢	2	4
자기자본순이익률 (%)		㉣	20	40

※ 회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고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임.
 ※ 재무제표 수치 이외에 어떤 외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음.

19. 다음은 A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회의 기록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 과장: ㉠에 해당하는 값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므로 4%입니다. ①

최 대리: ㉠에 해당하는 값이 2018년의 B기업보다 낮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매출액이 B기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②

민 부장: ㉡에 해당하는 값을 보면, 2018년의 우리 기업은 2018년의 B기업보다 자산이 2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박 사원: ㉢에 해당하는 값은 2로, 2018년의 B기업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산업별 평균값이나 다른 기업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④

정 사장: 2018년 재무제표를 보니, 우리 기업의 ㉣에 해당하는 값은 2017년의 B기업과 같군요. ⑤

20.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2018년의 B기업은 2017년에 비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을 전부 차감한 금액이 감소하였다.
- ② 2018년의 B기업은 2017년에 비해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 ③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안정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다.
- ④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수익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 ⑤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자산의 효율적 이용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키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푸레
 갈이 지피고 등피(燈皮)* 호 호 닦아 끼우어 심지 튀기니 불꽃
 이 새록 돋다 미리 떼고 걸고 보니 켈런더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다 이제 차츰 밟고 넘을 다람쥐 등술기같이 구브레 번어 나
 갈 연봉(連峯)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초침 소리
 유달리 똑닥거리는 낙엽 벗은 산장 밤 ㉠창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뉘니 후 두 두 두 낙수(落水) 짓는 소리 크기 손바닥만한 어
 인 나비가 따악 붙어 들여다본다 가엾어라 열리지 않는 창 주
 먹 쥐어 징징 치니 날을 기식(氣息)도 없이 네 벽이 도로혀 날
 개와 떠다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幻
 想) 호흡하노라 서둘러 붙어 있는 이 자재화(自在畵)* 한 폭은
 활 활 불피워 담기어 있는 이상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 날
 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앓을까 무서워라
 구름이 다시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내려가 산
 아래 어느 마을 위에 총총하노 백화(白樺) 숲 희부영게 어정거
 리는 절정(絶頂)*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 정지용, 「나비」

* 등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남포등에 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

* 자재화: 자, 컴퍼스 따위를 쓰지 않고 연필이나 붓만으로 그린 그림.

* 절정: 산꼭대기.

(나)

겨울 아침, ㉡유리창 가득 반짝이는
 성예를 본다. 유리창에 만발한 하얀 식물,
 꽃과 잎과 줄기를 본다. [A]

무엇일까,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섬세한 꽃과 잎의 무늬 안에 가두어놓은 힘은. [A]

결빙의 힘 속에
 식물의 본능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땅 속에서 물을 퍼올려
 잎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 [B]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드는
 서슬 푸른 법(法)과 도(道)의 세계가
 결빙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일까. [B]

이 화려한 무늬를 들여다보면
 막 열기 시작한 물이
 결빙의 칼날과 환희를 견디다가
 절정의 순간 얼음의 결정체마다 살라놓은
 투명한 불의 흔적이 보인다. [C]

겨울 아침, 하얀 식물 성예를 보며
 문득 지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린다.
 푸른 얼음 속에 울창하게 퍼져 있는
 또다른 원시림을 본다. [D]

청정한 법(法)과 도(道)가
 열대의 온갖 동식물처럼
 뿌리내리고 자라 넘실거리는,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을 본다.

[E]

- 김기택, 「얼음 속의 밀림」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로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비」는 일제 강점 말기에 쓰인 작품으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시인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렇게 조우하게 된 자신의 내면을 비유적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늦가을, 높은 산속에 실재하기 어려운 '나비'는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존재로서 화자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 준다.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심정, 억압적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응시하는 성찰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 ① '초침소리 유달리 똑닥거'린다고 느낄 만큼 적막감이 감도는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시적 배경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낙수 짓는' 창밖에 붙어 있는 나비를 '가엾'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했던 화자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나비에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이나 '자재화 한 폭'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창밖 나비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 낸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④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기며 ‘부러’워하는 창밖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모습은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성찰적 자세에 해당하겠군.
- ⑤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인 별도 ‘휩쓸려 내려’갔다는 표현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겠군.

23.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성애’의 모습에서 ‘하얀 식물’의 모습을 유추해 내고 있다.
- ② [B]: ‘결빙의 힘’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여 ‘결빙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과 저항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C]: 대상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물의 결빙이 만들어 낸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해 내고 있다.
- ④ [D]: 하나의 대상에서 찾아낸 속성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성애’에서 ‘원시림’으로 연결되는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⑤ [E]: 정적 대상을 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애’에서 찾아낸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2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안과 밖의 두 공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자각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영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계모 노 씨와 친척 노태의 모해(謀害)로 인해 첫날밤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유춘연은 적삼에 혈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유 승상은 딸 춘연의 혈서를 읽은 후 노 씨의 시비를 심문한다.

승상이 시비가 죄상을 털어놓지 않음에 노하여 형벌(刑罰)로 추문하더니, 홀연 공중으로서 외쳐 왈,

“부친은 애매한 시비를 엄형(嚴刑)치 마르소서. 소녀의 애매한 누명을 자연 알리이다.”

하더니, 홀연 방안에 앉았던 노 씨 문 밖에 나와 엎어지며 안개 자욱하고 무삼 소리 나더니 노 씨 피를 무수히 토하고 죽는 지라. 모두 이르되,

“불측한 행실을 하다가 이렇듯 죽으니, 신명이 무심치 아니타.” 하고,

“불쌍한 소저는 이팔청춘에 몹쓸 악명을 쓰고 죽으니 철천(徹天)한 원한을 뉘라서 씻으리오?”

노태는 그 경상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노 씨 자녀는 그날부터 말도 못 하고 세상일을 버렸더라.

(중략)

익일에 유모를 따라 한가지로 소저의 빈소에 이르러는 유모가 먼저 들어가 이르되,

“소저야, 정 시랑 상공이 오셨나이다.”

소저가 대 왈,

㉠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뇨?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니라.”

유모가 다시 이르되,

“내 어찌 소저에게 허언을 하리잇고? 지금 밖에 오신 상공이 곧 정 시랑이시니 들어오시라 하리잇가?”

소저가 이르되, / “정 시랑이신지 분명히 옳으냐?”

유모 왈, / “어찌 거짓말을 하리잇고?”

하고 나와 이대로 고한대, 어사가 친히 문 밖에서 소리하여 왈, “생이 곧 정을선이니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듯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그 외 다른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잇고. 을선이 곧 황명(皇命)을 받자와 이곳에 와서 부인의 애매함을 깨닫사오니, 백골이나 보고 이곳에서 한가지로 죽어 부인의 각골지원(刻骨之冤)을 위로코자 하나니, 부인의 명백한 혼령은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赦)하시면 잠깐 뵈옵고 위로함을 바라나이다.”

말 끝에 크게 우니,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정 시랑이 이곳에 오시기 만무하니 어디서 과객이 와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몸을 이렇듯 조르나뇨? 부질없이 조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는 소리가 애절(哀切)하여 원근에 사무치는지라. 유모가 수차 타이르되, 듣지 않으니, 시랑이 유모를 대하여 왈,

“내가 이렇듯 말하되 소저 듣지 아니하니 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리라.” / 유모가 말려 왈,

㉡ “그러하면 좋지 아님이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어사가 생각하되, ‘이는 철천지원(徹天之冤)이니 범연히 보지 못하리라’하고, 황급히 생각하고 즉시 익주자사에게 판자(關子)*하되,

‘익주 순무어사(巡撫御使) 정을선은 자사에게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수일 내로 유 승상 부중(府中) 녹림원상(綠林苑上)으로 대령하라.’

하니, 익주자사가 관자를 보고 황황히 예를 갖추어 녹림원상으로 오니, 어사가 그늘에 앉아 민간(民間) 사정을 묻고 왈,
 “내 전일에 유 승상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더니 마침 이리 지나다가 유모를 만나 그동안 사연을 자세히 들으니, 그 소저가 별세한 지 삼 년이로되 이리이리하오니 어찌 가련치 않으리오? 이리므로 그 원혼을 위로코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
 자사가 듣기를 다 마치매 소저 빈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길,
 “이는 곧 정 상공일시 분명하고 나는 이 고을 자사옵더니, 정 어사의 분부를 들어 아뢰옵나니 존위(尊威)하신 신령은 살피소서.”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아무리 유명(幽明)이 다르나 남녀 분명하거늘 어찌 외인(外人)을 만나리오? 아무리 분명한 정 사랑이라 하되 내 어찌 곧이 들으리오?”
 어사가 하릴없이 이 연유를 천자에게 주(奏)한대, 상이 들으시고 애처롭게 여기서 원혼에게 벼슬을 하사하여 충렬부인을 봉하시고 직첩과 교지(教旨)*를 내리시니, 언관(言官)이 밤낮으로 내려와 소저 빈소 방문 앞에서 교지를 자세히 읽으니,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아비를 모르고 남군을 모르리오? 교지를 내려 너의 원혼을 깨닫게 하노라. 정을선의 상소를 보니 너의 참혹한 말을 어찌 다 헤아리리오? ㉠ 너를 위하여 조서(詔書)를 내리나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하였더라. 소저가 듣기를 다하매 그제야 유모를 불러 왈,
 “천은이 망극하사 아녀자의 혼백을 위로하시고 또 가부(家夫)가 틀림없는 줄을 밝히시니 황은이 태산 같도다.”
 인하여 사랑을 청하여 들어오라 하거늘, 어사가 유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 좌우 창호(窓戶)가 겹겹이 닫혔거늘, 어사가 좌우로 살피나 티끌이 자욱하여 인귀(人鬼)를 분변치 못할지라. 마음에 비창(悲愴)하여 이불을 들고 보니 비록 살은 썩지 아녘으나 시신이 뼈만 남은지라. 어사가 울며 왈,
 “낭자야, 나를 보면 능히 알소냐?”
 그 소저가 공중으로서 대답하되,
 “첩의 용납지 못할 죄를 사하시고 천 리 원정에 오시니 아무리 백골인들 어찌 감격치 않으리오? 첩이 박명한 죄인으로 상공의 하해 같은 인덕을 입사와 외람하온 직첩을 받자오니 어찌 감은치 않으리잇가?”
 어사 왈, / “어찌하면 낭자가 다시 살아날꼬?”
 소저가 답 왈,
 ㉢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륜동을 찾아가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회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가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잇고?”
 어사가 기뻐 즉시 유모를 분부하여 ‘행장을 차리라’하여, 유모 부처(夫妻)를 데리고 길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옥륜동에 이르러 기험(崎險)한 산천을 넘어 도관(道觀)을 찾으되, 운무가 자욱하여 능히 찾을 길이 없는지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관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
 * 교지: 임명,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임금의 명령.

2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을선은 춘연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춘연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 ② 정을선은 자사를 불러 춘연의 원한에 얽힌 사연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 ③ 승상은 노 씨의 시비를 통해 딸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된다.
 - ④ 춘연은 황명을 이유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려 온 정을선을 모른 척하고 있다.
 - ⑤ 유모는 춘연의 빈소 앞에서 교지를 읽어 춘연이 충렬부인으로 봉해졌음을 알리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유모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며 정을선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③ ㉢: 천자의 권위를 내세워 춘연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 ④ ㉣: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정을선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⑤ ㉣: 구체적 지명과 인물을 언급하며 정을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과 같은 여성 원귀(冤鬼) 소설에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귀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해원(解冤)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후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환생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 ① 춘연이 원귀가 되어 노 씨를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만든 것은 춘연이 자신을 해한 사람에게 복수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춘연이 원귀가 된 사연을 알게 된 후에 정을선은 춘연의 억울함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군.
- ③ 춘연이 자사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군.
- ④ 춘연이 직첩과 교지를 받고서야 정을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자의 인정으로 춘연의 억울함이 풀렸음을 드러내는군.
- ⑤ 정을선이 춘연을 위해 약을 찾아 옥륜동에 가는 것은 춘연의 환생을 위한 조력자의 노력에 해당하는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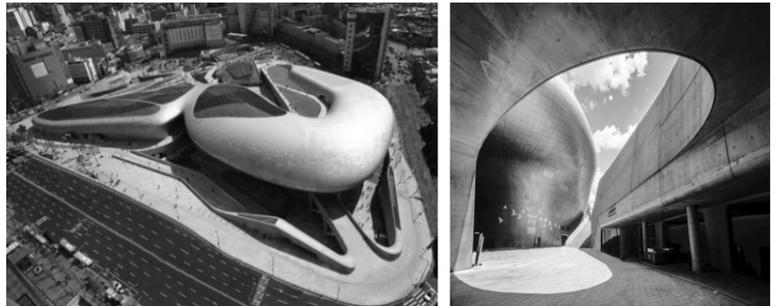
㉠ 근대 철학에서는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동일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동일성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 즉 얼마나 유사하게 동일성을 재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 들뢰즈는 표상이 대상들이 지닌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들뢰즈는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관계 맺으며 펼쳐지는 무수한 차이를 긍정하며 세계를 생성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란 두 대상을 정태적으로 비교해서 ㉢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이 만나고 섞임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A)’과 ‘자동차(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원래 땅 위를 달리며, 달리기와 관련된 근육이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A가 달리기 대신 B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A는 달리는 근육 대신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는 근육이 발달할 것이다. A는 땅과 자동차 중 어느 것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이전의 A와는 다른 차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A에게 ‘자동차 운전을 잘하게 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성’이다.

또한 들뢰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한다. 새로 산 옷을 입으면, 이 옷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주름이 ㉣ 생긴다. 이 주름은 옷 자체 혹은 외부로부터 받은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 결국 주름은 대상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 혹은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생성된 주름은 시간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다시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은 처음과는 차이가 나는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 따라서 주름에는 시간적 개념과 변형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들뢰즈가 제안한 ‘주름’ 개념은 현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현대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은 대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 건물의 내부와 외부로 각각의 고정된 의미로 분리하여 바라보려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을 거부하고 이들을 하나의 주름 잡힌 표면, 즉 서로 관계 맺으며 접고 펼쳐지는 반복적 과정 속에서 생성된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건축에서는 대지와 건물이 인간에 의해 그 역할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되었었는데, 현대 건축에서는 대지와 건물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작동한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나타나는 연속된 표면은 대지와 건물의 벽, 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생성하면서 대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통합되기도 하고, 건물 자체가 대지를 완전히 ㉤ 덮어서 대지와 건물이 통합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속된 표면은 주름처럼 접히고 펼쳐지면서 공간을 ㉥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공간은 그 성격이 고정되지 않고 유연적인 상황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의 전개로 인해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흐름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의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과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응시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우리나라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이러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건물이다. DDP의 표면은 주름진 곡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 내려다 보면 건물 전체가 대지를 덮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다. 또한 주름진 곡선에 의해 만들어진 내부의 공간들은 디자인 전시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패션 행사나 다양한 체험 마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특히 DDP는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이 건물의 지하 광장과 건물의 입구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졌으며, DDP 외부의 공원과 건물 간의 경계가 없어 공원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물의 내부로 이어지고, 내부에서 옥상의 잔디 언덕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다시 건물 밖의 공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DDP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과 통합을 추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간적 개념에서, ㉡은 시간적 개념에서 대상의 생성을 언급하였다.
- ② ㉠은 대상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은 대상의 변화하는 속성에 주목하였다.
- ③ ㉠은 어떤 대상과 관계하느냐에, ㉡은 대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주목하였다.
- ④ ㉠은 차이를 본질에 종속시키고자 하였고, ㉡은 동일성을 차이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 ⑤ ㉠과 ㉡의 목표는 모두 대상이 갖는 고정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29. 주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름은 내재적 원인에 의해 완성된다.
- ② 주름은 대상과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생성된다.
- ③ 생성된 주름은 다른 대상들과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 ④ 주름은 대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 ⑤ 대상의 주름은 서로를 변화시키며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

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지와 건물의 표면에 주름처럼 이어진 곡선은 대지의 의미가 건물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고 있군.
 - ② 건물 전체가 대지를 덮고 있는 형상은 건물과 대지를 통합하여 연속된 표면을 이룬 것에 해당하겠군.
 - ③ 관람자는 공원에서 건물 내부로, 내부에서 잔디 언덕으로 이동하면서 시선과 응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군.
 - ④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을 건물의 입구와 이어지도록 한 것은 기존의 시설물과 건물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군.
 - ⑤ 내부 공간들이 전시관과 패션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은 공간의 성격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군.
31. 다음 ‘학습 활동’에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의 전통 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비교해 보자.

소쇄원에 들어서면 자연석 축대로 경계를 삼아 소박한 멋을 내는 인공 연못과 만나게 된다. 기존의 지형과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려 만든 소쇄원 내부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쇄원의 대표적인 건물인 광풍각에 이르게 된다. 광풍각의 들어열개문은 문짝을 접고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방 안에서 바로 마루 너머의 자연과 연결되어 방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들어열개문의 특성으로 인해 방과 마루의 공간이 나뉘면서 동시에 통합될 수도 있다. 광풍각 앞의 마당은 다른 장소로 이어주는 통로로, 자연을 완상하는 장소로, 함께 어울리는 놀이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활동 결과]

([A])는 점에서, 소쇄원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 ① 소쇄원 내부의 길은 기존의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다
 - ② 소쇄원의 연못은 대지와 구분되는 비연속된 표면을 이루고 있다
 - ③ 소쇄원의 마당은 상황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 ④ 들어열개문을 통해 광풍각의 외부와 내부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 ⑤ 들어열개문의 문짝을 접어 올리면 방과 마루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3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 도출(導出)되는 ② ㉡: 구성(構成)된다
 - ③ ㉢: 봉인(封印)하여 ④ ㉣: 제작(製作)해
 - ⑤ ㉤: 주시(注視)하면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온라인 전자 상거래나 공인 인증이 일상화되면서 보안을 위해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주고받는 암호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암호통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이를 다시 원래의 메시지로 복호화하는 데 필요한 키를 암호통신의 대상자인 송·수신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주고받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암호통신은 암호화나 복호화에 필요한 키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 대칭키 방식과 ㉡ 공개키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칭키 방식은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송신자와 수신자만 아는 비밀키를 미리 분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암호통신을 시도할 때마다 상대에 따라 새로운 비밀키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반해 공개키 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방식이다. 수신자가 미리 생성하여 공개한 공개키(public key)로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수신자는 공개키에 대응하여 생성한,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키(private key)를 이용하여 복호화한다. 공개키 방식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 없고 통신 상대에 따라 비밀키를 바꿀 필요도 없어 대칭키 방식에 비해 보안에 유리하다.

대표적인 공개키 방식인 RSA 알고리즘은 큰 소수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반하여 한 쌍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한다.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여 대칭키 방식에 비해 암호화나 복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암호화된 문서가 유출되어도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비밀키를 유추하는 데 비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컴퓨터 연산 속도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 복잡한 연산 과정을 기반으로 한 공개키 방식의 암호 체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도청으로부터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에서는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갖기 위해 양자의 종류 중 하나인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 원자나 분자 단위 이하의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 역학에서 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광자 하나하나에 정보를 실어 보내는 양자암호통신에서 단일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을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도청자가 단일광자 자체를 가로챌 하더라도 수신자에게 가로챈 광자와 동일한 상태의 광자를 보내야만 도청 사실을 숨길 수 있는데 여러 상태를 동시에 지니는 ‘중첩’이라는 양자의 특성 때문에 단일광자의 원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보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자암호통신은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

양자암호통신의 대표적인 키 분배 기술로는 단일광자의 편광 상태에 정보를 실을 수 있는 BB84 프로토콜*을 들 수 있다. 자연 상태의 빛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진동 방향에 따라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를 이용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빛을 ‘편광’이라고 하며, 편광을 만들 때 이용하는 필터를 ‘편광필터’라고 한다. 그런데 편광된 광자 또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중첩’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편

광필터를 통과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의 경우 대각(↗)·역대각(↖) 편광 특성도 지니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편광필터를 통과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 또한 수직·수평 편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수직이나 수평 편광으로 100% 측정되지만,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대각 혹은 역대각 편광으로 잘못 측정된다.

이러한 편광의 중첩 특성이 BB84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a) 송신자의 비트 정보	0	1	1	0	1	0
(b) 송신자의 편광필터	+	+	×	+	×	×
(c) 송신자의 편광 신호	↔	↓	↘	↔	↘	↗
(d) 수신자의 편광필터	+	+	×	×	+	×
(e) 수신자의 측정 신호	↔	×	↘	↗	↓	↗
(f) 비밀키 공유	0		1			0

* '×'는 누락된 광자.

BB84 프로토콜은 먼저 위 <표>의 (a)처럼 송신자가 무작위로 비트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BB84 프로토콜은 수직 편광과 역대각 편광은 '1'이라는 비트 정보로, 수평 편광과 대각 편광은 '0'이라는 비트 정보로 표시하기로 약속되어 있어 (b)처럼 송신자가 **+** 편광필터와 **×** 편광필터를 무작위로 선정하면 (c)와 같은 편광 신호들이 생성된다. 수신자는 (c)에서 생성된 편광 신호들이 어떤 편광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d)처럼 스스로 무작위로 편광필터를 선택하여 (e)와 같이 편광된 광자를 측정한다. 이때 전송 과정에서 잡음 등으로 인해 누락된 광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락된 광자는 측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송·수신자는 공개 채널에서 자신들이 어떤 편광필터를 어떤 순서로 사용했는지 서로 공유하면 (f)와 같이 동일한 편광필터를 사용한 '010'이라는 비트 정보만 걸러낼 수 있어 비밀키로 사용하는 측정값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

* 프로토콜: 통신 규약.

33. 다음은 읽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읽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암호통신을 이용하여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 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①
○ 암호통신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명할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②
○ 암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은 복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암호통신 방식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각각의 암호통신 방식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34. 읽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개키 방식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주체는 동일하겠군.
- ②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발전하더라도 양자암호통신은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겠군.
- ③ 양자암호통신에서는 도청자가 단일광자에 담긴 정보를 도청할 경우 수신자에게 도청 사실을 숨길 수 없겠군.
- ④ RSA 알고리즘에서 암호화된 문서가 전송 과정 중 유출되어도 수신자는 비밀키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겠군.
- ⑤ RSA 알고리즘이 대칭키 방식에 비해 암호·복호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서로 다른 암호·복호화 키를 주고받기 때문이겠군.

35. ㉠ ~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나 ㉢에 비해 비밀키가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 ② ㉢은 ㉠이나 ㉡에 비해 수학적 복잡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
- ③ ㉠과 ㉡은 ㉢과 달리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④ ㉠과 ㉢은 ㉡과 달리 암호화를 위해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아야 한다.
- ⑤ ㉠, ㉡, ㉢은 모두 암호통신 상대의 수만큼 비밀키가 필요하다.

36. BB84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B84 프로토콜은 안전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복호화를 하는 과정에 대한 통신 규약이다.
- ② BB84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수평 편광을 **×** 편광필터로 측정하면 수평 편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 ③ BB84 프로토콜 실행 과정에서 편광된 광자가 다시 편광필터를 통과하면 양자의 중첩 특성이 사라진다.
- ④ 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BB84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동안 단일광자 자체를 가로챌 수 없다.
- ⑤ BB84 프로토콜에서 수직 편광은 대각 편광의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0'이라는 비트 정보로 표현한다.

37. BB84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가 <보기>와 같이 정보를 주고받았다. [A]를 참고했을 때 <보기>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비밀키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송신자의 비트 정보 생성 및 편광된 광자 전송										
비트 정보	0	1	0	0	1	1	1	0	1	0
편광필터 정보	0	1	1	0	1	0	1	1	1	0
편광 신호	↔	↘	↗	↔	↘	↓	↘	↗	↘	↔
○ 수신자의 광자 측정										
편광필터 정보	1	1	0	1	1	0	0	1	1	1
측정한 신호	↘	↘	↓	↘	×	↓	↔	↗	↘	↗

* **+** 편광필터: 0, **×** 편광필터: 1, 누락된 광자: ×

- ① 1011 ② 1100 ③ 1101 ④ 11011 ⑤ 11101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5년 전 실종된 사진작가 유종열의 아내로부터 유작 사진전에 초대받은 '나'는 그가 남긴 사진들을 보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사진 찍기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좀처럼 다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지 못하고 몇 주일 몇 달을 고심만 하고 있었다.

갈수록 사진이 두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의 전쟁터 충격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도 모두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난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현장들과 맞서기엔 나의 카메라는 너무도 무력하단 말이요. 나의 카메라는 **번번이 그 대상의 시간을 정지시킬 뿐이었어요. 그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흐를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두꺼운 벽을 허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을 때 유 선생은 거의 탈진한 어조로 털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전쟁터의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진 일이 이토록 두려워진 건 내 사진기가 살아 있는 현실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느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력감을 느끼면 사진기를 버리면 그만인 게지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서운 힘으로 맞서 오거든요. 그 전쟁터의 참상들이, 그 얼굴들이 내게로 말이요. 내가 카메라를 버릴 수 없도록 순간순간 내게 맞서 오고 있어요……. 산이나 바다는 맞서오는 게 없지요. 그래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땐 자리를 비켜서 버릴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 고통인 게지요.**”

그의 카메라 앞에 시간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현상들, 그러면서도 눈을 감고 돌아설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인간사의 모습들,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이자 절망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중략)

이게 도대체 어찌 된 노릇인가.

사진 속엔 분명히 유 선생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 담겨 있었다. 그것도 물론 옛날에 미리 찍어 둔 것이 아니었다. 해상 유랑선을 찾아 헤매던 마지막 취재 길에서 찍힌 모습이다. 모습이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사진의 화면은 사방이 바다다. 해무로 어슴푸레해진 바다 저편에 난민선으로 보이는 배가 한 척 떠 있고, 화면의 중간쯤엔 한 사내가 그 난민선을 향해 방금 작은 보트를 저어가는 중이다.

카메라의 초점은 바로 그 난민선을 향해 해무 속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사내에게 맞춰지고 있는데, 마치 그 바다의 안개 속으로 배를 숨겨 올라가고 있는 듯한 사내의 모습은 유 선생의 그것으로밖엔 읽힐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게 느껴져 온 예감이 그러했고, 여자가 부러 그것을 지니고 와서 내게 보여준 연유가 그러했다.

㉠ 나는 도시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여자는 그게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 사진은 내게 또 하나의 수수께끼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 혹시 유 선생의 모습이 아녘니까. 그것도 그 난민선을 찾아다니는 바다 위에서의…….”

나는 차라리 한 번 더 여자의 도움을 구하는 게 빠를 것 같았다. 그래 눈길을 여자 쪽으로 옮기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확인을 구한다.

“맞아요. 그건 유종열씨예요…….”

여자도 이제 대답을 굳이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유 선생님은 아직……?”

“아니 아직 살아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 / “그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간 거예요.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 나는 이제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린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물어나가야 할지 물음의 순서가 떠오르질 않는다.

여자는 그러나 이미 나의 혼란을 짐작하고 있었다. ㉢ 그녀는 마치 나의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만 조용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다가 이윽고 그녀가 마지막 수수께끼의 열쇠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편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여자가 다시 손가방 속에서 웬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어 건네준다. 속 부피가 제법 두툽한 봉투다.

“여기 이런저런 내력들이 모두 설명되어 있어요. 몇 달 전에 뜻밖에 작업실로 온 건데요, 종열 씨가 마지막으로 얻어 탔던 배의 일본인 선장이 아까 보신 그 사진의 필름들과 함께 보내온 것이예요.”

(...)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예상치도 않게 우리는 다시 난민선 한 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먼 바다까지 나올 수 있었던 배이고 보니,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미구에 닿쳐올 참극의 규모도 그만큼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배였습니다.

유 선생은 제게 다시 요구를 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진 같은 건 **찍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의 운명이 너무도 분명하므로 이번만은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난민선까지 접근시켜 가서 가능한 구조를 베풀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전 다짐 같은 건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물론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 선생은 제게 마지막 요구를 해왔습니다. 배를 가까이 접근시킬 수 없다면, 자신이 난민선을 다녀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제게 보트를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물론 이번에도 **허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 선생의 신변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신변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유 선생의 행동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감이 좋을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극력 유 선생을 말렸지요. 그러나 유 선생의 결심은 이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 저는 결국 보트를 내렸고, 유 선생은 혼자 보트를 저어 난민선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는 한의 유 선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 추신: 참 여기 유 선생을 찍은 저의 사진도 한 장 보내드립니다. 유 선생께서 저의 배를 떠나 난민선을 향해 보트를 저어가실 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 이청준, 「시간의 문」

3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유종열'의 작업실을 찾아가 대화를 통해 그와의 오해를 풀고 있다.
- ② '여자'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여자'는 '유종열'의 생존 가능성을 묻는 '나'에게 그의 생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키고 있다.
- ④ '선장'은 '여자'가 '유종열'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묻고 있다.
- ⑤ '유종열'은 '나'가 겪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심리가 담겨져 있다.
- ② ㉡: 질문에 의도적으로 답을 회피하는 상대에 대한 반감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의 행동에 담긴 속뜻을 주관적으로 유추하고 있다.
- ④ ㉣: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물에게 닥칠 위험과 인물이 자초할 위험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 ⑤ ㉤: 인물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40. [편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자'에 대한 '유종열'의 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유종열'의 행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여자'와 '유종열'의 재회가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이야기의 초점을 '여자'에서 '유종열'로 바꾸고 있다.
- ⑤ '유종열'의 실종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간의 문」은 사진작가 유종열이 추구했던 예술 세계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유종열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정지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사진 안에 담고자 했다. 대상을 찍는 것이 과거로 굳어진 시간을 단순히 현재화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진정한 예술 행위가 아니며, 미래와의 연관을 담아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유종열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열려 있는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사진을 찍지 못해 괴로워하고, 결국 자신이 찍고자 했던 사진 속에 피사체가 되어 찍힘으로써 그가 추구한 예술의 본질과 예술가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게 된다.

- ① 유종열이 '좀처럼 다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진이 단순히 과거의 순간을 현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② 유종열이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흐'르려고 한 것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③ 유종열이 '전장터의 참상들'이 '무서운 힘으로 맞서 오'는데도 '카메라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열려 있는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겠군.
- ④ 유종열이 배에서 '사진 같은 건 찍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가 추구한 예술 세계가 사진 찍기로 인해 무너져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괴로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유종열이 '난민선을 향해 보트를 저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피사체가 되어 찍힌 사진에는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가로서의 소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제 밤 부든 바람 금성(金聲)이 완연(宛然)하다
 고침단금(孤枕單衾) 깊이 든 밤 상사몽(相思夢) 훌쩍 깨여
 ㉠ 죽창(竹窓)을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보니
 창창한 만리장공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천연한 이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A]
 심사도 창연(愴然)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원에 부는 바람 이한(離恨)을 알리는 듯 [B]
 추국(秋菊)에 맺힌 이슬 별루(別淚)를 머금은 듯
 실 같은 버들 남쪽 봄 피꼬리 이미 돌아가고 [C]
 소월비파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 슬피운다
 임 여희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 [D]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

(중략)

지척 동방 천 리되어 바라보기 묘연(杳然)하고
 은하작교(銀河鵲橋) 끈쳤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 인정이 끈쳤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耳目)에 매여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천수만한(千愁萬恨) 가득한데 끝끝치 느끼워라
 하물며 이는 ㉢ 추풍(秋風) 별회(別懷)를 부쳐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시름이라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마는
 유유별한(悠悠別恨)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愁聲)이라 [E]
 아해야 술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나)

넷 사름 이젿 사름 이목구비(耳目口鼻) ㄹ것마는
나 혼자 엇디 햏야 넷 사름을 그리논고
이제도 넷 사름 겨시니 그 내 벗인가 햏노라 <제1수>

청송(靑松)으로 울흘 삼고 ㉠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르고
초옥삼간(草屋三間)이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흉중(胸中)에 사념(邪念)이 업스니 그를 스랑햏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싱각고 브라보니
용추동(龍湫洞) 밧끼오 구름드리 우희로다
밤마다 외로운 썸만 햏자 다녀 오노라 <제5수>

밧는 첩첩(疊疊)햏고 구름은 자자시니
고인(故人)의 집 땅이 브라도 불성업다
밧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 햏노라 <제7수>

㉡ 상산(商山)의 영지(靈芝) 캐러 구태여 넷이 가리런가
쫓츠 리 업스디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世上)의 어즈러운 일들 듯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 정훈, 「월곡답가(月谷答歌)」

4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게 혐오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가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화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입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 ② ㉡: 돌아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다.
 - ③ ㉠: 입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이다.
 - ④ ㉡: 화자와 입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 ⑤ ㉡: 화자가 연모하는 입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44.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B]: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C]: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D]: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E]: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도(友道)’란 벗을 사귀는 데 중요한 덕목으로, 사대부 시가에서 ‘우도’는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이나 풍류와 은거 등의 친자연적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곡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왜적에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고, 전란 후에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초야에 은둔했던 삶을 살았다. 작가는 ‘우도’를 통해 월곡을 추모하며 충의를 중시했던 월곡의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제4수>에서 작가는 ‘초옥삼간’에서 ‘사념’이 없이 살고 있는 벗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벗이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제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름드리’ 위를 ‘썸’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벗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제7수>에서 작가는 벗의 ‘집’을 ‘밧’과 ‘구름’에 묻혀 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밧’과 ‘구름’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제9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벗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어즈러운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나요? 저는 일부러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제품을 고르는데요, 오늘은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설정실험을 통해 결정됩니다. 설정실험은 보통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경우나 제품의 공정 또는 포장에 변경된 경우에 진행하는데, 실험을 통해 산출된 기간보다 20 ~ 30% 짧게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설정실험에는 실측실험과 가속실험이 있는데요, 예측되는 유통기한이 대개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측실험을,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가속실험을 합니다. 실측실험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는 제품은 빵이나 두부,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제조사가 의도하는 유통기한의 약 1.3배에서 2배 기간 동안 실제와 동일한 유통 조건에서 제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가장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유통기한이 짧고 유통 조건이 단순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제품에는 비효율적이죠.

가속실험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는 제품은 통조림이나 식용유 등이 있는데요, 가속실험은 실제 유통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단기간에 유통기한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실제 유통 온도와 2개 이상의 비교 온도에서 제품의 변화를 측정하고, 수학적 계산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이 방법은 유통기한이 길고 유통 조건이 복잡한 제품에 효율적이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쉽게 활용하기 어렵고 실험을 가혹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잘못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외국에서도 유통기한을 사용하는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미국은 유통기한도 사용하지만 최종 사용일자인 소비기한 등도 함께 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통기한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 유통기한과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여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방송의 중심 소재를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청취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계획의 일부이다. 방송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부]

1. 오프닝

2. 주요 내용 전달

- ▷ 유통기한의 의미
- ▷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하는 경우㉠
- ▷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종류
- ▷ 유통기한 설정실험 식품의 예㉡
- ▷ 실측실험과 가속실험의 방법㉢
- ▷ 실측실험과 가속실험의 장단점㉣
- ▷ 외국에서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3. 청취자 문자 메시지 소개

4. 클로징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 다음은 방송 중 청취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청취자 1: 진공 포장을 하면 기존보다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청취자 2: 실측실험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는데 계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청취자 3: 실측실험의 대상과 가속실험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취자 4: 유통기한 사용 여부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행할 때 유용하겠어요.

청취자 5: 실험을 통해 산출된 기간보다 유통기한을 짧게 정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한 것이겠군요.

- ① ‘청취자 1’은 방송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언급하고 있군.
- ② ‘청취자 2’는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군.
- ④ ‘청취자 4’는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⑤ ‘청취자 5’는 방송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4~7] (가)는 ○○시청에 제출할 건의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지역모니터링반 학생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 주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가 전국적으로 많이 ㉠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부터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시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관한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설치율이 낮아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미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화면이 손상되거나 작동이 멈춰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현재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시각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시각 장애인들이 ㉢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설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로 단기간에 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부터 단계적으로 안내단말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점검 및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단말기 고장이나 오작동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든다면 보다 신속하게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음성 정보 안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정보 안내 버튼이 생긴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율을 높이고 기존의 안내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기능을 보완한다면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는 문화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학생 1: 자, 시청에 제출할 건의문을 검토해 보자.

학생 2: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이용할 때 겪었던 문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해 봤어.

학생 3: 고생했어. 우선, 글의 첫째 문단부터 살펴보자. 내 생각에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추가해서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 2: 그 생각은 미처 못 했네. 추가해 볼게. 그런데 둘째 문단에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관한 문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 3: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인근 도시에 비해 우리 시의 [A] 안내단말기 설치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면 좋겠어.

학생 2: 그런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통계 자료가 나오면 읽는 데 불편하지는 않을까?

학생 1: 아니야. 오히려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면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날 것 같아.

학생 2: 그럴 수 있겠네. 조사해서 반영해 볼게.

학생 3: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음성 정보 안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

학생 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 1: 그랬구나. 교통 약자층을 위한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학생 3: 다음으로 셋째 문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학생 1: 우리 시에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어 안내도 제 [B] 공됐으면 좋겠어.

학생 2: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 내용도 반영해서 써 볼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글을 좀 더 인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학생 3: 마지막 문단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좋아, 그렇게 해 볼게.

학생 3: 그리고 ㉤ 시장님께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하니까 어법에 맞게 썼는지, 내용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꼼꼼히 점검해 보자.

학생 1, 2: 그래.

4. 다음은 ‘학생 2’가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상태를 언급해야겠어.
- ② 건의 내용의 현실적 수용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단계적 설치를 제안해야겠어.
- ③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을 제안해야겠어.
- ④ 중심 소재와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와 관련된 전국적인 추세를 활용해야겠어.
- ⑤ 신속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언급해야겠어.

5.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1’과 ‘학생 3’의 대립하는 의견을 ‘학생 2’가 절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 모두,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재진술하며 동의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모두, ‘학생 3’은 ‘학생 2’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학생 2'가 (나)를 참고하여 (가)에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성]	[계획]
처음	▶ 첫째 문단에 '○○시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①
중간	▶ 둘째 문단에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 □□시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율은 60%인데, 우리시의 설치율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②
	▶ 둘째 문단에 '지금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가 시각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안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통 약자층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③ ▶ 셋째 문단에 '외국인들을 위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에 외국어 안내 기능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④
끝	▶ 넷째 문단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기 위한 열쇠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⑤

7. (나)의 ㉠를 고려하여 (가)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설치되고'로 고친다.
- ②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리고'로 고친다.
- ③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난해함'으로 고친다.
- ④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시각 정보를'를 첨가한다.
- ⑤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8 ~ 10] 글을 쓰기 위해 (가)를 작성한 후, (나)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글의 목적: 지역 사회의 쟁점을 선정하여 하나의 관점을 택해 근거를 들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한다.
-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 ㉡ 많은 주민들은 문화재 복원과 보존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우리 지역 사찰인 ○○사에 있는 탑의 현재 상태와 복원 혹은 보존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있다.
 - ㉣ 건축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다.

(나) 자료

㉠ 역사 에세이
고려 말기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해지자, 왕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에 탑을 세웠다.

㉡ 지역 신문
얼마 전, △△ 마을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택을 복원했다. 그런데 원래 쓰였던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 다른 품종의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고, 이 고택의 건축 과정에 대한 과거의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붕을 복원하였다. 그 결과 고택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지 못했다.

㉢ 전문가 인터뷰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들은 주변 건물이나 자연 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탑은 주로 산속의 절 안에 있기 때문에 탑은 산의 형세와 절 내부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건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사의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 학생의 글

문화재 관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복원과 보존이다. 복원은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대로 다시 만드는 것을, 보존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사에 있는 훼손된 탑의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탑의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탑의 상층부가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탑이 놓여 있는 지반이 복원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탑을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하자고 한다. 그들은 이를 통해 더 완전한 형태의 문화재를 대중에게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복원보다는 보존이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탑을 보존하면 탑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 진정한 역사 교육이 가능하다. 우리 지역의 탑은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란을 겪으며 훼손된 흔적들이 더해져 지금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탑을 복원하면 이런 역사적 의미들이 사라져 그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정확한 자료가 없이 탑을 복원하면 이는 결국 탑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의 탑을 건축할 당시 사용한 재료와 건축 과정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현재는 소실된 상황이다. 따라서 원래의 재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건축 과정에 충실하게 탑을 복원하지 못하면 탑의 옛 모습을 온전하게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탑을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탑을 보존하면 탑과 주변 공간의 조화가 유지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탑은 주변 산수는 물론 절 내부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탑의 복원만을 목적으로 탑의 위치를 옮긴다면 탑과 기존 공간의 조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탑은 보존하는 것이 박물관으로 옮겨서 복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건축 문화재의 경우 복원보다는 보존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도, 탑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계승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8. (가)의 ㉠ ~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1문단에서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2문단에서 우리 지역의 탑이 훼손된 정도를 제시한다.
- ③ ㉢을 고려해, 2문단에서 탑을 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4문단에서 탑의 건축 과정을 설명하며 복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6문단에서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탑의 복원보다 보존이 긍정적임을 강조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이 세워진 역사적 의미를 제시했다.
- ② ㉡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을 만들던 당시의 건축 재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 ③ ㉢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의 경우에 건축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복원이 어려움을 제시했다.
- ④ ㉣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우리 지역 탑을 이전해야 함을 제시했다.
- ⑤ ㉣을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은 절 내부 건축물들과 조화를 고려하여 세워졌음을 드러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역사 교육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탑을 복원하면 사람들은 원형에 가깝게 완성된 탑의 모습을 보면서, 형태가 훼손된 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과거의 문화적 양식이나 아름다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탑을 복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대의 역사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① 복원된 문화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게 만든다.
- ② 문화재를 보존해서 실제 경험하도록 해야 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③ 복원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내면화하려면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해 온 해외 사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④ 과거의 문화적 양식이 문화재 복원으로 인해 계승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⑤ 문화재의 보존만이 역사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은 복원을 통해 완성된 형태가 주는 교육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이형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해야 한다. ‘이’와 ‘가’는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하다. 하지만 의미의 동일성만으로는 이형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각각의 형태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이형태인지를 알 수 있다. 주격 조사 ‘이’는 자음 뒤에만 나타나고 주격 조사 ‘가’는 모음 뒤에만 나타나므로, 이 두 형태가 나타나는 음운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가’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형태 관계에 있다. 이형태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막았다’의 ‘-았-’과 ‘먹었다’의 ‘-었-’은 앞말 모음의 성질이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이와 달리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형태를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하였다’의 ‘-였-’은 ‘하-’라는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서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였-’은 ‘-았- / -었-’과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에 있다.

이형태는 중세 국어에서도 나타났는데 현대 국어와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에’는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이형태가 존재했다.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에’가, 음성 모음일 때는 ‘에’가, 단모음 ‘이’ 또는 반모음 ‘ㅣ’일 때는 ‘예’가 사용되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이 사과는 민수한테 주는 선물이다.
㉠ ㉡
-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하여라.
㉢ ㉣
- 영수야 내 손을 꼭 잡아라.
㉤ ㉥
- 영숙아 민수에게 책을 주어라.
㉦ ㉧ ㉨

- ① ㉠은 모음 뒤에만 나타나고 ㉡은 자음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겹치지 않겠군.
- ② ㉢과 ㉣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형태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은 ㉥, ㉨과 비교했을 때, 특정 형태소와 어울려서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형태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과 ㉦은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로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이겠군.
- ⑤ ㉥과 ㉨은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겠군.

1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탐구 자료
 [중세 국어] 狄人(적인)스 서리(㉠) 가샤
 [현대 국어] 오랑캐들의 사이에 가시어

[중세 국어] 世尊(세존)이 象頭山(상두산)(㉡) 가샤
 [현대 국어] 세존께서 상두산에 가시어

[중세 국어] 九泉(구천)(㉢) 가려 하시니
 [현대 국어]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탐구 내용
 ㉠~㉢는 부사격 조사로, 앞말 모임의 성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는 (㉤) 이형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① | 예 | 애 | 에 | 음운론적 |
| ② | 예 | 에 | 애 | 형태론적 |
| ③ | 애 | 에 | 예 | 음운론적 |
| ④ | 애 | 예 | 에 | 형태론적 |
| ⑤ | 에 | 애 | 예 | 음운론적 |

13.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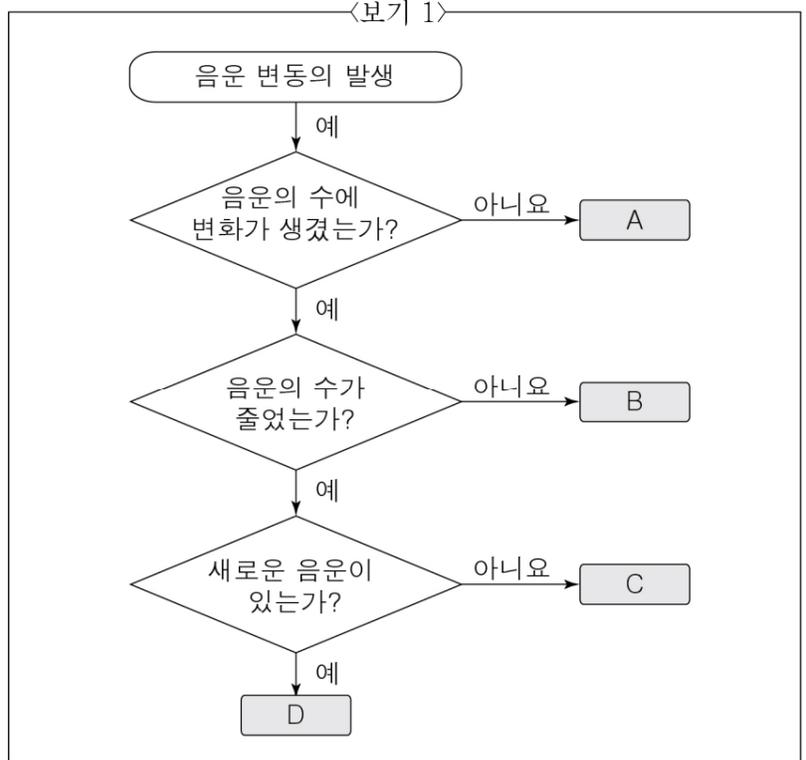
< 보 기 >

선생님: 오늘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서술어 자릿수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문장들을 살펴봅시다.

㉠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
 ㉢ 사람들은 산을 멀리서 보았다.
 ㉣ 그 산이 잘 보였다.

- ①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②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③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 ④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⑤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14. <보기 1>의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2>

- 그는 열심히 ㉠ 집안일을 했다.
- 그녀는 기분 ㉡ 좋은 웃음을 지었다.
- 그는 나에게 말을 하지 ㉢ 않고 떠났다.
- 세월이 화살과 ㉣ 같이 빠르게 지나갔다.
- 집이 추워서 오래된 ㉤ 난로에 불을 지폈다.
-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 옮는 경우가 있다.

- | | | | | |
|---|------|------|------|------|
| | A | B | C | D |
|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⑤ | ㉢, ㉣ | ㉡, ㉢ | ㉣ | ㉠ |

15.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지1 「의존명사」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 지2 「어미」
「1」(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않다', '못하다', '말다' 따위가 뒤따른다.
「2」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지3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서술, 의문, 명령, 제안 따위로 두루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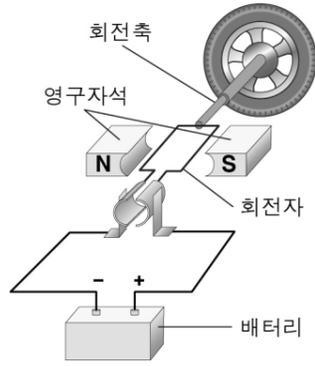
<보기 2>

- 내일은 비가 오겠지? ㉠
- 눈길을 걸은 지도 꽤 오래되었지. ㉡
- 친구 사이는 대등한 관계이지 종속 관계가 아니다. ㉢
-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

- ① ㉠은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보기 1>의 '-지2「1」'에 해당하겠군.
- ② ㉡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1'에 해당하겠군.
- ③ ㉢은 '-었-' 뒤에 붙어 쓰인 종결 어미에 해당하므로 <보기 1>의 '-지3'에 해당하겠군.
- ④ ㉣은 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2「2」'에 해당하겠군.
- ⑤ ㉣은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고 '마시오'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2「1」'에 해당하겠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 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회생제동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제동 장치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회생제동 장치는 제동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운행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회생제동 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은 전동기가 장착된 전기 자동차 구조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동기는 영구자석과 그 안쪽에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감겨 있고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공급되어 회전의 도선에 전류가 ㉠ 흐르게 된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되고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전자기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도선이 힘을 받아 회전자는 회전하게 되고, 회전축과 연결된 바퀴에 회전력이 전달되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 이때 회전자의 회전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영구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진다. 결국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동기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로 기능이 전환된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공급되는 전류가 차단되어 회전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므로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전자기력은 사라진다. 그러나 달리던 자동차의 관성으로 인해 바퀴는 일정 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상황이 된다. 바퀴가 회전을 돌리는 데에는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제동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도선으로 감긴 회전자에 영구자석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는 제동을 하면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회생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전압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되어야 비로소 회생제동의 효과가 발생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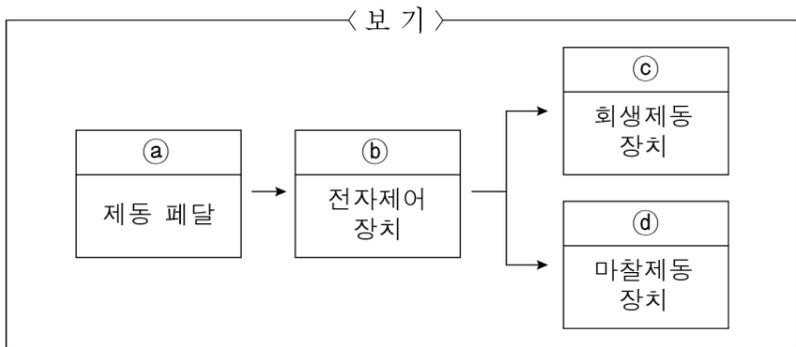
한편 회생제동 장치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제동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급정지처럼 짧은 시간에 큰 제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회생제동 장치만으로는 필요한 제동력을 얻기 힘들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황에서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회생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우선 페달에 있는 센서가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여 전자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전자제어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에 따라 제동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을 계산한다. 이와 동시에 현재 자동차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생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과, 이를 전체 제동력에서 뺀 나머지 제동력을 계산해 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자제어 장치는 회생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 이 신호가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을 차단하여 회생제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마찰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 마찰제동의 정도를 조절한다.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1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전자는 도선으로 감겨 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 ②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하면 바퀴가 움직이게 된다.
- ③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에 있는 제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 ④ 회전자의 회전력이 사라지면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자기장도 사라진다.
- ⑤ 전기 자동차의 제동력은 실시간으로 조절되어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17. <보기>는 운행 중인 전기 자동차의 제동 과정을 주요 장치들을 중심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밟게 되면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던 회전자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 돌아가게 되겠군.
- ② a에 있는 센서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면 a에서 b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겠군.
- ③ b에서 회생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을 계산하려면 a로부터 받은 신호와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해야겠군.
- ④ c가 b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이 차단되어 제동력이 발생하겠군.
- ⑤ d는 b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체 제동력에서 c가 발생시킬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하겠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그림>

회생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다. 이때 승강기의 전동기와 전기 자동차의 전동기는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하다. 탑승카를 올려 보내야 할 경우, A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전동기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므로 전기가 생산된다. 반면 B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전동기는 전기를 소모하여 탑승카를 움직이게 한다. 한편 탑승카를 내려보내야 할 경우, C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탑승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전동기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D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가볍다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 ① A의 경우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회전축을 돌린다는 점에서 달리던 전기 자동차의 관성과 유사한 역할을 하겠군.
- ② B의 경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군.
- ③ C의 경우 도선에 공급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회전자의 회전력은 커지겠군.
- ④ A와 C의 경우 전기 자동차에서 회생제동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상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B와 D의 경우 승강기는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제공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겠군.

19.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회생제동이 일어날 때에는 제동 과정에서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 에너지로 전환된 후 (㉡)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된다. 그런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① | 운동 | 전압변환 장치 | 회생 |
| ② | 운동 | 가속 페달 | 마찰 |
| ③ | 전기 | 전압변환 장치 | 회생 |
| ④ | 전기 | 가속 페달 | 마찰 |
| ⑤ | 전기 | 전압변환 장치 | 마찰 |

2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교실에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 ② 자루에서 쌀이 다 흘러 버렸다.
- ③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 ④ 우리가 헤어진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 ⑤ 이 가스관 속에는 고압 가스가 흐른다.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다르게 배분되며 불법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법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원칙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을 찾고자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이다.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한다.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주의 비용은 커지지만,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줄어든다. 주의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을 살펴보자. ㉠ **비책임원칙**은 불법행위는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달리 ㉡ **과실원칙**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이때 과실이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과실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비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책임원칙하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법원이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 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한다. ㉢ **결국 엄격책임원칙과 과실원칙은 모두,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 된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이 있다. 먼저 ㉣ **기여과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는 항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경우, 우선 과실원칙이 적용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가해자에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되면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기여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이 원칙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 비교과실은, 양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큰 쪽이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책임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여과실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가해자가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구별된다.

21.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비교과실의 한계
- ② 불법행위의 개념
- ③ 불법행위법의 기능
- ④ 주의 수준에 대한 정의
- ⑤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의 차이점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불법행위의 억제에 효율적이다.
- ② ㉡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③ ㉢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④ ㉠은 ㉡과 달리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 ⑤ ㉣은 ㉡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②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④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해서 불법행위의 발생 확률이 최대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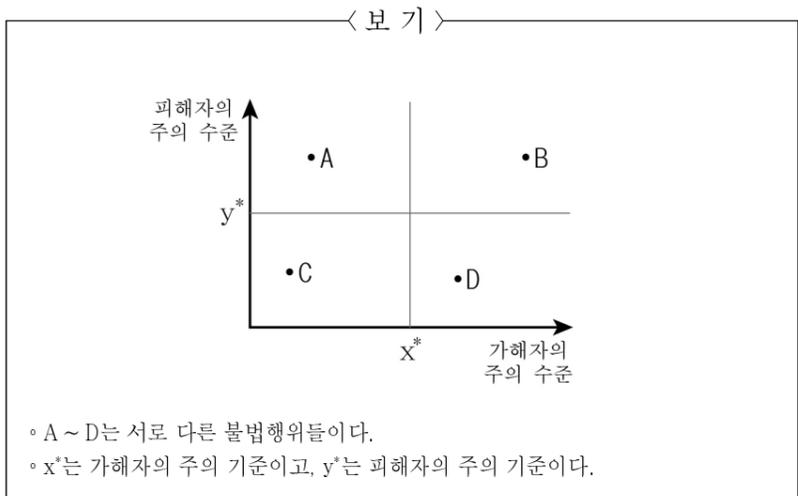
< 보 기 >

○영화 속 장면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는데, 한 달 후 변압기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순간 변압기가 폭발하여 갑은 큰 화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을은 변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
여기서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가해자야. 그리고 변압기 폭발로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에 대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① 학생은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군.
- ②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생각했군.
- ③ 학생은 변압기가 폭발한 것과 관련하여 을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았겠군.
- ④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겠군.
- ⑤ 학생은 을이 변압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군.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y*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② B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켰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 ③ C의 경우 가해자도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y*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 ④ A와 C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⑤ B와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알고 있으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비도덕적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기 조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현대 심리학 이론들이 있다. 자기 조절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사고, 감정, 욕구, 행동 등을 바꾸려는 시도인데,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자기 조절의 성공을, 반대의 경우는 자기 조절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앨버트 밴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과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이 있다.

밴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기 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밴두라에 따르면, 자기 조절은 세 가지의 하위 기능인 자기 검열,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자기 검열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로,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 현재 자신의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판단은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기준인 개인적 표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하게 될 행동 이후 느끼게 될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 반응은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는 행동은 만족감이나 긍지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 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 낸다.

한편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은, 사회 인지 이론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대해 자연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조절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개인적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동기, 자기 조절에 들이는 에너지로 구성된다. 바우마이스터는 그중 에너지의 양이 목표 성취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조절에서 특히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다양한 자기 조절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양은 제한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기 조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긴박한 욕구나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에너지의 일부를 남겨 두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도덕교육에서, 밴두라와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조절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의 비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기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밴두라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정당화나 책임 전가 등과 같은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판단을 할 때 자기 반응을 예측하는데, 교육 등의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보편적인 도덕규범인 도덕적 표준을 어겼을 경우 느끼게 될 죄책감을 예측한다면 인간은 자기 조절을 하여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조절의 성공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기 판단 과정에서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죄책감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은 도덕적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자기 조절의 실패에 해당한다. 이에 밴두라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 자기 조절의 성공을 위해 ㉠ 자기 효능감의 신장을 강조한다.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 조절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신장되면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조절 과업들에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과업에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감소된 상태, 즉 자아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직후의 자기 조절 과업의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바우마이스터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위해 ㉡ 자기 조절의 자동화를 강조한다. 자기 조절의 자동화는 자기 조절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한 자기 조절의 자동화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26.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특정 개념을 다루고 있는 두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특정 개념을 바탕으로 두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비교하고 있다.
- ③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이론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보여주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7. 윗글의 ㉠ 자기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조절에서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 ② 밴두라는 자기 조절 능력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 ③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자기 조절의 성공을 의미한다.
- ④ 밴두라는 자기 조절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 정당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밴두라는 자기 조절의 성공이라고 본다.

28.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② 개인적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연습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③ 인간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④ 자연과학적 근거를 통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⑤ 구체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정한다.

29.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P 씨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우선 그는 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점심시간이 2시간인 자신의 근무 환경을, 그리고 편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을 냉철하게 관찰하였다. 그래서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30분씩 충실하게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 달 후 P 씨는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해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는 못했다.

- ① P 씨가 느낀 만족감은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한 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이다.
- ② P 씨가 놓여 있는 근무 환경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검열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적 요소이다.
- ③ P 씨가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정하여 매일 충실하게 운동하기로 다짐한 것은 자기 판단에 해당한다.
- ④ P 씨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자기 반응이다.
- ⑤ P 씨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편식하는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30. 윗글의 학자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갑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규범을 배웠고 이를 신념으로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인류 전체에 재앙이 닥친 상황에서 자신의 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라고 갑에게 지시했다. 갑은 우주선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우주선을 만들었다.

○ 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 왔기에,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실수를 숨길 수 있었지만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상사와 대화를 나눈 직후,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동료에게 을은 급히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 ① 밴두라: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상사의 지시는 갑의 자기 면책적 사고를 유발했겠군.
- ② 밴두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은 갑이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도덕적 표준에 해당하겠군.
- ③ 바우마이스터: 을이 동료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 둔 에너지마저 모두 소모했으므로 을의 에너지는 고갈되었겠군.
- ④ 바우마이스터: 을은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 놓는 행동에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동료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겠군.
- ⑤ 바우마이스터: 을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아아 경주역(慶州驛).

이처럼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그 안전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고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그나라
 백성. 고향사람들.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연꽃하늘 햇살속에
 그렇저렇 사는
 그들의 향렬을. 성(姓)받이를.

이제라도
 갈까부다.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이고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느듯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부다

무슨 소리를.
 발에는 족가(足枷)*.
 손에는 쇠고랑이
 귀양온 영혼의
 무서운 형벌을.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돌결마다
 구릿빛 싯별건 그 무늬를.

- 박목월, 「사향가(思鄉歌)」 -

*족가: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형구.

(나)
 ㉠ 옷을 껴입듯 한겹 또 한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 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겹 많은 물고기들을 두 눈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자위를
 ㉤ 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 박남준, 「따뜻한 얼음」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공간의 대립을 통해, 고향을 떠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는데, 이상적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고향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 ① ‘막막한 지역’에서 ‘영혼의 나라’를 떠올리는 것에서 현실적 공간에 있으면서 이상적 공간을 소망하는 화자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그나라’에서 ‘백성’이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볼 수 있군.
 - ③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렇저렇 사는’ ‘그들의’ 모습은,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새까만 밤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려는 화자가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것에서 고향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귀양온 영혼’이 ‘손에는 쇠고랑’을 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군.
3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자기희생적인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디만큼 와았니?”
 “신작로까지 와았다.”
 이것은 오빠가 생각해 낸 놀이였다.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신작로 길을 따라 재울재울 걷는 동안 배고픔과, 어쩌면 어머니가 아주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잊을 수 있어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이런 문답놀이를 했다.
 “어디만큼 와았니?”
 “다 와았다.”
 그러면 우리는 담장에서 뛰어내려 어슬어슬한 땅거미 속에 솟아오르듯 나타나는 어머니를 향해 뛰는 것이 놀이의 끝이었다. 때로 우리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먼 낮은 곳에서부터 집까지 쉬엄쉬엄 다리를 쉬기도 하며 떡도 사 먹고 한껏 늑장을 부리며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 오빠는 개울에 빠졌다거나 산골이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는 대답으로 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곤 했다. 땅거미는 제법 짙어져 동구 밖의 신작로가 널어 놓은 광목천처럼 희게 떠올랐다. 어디까지 와았니, 어디까지 와았니, 내가 짜증스럽게 잇달아 채근을 해도 오빠는 ‘정자나무까지 와았다’라는 대답을 잇은 듯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다.
 (중략)
 사실 그때의 일은 빛 바랜 천연색 사진처럼 대단히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남아 있어, 대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러하듯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한갓 공상이었는지 분명치 않았다. 그런대로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함과 정다움으로 호젓이 젖어들곤 했다.
 오빠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은 풍뎡이를 땅에 묻고 일곱 밤이 지나면 나비가 된다고 했고 또 꽃씨를 먹고 햇빛에 나와 앉아 있으면 뱃속에서 꽃나무가 자란다고 했다. 미역 다발이나 김 따위를 잔뜩 이고 행상을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여름 저녁 나는 무논에 돌 떨어지듯 툼벙툼벙 울어대는 땀부기 소리를 들으며 땀복땀복 땀복새, 노래를 불렀다.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하는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부르며 어서어서 오빠가 커서 엄마가 장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 노래처럼 내게 비단 구두를 사오게 될 날을 꽤나 절박하게 소원했던 것이다.
 속초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오빠의 편지가 회사로 날아온 것은 그저께 오후였다.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외로움을 나누기로 했다는 극히 피상적이고 짧은 내용 끝에 돈을 부치라는 추신이 붙은 엽서를 받은 후 ㉡ 거의 2년 동안 한 자 소식도 없어 나는 오빠에 관한 소식이라면 부고거나 유서쯤이 아닐까 각오했던 터여서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그러나 편지는 유서도 부고도 아니었다. 스물이 갓 넘은 율케는 아이를 낳고 젖몸살로 앓아 누웠고 뱃속에서부터 영양이 부실했던 아이는 그나마 젖구경도 못 해 팔 개월이 지나도록 뒤채지도 못한다는 것, 오징어 철이 되면 틀림없이 값이 테니 5만 원만, 아니 3만 원만이라도 급히 보내 달라는 내용이 비명처럼 적혀 있었다.
 “시간을 내어 내가 한번 가거나 널더러 다녀가라는 것이 도리

인 줄을 알지만.....” 오빠는 덧붙였다. 직장에 매인 몸이니 굳이 시간을 낼 것은 없고 또한 구차하게 사는 모양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돈만 부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 “네게 도움은 못 줄망정 괴로운 부탁만 늘어놓는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하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오랜만에 쓰는 편지인 탓인지 술을 마신 탓인지 꽤 긴 내용은 술꾼의 주정처럼 두서가 없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를 받아 쥐고 나간 이래 나는 오빠에게서 세 번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매번 그렇게 절박했다.
 나는 균형을 잃고 흔들거리는 글씨에서, 몇 밤을 망설인 끝에 술기운을 빌려 비로소 옆드려 끄적거렸을, 자괴지심에 가득 찬 오빠의 얼굴과, 손에 쥔 볼펜이 거북스러울 정도로 물질에 거칠어졌을, 예전에는 유난히 가늘고 곱던 손을 떠올리며 가슴이 막혀 왔던 것이다.
 - 오정희, 「겨울 땀부기」 -
 (나)
 #89. 바닷가
 석양에 물든 바닷가. 유봉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철가>를 부른다.
 유봉: (♫) 속절없이 가 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내가 가도 여름이 되면.
 송화의 소리가 들려온다.
 송화(E.): 아버지의 마지막은 날마다 사철가를 부르시다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내게 더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으신 것만 같어.
 #90. 유봉의 임시가묘
 송화는 유봉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봉의 뜻을 계속 이야기한다.
 송화: 아버지는 어떡하면 내게 더 큰 소리를 심어 주실까 평생토록 그 일만 생각하다 가셨다.
 동호, 일어선다.
 동호: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못 하는 이유를 누나도 언젠가는 알게 될거야.
 그러면서 송화에게 탄피 반지를 건네준다.
 동호: 이거 내가 탄피로 만든 반지야. 누나 주려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네. 자주 닦아 주지 않으면 녹이 슬어.
 동호는 탄피 반지를 쥐어 주고는 그 길로 돌아선다. 붉은 수수밭을 걸어가는 동호의 얼굴. ㉣ 송화의 얼굴. 눈물이 글썽거린다. 탄피 반지를 꼭 쥐는 송화의 손.
 동호(E.): 나는 누이와 그런 식으로 헤어진 걸
 (중략)
 #131. 송화가 일하는 술집 안
 술집 문을 열고 술꾼과 동호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술꾼이 주인 여자에게 소리를 같이 듣자고 청한다.
 송화(E.): (♫)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헤영 한푼 두푼 모인 금전
 술꾼: (주모를 향해) 아즈망, 우리도 같이 듣께마심.
 송화(E.): (♫) 서방님 용돈에 아- 다 나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주인 여자가 방문을 열자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는 송화의 모습이 보인다.
 송화: (♫) 이어도사나 아- 이어도사나 요넬 젓엉 어딜 가나

#132. 송화의 집으로 가는 길, 밤

밤길을 동호와 송화가 나란히 걸어온다.
 송화(E.): (♫) 진도 바다 아- 글로나 가자
 밤길을 걸으며 동호와 송화가 이야기를 나눈다. 밤길에 익숙치 않는 동호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다.
 송화: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냐?
 동호: 알고 오기는. 누나 어렸을 때 제주 뱃사람한테 얻어 왔다는 **말**이 생각나서.
 송화: 조심해라.
 동호: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네.

#133. 송화의 집 앞, 밤

송화가 사는 집 앞에 당도한 두 사람. 불이 켜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송화: 내가 사는 집이다.
 동호: 불이 켜져 있네.
 송화: 장님이 무슨 밤낮이 있건냐만 사람 사는 집 표시로 늘 켜두고 지내. 무당이 살던 집인데 내가 세 들어 살어. 들어가자.

#134. 송화의 집 부엌 - 방 안

송화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동호는 부엌으로 난 문 옆에 앉아서 동호에게 줄 라면을 끓이기 위해 준비하는 송화를 지켜본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두 사람.
 (라디오 프로그램 소리)
 동호: 판소리는 아주 작파*했어? 누나가 이어도 타령이 뭐야?
 송화: **① 이어도가 정말 있으면 그 섬으로나 들어갈까 하고 왔는데 그 소리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네. 애는 잘 자라냐?**
 동호: 어, 많이 컸어. "전설따라"네.
 송화: 나 그거 안 빼고 들어.
 송화의 단정한 책상 위로 라디오와 점자판이 보인다.(책상 C.U.) 라면 냄비에 달걀을 깨서 넣는 송화의 능숙한 손. 동호가 송화에게서 상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간다. 라면을 먹으려다 송화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탄피 반지를 슬쩍 본다.
 동호: 반지가 옛날 그대로네.
 송화: 닦지 않으면 녹슨다고 내가 그랬잖아.
 송화는 탄피 반지를 만지작거린다. 라면을 맛있게 먹던 동호가 송화를 올려다본다. 송화는 동호의 시선을 느끼고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군다. 치맛자락으로 버선발을 가리는 송화의 손.(손 C.U.) 다 먹은 상을 물리면서 동호는 중동 이야기를 꺼낸다.
 동호: 나 중동 갈려고. 사막에다 수로 놓는 공사판에.
 송화: 거긴 왜?
 동호: 돈 벌려고.
 송화: 돈은 벌어서 어디 쓰게?
 동호: 누나 맘 편히 소리 공부할 수 있는 집 한 칸 지으려고. 나도 누나 때문에 요 점자공부 좀 했네. 누나 심심할까봐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도 모아 놓고, 누나한테 동호의 말을 들으며 송화는 눈물짓는다.
 동호(E.): 읽어줄 재미난 책 구한다고 소설도 꽤 많이 읽었네. 글을 먹던 동호, 눈물 흘리는 송화를 올려다본다.

- 이청준, 「천년학」 -

* 작파: 어떤 계획이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어 버림.

34.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3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오빠'의 대답을 들은 '나'의 걱정이 내재되어 있다.
- ② ㉡에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오빠'로부터 편지를 받은 '나'의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에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나'에게 괴로운 부탁을 하는 '오빠'의 미안함이 내재되어 있다.
- ④ ㉣에는 자신을 생각해 주는 '동호'와 이별하고 있는 '송화'의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 ⑤ ㉣에는 '동호'와 헤어진 후 자신의 꿈 때문에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송화'의 절망감이 내재되어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사가 드러나는 갈래에서 서사의 간극은, 서사의 흐름에 따르는 모든 사건들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이의 틈을 의미한다. 그래서 독자는 제시된 사건들 속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의 간극에 숨겨진 인물의 정서나 상황의 지속 및 변화를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

- ① (가)에서 '비단 구두를 사'울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했던 오빠에게서 '돈을 부치라는' '엽서를 받은' 것을 통해 오빠에 대한 나의 정서가 변화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금반지'를 들고 나간 오빠가 '틀림없이 갚'겠다는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 오빠의 형편이 점차 나아져 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군.
- ③ (나)에서 송화가 '탄피 반지'를 받으며 들은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옛날 그대로'의 상태로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해 동호에 대한 송화의 정서가 지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애는 잘 자라냐'라는 질문에 '많이 컸어'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 송화와 동호가 떨어져 지냈던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임을 추측할 수 있군.
- ⑤ (나)에서 동호가 '점자공부'를 하고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를 모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송화에 대한 동호의 정서가 지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군.

37. **편지**와 **말**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제시하여 인물의 처지가 드러나게 한다.
- ②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인물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 ③ 현재의 사건을 언급하여 인물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한다.
- ④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 ⑤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여 인물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나게 한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나리오에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클로즈업(C.U.)과 이펙트(E.)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클로즈업은 인물이나 배경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어 주로 장면의 의미 등을 부각하는 방법이고, 이펙트는 화면에 음향을 삽입하여 장면 속 상황을 전달하거나 장면 전환을 하는 등의 효과를 준다.

- ① #89에서의 이펙트는 #90에서 송화의 대사로 이어지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 ② #131에서의 이펙트는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방문 안 송화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효과로 활용되고 있다.
- ③ #132에서의 이펙트는 #131의 송화의 노래와 이어지며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 ④ #134에서 송화의 책상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의 일상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⑤ #134에서 송화의 손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를 원망하는 동호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군이 다음날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남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오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다. 저녁밥을 먹고 혼자 여관방에 쓸쓸하게 누워 있으니, 남자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마치 병이 날 것 같은지라. 선군은 남자가 신신당부하던 말도 무시하고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선군이 담장을 넘어 남자의 방에 들어가니, 남자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남군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 이처럼 밤에 왕래하시나이까? 만일 이러시다가 도중에 천금처럼 귀한 몸에 병이라도 나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남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남군의 숙소로 찾아가겠나이다.”

“남자는 규중의 처자로 밤에 다니기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외까?”

“그러하오면 좋은 묘책이 있나이다.”

이어서 남자가 그림을 하나 내주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제 용모를 그린 것이오니, 도중에 빛이 변하거든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아옵소서.”

하고 서로 이별하려 했다.

이때 마침 상공이 동별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남자의 방에

서 또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혼자 말하기를,

“이상하도다. 남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오? 또한 우리 집 담장이 높고 하인이 천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마음대로 출입하는고?”

하며 의혹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가더라.

남자는 시아버님이 문밖에 오신 줄 알고, 또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말하기를,

“아가야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꾸나.”

하며 끝내 남군이 온 자취를 감추었다.

시아버님이 처소로 돌아가신 뒤에 남자가 선군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남군이 왕래하는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오니, 어서 바빠 숙소로 돌아가소서.”

하니 선군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남자에게 물었다.

“네 남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들까 하여 내가 집 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네 처소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생각했노라. 그런데 또 어젯밤에 네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에 남자가 대답했다.

“밤이면 심심하기에 매월을 불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나이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방 안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겠나이까?”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자기가 분명 남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지라, 아무래도 이상하여 매월을 따로 불러 묻기를,

“네가 요사이 남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느냐?”

하니 매월이 아뢰었다.

“소인이 몸이 피곤하여 요사이 남자의 방에 간 일이 없나이다.”

상공이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어 말했다.

“요 며칠 사이에 밤마다 남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남자에게 물으니 ‘밤에 심심하여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도다. 어떤 놈이 남자의 방에 드나들면서 간통하는 것이 틀림없도다. 너는 남자의 방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그놈이 어떤 놈인지 꼭 알아오너라.”

이에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남자의 방을 감시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의 방에서 이상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지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자를 질투하던 첩 매월은 하인 돌쇠와 모의하여, 남자가 몰래 외간 남자와 만난다며 상공을 속인다. 매월의 말을 믿게 된 상공은 분노하여 남자를 심문한다.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긴 살가죽은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남자의 신세도 가련하거니와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오?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며 이렇듯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사오나 제 절개는 얼음과 눈같이 굳고 깨끗하며, 저 또한 ‘두 지아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나이다. 게다가 남군과

저는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 분명하거늘, 제가 어찌 외간 남자와 간통하겠나이까? 아무리 욕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제게 이처럼 흉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나이까?” 하며 목 놓아 섣게 우니,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더라.

그러나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기를, “재상가의 규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일이다. 하물며 네 방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으리오?” 하고 하인에게 호령했다.

“각별히 엄하게 매질하라!” 상공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남자에게 매질하니, 꽃처럼 고운 남자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는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

남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여쭙기를, “사실 그사이 낭군이 두 번 왔다 갔나이다. 낭군이 과거 보러 떠나던 날 겨우 삼 십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를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늘, 제가 이리저리 달래어 보냈나이다. 그런데 또 다음날 깊은 밤에 낭군이 돌아오셨기에 제가 억지로 내보냈나이다. 제가 이 일을 숨기고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나이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투기한 탓에 ㉠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아뢰며, 또한 낭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나이까?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낭군과 자식을 생각하여 차마 죽지 못하고 땅에 엎어져 기절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0.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군’은 ‘낭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 ②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낭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선군’에게 주었다.
 - ③ ‘상공’이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낭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④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 ‘낭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했다.
 - ⑤ ‘상공’은 ‘매월’이 최근에 ‘낭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숙영낭자전」에는 남성에게는 입신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의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당시의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을 꿈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 ① 남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남자가 ‘상공의 명’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남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선군이 남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 보러 떠나’는 것에서 입신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⑤ 남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42. ㉠에 드러나는 ‘낭자’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미시절(黃梅時節) 떠난 이별 만학단풍(萬壑丹楓) 느꼈스니
 상스일념(相思一念) 무한스*는 저도 나를 그리련이
 구든 언약 김흔 정을 닳들 어이 이것슬가
 인간의 일이 만코 조물(造物)이 시긔런지
 삼하삼추(三夏三秋) 지나가고 낙목한천(落木寒天) 또 되엇니
 운산이 머릿쓰니 소식인들 쉬울손가
 딴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몇때런고
 흥중의 ㉠ 불이 나니 구회간장 다타간다
 인간의 물로 못끄난 불이라 업것마는
 너 가삼 턴우는 불은 ㉡ 물노도 어이 못끄난고
 즈네 사정 너가 알고 너 사정 즈네 알니
 세우스창(細雨紗窓) 저문 날과 소소상풍 송안성*의
 상스몽(相思夢) 놀라 씨여 퍽킷키* 싱각하니
 방춘화류(芳春花柳) 조흔 시절 강누스찰 경기돛츠*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雲雨之樂) 협흡할제*
 청산녹수 증인두고 츄싱빅년 서로 땡세
 못보와도 병이 되고 더디 와도 성화로세
 오는 글발 가는 스연 즈즈획획 다정턴이
 엇지타 한 별니가 역여조기(怒如調飢) 어려웨라*

- 이세보, 「상사별곡(相思別曲)」 -

- * 상스일념 무한스: 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한함.
- * 딴인난: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
- * 송안성: 기러기 울음 소리.
- * 퍽킷키: 어떤 일에 대처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게.
- * 강누스찰 경기돛츠: 누각과 사찰의 경치를 따라.
- * 운우지락 협흡할제: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화목하게 지낼 때.
- * 역여조기 어려웨라: 임을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하여 마음이 힘들.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상사별곡」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토로하며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또한 이별의 원인과 이별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를 외적 요인으로 돌리려 한다.

- ① 화자는 ‘인간의 일’이나 ‘조물’과 같은 외적 요인을 임과 재회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떠올리고 있다.
- ② 화자는 ‘삼하삼추’와 ‘낙목한천’이라는 계절의 흐름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긴 한숨’과 ‘눈물’을 통해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는 ‘츄싱빅년’을 ‘서로 땡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임과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오고 가는 ‘글발’과 ‘스연’을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과거를 잊게 하는 소재이고, ㉡은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화자의 상황 해결이 어려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소재이고, ㉡은 화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지난 체험 학습 때 생태 공원의 교육관에서 함께 시청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죠? 저는 그와 관련하여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은 ○○ 나라의 항구 도시 □□입니다. 과거 이 지역은 수중 생물들이 방파제 역할을 했으나, 항구가 건설되면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 물이 범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운하인데요, 이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 왔는데, 최근에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학 시간에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가 될 수 있고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대부분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굴의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 도시의 해안가에는 원래 굴이 많이 서식했지만, 항구와 운하를 만들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굴의 서식지를 복원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굴 서식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물이 정화되고 암초처럼 크고 단단하게 굳어진 굴 구조체가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굴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운하에도 굴이 있습니다. 운하에서는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린 굴을 키웁니다. 이 장치의 부표 아래에는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있으며, 통로 양옆에 굴을 키우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의 굴들은 성장하면서 운하의 물을 정화합니다. 이 장치에서 어린 굴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해안가 근처의 암초망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작은 굴 구조체 덩어리가 형성되면 대규모 서식지로 옮겨집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화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과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굴 서식지에는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② 발표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발표의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중간에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보기>는 발표에 활용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세운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짚으며 ㉠이 만들어져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해야겠어.
- ② ㉡을 짚으며 ㉡에 설치되는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 ③ ㉠을 짚으며 ㉠이 조성되었을 때 나타날 변화를 제시해야겠어.
- ④ ㉠을 짚으며 굴 서식지의 확대로 ㉠에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을 설명해야겠어.
- ⑤ ㉢을 짚으며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에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3. <보기>는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

학생 1: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얼마 전 △△ 나라에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어 해일이 심해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맹그로브 숲이 복원될 필요가 있겠어.

학생 2: 도시 가까이에 생태계를 복원해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학생 3: 대규모 굴 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낮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운하가 만들어진 후 물이 잘 순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발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7] (가)는 학교 신문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 늘은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2: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거야.

학생 3: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행사의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므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A]

학생 1: 좋아.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 ㉡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학생 1, 3: 응, 그래.

학생 1: ㉢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좋아, 그런데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학생 2: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쓰면 좋겠어. 그리고 ㉣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학생 1, 3: 그게 좋겠다.

학생 3: 내가 취재해 보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

학생 1: ㉤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 알고 있는데,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고려하여 메뉴를 선정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을 거야.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좋아.

학생 1: 그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학생 2: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촉구하면 어떨까?

학생 3: 그런 내용은 기사문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어. [B]

학생 2: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할게.

학생 1: 응, 그래. 그리고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언급하면 어때?

학생 2, 3: 좋아.

학생 1: 그럼, 이제 기사문을 작성해 보자.

(나)

[표제]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급식 메뉴

[부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실시돼

[전문] 4월 3일(수), 3학년 7반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

[본문]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여 환경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1달에 1번씩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한다. 다음 달 급식 메뉴는 3학년 7반 학생들이 선정했다. 메뉴로는 흑미밥, 대패 삼겹살 구이, 상추쌈, 명이 나물, 된장국, 구슬 아이스크림이 선정되었으며, 4월 3일(수) 급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은 매월 잔반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선정된다.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3학년 7반 학생들은 먼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 식단표의 열량 정보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 급식 메뉴를 결정했다.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제공된 후 학생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현재 매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므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② ㉡: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난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③ ㉢: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기사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④ ㉣: 기사문의 내용이 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의 서술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⑤ ㉤: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다른 학생이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발화이다.

5.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도하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표제나 부제를 작성해야겠어. ㉠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행사의 효과를 부각해야겠어. ㉡
-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
- 급식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나)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퇴고 과정에서 나눈 대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기사문의 초고를 살피다 보니, 회의에서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학생 2: 그래, 맞아. 글의 맥락에 맞게,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 ①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 ②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선정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학생 선호를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선정 메뉴에 대한 불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③ 이 과정에 참여한 ○○○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다 보니 학교 급식 단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메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 ④ 이 과정에 참여한 ○○○은, 영양사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그 노고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⑤ 이 과정에 참여한 ○○○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고 열량으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메뉴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중략) ...

㉡ 최근 기술의 발달로 드론이 더 작고 가벼워짐에 따라 주택가, 사무실 등에서 비행이 가능해져 비행 중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법학자들은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이 드론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중략) ...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있다. 드론 산업 관계자들은 사전 규제 방식을 택한 상태에서 ㉤ 드론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활용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기술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초고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사전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대부분의 경우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전 규제 방식의 유지에 찬성한다.

드론은 고성능 카메라나 통신 장비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드론에서 수집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송하는 중에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드론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전 규제 방식이 유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드론은 인명 구조,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의 민간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 사생활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훼손, 가공 등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할 것이다.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제

약이 적기 때문에 드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드론 기술과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면 정보의 활용이 용이해져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명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개인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때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 ② ㉡을 고려해,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용이한 드론의 특성을 언급한다.
- ③ ㉢을 고려해,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원리와 한계를 설명한다.
- ④ ㉣을 고려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한다.
- ⑤ ㉣을 고려해, 사후 규제 방식의 도입으로 드론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구체화하여,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② b를 토대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③ c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개인의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④ d에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의 침해를 예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 ⑤ e를 참고하여,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여러 나라에서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 예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위조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신체나 재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배상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① 개인의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②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
- ③ 드론의 활용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되 개인 정보의 침해 종류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 ④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규제를 완화하면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위조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일어나는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 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방식을 절충해서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개인 정보의 악용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ㄱ, ㄷ, ㅂ'으로 교체되고, ㉡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ㄷ, ㅌ'이 'ㄱ, ㄷ'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용언 어간 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과 'ㄱ, ㄷ, ㅌ'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데 이를 통해 용언 어간 말음 'ㅎ'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똥(돌)', '나라(나라)'와 같이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히'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ㄱ, ㅌ'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ㅎ'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아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다.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야 체언 말음 'ㅎ'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뫼[한목]’을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② ‘농기[노키]’를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③ ‘끓지[끌치]’를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④ ‘값할[가팔]’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⑤ ‘맞힌[마친]’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12. [A]를 참조하여 <보기>의 ㉠~㉣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습 목표]
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하늬’에 대해 탐구한다.

[중세 국어 자료]

- ㉠ 하늬히 므스뵤 뉘우시니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
- ㉡ 하늬 光明中에 드러 (하늘의 광명 가운데에 들어)
- ㉢ 하늬 섬기습듯 혀야 (하늘 섬기듯 하여)
- ㉣ 하늬토 뉘며 (하늘도 움직이며)
- ㉤ 하늬과 싸과를 니르니라 (하늘과 땅을 이르니라)

- ① ㉠에서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없다.
- ④ ㉡와 ㉢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와 ㉤에서 체언에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 ‘과’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13.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 ㉢,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료]

-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
-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
-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

-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14. 사전 자료의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ㄴ- 「어미」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ㄴ 「어미」
①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다.
②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다.

[학습지]
각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요’는 ×로 표시하시오.

질문	-ㄴ-	-ㄴ		
		①	②	
○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미 ‘-(으)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간에 붙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가?	×	○	○	...㉣
○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	×	○	...㉡
○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 ㉡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 ㉢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 ① ㉠은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 ② ㉡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은 ㉠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와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역법의 ㉠ 운용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 『서경(書經)』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므로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했다.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여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했다.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추보*할 때는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보할 때에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이때의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입성이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어 놓은 계산표이다.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려 했다.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다. ‘칠정’이란 태양, 달, 다섯 행성의 운동을 가리키고, ‘산’이란 계산했다는 뜻이다. 『칠정산 내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다.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년(1447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하게 했다.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 정비했다.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교식 추보법 가령』이다. 이 책은 정묘년(1447년) 8월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것이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계산식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교식 추보 시각은 서로 달랐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 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 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영,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 했다.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다. 그러므로 영에서의 값인 ‘영차’는 양

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그 반대이다. ㉦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뒤처지면 ‘지차’라 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삭(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를 망(望)이라 한다.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 한다.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항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속도항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교식 추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지 200여년 뒤,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 통신사 사신 박안기는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 전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 『정향력』이 완성되었다.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칠정산 내편』, 『정향력』 등은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추보: 천체의 운동을 관측함.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상수시의 개념을 소개하고 고려와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변용하여 역법 제작에 응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언급하고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천문과 역법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와 그것이 끼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방법이 발달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교식 추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선 역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당대에 관측한 값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조선은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 ② 조선은 교식 후보 이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동도 역법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 ③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주도와 통제 아래 역법 연구가 수행되었다.
- ④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천체의 변화를 이해하여 하늘의 뜻을 알고자 역법을 마련했다.
- ⑤ 조선은 역법의 확립을 통해 유교적 이념의 실현을 위한 체계를 수립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8.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으나, 신(臣) 정초가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역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잡혔다. 그러나 이번(세종 12년)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 『세종실록』 권49

(나) (세종께서) “이 일의 요체는 북극출지의 고하(한양의 위도)를 정하는 데 있느니 먼저 간의를 만들어 올림이 좋겠다.”하시므로, ...(중략)... 먼저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북극출지 38도소를 정하니, 『원사(元史)』의 측정값과 부합하였으므로 마침내 구리를 녹여 부어 간의를 만들었다.

- 『세종실록』 권77

(다) 수시력과 통계의 체계에 근거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을 가려서 정밀한 것을 가려 뽑고 거기에 몇가지 항목을 더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하고, 『칠정산 내편』이라고 했다. ...(중략)... 수시력이나 통계법의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 이순지, 『사여전도통계』 발문(세종 26년)

- ① (가): 세종 즉위 전까지 조선에서 선명력을 사용해 교식을 후보할 때 오차가 컸겠군.
- ② (가): 세종 12년의 교식 후보의 오차 원인을 밝히기 위해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한 것이군.
- ③ (나): 교식 후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에서 천체 관측 기구가 제작되었겠군.
- ④ (다): 『칠정산 내편』 편찬에 기반이 되었던 중국의 역법으로는 수시력을 들 수 있겠군.
- ⑤ (다): 세종과 이순지 모두 중국의 주야각 입성이 우리나라의 주야각 입성과 다르다고 생각했겠군.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정묘년(1447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으로, 경삭이 일어날 때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의 후보법에 의하면 경삭이 일어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2.39였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4.99였다.

- ① 정묘년 8월 경삭 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 ② 정묘년 8월 정삭 후보에서 가감차 값은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 『교식 후보법 가령』보다 더 컸을 것이다.
- ③ 정묘년 8월 정삭 후보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에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 ④ 정묘년 8월 정삭 후보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영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 ⑤ 정묘년 8월 정삭 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20.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을 정확히 후보하기 위해 수시력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 ② ㉡: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③ ㉢: 근지점에서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고 간주했다.
- ④ ㉣: ‘질차’는 음의 값을, ‘지차’는 양의 값을 가진다고 보았다.
- ⑤ ㉤: 『교식 후보법 가령』의 속도항 값이 음의 값을 가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21. ㉠ ~ ㉣의 사전적 의미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씬.
- ② ㉡: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 ③ ㉢: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
- ④ ㉣: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룸.
- ⑤ ㉤: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씬. 또는 그렇게 함.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식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

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협에도 취약해진다. ㉡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정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2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
-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

26.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 ② 돌맹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다니기가 불편하다.
- ③ 그는 매일 아침 학교 앞 사거리를 거쳐서 회사로 간다.
- ④ 그 일들은 우리가 합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 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의 회상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는 주장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던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쪽에 기억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가려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 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는 학교 시절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다간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은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비약해 버리는 일이 흔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맘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 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 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 문이 아니라 은행 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는군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분 모르실 겁니다. 하하……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덴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로 척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선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 자리를 잡아 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쉴 새 없이 틈입자들을 감시하고 그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지요. 안쪽 사람들은 그 채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언제 그 사람들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앞쪽 쇠창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한 제일 방어선은 은행원들 중의 제일 쫓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다음 제일 선에서 그 쫓자들을 지휘 독전할 자리는 대리급 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지요. 이렇게 되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은 쇠창살 밑의 쫓자들 처지임이 뻔하지요. 싸움만 벌어졌다 하면 제일 먼저 체물이 되어야 할 친구들이 바로 그 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틈만 나면 늘 한 발이라도 뒷줄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싶어 안달 아닙니까. **승진**이라는 게 뭡니까. 승진이라는 게 바로 그 일선 창살 아래서 한 발이라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걸 바라지요. 그리고 좀처럼 해선 마음을 못 놓습니다. 싸움이 촉박하면 촉박해질수록 말입니다. 그런 점을 죄 알아차리고 보면 우리가 학교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시위를 벌이면서 소망한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은행 사무실의 그 희한하고도 음흉스런 좌석 배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걸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

손 박사는 그레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는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여 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줄거리]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쇠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된다.

[A]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 것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피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꾀뽀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 이청준, 「황홀한 실종」 -

2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윤일섭이 ‘쇠창살’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손 박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② ㉠은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왜곡된 기억이 ‘마음속의 쇠창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손 박사의 생각을 드러내 준다.
- ③ 윤일섭은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몰려는 손 박사의 음모가 ㉠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은 정작 ‘쇠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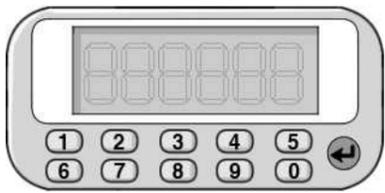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에서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윤택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의 태도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승진’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윤일섭의 모습은, 체제 속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연결된 것이겠군.
- ③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윤일섭의 모습에서,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윤일섭의 각성은,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를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한 윤일섭의 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엿볼 수 있겠군.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기술이다.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 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하고,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초기 OTP 발생기>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춑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춑값이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며, 카운트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춑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 인증 서버 역시 기춑값과 카운트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춑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일방향 함수란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춑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 번

수행하여 x_n 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x_n 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_n 을 일방향 함수 f 로 한 번 더 계산해 x_{n+1} 을 구하고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된다. 인증 서버 역시 기춑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1$ 번 수행하여 x_{n+1} 을 생성한 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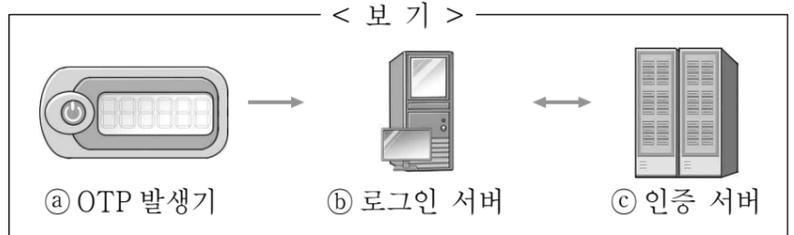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 동기화: 서로 일관성 있게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 같은 시점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

30.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②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에서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해야 인증에 성공한다.
-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 ④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
- 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다.

31.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와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 ②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a)와 (c) 사이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a)에서 생성한 비밀번호로는 인증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③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는 기춑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a)는 비밀번호를, (c)는 인증값을 생성할 것이다.
- ④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a)와 (c)의 카운트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 ⑤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았다면 (c)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 다음번 인증에 반영할 것이다.

32. ㉗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 ②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 ③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기숫값을 동기화하기 위해
- ④ 인증에 실패 시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하기 위해
- ⑤ OTP 발생기의 질릿값이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

33.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 2019년 3월 7일 오전 10:00에 인증을 시도하고, ㉡ 오전 10:30에 인증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리고 ㉢ 다음날 오전 10:30에 다시 인증을 시도하였다.

- ① ㉠에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 는 알아내기가 어렵겠군.
- ② ㉠과 ㉡에서 사용자 A의 r 는 서로 다르겠군.
- ③ ㉡과 ㉢에서 함수 f 를 n 번 수행한 x_n 은 같겠군.
- ④ ㉢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숫값은 서로 다르겠군.
- ⑤ ㉠~㉢에서 사용자 B의 x_{n+1} 들은 서로 다르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 남해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국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무양 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 정동한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 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

용왕 왈,
 “이는 수중의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칠십이 넘도록 녹발(綠髮)이 장춘(長春)이요, 또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하나니, 이는 극한 보배로소이다.”
 원수가 사양하다가 받으니, 용왕 왈,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와 과인의 수부를 보전케 하니, 어찌 천자에게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하고, 글월을 닦아 원수께 부치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사례하고 받으니, 일광노가 왈,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오.”
 하고, 일광주(日光珠) 한 알을 주고, 여동빈은 또 한 알 부채를 주어 왈,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에 부치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나니, 이는 큰 보배라. 그대는 잘 간수하라.”

하고, 두목지는 칼 하나를 주며 왈,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金瓢桶) 하나를 주며 왈,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로주라 하는 술이 있으니, 천만인이 먹어도 진(盡)치 못하나니 가져가라.”
 하니, 원수가 받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향하여 오더라.
 각설, 차시에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운이 통곡 왈,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노.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인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달래어 왈,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리오.”
 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 소소(昭昭)한 창천(蒼天)이 굽어살피실지라.
 용왕이 그 강의 용신(龍神)에게 칙지를 내리사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도로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부르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중략)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車上)에 실으려 하니, 난영이 소저를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왈,
 “가련하고 애닦을사, 유 부인 같은 요조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冤死)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오. 천지신명과 일월성신과 황천후토(皇天后土) 굽어살피옵소서.”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오.
 한참 이렇듯 험난할 제, 선영과 동한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바빠 베라.’ 재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재촉하더라.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 왈,
 [가]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계명(鷄鳴) 전에 다 올려 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가내하*로소이다.”
 원수가 차언을 듣고 양천 탄식하며 화산을 향하여 배례 왈,
 “이 강은 길이가 만 리요, 너비가 삼십 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너리이꼬. 선생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하고 무수히 배례하더니, 이때 화산 도사가 천지 산간에서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과,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조화를 부려 일엽소선을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원수가 대희하여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히 종남산을 바라고 말을 짓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 삼거리 에 무수한 사람이 삼대같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오색 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을 달았거늘,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라도.’
 하고 금편을 들어 말을 치니, ㉢ 이 말은 비룡마(飛龍馬)라. 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법장(法場)에 다다라 살펴보니, 부인은 기절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 제,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一陣)을 헤치고 수레를 박차며 남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정동한 등이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남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왈,

“부인아!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십시오.”

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왈,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모친은 진정하십시오 부친을 뵈십시오.”

하고, 얼굴을 한데 대고 땡굴며 통곡하니, ㉠ 천지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 남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동한 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大官)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십분 잉분(仍憤)하고 오직 부인을 구호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 무가내하(無可奈何): 달리 어찌할 수 없음.

3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 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 부인을 구했다.
- ② 김진옥은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한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 ④ 난영은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 ⑤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다.

35. [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여 주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심정과 조용하는 배경을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상황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주인공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 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전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 두 세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7.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과 ㉡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짐작케 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인물의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山水間)에 절로 늙어
공명부귀(功名富貴)를 뜻 밖에 잊었으니
차중(此中)에 청유(淸幽)한 흥미(興味)를 혼자 좋아 하노라
<제1수>

조그만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혼자 있어
청풍명월(淸風明月)을 벗 삼아 누웠으니
세상(世上)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새
조그만 초당(草堂)을 시내 위에 일워 두고
목전(目前)에 보이는 송죽(松竹)아 내 벗인가 하노라
<제4수>

산림(山林)에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世上事)를 모르노라
㉠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물외(物外)에 뛰어난 몸이 보은(報恩)이 어려워라
<제5수>
- 이홍유, 「산민육가」 -

(나)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을 들어를 가니, ㉢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 일도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이 좋을세고. 도화 만발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 축수 애삼춘(魚舟逐水愛三春)이어든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중략)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쿵쿵, 수정렴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쿵쿵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 낙조가 눈앞에 벌어나 경개 무궁(景概無窮) 좋을세고.

- 작자 미상, 「유산가」 -

* 소부 허유(巢父許由): 중국 요순시대에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인물들.

* 주곡제금(奏穀啼禽): 두견새.

* 적다정조(積多鼎鳥): 소쩍새.

(다)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몰랐다. 문 형은 몇 번이고 탄복하면서, 흡사히 동양화의 화폭 속을 거니는 감흥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한 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 다리는 즐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훨훨 벗어 꼭 쥐어짜면, 물에 행귀 낸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그림 같은 연화담(蓮花潭) 수렴폭(垂簾瀑)을 완상하며, 몇 십 굽이의 석계(石階)와 목잔*과 철삭*을 답과하고 나니, 문득 눈앞에 막아서는 무려 삼백 단의 가파른 사닥다리 — 한 층계 한 층계 한사코 기어오르는 마지막 발걸음에서 시야는 일망무제(一望無際)로 탁 트인다. 여기가 해발 오천 척의 망군대(望軍臺) — 아! 천하는 이렇게도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던가!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바로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서 있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봉은 단걸음에 건너될 정도로 가깝다. 그 밖에도 유상무상(有象無象)의 허다한 봉들이 전시(戰時)에 할거(割據)하는 영웅들처럼 여기에서도 우뚝 저기에서도 우뚝,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밑은 천인단애(千仞斷崖), 무한계(無限際)로 툭 떨어진 황천 계곡에 단풍이 선혈(鮮血)처럼 붉다. 우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의 칠보단장(七寶丹粧) 같다면,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수줍어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낮 붉힌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도 같구나!

저물 무렵에 마하연(摩訶衍)의 여사(旅舍)를 찾았다. ㉤ 산중에 사람이 귀해서였던가. 어서 오십사는, 상냥한 안주인의 환대도 은근하거니와, 문고리 잡고 말없이 맞아 주는 여관집 아가씨의 정성은 무르익은 머루 알같이 고왔다.

여장(旅裝)을 풀고 마하연사를 찾아갔다. 여기는 선원(禪院)이어서, 불경 공부하는 승려뿐이라고 한다. 크지도 않은 절이건만, 늙은 승려만도 실로 삼십 명은 됨 직하다. 이런 심산에 노승이 그렇게도 많을까?

┌ 무한청산행욕진(無限靑山行欲盡)
[A] └ 백운심처노승다(白雲深處老僧多)

옛글 그대로다.

노독(路毒)을 풀 겸 식후에 바둑이나 두려고 남포등 아래에 앉으니, 온고지정(溫故之情)이 불현듯 새로워졌다.

“남포등은 참말 오래간만인데.”

하며 불을 바라보는 문 형의 말씨가 하도 따뜻해서, 나도 장난삼아 심지를 돋우어 보았다 줄여 보았다 하며, 까맣게 잊었던 옛 기억을 되살렸다. 그리운 얼굴들이, 흐르는 물의 낙화(落花) 송이같이 떠돌았다.

- 정비석, 「산정무한」 -

* 목잔(木棧): 나무로 사다리처럼 놓는 길.

* 철삭(鐵索): 철사를 꼬아서 만든 줄.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움직임의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39.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주위의 단풍과 물아일체가 된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마하연 여사의 퇴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주로 자연에 귀의하여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나)와 같이 평민 계층의 전문 가객들이 부른 잡가에 나타나는 자연은 주로 아름다운 풍광의 재현을 통해 청중들이 대리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잡가의 자연은 감각적 흥을 극대화한 이상적인 유흥(遊興)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가)의 ‘공명부귀’는 화자가 관직에 나아가 이룰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조그만 이 내 몸’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내 벗인가 하노라’는 화자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는 화자가 자연을 이상향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경개 무궁 좋을씨고’는 화자가 아름다운 풍광을 통해 감각적 흥을 느끼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41.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하연 여사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여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른 여정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화담과 수렴폭을 둘러보았음을 밝히고 있다.
- ④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소감을 제시하며 망군대 등정 과정과 망군대에서의 조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마하연 여사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한 말에 공감하며 오늘 여정 중에 발생한 일행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의 ㉠에 들어갈 대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A]는 당나라 승려 영일(靈一)이 지은 한시의 일부로 ‘한없는 청산 끝나 가려 하는데, 흰 구름 깊은 곳에 노승도 많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글쓴이가 처음에 황혼 무렵 마하연사 주변에서 바라본 단풍의 애상적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저녁별 아래 수레 멈추고 단풍 일 바라보니(停車坐愛楓林晚), 서리 물든 가을 잎 봄꽃보다 더 붉네.(霜葉紅於二月花)’라는 구절을 인용하려 했다, 퇴고 과정에서 생각을 바꾸어 [A]를 인용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단풍에 대한 묘사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개상의 단조로움을 피해 (㉠)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마하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곳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려는
- ② 마하연사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알리려는
- ③ 마하연사의 유래와 마하연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절인지 소개하려는
- ④ 마하연사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방문하는 데에 고생이 많았음을 나타내려는
- ⑤ 마하연사에 옛날과 달리 종교적 교리를 익히기 위해 애쓰는 승려가 없음을 비판하려는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나)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짧게** 혹은
그네들에게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는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 문태준, 「극빈」 -

4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현재형 시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A] ~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이 계기로 작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오랜만에 들른 고향에 신고 갔던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해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나)는 ‘열무꽃’에 앉은 ‘나비’의 모습을 계기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A]: ‘강물소리’를 듣고 온 ‘구두’는 ‘귀’가 ‘얼어’ 있는 화자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서,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군.
- ② [B]: ‘꿈틀’대는 ‘부끄러운 촉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모습과 연결되고 있군.
- ③ [C]: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허락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화자가 ‘건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군.
- ④ [D]: ‘망설’임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서, 화자가 ‘열무꽃에 내려앉는’ ‘나비’를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고 있군.
- ⑤ [E]: ‘내줄 곳’과 ‘내준 무릎’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그것이 ‘없었’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는군.

4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찰랑찰랑’에서 ‘출렁출렁’으로의 어감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초면’과 ‘구면’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과거 경험이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짧게짧게’와 ‘느슨한’의 대비를 통해 동일한 것도 주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편편하게’와 ‘설핏설핏’을 통해 예기치 않게 조성된 화자의 상황이 대상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까스로’와 ‘비로소’를 통해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의 그림들을 봐 주십시오.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을 듣고) 잘 모르시는군요. 이 그림들은 인공지능이 그린 것입니다. (반응을 본 후) 놀란 분들이 많군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최근 예술 작품 창작까지 그 영역을 넓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과 유사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며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빅 데이터에서 수많은 패턴을 발견하여 정보를 해석, 추론하며 학습합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B]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작곡도 할 수 있고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인공지능이 창작한 소설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인간의 창작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정이 미흡하고 사건 전개에 개연성이 떨어지며, 인물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몇 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설을 창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C]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논란이 일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을 위해 인간의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공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에게 있다는 주장과, 직접 이를 창작한 인공지능에게 있다는 주장의 대립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을 놓고 인간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작 영역을 넓혀 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성격의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 창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를 마무리할 때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그와 관련하여 청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②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③ 용어의 유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질문을 들은 청중의 대답을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을 점검하여 수정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각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창작은 독창성을 중요시한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은 대상을 복제,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창작이 아니지 않을까?
- 학생 2: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어.
- 학생 3: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에 관심이 있었는데, 논란의 쟁점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 귀속 여부, 거짓 저작권 주장에 관한 것이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아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요약하며 들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를 생각하며 들었다.

3. <보기>는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자료를 [A]~[C]에 활용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자료 1>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구분해 결과물을 창조해 낸다. - 과학 신문 -

<자료 2> 소설을 쓰려면 인물, 사건, 배경을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인간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작가 인터뷰 -

<자료 3> 현행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창작적 행위만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저작권 연구 보고서 -

- ① [A]: 인공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구분한 후 각 단계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B]: 인공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는 데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B]: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C]: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인간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C]: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인간이 작업한 결과이므로 창작에 참여한 인간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였다.

[4 ~ 7] (가)는 공연을 앞둔 연극 동아리 부원들의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최근 3년 간 정기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의 수가 연속해서 줄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봐 걱정이네.

학생 2: 기존 공연에서는 학생들에게 너무 익숙한 교과서 작품을 공연했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니까 결과가 다를 거야.

학생 3: 맞아. 학생들에게 낯설면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자고 기획한 것은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였잖아. 기획한 대로 준비를 잘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거야.

학생 1: 나도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해. 하지만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예년과 같을 수 있을 거야. 특히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아. 학교 신문에 우리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싣는 것이 어떨까?

학생 2: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을까?

학생 3: 작품 제목, 공연 일시와 장소 등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리지 말고, 우리가 공연하는 작품이 의미 있는 작품임을 알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글을 쓰자.

학생 1, 2: 좋아.

학생 3: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할지 얘기해 보자.

학생 2: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면 좋겠어. 그 내용은 내가 준비해 볼게.

학생 1: 작품의 줄거리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 줄거리를 모두 밝히면 공연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거야. 줄거리의 일부만을 소개하되,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자. 줄거리 관련 내용은 내가 준비할게.

학생 1: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걸 내가 준비할게.

학생 2: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을까?

학생 3: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나열만 해서는 우리 공연을 인상적으로 소개하기가 힘들 것 같아.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공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글을 쓸 수 있을까?

학생 1: 공연 일시와 장소 등 공연에 관한 기본 정보를 어디에 제시해야 좋을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글의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학생 2: ㉡ 기본 정보를 글의 마지막에 제시하면 그 정보들이 부각되지 않아서 공연 일시와 장소를 잘 기억 못하지 않을까? 글의 첫머리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1: 그게 좋겠다. 공연 정보를 안내한 후에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작품 내용을 소개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잘 제시하도록 하자. 그리고 글의 끝부분에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공연 관람을 권고하도록 하자.

학생 2, 3: 응, 좋아.

학생 1: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글을 써 보자.

(나)

㉢

10월 17일(수)부터 10월 19일(금)까지 오후 6시에 학교 강당에서 ○○ 연극 동아리의 24번째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동아리에서는 정기 공연 때 교과서 속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서 속 작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너무 익숙한 작품을 공연하여 공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공연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낯설면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 작품은 독일 청소년 연극상 수상작인 「복서의 마음」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안한 「복서와 소년」입니다. 주인공은 왕년에 복싱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노쇠한 70대 노인과 학교 폭력을 겪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노인은 허름한 요양원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가던 노인의 방에 어느 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남학생이 찾아옵니다. 이 작품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신·구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학생은 노인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줄 알고 노인의 방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노인은 이 학생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친구의 죄를 뒤집어쓰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봉사를 오게 된 것도 알게 됩니다. 학생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 노인은 자신이 기억에서 의식적으로 지워 버렸던, 화려했던 과거와 해체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를 넘어서 소통하게 되고 각자의 상처 역시 치유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세대 갈등, 학교 폭력, 독거노인 문제 등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이고 학생은 학교 폭력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무기력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의식의 여행을 함께 계획합니다. 이들의 좌충우돌 거사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연을 보고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이 관람객 감소를 염려한 것은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② ‘학생 2’가 이번 공연의 결과가 기존 공연과 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공연 작품의 내용상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군.
- ③ ‘학생 3’이 이번 공연의 기획 의도를 제시한 것은 공연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 준비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군.
- ④ ‘학생 1’이 학교 신문에 공연을 알리는 글을 싣자고 제안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⑤ ‘학생 3’이 공연 작품이 의미 있는 것임을 알리자고 제안한 것은 공연을 예년과 다르게 기획한 의도를 고려한 것이군.

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상대의 견해를 참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상대의 요청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앞서 제시된 방안의 기대 효과를 예측한 후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상대의 의견을 요약한 후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연 정보 다음에 기획 의도를 밝히려는 의견을 반영하되, 기존 공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획 의도를 제시한다.
- ② 주인공 소개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려는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과 남학생의 만남이 의미하는 바를 밝힌다.
- ③ 작품 줄거리의 일부분만을 소개하려는 의견을 반영하되, 노인과 남학생이 소통하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④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려는 의견을 반영하되,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제를 초래한 원인을 설명한다.
- ⑤ 글의 끝부분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환기하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을 제시한다.

7. 다음은 학생들이 ㉢에 들어갈 표제와 부제를 정하기 위해 나눈 대화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1: 글에서 줄거리로 제시된 주요 사건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학생 2: 글에서 제시한, 작품의 의미도 드러나야 할 것 같아.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그 내용들을 표현할 때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자.

- ① 사회의 그늘에 있던 주인공들의 만남과 그늘 탈출하기
- 신·구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보여 주다
- ②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 해소하기
- 상처 받은 사람들의 내밀한 아픔을 치료해 주다
- ③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편견을 없애 주는 이야기
- 신·구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다
- ④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잊게 해 주는 이야기
-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마법에 빠지다
- 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춰 보여 주는 이야기
- 우리의 부끄러운 일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다

[8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고 작성을 위한 학생의 메모]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주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서 분쟁이 생겼다. 개인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갈등을 빚는 상황을 보면서,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우리 지역 신문에 투고하기로 했다.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막아 갈등이 생김. ... ㉠
- 도로 통행을 막은 땅 주인의 입장 ㉡
- 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입장 ㉢
- 땅 주인과 마을 사람들의 협상 과정 ㉣
- 지방 자치 단체의 개입을 통한 조율이 필요함. ㉤
- 문제 해결의 시급성 강조

[학생의 초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산에 있는 밭이나 과수원에서 일한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밭이나 과수원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은 울타리가 설치되었다. 그 도로는 산의 밭이나 과수원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러한 도로가 사유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막혀서 땅 주인과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땅 주인은 자신의 사유 재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통행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그 도로가 사유 재산이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권리가 있어서 도로 통행을 막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도로가 10년 가까이 공공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가 막히면 밭이나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크고 수확물을 차에 싣고 내려올 수도 없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개인의 권리 행사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여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개인의 권리가 공익을 위해 제한되지 않으면 이번 일처럼 개인과 다수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땅 주인은 사유 재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마을 사람들이 생업의 곤란으로 겪는 어려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는 갈등의 중재자로서 조율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도로의 통행금지로 마을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특히 수확물을 큰길까지 일일이 운반해야 하는 데 따르는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초고 작성 후 검토한 선생님의 의견]

- 점검 내용: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 수정해야 글의 목적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아.

○ 고쳐 쓴 마지막 문단

도로의 통행금지가 지속된다면 농사를 짓는 데 겪게 되는 불편함이 커지고, 수확물 출하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는 마을 사람들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8.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을 사람들과 땅 주인의 갈등 양상이 모호하므로, 갈등으로 파생된 문제점들을 열거하여 그 양상이 구체화되도록
- ②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에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경제적 측면의 피해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논지가 드러나도록
- ③ 마을 사람들이 겪는 피해와 관련 없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에 관한 내용만을 제시하여 통일성이 강화되도록
- ④ 마을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가 한 측면만 부각되어 있으므로, 다른 측면에서 입게 되는 피해를 추가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되도록
- ⑤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주장만을 제시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방안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의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10.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 다수의 주민과 마찰을 빚을 때 땅 주인의 권리가 제한되려면, 땅 주인의 권리 행사로 발생하는 피해가 법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 ① 땅 주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므로 땅 주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 ② 사익보다 공익을 더 중시해야 한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는 땅 주인의 이익보다 주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땅 주인과 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땅 주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면 그 합의를 바탕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 ④ 땅 주인은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⑤ 땅 주인이 일방적인 규제에 의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유 재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1.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농고[노코], 낱던[나:턴], 쌓지[싸치]
- ㉡ 당소[다:쏘], 종소[조:쏘]
- ㉢ 놓는[논는], 쌓네[싼네]
- ㉣ 앓는[안는], 많네[만:네]
- ㉤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 ① ㉠을 보니,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이 오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난다.
- ②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ㅅ’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
- ③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 ④ ㉣를 보니, 받침 ‘ㄴ’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난다.
- ⑤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난다.

12. <보기>에 제시된 ㉠과 ㉡의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문장에 사용된 어떤 단어가 파생어로 바뀌면 그 파생어로 인해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형용사 ‘괴롭다’는 동사 ‘괴롭히다’로 파생된다. 또한 ‘마음이 괴롭다.’의 ‘괴롭다’를 ‘괴롭히다’로 바꾸면 ‘마음을 괴롭히다.’와 같이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품사	문장 구조	
○	○ ㉠
○	×	
×	○ ㉡
×	×	

(○: 달라짐. ×: 달라지지 않음.)

- ㉠
- ㉡
- ① (풀을) 깎다 → (풀이) 깎이다 (밭을) 밟다 → (밭이) 밟히다
- ② (풀을) 깎다 → (풀이) 깎이다 (불이) 밝다 → (불을) 밝히다
- ③ (방이) 넓다 → (방을) 넓히다 (책을) 팔다 → (책이) 팔리다
- ④ (방이) 넓다 → (방을) 넓히다 (굽이) 높다 → (굽을) 높이다
- ⑤ (음이) 낮다 → (음을) 낮추다 (문을) 밀다 → (문을) 밀치다

13.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 할 지 모르는 나에게 승호는 필기한 공책을 ㉡ 주고 갔다. 승호는 역시 듬직한 ㉢ 형 같다. 이제 내가 심혈을 ㉣ 기울일 것은 ㉤ 공부 뿐이다.

- ① ㉠: '-르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한다.
- ② ㉡: '갔다'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주고'와 '갔다'를 붙여 '주고갔다'로 수정한다.
- ③ ㉢: '같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과 띄어 '형 같다'로 수정한다.
- ④ ㉣: '것'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기울일'과 띄어 '기울일 것'으로 수정한다.
- ⑤ ㉤: '뿐'이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공부'와 붙여 '공부뿐이다'로 수정한다.

[14 ~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현대 국어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실제 높여야 할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였다.

- (1) 太子(태자) | 東門(동문) 맞기 나가시니
(태자께서 동문 밖에 나가시니)
- (2) 부텃 누니 비록 블 ㄹ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1)의 '-시-'와 (2)의 '-ㅇ·시-'는 모두 현대 국어의 '(으)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과 (2)에 쓰인 '-(ㅇ·)시-'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2)에서는 '부텃'의 신체 부분인 '눈'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활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 (3)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호노니
(너희 스승을 뵙고자 하나니)
- (4) 부텃 敎化(교화)를 돕습고
(부처의 교화를 돕고)

(3)의 '-습-'과 (4)의 '-스·하-'는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즉 (3)에서 '-습-'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비해, (4)에서 '-스·하-'는 '敎化(교화)'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王(왕)스 일후믄 濕波(습파) | 러시니
(왕의 이름은 습파 | 이시더니)

ㄴ. 님금 恩私(은사)를 갑습고져
(임금의 은사를 갓고자)

ㄷ. 龍王(용왕)이 世尊(세존)ㅇ·ㄹ 보습고
(용왕이 세존을 뵙고)

ㄹ. 太子(태자) | 講堂(강당)애 모도시니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ㅁ. 諸佛(제불)을 供養(공양)호습게 호쇼서
(제불을 공양하게 하소서)

- ① ㄱ에서는 '-시-'를 통해 '일후'를 높임으로써 '王(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② ㄴ에서는 '-스·하-'를 통해 '은사(은사)'를 높임으로써 '님금'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③ ㄷ에서는 '-습-'을 통해 '世尊(세존)'을 높임으로써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④ ㄹ에서는 '-시-'를 통해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⑤ ㅁ에서는 '-습-'을 통해 '諸佛(제불)'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15.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활동] 문맥을 고려하여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 우리 할아버지의 치아는 여전히 ㉠ 튼튼하시다.
- 언니가 고모님을 공손하게 안방으로 ㉡ 모시다.
- 아버지께서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 가시다.
- 형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생각이 ㉣ 타당하시다.

학생 1

나는 '㉡,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학생 2

나는 '㉡'와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 ① 소유물을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②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여부
- ③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
- ④ 신체 부분을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활용되는가의 여부

[16 ~ 2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을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살펴보는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범죄는 여러 형태의 비용을 초래한다.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히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사법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을 합한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 범죄 행위의 빈도와 강도를 나타내는 범죄 수준과, 비용의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는 경제적 한계 가치의 개념을 사용하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범죄 억제 수준을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까지 범죄 억제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효율적이다. 이 수준을 초과하여 범죄를 억제하게 되면 비효율적이 된다. 그러므로 범죄의 엄격한 억제가 최적 억제 비용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 억제 측면에서 볼 때 형사 제재는 사람들에게 처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형사 제재는 행위자의 이익보다 사회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즉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가 얻는 이익과 사회가 입는 손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형사 제재는 사법 당국이 가진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형사 제재의 다양한 기능 중 범죄 억제 기능에 한정해서 최적의 형사 제재 수준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10의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 행위자는 A 부류의 행위는 50, B 부류의 행위는 4, C 부류의 행위는 7의 이익을 각각 기대할 수 있고 최대 기대 제재*는 5라고 하자. 그런데 사법 당국이 A 부류의 행위는 구별할 수 있고, B 부류와 C 부류의 행위는 구별할 수 없다고 하자. 즉 어떤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정당방위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50이 됨을 알지만, 그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4가 될지 7이 될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단, 기대 제재 수준이 기대 이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당 행위는 억제되며,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크기는 양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A 부류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A 부류가 아닌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B 부류인지 C 부류인지를 모르므로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기대 제재가 4이면, B 부류 행위는 억제될 것지만 C 부류의 행위는 억제되지 않는다. 기대 제재를 최대 기대 제재인 5로 증가시킬 경우, B 부류의 행위와 C 부류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에는 변화가 없으면서도 C 부류의 행위에 대한 제재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이다. ㉣결국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비용 측면에서 본 최적 기대 제재는 최대 기대 제재인 5가 아니라 B 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최저 기대 제재인 4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0의 제재가 최적 기대 제재가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논의는 제재 확률, 즉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확률이 일정 수준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면서 제재 강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재

강도와 아울러 제재 확률이나 행위자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재 강도가 징역 5년이고 제재 확률이 40%인 경우와, 제재 강도가 징역 20년이고 제재 확률이 10%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두 경우 모두 기대 제재는 징역 2년이다. 행위자가 두 제재를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즉 '위험 중립적 행위자'라면 어느 경우든 동일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제재 확률을 40%에서 10%로 줄임으로써 적발, 체포 비용이 ㉤절감되므로, 제재 강도가 높고 제재 확률이 낮은 후자가 효율적인 억제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작은 형량을 더 큰 확률로 받는 것보다 큰 형량을 더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위험 선호적 행위자'라면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억제이다. 위험 선호적 행위자일 때 제재 확률이 40%가 되면, 제재 강도가 징역 20년이고 제재 확률이 10%인 경우와 동일한 억제 효과를 가져 오는 제재 강도는 5년보다 작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쉽게 말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순피해 비용: 범죄로 인해 사회가 부담하는 피해 비용에서 범죄를 통해 행위자가 얻는 편익을 뺀 값.

* 최대 기대 제재: 제재로 인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비효용의 최대치.

1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의 합이 범죄의 사회적 총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위험 중립적 행위자에 비해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형량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③ 범죄 억제 수준은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동일한 수준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 ④ 위험 선호적 행위자에게는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이 범죄 억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⑤ 제재 강도 5년에 제재 확률 40%인 제재보다 제재 강도 20년에 제재 확률 10%인 제재가 위험 중립적 행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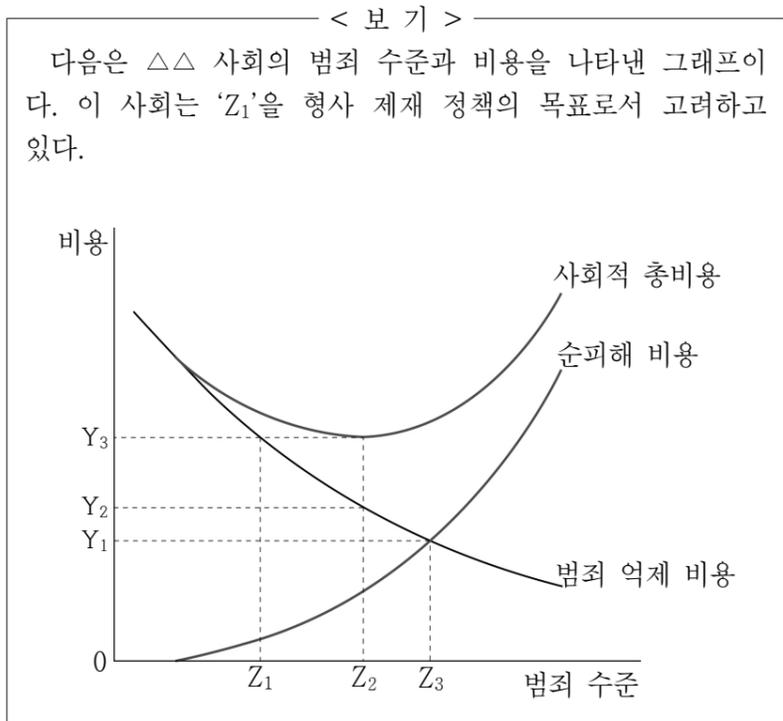
1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 당국은 A 부류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사법 당국은 최대 기대 제재가 B 부류의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③ 사법 당국은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서는 C 부류의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사법 당국이 B 부류의 행위와 C 부류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면 최적 기대 제재는 4보다 커질 것이다.
- ⑤ 사법 당국이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려 할 경우 최적 범죄 억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18. 밑글의 '형사 제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처벌할 때 최적 억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 ② 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범죄 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어떤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에 관한 정보가 완전할수록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④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을 효율적인 범죄 억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1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사회가 최적 범죄 억제 비용을 투입했을 때의 범죄 수준은 Z₃이 된다.
- ② △△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 억제 비용은 Y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③ △△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때의 사회적 총비용은 최적 범죄 억제 비용보다 작다.
- ④ △△ 사회가 범죄 수준을 Z₁보다 더 억제시키면 범죄 피해 비용이 줄어들어 사회적 총비용 역시 줄어든다.
- ⑤ △△ 사회가 Y₃에서 Y₂로 범죄 억제 비용을 줄인다면 범죄 수준은 Z₁에서 Z₂로 늘지만 범죄 억제 비용은 최적화된다.

2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대 제재가 4인 경우는 기대 제재가 5인 경우와 범죄 억제 효과가 동일하나 제재 비용은 더 작기 때문이다.
- ② 기대 제재가 4인 경우가 기대 제재가 5인 경우보다 범죄 억제 효과는 증가하고 제재 비용은 더 작기 때문이다.
- ③ 기대 제재가 4인 경우보다 기대 제재가 5인 경우가 B 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 ④ 기대 제재가 5인 경우에 비해 기대 제재가 4인 경우가 범죄 억제 효과와 제재 비용 모두 더 작기 때문이다.
- ⑤ 기대 제재가 5인 경우는 기대 제재가 4인 경우와 제재 비용은 동일하나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② ㉡: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 ③ ㉢: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바.
- ④ ㉣: 아끼어 줄임.
- ⑤ ㉤: 잘하는 일.

[22 ~ 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에 호국 강변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용이요 명은 훈이니, 대대로 명가(名家)의 자손이라.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동산에 밭 갈기를 일삼으나, 다만 슬하에 자식 없음을 부부 매일 한탄하기를 마지아니하더니, 일일은 용훈이 양친 탄 왈,

“대대로 무후(無後)치 아니하더니, 내게 와서 후사가 끊일 줄을 어찌 알리오.”

하며 자탄함을 마지아니하거늘, 부인 관 씨 대 왈,

“불효 삼천에 무후한 죄 크다 하오니, 옛법으로 의논컨대 첩을 내침 직하오나 군자의 후하신 덕을 깊이 생각하와 지금 존문에 의탁하였으나, 봄날에 살얼음판을 디딘 듯하와 어찌 마음이 안연하리이까. 잠깐 듣사오니 태항산 천축사라는 절에 올라가오면 삼불이 극히 영험하시다 하오니, 고단함을 생각지 마시고 첩으로 더불어 정성으로 발원코자 하나이다.”

용훈이 왈,

“빌어 자식을 낳을진대 천하에 무자(無子)한 자가 뉘 있으리까. 그러하오나 한스러운 인생이오니 세존에게 정성으로 발원하여 보사이다.”

하고, 즉시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가 전조 단발하고 삼칠일 목욕재계 후에 불전에 공양 축원하며 반년이나 지내니 외려 산속의 절에서 불도를 닦는 독실한 속인이겠더라.

일일은 부인 관 씨 일몽(一夢)을 얻으니, 동해에서 동자 일인이 올라와 부인에게 세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는 천상 삼십삼천 도인도 차지하옵는 신장(神將)이옵더니, 옥황의 명을 받자와 ‘홍해국 태자를 베라’ 하고하시매 그 명을 받들었지만, ‘정말 가서 베고 왔는지 믿지 못하겠다’ 하시고 세상에 내치시매 갈 바를 아지 못하옵더니, 마침 천축사 세존께옵서 ‘부인에게 의탁하라’ 하시오매 왔사오니, 부인은 어여빠 여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반가이 여겨 품 안에 안다가 깨니 남가일몽이라. 즉시 용훈을 깨워 몽사를 여쭙오니, 용훈이 크게 기뻐 즉시 집으로 내려와 생남(生男)하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칠 삭 만에 생남하매,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곰의 등이요, 용의 허리며 잔나비의 팔이라. 소리 웅장하여 큰북 소리 같고, 비록 강보에 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빨이 두 줄로 박히고 앞니가 밖으로 한 치나 내밀었으니, 훈이 크게 기뻐 왈,

“이 아이 기상을 보오니 옛날 명인의 풍도를 간직하였으매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하고 이름을 문이라 하고 자는 벽력이라 하였다.

(중략)

연화 도사 왈,

“이 아이 상을 보니 반드시 귀인이 될 것이니, 부자 정리에 떠나보내기 애달프겠지만 천명을 어기지 말고 노인에게 맡기시면 장래 귀히 되리이다.”

훈이 다시 일어나 절하고 여쭙오되,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선생께옵서 귀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즉시 용문을 허락하거늘, 도사 용문을 데리고 ㉠ 연화산에 들어가 천문 지리, 육도삼략과 황석공의 방법을 팔 년을 가르치니,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걸이라.

도사 왈,

“이제는 술법을 배웠으니 대업을 이룰지라. 빨리 돌아가 빛

난 재주를 세상에 베풀고 어진 성군을 만나 웅장한 이름을 천추에 전하도록 하라. 성군을 만나지 못할진대 너의 선생을 용납하게 말라.”

하니 용문이 두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 팔 년을 선생 문하에 머물러 높은 재주를 배웠사오니, 어찌 선생의 교훈을 일부이나 어기리이까.”

하고 하직을 아뢰니 도사 왈,

“부디 좋은 때를 잃지 말라.”

하시더라.

용문이 산문 밖에 나와 부모께 뵈오니, 부모가 크게 기뻐 팔 년 그리던 정을 못내 애연하더라. 인하여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날날이 여쭙니, 용훈의 부부 연화 도사를 향하여 은혜를 못내 칭찬하더라.

용문이 일일은 ㉡ 강변에 나아가 명량한 달빛을 따라 배회하더니, 먼 데서 크게 불러 왈,

“내 말이 사나와 내 자식을 물어 죽이고 강을 건넜으니, 그 말을 잡아 주면 은혜를 갚으리라.”

하거늘, 용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과연 말이 강변에 섰오되, 높기는 칠 척이요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 진실로 적토마라. 용문이 크게 기뻐하거늘,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나이다. 이 말은 능히 운무를 따르며 한번 채치면 능행만리하고 한번 소리를 한즉 태산과 하해가 뒤놓는 듯하니, 마땅히 장군의 재주를 베풀지라.”

하고 말을 마치며 문득 간 데 없거늘, 심중에 크게 기뻐 즉시 말에 올라 시험할새 적토마 한번 소리하며 네 굵을 놀리니, 빠르기 살과 나는 제비라도 미치지 못할러라. ㉢ 한곳에 다다르니 층암절벽상에 한 동자가 머리에 벽도관을 쓰고, 몸에 청룡포를 입고 암상(巖上)으로 내려와 읊하여 왈,

“소자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받자와 전장 기계(戰場器械)를 장군에게 전하나이다. 차후에 은혜를 잊지 말소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용문이 괴이히 여겨 동자가 섰던 곳으로 나아가 보니, 석함(石函)이 놓여 있으되 광채 찬란하고 전면에 금자로 새겼오되,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집개탁하라’ 하였거늘, 용문이 생각하되, ‘우리 대대로 호국 사람인데 석함에 명국 대사마 장군이라 하였으니, 유유한 천의를 알지 못하거니와 호국 왕상이 천의를 범코자 하기로, 하늘이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명국에 돌아가 대장이 되게 하온 일인가, 명국을 내 함몰하고 통합하게 하온 일인지 장래를 보자.’ 하고 강을 향하여 사례하고, 갑주를 갖추고 용친검을 들며 말에 올라 산하에 내려와 청수강을 바라보며 말을 채쳐 재주를 시험하니, 적토마가 한번 솟으며 소리하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며 검광은 일월을 희롱하는지라.

- 작자 미상, 「용문전」 -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문은 호국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호국의 명가이다.
- ② 용훈은 본디 입신양명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 ③ 용훈 부부는 용문의 말을 듣고 연화 도사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꼈다.
- ④ 용훈 부부는 태항산 천축사에 머물며 반년 동안 삼불에게 발원하였다.
- ⑤ 신장은 옥황상제의 명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24. <보기>를 읽고 윗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들이 활용된다. 가령 꿈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거나 특이한 외양을 타고나도록 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신물을 전해 주거나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 ① 관 씨의 태몽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육도삼략과 병법 등을 용문에게 가르치는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④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용문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군.
- ⑤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문에게 전장 기계를 전달해 용문이 영웅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군.

25.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화 도사에게 훈육을 간청하기 위해 용훈은 용문을 데리고 ㉠에 들어갔다.
- ②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혔다.
- ③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며 석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용문은 ㉣에서 호국을 버리고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⑤ ㉡은 용문이 현실에서 노니는 공간이고, ㉢은 꿈속에서 체험한 공간이다.

[26 ~ 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8년 만에 제주도를 찾는다. 제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순이 삼촌’(제주도에서는 손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촌’이라고 부름.)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전 마을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 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고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것도,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역시 그랬었구나. 옆에서 얘기를 듣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당신의 신경 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얽힌 것인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그건 사오 년 전 콩 두 말을 흠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명석을 펴고 내다 년 메주 [A] 콩 두 말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 놓았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변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당신이 콩을 흠친 것으로 소문나 버릴 밖에. 당신이 그전서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괴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깥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 온 터였다.

(중략)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뿔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 형도 나도 울었다. 우익 인사 가족들도 뉘 놓고 영영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중년부터 시작된 이런 아수라장은 저물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다. 길수 형이 말했다.

“그때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 허는 말을 들으란, 군인들이 일주 도로변 옴팡진 밭에다가 사름들을 밀어붙였는데, 사름마다 밭이 안 들어가젠 밭담 우엔 었디어전 이마뺨을 쪼사 피를 찰찰 흘리며 살려 달랜 하던 모양입니다.”

“쫓쫓쫓, 운동장에 뱃겨져 널려진 ㉢ 임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 놓으민 아매도 가매니로 하나는 실히 되었을 거여. 죽은 사람 몇 백 명이나 되까?”

하고 작은 당숙이 말하자 길수 형은 낮을 모질게 찌푸리며 말을 씹어뱉었다.

“면에서는 이 집에 고구마 뿔 가마 내고 저 집에 유채 뿔 가마 소출 냈는지는 알아 가도 그날 죽은 사람 수효는 이날 이때 한 번도 통계 잡아 보지 않으니, 내에 참. 내 생각엔 오백 명은 넘은 것 같은디, 한 육백 명 안 되까 마썰? 한 번에 오륙십 명씩 열한 번에 몰아가시니까.”

열한 번째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었다. 때마침 대대장 차가 도착하여 총살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불행한 사건에도 예외 없이 ‘만약’이란 가정이 따라왔다. 만약 대대장이 읍에서부터 타고 오던 지프차가 도중에 고장만 나지 않았더라면 한 시간 더 일찍 도착했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삼백 명이나 사백 명은 더 살렸을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는 백 명 내외로 줄어든 것이고, 또 적에게 오염됐다고 판단된 부락을 토벌해서 백 명 정도의 이적 행위자를

사살했다면 그건 수궁할 만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피살자 육백 명이란 수효는 ㉔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다.

“고모부님, 대대장이 말한 차 고장은 핑계가 아니까 마썸? 일개 중대장이 대대장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이서 마썸?”

고모부는 그 당시 토벌군으로 애월면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할 터였다. 고모부는 한때 인근 부락인 함덕리에 주둔했던 서북청년으로만 구성된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㉔ 마침 사건 수개월 전에 애월로 이동해 갔던 것이었다. 신혼 초라 고모도 따라갔었다.

“그 당시엔 중대장 즉결 처분권이란 것이 있을 때랴. 또 가들이 전투 사령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행동했든 해도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하였을 공산이 커. 난 졸병 생활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것도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의 일부일 거라. 쉬운 말로 소개 작전이란 거. 견벽청야 작전이란 것이 뭐냐면 손자병법에서 따온 것이라는데, 공비를 소탕할 때 먼저 토벌군으로 벽을 쌓아 병풍을 만들고 그 후 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라. 산간벽촌을 일일이 다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며. 그러니 일정한 거점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려 공비가 발붙일 여지가 없게 하자는 궁리이었쥬. 그런데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리라는 대목에서 그만 잘못 일이 글러진 거라. 작전 지역 내의 인원과 물자를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인원을 전원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라는 것으로 둔갑하고 말아시니 말이며.”

“아니, 고모부님도 참, 그 말을 곧이들었습니까? 그건 옷대加里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 우리 부락처럼 폐죽음당한 곳이 한둘이 아니고 이 섬을 뺀 돌아가 명 수없이 많은데 그게 다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우짜? 말도 안 되는 소리우다. 이 작전 명령 자체가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전부 총살하라는 게 틀림 없어 마썸.”

- 현기영, 「순이 삼촌」 -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감각적으로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A]는 공간을 병치하는 방식을 통해, [B]는 시간을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27.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옴팡진 밭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③ ㉢: 운동장에서 끌려 나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④ ㉣: 운수가 좋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핑계 삼아 무차별 사격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⑤ ㉤: 고모부는 당시 운동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할 경우, 이 기억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면 기억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억은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들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된다.

- ① ‘전투 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나중에 꾸며낸 것이겠군.
- ② ‘길수 형’이 ‘순이 삼촌’에게 전해 들은 ‘그때’의 사건을 방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의 모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그건 옷대加里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이라는 말에는, 가해자들의 기억을 구성한 논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길수 형’이나 ‘나’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피해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겠군.

[29 ~ 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열효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좋다. 하지만 디젤 엔진은 미세 먼지로 알려져 있는 입자상 물질과, 일산화 질소나 이산화 질소와 같은 질소 산화물을 많이 발생시킨다. 이런 물질들은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 광화학 스모그나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DPF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포집하고, 필터에 쌓인 물질들을 일정 시점에 연소시켜 제거함으로써 필터의 기능을 회복한다.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포집 필터까지 연료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엔진 실린더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연료가 공급이 되면 배기가스에 연료가 섞여 필터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DPF 방식은 엔진을 특별히 개선할 필요 없이 연료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한 반면 연비가 떨어진다. 또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로는 ㉠ EGR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킨 다음, 연료를 배기가스와 함께 연소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다.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까닭은 연료가 낮은 온도에서 연소될 때 질소 산화물의 발생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소 온도를 낮추면 입자상 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EGR 방식은 DPF 방식과 함께 쓰인다. EGR 방식은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고, 출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EGR 방식보다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높은 SCR 방식이 개발되어 EGR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 SCR 방식은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지 않기 때문에 EGR 방식보다 엔진에서의 연소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입자상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대신 질소 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SCR 방식은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한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폭발의 위험이 있고 금속을 부식시킬 수도 있으며 상온에서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풍겨 불쾌감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취급 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CR 방식에서는 요소를 물에 녹인 요소수를 공급하는 요소수 탱크와 공기를 공급하는 압축 공기 주입기를 별도로 사용하여 SCR 장치에서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요소는 열분해를 통해 암모니아와 아이소사이안산으로 분해되고, 아이소사이안산은 가수분해*되어 이산화 탄소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일산화 질소는 이렇게 얻어진 암모니아와 함께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 바뀐다. 그리고 이산화 질소는 일산화 질소와 함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역시 질소와 물로 바뀐다.

[A]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SCR 장치 내부는 반응 물질을 흡착시키는 백금이나 바나듐 등을 이용한 금속 촉매로 만들어져 있다. SCR 방식에서는 이러한 촉매의 표면에 배기가스가 오래 머물도록 해 주어야 저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공간 속도를 느리게 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공간 속도란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로 나눈 값이다.

SCR 방식은 저감 효율이 높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안고 있다.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암모니아 슬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소의 분해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면 고체 형태의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이 생성되어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고착될 수 있다.

* 가수 분해: 큰 분자가 물과 반응하여 몇 개의 이온이나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암모니아 슬립 현상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을 고착시킨다.
- ②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데 DPF 방식과 EGR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DPF 방식에서는 필터에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배기가스에 섞인 연료와 함께 연소시켜 제거한다.
- ④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이산화 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열효율이 높다.
- ⑤ SCR 방식에서 이산화 질소가 저감될 때 일산화 질소가 함께 저감될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 표는 연소 온도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고, 저감 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배기가스 온도 (℃)	㉠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 (ppm)	㉡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 (ppm)	저감률 (%)
190	151	37.7	75
362	176	0.89	99.4
388	355	0.44	99.8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 ① 배기가스 온도가 190℃일 때 ㉢로 배출된 입자상 물질은 ㉣를 거치면서 저감되겠군.
- ② ㉠에서 ㉣로 공급된 요소가 ㉣에서 열분해와 가수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될 수 있겠군.
- ③ ㉣를 거치고 남아 있는 입자상 물질은 ㉣를 거치게 되면서 저감되기 때문에 ㉠에 비해 ㉡의 입자상 물질이 적겠군.
- ④ ㉣에서 일산화 질소가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물과 질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를 통해 공급된 공기가 필요하겠군.
- ⑤ 배기가스 온도가 388℃일 때 ㉠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가 높은 것은 연료가 높은 온도에서 연소될수록 질소 산화물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겠군.

31.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을 높인다.
- ② ㉠은 ㉣과 달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배출한다.
- ④ ㉠은 ㉣에 비해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높다.
- ⑤ ㉠은 ㉣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연료가 연소된다.

32.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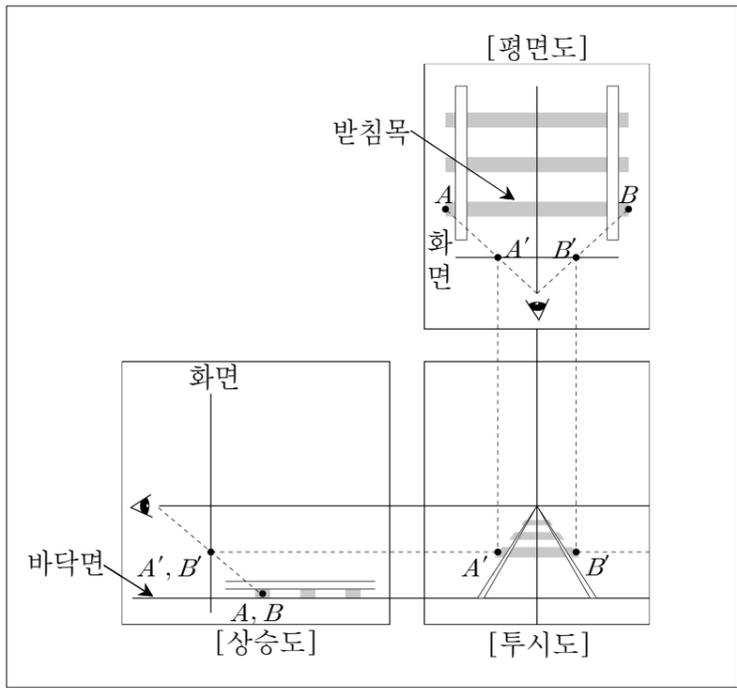
- ① 공간 속도가 빠르면 장치 내에서 배기가스의 체류 시간이 짧아져 저감 효율이 감소할 것이다.
- ② 금속 촉매의 표면에 단위 시간당 흡착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많을수록 저감 효율은 감소할 것이다.
- ③ SCR 장치 내부에 백금이나 바나듐을 이용하는 것은 공간 속도를 빠르게 하여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④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일정할 때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가 클수록 공간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 ⑤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가 일정할 때 공간 속도가 빨라지면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33 ~ 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서는 일정한 비례나 법칙이 없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리는 자연적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했다. 이를 위해 르네상스 화가들은 자연적 원근법과 달리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 적용한 투시 원근법으로 대상을 표현하였다.

1435년 알베르티는 『회화론』에서 광학의 원리에 ㉡ 기초한 투시 원근법을 소개하였다. 화가가 상자를 바라보고 있고,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유리판이 놓여 있다고 하자. 눈과 상자 위의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시선이라고 하고,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점을 사영이라고 한다. 상자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눈과 상자 사이의 유리판은 곧 화면이 된다. 알베르티는 ㉢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린다면, 그림 속의 인물이나 물체 등이 실제 모습과 비례하게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평행한 두 선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한 점 투시 원근법, 두 점 투시 원근법, 세 점 투시 원근법으로 나뉜다. 아래 <그림 1>의 투시도는 철로를 ㉣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투시도의 구현 원리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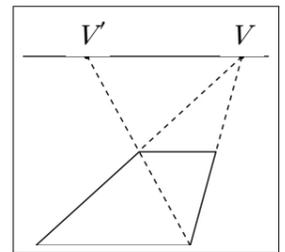
<그림 1>

철로의 평면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철로의 각 점이 화면에 어떻게 사영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을 중앙선이라고 하는데, ㉤ 이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고 하자. 또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받침목의 맨 왼쪽 점 A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A', 맨 오른쪽 점 B를 연결하는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선분 AB의 상은 선분 A'B'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받침목들도 그리다 보면 받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지며, 양쪽 선로를 따라 점들이 멀어질수록 화면의 상들은 ㉥ 하나의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승도를 보자. 상승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옆에서 본 그림이다. 철로가 놓인 바

닥면을 기준으로 볼 때 ㉦ 중앙선은 바닥면과 평행하다고 하자.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받침목의 양 끝점 A와 B는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상승도에서 A'와 B'는 하나의 점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다른 받침목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철로의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하면 투시도를 ㉧ 완성할 수 있다. 투시도를 그릴 화면 위쪽에 평면도를, 화면 왼쪽에 상승도를 놓는다. 그리고 평면도의 중앙선을 아래로 연장하고, 상승도의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연장하면 투시도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투시도에서 점 A'의 위치는 평면도의 점 A'로부터의 수직선과 상승도의 점 A'로부터의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점들도 투시도에 표시할 수 있고, 이 점들을 모으면 철로의 상을 얻을 수 있다.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관람 거리를 ㉨ 유지해야 한다. 관람 거리는 관람자와 그림 사이의 거리로,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한다. <그림 2>는 가로 길이가 C이고, 세로 길이가 D인 직사각형을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으로, 이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를 추적해 보자. 가로 변은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 변은 화면과 수직으로 놓인 직사각형을 그린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세로 변을 연장하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V라 하자. 이때 점 V는 그림의 소실점이다. 점 V에서 직사각형의 가로 변과 평행한 선을 긋고 이 선을 지평선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을 연장했을 때 지평선과 만나는 점을 V'라 하자. 점 V와 V' 사이의 거리를 c,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그림 2>

$C : D = c : d$ 가 성립하여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에 원근법을 연구했던 프란체스카는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물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릴 경우, 화면에 실제 사물과 유사하게 사물의 상이 구현된다. 하지만 이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을 보고 그린 그림에서는 상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후대 미술가 중에는 투시 원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지닌 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투시 원근법은 여전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 재현하려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증강 현실의 구현에 투시 원근법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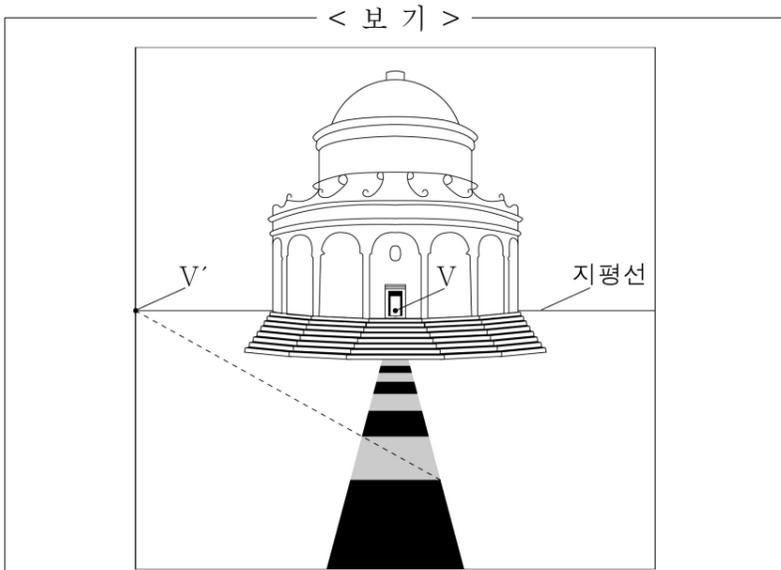
3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투시 원근법이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를 들어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투시 원근법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자연적 원근법과의 차이점을 들어 투시 원근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34. 윗글의 <그림 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면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이 작아진다.
- ② [상승도]에서 한 개의 받침목의 양 끝점은 화면에 동일한 점으로 표시된다.
- ③ [상승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 양 끝점의 사영은 중앙선에서 멀어진다.
- ④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일수록 그 상이 소실점에 가까워진다.
- ⑤ [투시도]에서 소실점은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을 연장하였을 때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35.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위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0 cm이다. 그림에서 건물의 계단 앞까지 이어져 있는 타일들은 실제로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다. 실제 타일은 가로 변이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 변이 화면과 수직이다. 그림 속 타일들의 세로 변을 연장하면 건물 중앙 입구의 한 점(V)에서 모인다. 이 점은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 그림의 점(V)에서 그린 지평선은 그림의 가로 테두리와 평행하며, 지평선과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은 그림의 세로 테두리에서 한 점(V')으로 만난다.

- ①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 cm 였다면,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겠군.
- ②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 거리를 90 cm로 유지해야겠군.
- ③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V와 V'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군.
- ④ 가로의 길이가 100 cm, 세로의 길이가 50 cm인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최적의 관람 거리는 180 cm겠군.
- 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V'는 화면의 밖에 위치하겠군.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서 그린다는 것이다.
- ② ㉡: 소실점을 하나만 설정하여 그린 것이다.
- ③ ㉢: 철도가 화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다.
- ④ ㉣: 중앙선과 화면이 만나는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 ⑤ ㉤: 바닥면이 화면과 수직이 된다는 것이다.

37. ㉠ ~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 공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늘렸다.
- ② ㉡: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 ③ ㉢: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 ㉣: 사고 예방을 위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⑤ ㉤: 조선 시대의 마을을 재현한 민속촌을 만들었다.

[38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네는 양주(楊州) | 쏘올히여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티(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당금썩(當今景) 잣다운더
 성슈만년(聖壽萬年)흐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푼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흐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 신도형승이샷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운더: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늴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꺾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찌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넝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옥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잣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러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늴연한: 위엄이 있고 당당한.
 * 번폐하고: 마다하고.
 * 흔덕흔덕: 흔들흔들.

(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먹을 감는 한 시간 남짓
 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
 레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
 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
 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뜰 눈과 부르건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
 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
 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
 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
 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긋고, 늴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
 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
 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아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
 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난 신품이 아님
 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어 꼬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
 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
 (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핑결하고 아름다
 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
 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떡엄떡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
 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등실등실 동해를 떠나오
 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
 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 궁륭상: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9.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늪연한 줄 반가운더'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 ④ (나)의 '대숲이 푸르려세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네는 양주 | 소울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썩'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 ③ '기국성왕이 성터를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 ⑤ '만세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41.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는 서해 뺨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뺨 발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파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려
뺨 발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녀살문 연꽃 몇 송이도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은 불립 문자로 탄다
곰소의 뺨 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등허리가 되었
다는
저 소요산 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 송수권, 「대역사(大役事)」 -

* 만다라: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나)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
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
를 해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확확 후리
거나,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등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등치
를 타고 내려가, 칠혹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살
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
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바
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뺨'을 매개로 '바지락을 캐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는 것을 연결한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녀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젓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4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지들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등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춧기둥'의 역할을 하는군.
- ③ '새'는 '실가지 하나에 얹'아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군.
- ④ '땅속'이 지닌 '칠혹'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의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고 있군.
- ⑤ '땅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얼굴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보다 잘 읽어 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흔히 얼굴 표정은 감정을 보여 주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표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감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읽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정을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폴 에크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인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란 놀람, 두려움, 혐오, 화남, 행복, 슬픔인데요, 각각의 감정을 느낄 때 특정한 얼굴 근육이 움직이게 되어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을 보시죠. 한쪽은 무표정한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화가 났을 때의 얼굴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눈썹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운데로 모아집니다. 또 위아래 눈꺼풀은 긴장되고 눈은 노려보는 형태가 됩니다. 입술은 단단히 맞물려 있거나 네모꼴로 벌어지죠. (다음 화면을 가리킨 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슬플 때의 표정입니다. 슬플 때에는 눈썹의 안쪽 모서리가 올라가고 가운데로 몰립니다. 이때 눈썹 아래 피부는 삼각형 모양이 되고 위 눈꺼풀의 안쪽도 올라갑니다. 입술의 끝이 내려가며 입은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다시피 무표정을 기준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비교하면 사람의 감정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관련된 표정 중 1초가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나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감정을 읽어 내기 어려운 표정이 있습니다. 이를 미세표정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세표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표정을 짓는 본인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에 나타나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요긴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세표정에 주목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보다 잘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표정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줄이며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근거로 삼아야겠어.
 - ② 발표 도입부에 질문을 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겠어.
 - ③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④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⑤ 발표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정

- 사람은 인종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 ㉠
- 그 감정은 놀람, 두려움, 혐오, 화남, 행복, 슬픔임. ㉡

표정

- 얼굴 표정은 감정을 보여 주는 창으로 감정에 따라 표정의 차이가 나타남. ㉢
- 표정의 차이는 주로 눈과 입 부위 근육의 움직임을 비교하여 알 수 있음.
- 미세표정은 감정 이해의 요긴한 단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함. ㉣

☆ 상대방의 감정 파악을 위해서는 표정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함.

☆ 표정에 주목하여 감정을 잘 파악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청자 1: 평소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표정을 잘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겠어. 그리고 발표에서 언급한 표정 이외에 다른 표정들은 어떻게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어.

청자 2: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라 그런지 표정을 통해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발표 내용에 공감이 돼. 그런데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좋을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아쉬워.

청자 3: 외국인과 대화할 때 표정을 보고 감정을 알아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 그런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표정을 통한 감정 파악에 서툴 수 있을 거야.

- ① 청자 1은 발표 내용을 통해 평소 자신의 대화 습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표 주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 내용과 연관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2 모두 발표 내용에 구체적 사례가 누락된 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⑤ 청자 1과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에 자신의 경험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시하고 있군.

[4~7] (가)는 학생들이 '직업 소개'를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실을 글을 작성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이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로케이션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니저 : 로케이션 매니저는 직접 발로 뛰거나 정보를 검색해 촬영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하는데,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생 2 : ㉠ 배경이 되는 장소 섭외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하셨는데, 여러 장소를 다닌다는 점에서 여행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촬영 장소를 섭외하는 것과 여행을 다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매니저 : 여행이 관광을 위해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라면, 촬영 장소 섭외는 촬영 목적과 감독의 의도를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품 분석은 물론 조명 및 음향까지 촬영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지요.

학생 2 : ㉡ 촬영의 목적과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를 섭외한다는 점에서 여행을 다니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매니저 : 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 및 물품 운송, 숙소와 식사 장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촬영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있는 날에는 ㉢ 아침 일찍부터 나와 밤늦게까지 촬영장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 1 : 촬영 과정에서 로케이션 매니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군요.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매니저 : 장소 섭외를 위해 자주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어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 제가 5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약 60만 km, 지구를 열다섯 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학생 2 : 말씀을 들어보니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혹시 멋진 촬영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매니저 : 저는 평소 문학 작품을 즐겨 읽으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답사하는데, 이러한 습관은 촬영 장소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진에 대한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고,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 1 : ㉤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니 신기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 : 박경리의 '토지'에는 하동과 섬진강 일대의 풍경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저는 그곳을 직접 답사한 후, 드라마 촬영 장소로 섭외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2 : 그렇군요. 끝으로, 로케이션 매니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니저 : 로케이션 매니저는 일이 고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과 끈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훌륭한 로케이션 매니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1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로케이션 매니저란 촬영의 목적과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여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섭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촬영의 목적과 감독의 의도를 파악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데, 방송 관련 미디어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직업적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그렇다면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

로케이션 매니저는 눈에 보이는 풍경이 화면으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므로 평소 사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의 주변 풍경을 촬영하고, 촬영 각도나 시기에 따라 그 풍경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파악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또한 작가들은 자신이 인상 깊게 봤던 장소를 문학 작품의 배경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촬영 장소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로케이션 매니저는 촬영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낯선 곳을 찾아다니거나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끈기가 요구되는 고된 직업이다. 따라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로케이션 매니저는 촬영에 부합하는 장소를 발견하는 일을 한다. 이 직업에 대해 관련 정보를 찾아 모아 수집해 볼수록, 로케이션 매니저가 큰 매력을 지닌 직업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상대방의 발언을 요약하며 질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③ ㉢ :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발언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 :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자신의 발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 :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언급하며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5. 다음은 (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 1'과 '학생 2'가 대화를 나눈 후 작성한 인터뷰 계획표이다. (가)를 고려할 때, ㉠~㉣ 중 인터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로케이션 매니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며 인터뷰를 시작해야겠어. ㉠
- 로케이션 매니저가 하는 일을 촬영 관련 다른 분야의 일들과 비교하여 설명해 달라고 말해야겠어. ㉡
- 로케이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봐야겠어. ㉢
- 로케이션 매니저로서 좋은 장소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부탁해야겠어. ㉣
- 로케이션 매니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인터뷰 내용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할 거니?
 학생 1: 로케이션 매니저분은 _____

- ① 사진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나는 풍경에 따라 사진 촬영 방법과 촬영 시기를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해야겠어.
- ② 직업적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지. 나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 ③ 촬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지. 나는 촬영 장소와 목적에 따라 로케이션 매니저가 담당해야 하는 일들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④ 직업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지. 나는 열정과 끈기가 요구되는 다른 직업의 사례를 제시하며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는 데 왜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야겠어.
- ⑤ 멋진 장소를 발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말씀하셨지. 나는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나열하며 이 직업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7. 다음은 (나)를 쓴 후 ‘학생 1’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해 달라는 말을 고려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로케이션 매니저는 촬영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촬영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를 발견하고 섭외하는 일을 한다. 이 직업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볼수록, 로케이션 매니저가 큰 매력을 지닌 직업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 ①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전망을 추가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
- ②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전망을 추가하고,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은 수정
- ③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의의를 추가하고,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은 수정
- ④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
- ⑤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은 삭제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구청 정책 담당자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구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며칠 전, 아파트 출입구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 그 이유를 여쭙니, 할머니께서는 단지 내의 아파트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서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분들도 보행로와 차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 외출을 꺼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인지건강디자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건강디자인이란 기존의 주거 환경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어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건물의 출입구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이거나 건물 안팎의 숫자나 글자, 방향 표시 등을 눈에 띄는 색으로 크게 표시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들은 물론 인지 능력이 저하된 다른 사람들도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건물과 마을 주변에 있는 공원, 쉼터 등에 이러한 인지건강디자인을 적용한다면 노인들이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상황도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노인들이 안심하고 외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지건강디자인의 적용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배려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안과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생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인지건강디자인에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떤가?
 ㉡ 인지건강디자인의 도입을 건의하게 된 계기로 나의 경험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가?
 ㉢ 인지건강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과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
 ㉣ 인지건강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개념과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0. ‘학생의 초고’를 수정·보완하려고 할 때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가) 통계자료 (◇◇ 연구소)

1. 노인들이 외출을 꺼리는 이유 (중복응답)

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72%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64%
편안히 쉴 곳이 없기 때문에	37%

* 설문 참여 대상: ○○구 65세 이상 지역 주민 500명

2. 인지건강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인지건강디자인으로 인한 주거 환경의 변화에 만족하는가?

* 설문 참여 대상: △△구 20세 이상 지역 주민 1,000명

‘그렇다’라고 답한 이유 (중복응답)

A: 길 찾기가 쉬워짐
 B: 안전사고의 위험 감소
 C: 인지 능력 저하 개선

(나) 신문 기사

지난해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던 장소의 바닥에는 초록색으로 보행로를 표시하고, 턱이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구분하는 등 인지건강디자인을 적용하여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후 해당 지역의 노인들은 하루 2회 이상 외출하는 빈도가 40%p 이상 향상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임산부의 보행 중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의학 전문가 인터뷰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의 저하는 약물 치료 없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출입구나 바닥의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꾸거나 집마다 다른 디자인의 문패를 사용해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면 노인들의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길거리에 노래가 나오는 이정표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꽃을 심어 생활 속에서 감각을 자극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길 찾기가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외출을 꺼린다는 내용의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겠어.
 ② (나)를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행로와 차도의 색 구분을 명확히 하는 인지건강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함을 추가해야겠어.
 ③ (다)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인지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마을에도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④ (가)-1과 (다)를 활용하여, 마을 공원이나 쉼터 등 노인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들의 외출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해야겠어.
 ⑤ (가)-2와 (나)를 활용하여, 인지건강디자인의 도입이 노인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해야겠어.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는데,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형성 방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라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논밭’,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굳은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스며들다’ 등은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으로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용언의 어간이 명사에 직접 결합한 ‘덧밥’,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오르내리다’ 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없는 단어 배열법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어 합성법은 중세 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바느실(바느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저르니(젊은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니러셔다(일어서다)’ 같은 통사적 합성어와 ‘빌떡다(빌어떡다)’와 같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가 그러한 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뛰다’와 ‘놀다’의 합성어 형태로는 비통사적으로 결합한 ‘뛰놀다’ 하나만 확인되고 있는데 현대 국어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인 ‘뛰놀다’와 통사적 합성어인 ‘뛰어놀다’의 두 가지 합성어 형태가 모두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현대 국어에는 하나의 합성어 형태로만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는 두 가지 합성어 형태로 모두 쓰였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11. [A]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결합 방식	합성어의 종류
①	어깨동무	명사 + 명사	통사적 합성어
②	건널목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통사적 합성어
③	보살피다	용언의 연결형 + 용언의 어간	통사적 합성어
④	여닫다	용언의 어간 + 용언의 어간	비통사적 합성어
⑤	검버섯	용언의 어간 + 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1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합성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賈餗이 슬허 눈믈 내요되	<번역 소학>
[현대 국어] 가속이 슬퍼 눈물을 흘리되	
(나) 홀기 어울워 즌홀 밍그라	<능엄경언해>
[현대 국어] 흥에 어울러 진흙을 만들어	
(다) 그되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	<석보상절>
[현대 국어]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말하라.	
(라) 그지업슨 소리 世界에 숫나디 몬흐면	<월인석보>
[현대 국어] 끝이 없는 소리가 세계에 솟아나지 못하면	
(마) 싸하셔 소사나신 ... 菩薩 摩訶薩이	<석보상절>
[현대 국어] 땅에서 솟아나신 ... 보살 마가살이	

- ① (가)의 '눈믈'은 현대 국어의 '눈물'과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즌홀'은 현대 국어의 '진흙'과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아라듣다'는 현대 국어의 '알아듣다'와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숫나디'는 현대 국어의 '솟아나다'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⑤ (라), (마)를 보니 현대 국어의 '솟아나다'는 중세 국어에서 두 가지 합성어의 형태로 모두 쓰였다고 볼 수 있겠군.

13. <보기>는 표준 발음법 중 '된소리되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ㅈ, ㅊ, ㅌ), ㅂ(ㅂ, ㅍ, ㅃ,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ㄹ, ㅃ'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국밥'과 '(계란을) 삶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② '꽃다발'과 '(그릇을) 훑지만'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③ '(시름) 읊조리다'와 '(죽을) 먹을지언정'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④ '(바닥에) 앉을수록'과 '(몸을) 기댈 곳'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살살이) 훑다'와 '(내가) 떠날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14.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
- ㉡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타지 못한다}.
- ㉢ 컴퓨터를 너무 오래하지 {*않아라/*못해라/마라}.
- ㉣ 시간이 {*못 넉넉하다/넉넉하지 못하다}.
- ㉤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하지 않았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을 보니, '못하다'는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구나.
- ② ㉡을 보니,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 용언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는구나.
- ③ ㉢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않다'나 '못하다'가 아니라 '말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 ④ ㉣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 부사 대신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 ⑤ ㉤을 보니, 부사에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15.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선생님: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요. 이때,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습니다.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은 'll'로 적지요.

그럼 아래의 표기 일람을 참고할 때, '독립문'과 '대관령'의 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g, k	n	d, t	r, l	m	b, p	ng
ㅅ	ㅈ	ㅊ	ㅋ	ㅌ	ㅍ	
ae	yeo	o	wa	u	i	

- | 독립문 | 대관령 |
|--------------|---------------|
| ① Dongnimmun | Daegwallyeong |
| ② Dongnimmun | Daegwalryeong |
| ③ Dongrimmun | Daegwallyeong |
| ④ Dongrimmun | Daegwanryeong |
| ⑤ Doknipmun | Daegwanryeong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작품을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으로 보며 감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관점과 달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 자체를 진리가 드러나는 통로로 보았다. 하이데거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 존재자로, 그러한 존재자를 존재자답게 만드는 것을 ㉡ 존재로 규정하고, 예술 작품의 진리는 존재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특히 하이데거는 존재자 중 인간이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을 '도구'로 규정했는데, 예술 작품은 단순히 도구를 정확히 모사해서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예술 작품은 도구의 존재를 드러냄에 따라 존재자의 비은폐성을 이끌어 내어, 존재자의 본질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미학적 관점을 고흐의 「구두」라는 작품을 통해 설명한다. 고흐의 작품 속에서 구두라는 존재자의 존재는, 구두 자체의 외형이나 용도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두가 딛고 있는 터전, 그리고 그 구두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삶 전체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고흐의 작품 속 구두의 '존재'가 그것을 신고 다녔을 어느 농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드러내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구두에 담긴 농부의 고단하면서도 소박하고 경건한 삶 전체가 구두라는 존재자에 은폐되었던 '진리'라고 여긴 것이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 속 도구의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의 본질인 진리가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작품 속 구두가 실제와 얼마나 똑같은지 또는 그것을 예술가가 어떤 의도로 창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흐, 「구두」

하지만 미국의 미술사학자 샤피로는 하이데거가 아무런 검증 없이 고흐의 작품 속 구두를 농부의 것이라 단정 지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주변 화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흐는 중고 시장에서 산 구두를 신고 맑은 날이든 껏은 날이든 주변의 언덕을 가로질러 외곽 도로를 누볐고, 그 구두가 완전히 일그러진 다음에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따라서 샤피로는 그림 속 구두가 고흐 자신이 신었던 구두를 모델로 삼아 창작된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샤피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 속 구두의 소유주를 찾아 특정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이러한 샤피로의 주장이 예술 작품을 대상의 모방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데리다가 볼 때 하이데거에게 중요했던 것은 구두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두에 은폐되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 데리다는 두 사람의 해석에서 유사성을 읽어 낸다. 두 사람 모두 그림 속 구두를 '한 켤레'로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림 속 구두는 오른쪽 것이 훨씬 커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볼수록 신고 다닐 수 있는 구두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왜 거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데리다는 두 사람 모두가 구두를 '한 켤레'로 규정함으로써, 구두에 대한 그 밖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데리다는 예술 작품의 진리는 작품 속에 결코 하나로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흐의 작품이 하이데거를 만나 하나의 진리를 열어 주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진리를 열어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데리다는 하이데거처럼 근원적 진리로의 회귀를 원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예술 작품이 열어 주는 다양한 해석들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이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생성해 내는 예술 작품의 끊임없는 미적 창조력, 바로 거기에 예술 작품의 진리가 놓여 있다고 본 것이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의 창작 방법을 유형화하고 있다.
- ② 모방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절충하고 있다.
- ③ 예술 작품 속 전통적 가치의 전승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예술 작품의 구성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⑤ 여러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예술 작품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7.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 작품의 목적은 ㉠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있다.
- ② 예술 작품 속 ㉠의 본질은 실용적 목적에 의해 드러난다.
- ③ 예술 작품 속 ㉡은 현실과의 유사성을 통해 파악된다.
- ④ 예술 작품 속 ㉠이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을 파악한다.
- ⑤ 예술 작품 속 ㉡이 드러나면서 ㉠의 본질이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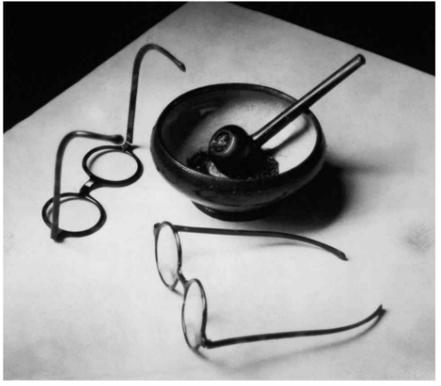
1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을 향유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 ②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감상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 ③ 작품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분해하여 해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 ④ 직관적인 연상 과정을 통해 작품의 진리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 ⑤ 작품에 대한 해석을 고정된 관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세계적인 사진작가 앙드레 케르테즈는 화가 몬드리안의 초상 사진을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몬드리안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화가의 안경과 파이프, 재떨이를 촬영한 후 “이것이 몬드리안의 초상입니다.”라고 말했다.



앙드레 케르테즈,
「몬드리안의 안경과 파이프」

- ① 하이데거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보다는 작가의 촬영 의도에 주목했을 것이다.
- ② 하이데거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가 몬드리안의 삶의 궤적을 드러낸다고 여겼을 것이다.
- ③ 샤피로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가 몬드리안의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을 것이다.
- ④ 샤피로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를 감상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데리다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가 몬드리안의 삶으로만 해석되는 점을 경계했을 것이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데리다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데리다는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 즉 교차 속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했다. 한 언어 체계가 큰 숲이고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나무라면, 단어의 의미는 서로 다른 모양의 나무를 비교함으로써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 또한 수많은 대안적 의미 속에서 순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인해 언어의 고정 불변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① 언어에서 고정 불변한 의미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본 것처럼 예술 작품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 어렵다고 보았겠군.
- ②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를 통해 생성되듯이 예술 작품도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고 보았겠군.
- ③ 언어 체계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술가들의 관계 속에서 예술 작품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겠군.
- ④ 언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예술 작품의 진리는 확정된다고 보았겠군.
- ⑤ 언어의 의미가 수많은 대안적 의미 속에서 순간적으로 선택된 것처럼 예술 작품의 진리 또한 예술 작품 속에 반영된 다양한 현실을 선택적으로 모사한다고 보았겠군.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부제…….”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릉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내 입속으로 되뇌며 연습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부제가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부제…….”

㉠ “…….”

“지가 잘못했어요.”

“언, 언제 완?”

“어제요. 어머니가 아부제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 밥은 먹은?”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잔.”

“진지는 드셨어요?”

“거게서 먹기는 해두 니가 뭘 안 먹었음 같이 먹을라구…….”

“말은요?”

“뒤꼍에 매났는기 이젠 그것두 힘을 못 써서…….”

“아부제…….”

“…….”

“가요, 집에…….”

“오냐, 가야제. 니가 왔다 해서 다 챙겨 내려왔는기. 집은 다 켜한?”

“야.”

“느 숙모도?”

“야.”

아부제는, 나는 빈 몸으로 오고 아부제는 말을 가져왔으니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부제는 내일 산에서 간조패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나도 아부제하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그날 하루 더 영자 누나 방에서 잠을 잤다. 아부제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영자 누나가 출근한 다음 아부제가 말하던 대로 열 시쯤 진부옥으로 다시 갔을 때 아부제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 얼굴로 멀끔하게 앉아 있었다. 부엌 쪽을 살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 “니 나하구 대화 가지 않으렌?”

“거긴 어딘데요?”

“차를 타든 된다. 거긴 여기보다 큰 전방들이 많으니 니 뭐 사구 싶은 것두 사구…….”

그날 아부제는 내게 시계를 사 주었다. 내가 고른 것보다 아부제 마음에 드는 게 더 비쌌는데 비싼 그것을 사 주었다. 큰 형은 시계가 있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작은형은 아직 시계가 없었다. 라디오를 틀면 매시간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열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오리엔트 야광 손목시계였다. 그 외에도 내 옷과 숙모 옷 몇 가지를 더 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옷가지도 샀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점심은 내가 내 식대로 아부제 것과 내 것을 시켜 먹었다. 아부제한테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봉평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부제는 진부옥에서 돈만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흥정산 간조패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려왔다.

㉠ “야, 느들 장래 우리 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 나 흰한가 한번 보란 말이다. 느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오겠나?”

아부제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다음 길을 떠나기 전 몇 잔 술을 마시며 연신 내 자랑을 했다.

(중략)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구 해요.”

“우리 집에?”

“야.”

㉡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아뇨, 지 마음으로도요.”

“니 마음으로?”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 놓으라고 했어요.”

“수호야.”

“야.”

“아부제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제?”

“야.”

㉢ “그래, 내려가든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뭐.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겐.”

“.....”

“혀, 이놈이 말귀 알아듣나, 절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두 제대루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늑어서 고집두 늘구.....”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 집에 닿았다.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부제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덜 부끄럽다고 해도 그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던 열세 살의 소년이었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뺨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이미 늑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었다. 알리진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 죽은 그를 싣고 내려갔다.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마부들이 그림 저녁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부제의 눈물을 보았다. 한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원고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의 슬픈 생애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 이순원, 「말을 찾아서」

2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부제’ 집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다.
- ② ‘나’는 ‘아부제’와 함께 떠나기 위해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한다.
- ③ ‘아부제’는 대화에서 ‘나’와 점심을 시켜 먹으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다.
- ④ ‘아부제’는 ‘나’가 봉평에 온 사실을 ‘나’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 ⑤ ‘아부제’는 힘을 못 쓰는 말 때문에 강릉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상하지 못했던 호칭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어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② ㉡: 큰 전방들이 많이 있는 ‘대화’에 가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 주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장래 우리 집 대주’라고 밝히며 자신에게도 남에게 내세울 아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 ④ ㉡: ‘나’의 결정이 ‘어른들’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 ‘이 짐승’에 대한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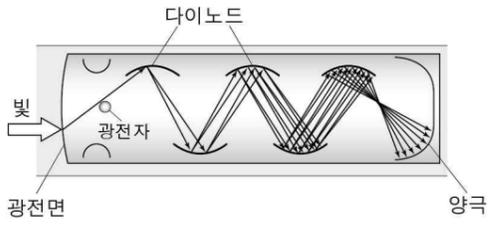
「말을 찾아서」는 ‘나’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당숙과 이를 거부하는 ‘나’가 갈등을 빚다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양자 입양에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당숙은 집을 떠나 버린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를 ‘아부제’로 받아들이지만 노새와 당숙의 노새 끄는 일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어린 시절의 이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게 되며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 ①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것은 ‘나’가 양자 입양을 수긍하고 당숙과 화해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겠군.
- ②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양자가 된 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겠군.
- ③ 당숙의 양자가 된 다음에도 노새에게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준 것은 ‘나’가 ‘노새’와 관련된 당숙의 삶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은 ‘노새’의 희생으로 인해 ‘나’가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여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성인이 되어서도 ‘나’가 원고에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겠군.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재 시 불꽃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에 ㉠ 걸쳐서 나타난다. 불꽃 감지기는 불꽃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검출하여 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탄소를 함유한 가연물이 연소할 경우 자외선은 약 $0.2\mu\text{m}^*$ 부근의 파장에서, 적외선은 약 $2.7\mu\text{m}$ 와 약 $4.3\mu\text{m}$ 부근의 파장에서 최대 방사 강도를 나타내는데, 불꽃 감지기 내부의 센서는 최대 방사 강도에 해당하는 불꽃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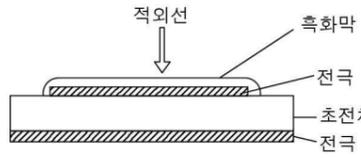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는 광전자 증배관에서 전자를 증배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광전자 증배관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으로, 음극과 양극, 그리고 그 사이에서 2차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인 다이노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빛이 입사하여 광전면인 음극에 도달하면 음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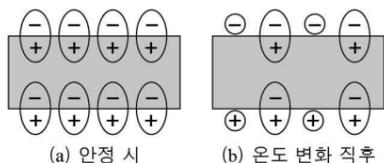
<그림 1> 광전자 증배관

표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를 광전 효과라 한다.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전극에 의해 가속된 후 제1 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제1 다이노드에서는 충돌에 의해 보다 많은 전자가 방출되며, 방출된 전자들은 다시 가속되어 제2 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배되어 양극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약한 빛이 입사하여도 상당히 큰 신호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미세한 자외선의 발생 유무도 감지할 수 있어 화재 상황에 ㉡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적외선 불꽃 감지기에는 일반적으로 초전형 센서와 특정 적외선 파장대의 빛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광학 필터가 사용된다. 광학 필터를 통과한 적외선은 센서 표면의 열 흡수막인 흑화막에 의해 초전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초전체는 온도가 변하면 분극이 변하는 물질이다. 분극이란 <그림 2-2>의 (a)와 같이 음전하와 양전하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외부의 압력이나 전기장의 영향 없이도 분극이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켜 자발 분극이라고 한다. 초전형 센서의 초전체로는 자발 분극 특성을 ㉢ 가지는 물질인 강유전체가 주로 활용된다. 초전형 센서에 적외선이 입사하면 강유전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자발 분극의 크기가 감소하고, 그 결과 <그림 2-2>의 (b)와 같이 전기적인 평형이 무너져 결합할 상대가 없는 부유 전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유 전하가 이동함에 따라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기전력이 발생함으로써 센서는 초전체와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전극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화재가 일어난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림 2-1> 초전형 센서



<그림 2-2> 초전체의 분극 변화

한편 불꽃 감지기의 감지 가능 거리는 화염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화재원이 감지기로부터 더 멀리 ㉣ 떨어져 있으면 감지

기가 감지할 수 있는 화염의 최소 크기 또한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야 한다. 만약 어떤 불꽃 감지기가 20m 거리에 있는 0.1m^2 크기의 화염을 감지한다고 했을 때, 화재원을 40m 위치에 ㉤ 두게 되면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 화염의 크기는 0.4m^2 이며, 화재원을 10m 위치에 두게 되면 0.025m^2 의 화염의 크기에도 경보를 울린다는 의미이다.

* μm :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

* 2차 전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전자가 기체 분자나 고체와 부딪힐 때 생기는 전자.

2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전자 증배관의 광전면에서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전극에 의해 가속된다.
- ② 적외선 불꽃 감지기가 불꽃을 감지하면 내부의 음전하와 양전하 간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 ③ 광전자 증배관의 제2 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 수는 제1 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 수보다 더 많다.
- ④ 불꽃 감지기는 불꽃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영역의 파장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알려준다.
- ⑤ 30m 거리에 있는 0.1m^2 크기의 화염을 감지할 수 있는 불꽃 감지기는 15m 거리에 있는 0.03m^2 크기의 화염도 감지할 수 있다.

25. 밑글의 광전자 증배관을 바탕으로 <보기>의 'UV 트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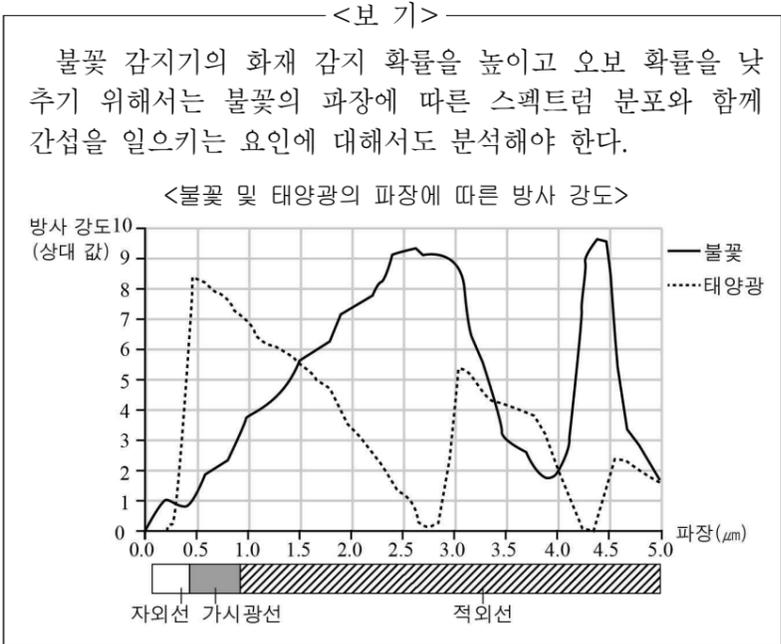
<보 기>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로는 'UV 트론'을 주로 사용한다. 자외선이 'UV 트론'의 유리관을 통과하여 음극에 도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가 방출된다. 이것은 양극에 도달할 때까지 유리관 속을 채운 가스 분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2차 전자를 다량으로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큰 전류가 급속도로 발생된다.

- ①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전자를 증배할 때 가스 분자를 활용하는군.
- ②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를 활용하여 불꽃의 파장을 감지하는군.
- ③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전자의 충돌 과정을 통해 큰 전류를 발생시키는군.
- ④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군.
- ⑤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전자를 증배함으로써 미세한 자외선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군.

26. 윗글의 '초전형 센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전체에서 부유 전하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기적인 신호를 보낼 수 없다.
 - ② 외부 자극에 의해 초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사라지는 순간 기전력 또한 소멸된다.
 - ③ 흑화막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선별해 넘으로써 초전체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전극을 통해 강유전체에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강유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 ⑤ 초전형 센서는 불꽃 감지기 외부의 온도 변화를 적외선 파장으로 변환한 뒤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보내는 장치이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최대 방사 구간인 4.0 ~ 4.5 μ m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0.4 μ m 부근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 ③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과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동일한 지점들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④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0에 가까운 특정한 파장만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⑤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복사 에너지 중 약 3.4 ~ 4.0 μ m에 해당하는 파장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28.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날은 열 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 ② ㉡: 그는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③ ㉢: 두 나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 ④ ㉣: 식당은 학생회관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 ⑤ ㉤: 소화기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 고향의 내 집에 있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니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
 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
 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니 한고향 사람의 ㉡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
 어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뽀뽀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
 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끊어지고, 솟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 [A] 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명시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30.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함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31.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재미 3」은 문태준의 ‘가재미’ 연작 중 하나이다. 「가재미」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 전 모습을, 「가재미 2」는 임종 후 장사지내는 모습을, 「가재미 3」은 어머니의 빈집을 다시 찾아온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재미 3」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빈집’에 남겨진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의 चु고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없애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함께 비워 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없다’, ‘홀로’, ‘헛하다’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늙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아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 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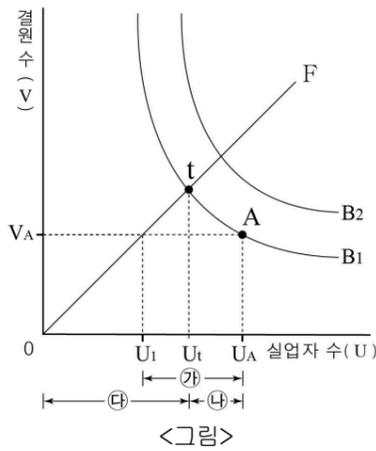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 활동 인구’와 육아, 가사, 취학,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한다. 경제 활동 인구는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나뉜다.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 ‘실업률’은 국가 경제를 드러내는 ㉡ 지표의 하나로,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 상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을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업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도 모두 취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능력이 있으나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인 ‘구직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만으로는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 ‘고용률’을 더 중시하는 ㉣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에 따른 실업 형태를 ㉤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은 크게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요 부족 실업이란 어떤 경제의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전체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며 그것의 단기적 현상이 경기적 실업이다. 즉,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인원 감축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인 것이다. 비수요 부족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리고 계절적 실업이 있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들이 이거나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용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으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 수준만큼 나타난다. 구조적 실업은 빈 일자리와 실업이 ㉥ 공존하더라도 생산 설비 자동화와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하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계절적 실업이란 농림·어업, 관광업 등에서 특정 계절에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계절의 변화로 인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실업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가로축은 실업자 수(U)를, 세로축은 충원되지 않은 빈 일자리 수인 결원 수(V)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것은 결원 수가 감소하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그 역도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의 원점에서 45도로 나간 직선 F는 베버리지 곡선 B₁과 t에서 만나고 있다. 이 t는 실업자 수와 결원 수가 동일해 모든 실업자가 고용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한다. 현재



노동 시장의 상황을 A라 할 때, 수요 부족 실업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해 빈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U_A에서 V_A를 빼면 A에서의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V_A는 U₁과 동일하므로 결국 U_A에서 U₁을 뺀 ㉡를 수요 부족 실업자 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 대책으로 수요 부족 실업을 ㉤ 해소하여 결원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B₁의 완전 고용 수준인 t에 대응하는 U_t까지만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U_A에서 U_t를 뺀 ㉢이 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과 같은 비수요 부족 실업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실업자 수와 결원 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B₁에서 B₂로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는 노동 시장에서 결원 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져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노동 가능 인구: 노동력의 관점에서 군인과 수감자를 제외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3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은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경기적 실업은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 ③ 일할 의사가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 ⑤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고려하면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3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육아로 인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에 반영된다.
- ②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8시간만 일을 한 사람은 ㉣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증가하면 ㉠은 감소하고 ㉣은 증가한다.
- ④ 취업 준비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은 감소하고 ㉣은 증가한다.
- ⑤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은 증가하고 ㉣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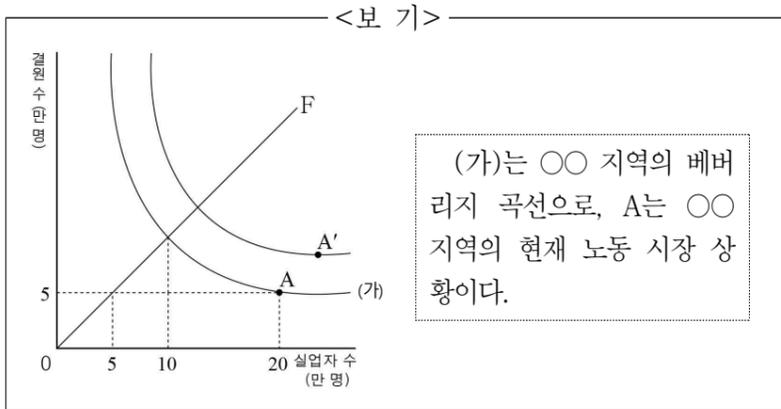
35. <보기>의 상황에 나타난 실업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지역은 대표적 산업인 제화업의 호황으로 6%p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한 동반 성장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올해 □□ 제화에서 노동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가죽 재단과 접착 공정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면서 재단과 접착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 3천여 명이 실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올해 △△ 지역의 실업률이 10%p 이상 증가하였다.

- ① 과도한 설비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제화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 ② △△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제화의 인원 감축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 ③ 계절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실업이므로 정부는 □□제화에 실업자들을 시기에 따라 고용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 ④ 제화업의 호황에 따라 더욱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실업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 ⑤ □□제화의 제조 방식이 변화하여 발생한 실업이므로 정부는 실업자에게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36.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켜 일자리의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10만 명의 실업자가 있을 것이다.
- ② ○○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결원 수를 뺀 것이므로 15만 명이다.
- ③ 수요 부족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면 현재보다 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 ④ 베버리지 곡선은 ○○ 지역의 10만 명에 해당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⑤ ○○ 지역의 노동 시장 상황이 A에서 A'로 이동한다면 노동 시장에서 비수요 부족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3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
- ②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③ ㉢: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
- ④ ㉣: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 ⑤ ㉤: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은 에워 들고 녹수(綠水)는 도라가고
 석양(夕陽)이 거들 썰에 신월(新月)이 소사난다
 안전(眼前)의 일존주(一尊酒)* 가지고 시름 프자 흐노라
 <제1수>

강산(江山)의 눈이 닳고 세로(世路)의 늦치 서니
 어덕 뉘 문(門)의 이 허리 굽닐손고
 일존주 삼척금(三尺琴) 가지고 백년소일(百年消日)호리라
 <제3수>

넉 말도 늙이 마소 늙의 말도 넉 아닌넉
 고산(孤山) 불고정(不孤亭)의 조하 늙는 몸이로쇠
 어디셔 망녕의 손이 검다 세다 흐나니
 <제4수>

〔 옛기제 비즌 술이 다만 세 병(瓶)뿐이로다
 [A] 흐 병(瓶)은 물의 높고 쪼 흐 병(瓶) 피회 노셔
 〔 이 밧기 나쁜 병(瓶) 가지고 달의 논들 엇더리
 <제6수>

생애도 고초(苦楚)흐고 세미(世味)*도 담박(淡泊)흐다*
 흰 술 흐두 잔의 프른 글귀 뿐이로쇠
 옥경헌(玉鏡軒)* 평생행장(平生行狀)이 이 밧기는 업세라
 <제7수>

칠현(七絃)이 냉냉(冷冷)흐니 네 소리는 잇다마는
 종기(鍾期)*을 못 만나니 이 곡조(曲調) 게 뉘 알아
 벽공(碧空)의 일륜명월(一輪明月)이 넉 버진가 흐노라
 <제9수>

- 장복겸, 「고산별곡(孤山別曲)」

* 일존주: 한 통의 술. * 세미: 세상 사는 맛.
 * 담박하다: 멋스럽지 못하다.
 * 옥경헌: 작가 소유의 전각의 이름이며 아호임.
 * 종기: 중국 춘추 시대 인물로 자신의 친구인 백야의 거문고 실력이 뛰어남을 알아봄.

(나)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 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짚는 단 두 음절 '깍깍'. 첫 '깍'은 높고 둘째 '깍'은 낮게 계속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 음정(音程)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 날은 기분이 좋다.

반포지는(反哺之恩)을 안다고 해서 효조(孝鳥)라 일러 왔지만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좋다. 사랑 앞마당 밤나무 위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그것이 길조(吉兆)라서 그 해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영전(榮轉)이 되었다던가, 서재(書齋) 남창 앞 높은 나뭇가지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글재주가 크게 늘어서 문명(文名)을 날렸다던가 하는 옛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까치 소리는 반갑고 기쁘다.

나는 까치뿐이 아니라 까치집을 또 좋아한다. 높은 나무 위

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나무에 그대로 어울려서 덧붙여 놓은 것 같지가 않고 나무 삭정이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소쇄한 맛이 난다. 엉성하게 엮어 놓은 그 어리가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 오직 달빛과 바람을 받을 뿐이다.

나는 항상 이담에 내 사랑채를 짓는다면 꼭 저 까치집같이 소쇄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었다. 내가 완자창이나 아자창(亞字窓)을 취하지 않고 간소한 용자창(用字窓)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정서에서다. 제비집같이 아늑한 집이 아니면 까치집같이 소쇄한 집이라야 한다. 제비집은 얌전하고 단아한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가는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쾌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이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 집은 새 보금자리, 새둥지,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 집이라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를 알 수가 있다. 한국 건축의 정서를 알려는 건축가들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 듯하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 해도 그것은 ‘사람장’이지 ‘집’은 아니다.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도 제법 크게 들려온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 본 적이 있었다. 보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 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짹짹 뛰어나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짹짹 뛰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民畵)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옹(老翁)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꼈다. 민화란 어린이와 자유화(自由畵)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奇拔)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이지봉(李芝峯)이 정호음(鄭湖陰)의 “산과 물이 바람에 소리치며, 강물은 거세게 울먹이는데, 달은 외로이 비쳐 있다.”는 시를 보고 ‘강물이 거세게 이는데 달이 외롭게’라는 건실경(實景)에 맞지 않는다고 폄(貶)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달이 고요히 밝은 밤중에는 물결이 잔잔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김백곡(金栢谷)이 황강역(黃江驛)에서 자다가 여울 소리가 하도 거세기에 문을 열고 보니 달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구가 실경을 그린 명구(名句)인 것을 알았다는 시화(詩話)가 있다. 나도 그 민화가 실경인 것은 모르고 기상(奇想)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의 민화 한 폭이 다시금 눈앞 [B] 에 뚜렷이 떠오른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서 잠자는 노옹(老翁), 그 배 위에서 있는 까치 한 마리.

- 윤오영, 「까치」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대상을 관조하며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사색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9.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A]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B]는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③ [A]는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B]는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이 지닌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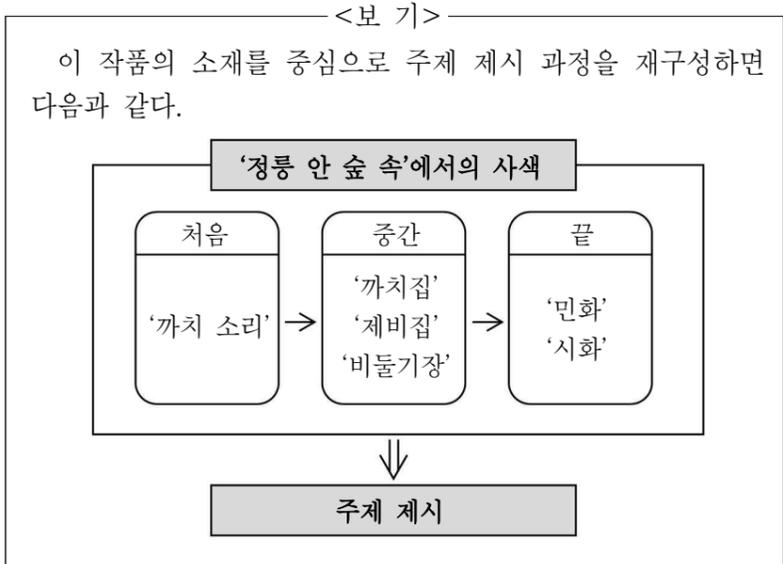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강호한정을 노래한 시조에서 사대부들은 세속적 삶을 멀리하고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만족해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고산별곡」에서도 작가는 평생 관직에 몸담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별히 이루어 놓은 일 없이 만년에 접어들었다는 작가의 안타까움도 작품 속에 담겨 있다.

-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청산’, ‘녹수’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만년에 느끼는 시름을 ‘일존주’로 달래려 하고 있어.
- ② <제3수>에서 화자는 ‘세로’의 삶과 달리 ‘백년소일’하는 ‘강산’에서의 삶을 긍정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 ③ <제4수>에서 화자는 ‘늪’, ‘손’의 평가와 상관없이 ‘고산 불고정’에서 지내는 삶을 통해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제7수>에서 화자는 ‘고초’하고 ‘담박’했던 생애를 긍정하면서도 ‘흰 술’에 만족해야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어.
- ⑤ <제9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일륜명월’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

4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날 이른 새벽’의 경험과 대비되는 ‘정릉 안 숲 속’에서의 경험은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까치 소리’의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한 속성에 주목하여 ‘반갑다’라고 정서를 드러내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③ 까치에 이어 ‘까치집’을 떠올리면서 그 특성을 서술하고 ‘소쇄한 맛’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이 좋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까치집’에서 다시 ‘제비집’, ‘비둘기장’으로 소재가 이어지면서 ‘집’과 ‘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민화’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화’에 담긴 상반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명 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날마다 첩서를 기다리시더니 문득 표를 보시고 대경하사 즉시 승상 유기로 대원수를 명하시고 유문정을 도우라 하시니 유 원수가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려 문정의 진에 이르니 문정이 반겨 적세 강성함을 이르고 장백 잡기를 의논할 새 유기가 문정더러 말하기를,
 “이제 적병이 강성하여 졸연히 피하기 어려우니 이날 밤에 적병이 잠자기를 기다려 그대 삼만 명을 거느려 적진 우편을 치고 이덕으로 삼만 명을 거느려 적진 좌편을 치고, 나는 삼만 명을 거느려 전면을 치면 제 비록 용맹하나 어찌 당하리오?”
 하고 약속을 정하고 밤을 기다려 방포일성에 사면으로 엄살하니 적장이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만나매 장 원수가 대경하여 급히 이정을 불러 말하기를,
 “아까 천문을 보니 수상에 주성이 살기를 띠어 방위를 떠났으며 북병이 올 줄을 알되 어찌 이 같으리오.”
 하고 풍백(風伯)을 불러 호령하니 풍우대작하며 벽력이 진동하니 명진이 도리어 황급하여 본진으로 돌아올 새 유 원수가 이덕을 거느리고 제쳐 들어가니 백운단이 맞아 싸워 십 합이 못하여 운단이 이덕을 베니 유기가 대로하여 바로 운단을 취하니 이정이 앞을 막아 유기를 치니 유기가 당치 못하여 본진으로 돌아오니 장백, 이정 등이 일시에 엄살하여 유문정을 생금(生擒)하여 가거늘 유기가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관찰하여 머무니라. 장백이 문정을 잡고 대희하여 못내 즐기더라.

[A] 장백이 장중에서 졸더니 사물간에 철관도사가 이르러 말하기를,
 “너더러 이른 말을 어찌 잊었느냐? 천자는 곧 주 씨거늘 네 비록 옥새(玉璽)를 얻었으나 천명이 내게 있지 아니 하거늘 공연히 민심만 소동케 하니 어찌 해를 면하리오? 하물며 황후는 너의 누이라 골육상잔(骨肉相殘)함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오?”
 하고 간테없는지라.

[B] 원수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괴이히 여겨 생각하되,
 ‘내게 과연 누이가 있더니 도적에게 잡히어 갔다가 옥을 볼까하여 소상강에 익사한 지 벌써 십 년이라. 이따금 생각하여 사후나 만남을 원하더니 이제 선생의 가르치심이 약차(若此)하시니 실로 괴이하도다.’
 하였다.

[C] 군중에 호령하여 군사를 쉬게 하고 문정을 잡아들여 서안을 치며 크게 꾸짖기를,
 “내 벌써 원 황제를 잡아 항복 받고 옥새를 가졌거늘 네 거짓 황제를 내고 천병을 항거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문정이 노하여 꾸짖기를,
 ㉠ “우리 황상이 성신문무(聖神文武)하사 먼저 장안에 들어와 추호를 범치 아니시고 대위(大位)에 오르시며 벌써 국호를 정하시고 장 씨를 취하여 황후를 봉하시니 굳음이 반석같은 거늘, 너는 부질없는 군사를 일으켜 만대에 더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빨리 죽이지 무슨 말을 하나뇨?”
 장 원수가 대로하여 즉시 죽이고자 하나 황후가 장 씨란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생각하며 노여움을 그치고 아직 진중에 두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적장이 장 씨라는 소식을 들은 황후는 그를 보려 하고, 이에 명 황제 주원장은 잔치를 열어 장백을 부르코자 한다.

‘승상 유기는 글월을 장 원수께 전하나니 우리는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장군은 서쪽에서 군사를 일으킴에 천하 명장이 쫓기를 원하는지라. 무도한 원제를 내치고 창업고자 함은 피차일반이나 하늘이 먼저 주 천자를 뒤희게 하였으니 실로 임자 있음을 알거니와 명 황제 먼저 장안을 얻으시니 그 공이 크고 장군은 옥새를 취하였으니 또한 큰 공이라. 이따금 황제 대의를 생각하시고 이곳에 대연을 배설(排設)하여 모든 장졸로 그 공을 표하고자 하나니 장군이 만일 혐의치 아닐진대 한번 이르러 즐거이 어떠하뇨?’

장 원수가 글을 끝까지 읽어 본 후 제장과 의논하기를,
 “적진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를 청하니 무슨 흥계 있음을 알지 못하나 아니 가면 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나 어찌 저를 두려워하리오?”

하고 이정으로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고 명진에 이르니 유기가 진문을 크게 열고 장 원수를 맞아 들어가니 양진이 상합하매 살기충천하더라.

명제가 맞아 동서로 나누어 앉으니라.
 이때 황후가 주렴 사이로 자세히 보니 과연 장백이나 신수가 건장하여 어려서 보던 모습이 변하나 성음(聲音)이 익은지라. 반가운 중 눈물 남을 깨닫지 못하더니 홀연 대풍이 일어나 주렴을 거두치니, 장백이 술잔을 받다가 눈결에 황후를 보고 그 얼굴이 누이와 같음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거늘 명제 그 연고

를 물은대 장백이 탄식하기를,

㉠ “우리 서로 적국 되어 천하를 다투매 사정을 이룰 바 아니로되 소장이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남매 의지하여 지내더니 동리 노고의 흥계에 빠져 외가로 가더니 중로에 도적을 만나 누이를 잃으매 그때 소장의 연유하므로 따르지 못하고 망극한 중 집에 돌아와 살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세월이 여류(如流)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하나 매양 누이를 생각하면 서러워하더니 아까 대풍에 주렴 중 부인을 보매 누이와 방불하기로 자연 비참하도소이다.”

상이 답을 하기 전에 황후가 이 말 듣고 좌우를 물리고 급히 나와 장백의 손을 잡고 방성대곡하며 오래도록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네가 내 동생 장백이냐? 그 사이 죽었더냐 살았더냐?”

그때 도적에게 잡히어 갈 때에 중로에서 잃고 어찌할 줄 모르더니 소상강 원혼을 면하고 자연 구하는 사람을 만나 부지하던 말이며 전후사를 이르니 장백이 슬퍼하며 희한하게 살아나 이처럼 만남을 신기히 여기고 즉시 계하에 내려 복지하며 옥새를 올려 말하기를,

[D] “나의 누이가 죽은 줄로 슬퍼하였더니 하늘의 도움을 입어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상이 그 처지를 혐의치 아니하고 황후를 삼으시니 은혜 망극하온지라. 수삼 년 전쟁에 민심을 요란케 하오니 만사무석(萬死無惜)하온지라. 복망 폐하는 진을 걸우사 환궁하심을 바라나이다.”

[E] 상이 장 원수가 돈수사죄(頓首謝罪)하고 옥새를 올리는 것을 보시고 환희하사 위로하기를,
“짐이 이제 제업을 이루었으니 경의 공이 아니면 어찌 이 에 이르리오.”

- 작자 미상, 「장백전(張伯傳)」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 대결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배경을 설정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신이한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 인물의 비범함을 부각하고 있다.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백은 천문을 통해 적병이 쳐들어 올 것을 예상했다.
- ② 문정은 유기의 지원을 받아 적을 급습했으나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 ③ 유기는 장백과 황제의 공적을 언급하고 장백의 우세함을 인정하였다.
- ④ 황후는 과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조력자를 만나 목숨을 건졌다.
- ⑤ 주 씨는 제업을 이루게 되자 그 공을 장백에게 돌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은 지난 일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은 일어난 일을 예측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원망하고 있다.
- ③ ㉠은 다른 대상과 견주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은 개인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도덕적 가치를 판단의 근거로 내세워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내세워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천명(天命)’은 인간에게 내리는 하늘의 명령으로 인간이 임의로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운명이다. 「장백전」에서 주원장은 대명 건국이라는 천명을, 장백은 황제가 될 사람을 찾아 그를 도와야 하는 천명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자신의 천명을 알고도 장백은 이를 부정하며 주원장과 황제의 자리를 두고 대립하게 되지만, 결국 천명에 따라 주원장과 화합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남매의 이별과 상봉이라는 작품 내적 장치는 두 인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① [A]에서 장백의 꿈에 나타난 철관도사는 장백이 품고 있는 계획이 천명에 어긋나는 일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군.
- ② [B]에서 장백은 누이와 이별하게 된 사연을 떠올리며 천명을 거스르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있군.
- ③ [C]에서 장백은 원 황제에게서 확보한 옥새를 천명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황제가 될 인물이 자신임을 밝히고 있군.
- ④ [D]에서는 누이를 만난 장백이 주원장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남매 상봉이 천명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에서는 주원장에게 옥새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 장백이 결국 절대적 운명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휴일이면 주로 어디로 나들이를 가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혹시 골목길 탐방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요즘 골목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지난 주말 아버지와 함께 ○○골목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여주며) 제가 다녀온 골목길 사진인데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젊은 시인들이 모여 문예지를 만들었던 곳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과 비교해 보면 건물 외관이 그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많은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 오던 옛 건물을 보수하여 현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화면을 바꾸며)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옆 벽에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어, 골목길을 걸으며 작은 역사 기념관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바꾸며) 이 사진은 골목길 끝자락의 풍경을 담은 것인데요. 옛 정취가 묻어나는 목욕탕과 오래된 사진관을 보시며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동네 안으로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골목길 탐방이 주는 소박한 매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쌓인 문화와 역사의 흔적, 과거에 대한 아련한 향수,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의 공감을 느끼는 것. (손을 앞으로 내밀며) 바로 이런 것들이 골목길 탐방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런 매력을 느껴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도시에서 ‘도심 골목길 산책’, ‘골목길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함께 느껴 보시죠. (동영상을 보여준 후)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더 알차게 골목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동네 주민이 골목길에 담긴 역사나 문화 등을 직접 해설해 주는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코스를 안내해 주는 온라인 지도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발표를 듣고 골목길에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골목길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사용된 말하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2.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골목길에 담긴 역사의 흔적을 보여 주기 위해 독립운동의 모습을 담은 골목길 벽화를 사진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골목길 탐방의 즐거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골목길 프로그램의 현장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제시해야겠어.
- ③ 골목길을 알차게 탐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동영상을 제시해야겠어.
- ④ 골목길에서 가졌던 세대 공감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갔던 골목길 끝자락의 풍경을 사진으로 제시해야겠어.
- ⑤ 도시의 옛 모습을 간직한 골목길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골목길 건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제시해야겠어.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청자 1: 골목길을 찾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골목길을 탐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언급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
- 청자 2: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손동작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만, 골목길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 청자 3: 평소에 좁은 골목길을 다니기가 불편해서 골목길을 정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듣고 보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 ① 청자 1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상황에서 발표자가 한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 변화했음을 밝히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2는 모두 발표 내용에 대해 보완할 점을 제시하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이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있군.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른 감상과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학생 2'가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활동 1) 시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토의해 보자.

섬 정현중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활동 2) 감상과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학생 1: 이번에는 내가 활동을 계획해 봤어. 활동지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토의를 해 보자. 먼저 시에 대한 감상부터 말해 볼까?

학생 2: 보통 '섬'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고독이라는 말이 떠올랐어. 화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서 섬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섬이 화자가 선택한 고독의 공간처럼 느껴졌어.

학생 3: 나는 오히려 화자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학생 2: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학생 3: 시에서 섬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섬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

학생 2: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섬을 고립된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너는 '사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섬을 연결의 의미로 생각했구나. 사람이 소통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학생 1: 그럼 둘 다 화자가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거네. 그럼 소통을 중심으로 토의 주제를 정해 볼까?

학생 2: 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고 싶어.

학생 3: 그래.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

학생 1: 그러면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해 보자.

학생 2: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체육 대회 때 우리 반 대표로 달리다가 넘어져 속상했는데, 나 때문에 졌다는 친구의 말에 더 속상했거든. [A]

학생 3: 맞아.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친구가 사소한 고민도 잘 들어줘서 그 후로 그 친구와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어.

학생 1: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

(나)

나는 평소에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그래서 「섬」을 읽고 섬의 일반적인 이미지만 떠올려 이를 고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친구들과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면서 섬을 소통의 의미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감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소통 방식에 대해 토의하면서 내 소통 방식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늘 내 자신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수용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들을 외면해 버리기도 했다. 소통하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깨닫고 앞으로 내가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것은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배려하며 말하고, ㉠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소통의 과정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소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4. [A]에서 '학생 1'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②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의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들에게 발언 내용에 대한 재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5. (가)에서 사용된 '학생 2'와 '학생 3'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학생 3'에게 질문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학생 2'의 제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학생 3'은 '학생 2'의 입장을 일부만 받아들이며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 2'가 메모한 내용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문 계획

- * 1문단
 - 시를 읽고 감상을 나눈 활동을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었음을 언급해야겠어. ①
- * 2문단
 - 나의 소통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어. ②
 - 진정한 소통을 위한 태도와 그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언급해야겠어. ③
- * 3문단
 - 진정한 소통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담아야겠어. ④
 - 시의 구절을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나의 다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야겠어. ⑤

7. <보기>는 '학생 2'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공감적 경청'이란 자신의 기준보다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충고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 ㉡ 한 학자는 소통을 3단계로 구분했다. 첫 단계는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상대방의 의도나 목적에 맞는 소통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소통을 통한 변화로, 상호 작용을 통해 소통의 주체들이 이전보다 성숙해지는 것이다.

- ① ㉠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닌 상대방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③ ㉠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 경험을 중심으로 조언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를 활용하여, 먼저 나와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한 후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고려하여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학교 안팎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시 교통안전시설 담당자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학교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우리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 진입로와 왕복 4차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정문에서 가까운 곳에 기존의 왕복 2차로와 새로 생긴 4차로가 교차하는 사거리가 생겼고 차량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등·하교 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보행 신호가 켜졌을 때 보행자를 잘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차선에서는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등·하교 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지난주에도 과속하던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횡단보도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게다가 교차로가 생기면서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학교 앞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새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등·하교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A] 최근 시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띠 매기 캠페인도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문제 상황과 비교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② 낯선 개념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설문 결과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예상 독자의 권위를 언급하여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9.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통계 자료

1.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추이
(단위: 명)

구분	왕복 2차로	왕복 3차로	왕복 4차로
측정 대수	540	100	320
위반 대수	94	32	234
위반 비율 (%)	17.4	32.0	73.1

2. 도로별 규정 속도위반 현황

(나) 전문가 인터뷰
일반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을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 신호가 켜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을 우선시하는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로 이를 통해 교통 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신문 기사
△△시의 10군데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의 효과를 실험한 결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이후 평균 보행 시간이 이전보다 15초 단축되었다. 또한 대각선 거리 30m, 왕복 4차로 이내의 도로인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가 차량 정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이전에 비해 속도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약 80% 감소하였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의 환경 변화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제시해야겠어.
- ② (나)를 활용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원인으로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 체계를 언급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보행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제시해야겠어.
- ④ (가)-2와 (다)를 활용하여, 과속방지턱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이 왕복 4차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속도위반을 줄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통해 교통량이 감소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의 효과를 추가해야겠어.

10. 다음은 초고를 쓴 학생이 모둠 내 상호 검토를 참고하여 [A]를 고쳐 쓴 것이다. 학생이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가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등·하교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설치가 어렵더라도 저의 건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 ① 건의 내용을 강조한 마지막 문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면 좋겠어.
- ② 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면 좋겠어.
- ③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추가해 주면 좋겠어.
- ④ 건의 내용과 관련된 의의로 지역 사회의 이익을 제시하면 좋겠어.
- ⑤ 건의 목적을 고려해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것은 그대로 두면 좋겠어.

11.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 네 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음운이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

㉠ 낱낱이→[난: 나치]
 ㉡ 녀뚜리→[넉뚜리]
 ㉢ 입학식→[이팍씩]
 ㉣ 첫여름→[천너름]

- ①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탈락이다.
- ③ ㉠에서 발음된 'ㅈ'과 ㉢에서 발음된 'ㅍ'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된 것이다.
- ④ ㉠에서 'ㅌ'이 'ㄴ'으로, ㉢에서 'ㅌ'이 'ㄴ'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ㄷ'이 'ㄱ'으로, ㉣에서 'ㅌ'이 'ㅍ'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

12.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런 결합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해서,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 ㉡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 ① 군것질 ② 바느질 ③ 겹겹이 ④ 다듬이 ⑤ 헛웃음

13.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1. 밖 [명사]
 「1」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 이 선 밖으로 나가시오.
 「2」 길이 되는 쪽. 또는 그런 부분. ㉡ 옷장 안은 깨끗했으나, 밖은 굵은 자국으로 엉망이었다.
 「3」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 예상 밖으로 일이 복잡해졌다.

2. 밖에 [조사]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3. 뜻밖-에 [부사]
 생각이나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 ≒ 의외로.
 ㉤ 아버지께 여행을 가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뜻밖에도 흔쾌히 허락하셨다.

<보기 2>

출입문 ㉠ 밖 복도는 시끌시끌하다. 이런 생기를 느낄 수 있는 날도 ㉡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졸업이 가까워지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 뜻밖에도 아쉬움이 더 크다. 추억이 많으니 그럴 ㉣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졸업 후 주어질 ㉤ 기대 밖의 선물 같은 시간들을 그려 보며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 ① ㉠은 <보기 1>의 1 「1」의 의미로 쓰인 것이군.
 ② ㉡은 <보기 1>의 2가 사용되었으므로 '며칠'과 '밖에'를 붙여 써야겠군.
 ③ ㉢은 <보기 1>의 3이 사용되었으므로 '의외로'라고 바꿔 쓸 수 있겠군.
 ④ ㉣은 <보기 1>의 1 「2」의 의미이므로 '수'와 '밖에'를 띄어 써야겠군.
 ⑤ ㉤은 <보기 1>의 1 「3」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겠군.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나뉘는데, 겹문장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혹은 종속적으로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이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가지며, '-고', '-지만'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의미를 가지며, '-아서/-어서', '-(으)면', '-(으)러'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한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다른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그것을 안은문장이라 하고, 이때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안긴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은 '-(으)ㄴ', '-기'가 붙어 만들어지며 문장 안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관형절은 '-(으)ㄴ', '-는', '-(으)ㄴ' 등이 붙어 뒤의 체언을 꾸민다.

부사어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특별한 표지(標識)가 붙지 않는다. 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인용한 것을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가,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에는 '고'와 같은 조사가 쓰인다. 한편 안긴문장의 한 요소가 안은문장의 요소와 동일한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기기도 한다.

중세국어의 문법 자료에서도 겹문장이 확인된다. 이어진문장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하였다. 안은문장의 경우 명사절이 '-음/-음'이나 '-디', '-기'에 기대어 나타났으며, 관형절은 '-(으)ㄴ' 외에 '스'에 기대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부사절은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표지 없이 나타났다.

1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ㄱ.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ㄴ.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ㄷ.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 ① ㄱ은 ㄴ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② ㄴ은 ㄱ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③ ㄷ은 ㄴ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한 절이 있다.
 ④ ㄱ과 ㄷ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⑤ ㄴ과 ㄷ은 모두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

[중세] 只솔히 멀면 乞食하디 어렵고

[현대어 풀이]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고

- 「석보상절」 -

(나)

[중세] 이 東山은 남기 도홀씨 노니는 짜히라

[현대어 풀이] 이 동산은 나무가 좋으므로 내가 노니는 땅이다.

- 「석보상절」 -

(다)

[중세]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뵈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용비어천가」 -

- ① (가)의 ‘乞食하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디’가 사용되었군.
- ② (나)의 ‘남기 도홀씨’가 ‘이 東山’의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다)의 ‘곳 도쿄’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고’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가)의 ‘只솔히 멀면’과 (다)의 ‘불휘 기픈’을 보니 ‘-(으)ㄴ’이 붙어 관형절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나)의 ‘도홀씨’와 (다)의 ‘뵈씨’를 보니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표지가 사용되었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구에서 ‘자연’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개념에는 자연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태나 특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연이라는 개념에 부여되는 의미는 철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했는데, 근대에 흄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였다.

흄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통제 불능의 무자비한 경쟁 상태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흄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삶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혹한 싸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자가 되어 결국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자의적 권리를 포기하

고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루소는 인간이 문명을 뒤로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전원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자연관은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 이 때문에 문명을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 감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 왔던 인간이 문명의 출현으로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

㉠ 니체는, 흄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에 선행하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키고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이는 흄스의 관점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흄스가 자연이 경쟁으로 인해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본 반면, 니체는 자연이 활력이 넘치며 풍요롭다고 보았다.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 결과 ㉡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루소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니체가 보기에 루소의 자연은 문명의 삶에 지친 인간이 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화된 자연일 뿐이다. 니체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의 넘치는 활력을 되찾아 삶을 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니체는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간의 육체에 주목하였다.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는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것과 달리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육체를 중요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니체의 관점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니체는 ‘몸’으로서의 인간에게 육체의 활동이 전체되지 않으면 이성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몸’이 단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니체는 이러한 ‘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배제하고 이성적 활동만을 중시하는 편향성을 극복하여,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육체의 활동이 지닌 활력을 다시 찾아 더 고양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이 정립된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사례를 통해 특정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하고 그 이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따르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소개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17. <보기>에 대해 윗글의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마을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에 마을 책임자인 A 씨는 주민들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 B 씨의 친구는 돈을 노리고 B 씨에게 접근하여 그를 위하는 척하다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B 씨를 배신했다. 이후 B 씨는 살던 도시를 등지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살았다. 그러나 산 속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여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다.
- C 씨는 어린 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남녀의 유별(有別)을 중시하는 도덕의식을 과도하게 강요하였다. 그래서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녀 간의 사랑에 어려움을 겪었다.

- ① 홉스: A 씨가 책임자로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식량을 얻으려고 싸우는 상황을 보니 자연 상태에서와 같은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 ② 홉스: A 씨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보다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여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 ③ 루소: B 씨가 산 속에서의 삶에 불편함을 느끼고 도시로 돌아온 것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보여 주는군.
- ④ 루소: B 씨의 친구가 B 씨에게 한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삶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 ⑤ 니체: C 씨가 도덕을 바탕으로 아들의 본능을 과도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아들은 성인이 되어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넘치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군.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홉스와 루소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문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자연 개념을 구축하였다.
- ② 홉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를 지향하는 국가를 통해 이상적 인간상이 완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③ 홉스는 자연보다 인간의 문명에, 루소는 인간의 문명보다 자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였다.
- ④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기 위해 홉스는 자연을 악한 것으로, 루소는 자연을 선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자연 그 자체를 간과하였다.
- ⑤ 자연이 지닌 긍정적 가치에 대해 홉스는 인간이 이를 수용하였고, 루소는 인간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규정하였다.

19. ㉡에 대한 ‘니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어 비롯된 결과이다.
- ② ㉡는 인간이 자연을 해석과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
- ③ ㉡는 도덕에 의해서 인간에게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④ ㉡는 끊임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 ⑤ ㉡는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20. 윗글과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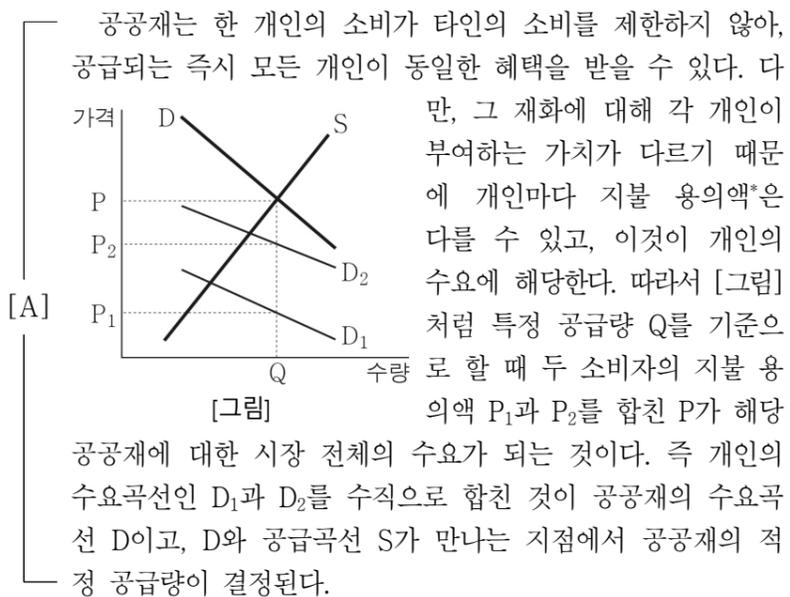
데카르트와 메를르 폰티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로 다른 관점을 취했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독립적 실체라고 규정하고 이 두 가지를 인간의 본질로 규정했다. 그리고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을 가진 ‘몸’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취했다. 반면 메를르 폰티는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거부하고,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능하므로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이 되는 ‘몸’을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

- ① 니체와 데카르트는 모두 이분법적 관점으로 독립적 실체인 ‘몸’ 개념을 설명하고 있군.
- ② 니체와 메를르 폰티는 모두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군.
- ③ 데카르트는 니체와 달리,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있군.
- ④ 메를르 폰티는 니체와 달리, ‘작은 이성’이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⑤ 니체는 메를르 폰티와 달리, ‘큰 이성’이라는 개념이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을 우위에 두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군.

[21 ~ 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곡선을 만든다. [그림]은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공급곡선이다.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되었다.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분담금'에다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선호도를 속일 수 있으므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 액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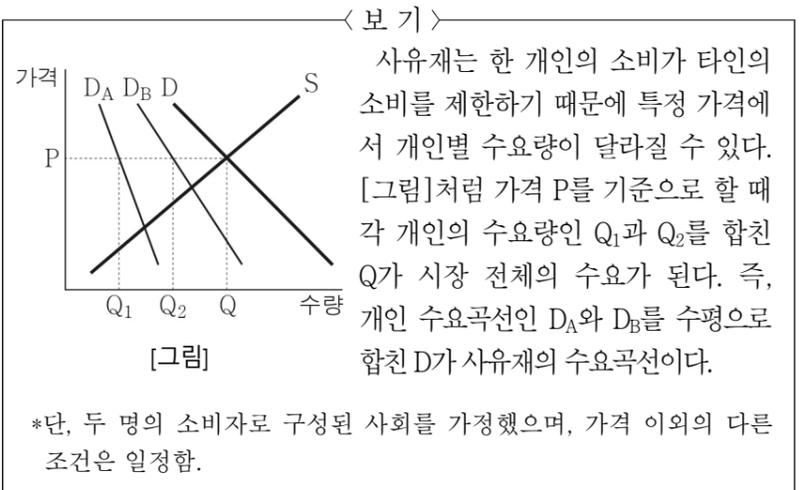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 교량 공급 결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액은 A는 500만 원, B는 200만 원, C는 100만 원이라고 하자.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그 공공재가 공급되므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사람의 비용 분담금은 각각 200만 원이다.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

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액에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인 경우 순손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순이익은 300만 원, B의 순이익은 0원이 되고, C는 순이익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게 된다. 결국 A의 순이익인 300만 원이 B와 C의 순이익 합인 -100만 원보다 크므로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B와 C는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으므로 추가 세금 없이 2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공급 비용인 600만 원보다 적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의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의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중추적 사람'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C의 순손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다. 결국 A는 비용 분담금 200만 원에 추가 세금을 더한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인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A가 지불 용의액을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의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불 용의액: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

21.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으며,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함.

- ㉠ <보기>의 수요자들과 달리, [A]의 D₁의 수요자와 D₂의 수요자는 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A]의 수요자들과 달리, <보기>의 D_A의 수요자와 D_B의 수요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
- ㉢ [A]와 <보기> 모두 수요곡선인 D와 공급곡선인 S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이 각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다.
- ㉣ [A]와 <보기>에서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A]의 D는 위쪽으로, <보기>의 D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 ㉤ [A]의 D₁과 D₂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보기>의 D_A와 D_B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을 나타낸다.

2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4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 ②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B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늘어난다.
- ③ A와 B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C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0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C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 ④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A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 ⑤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B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2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23.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추가 자료이다. ㉠을 <보기>에 적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두 개의 공공재 중 하나만 공급해야 할 때 클라크 조세 활용 방안]

구성원들이 두 개의 공공재 X, Y 중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공공재를 선택한 후, 그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여 각 개인의 순이익을 산출한다. 그 결과 순이익의 합이 큰 공공재가 공급된다. 이때 어떤 공공재를 선호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며, 중추적 사람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

[사례]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 도서관과 공공 병원 중 하나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때 각 개인의 선택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산출한 결과, ‘갑’은 공공 도서관에 30만 원, ‘을’은 공공 병원에 40만 원, ‘병’은 공공 도서관에 20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갑’이 없더라도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갑’은 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 ② ‘을’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을’은 중추적 사람이다.
- ③ ‘병’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병’은 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 ④ ‘갑’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 ⑤ ‘을’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부담금은 달라지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24. ‘클라크 조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②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 ③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 ④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부담금은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⑤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부담금에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책정된다.

25. 밑줄 친 단어 중,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말다툼 끝에 싸움이 일어났다.
- ②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③ 자명종 소리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 ④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며 거품이 일어났다.
- ⑤ 맛있는 음식을 보자 갑자기 식욕이 일어났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 아즈머니슈?”
 킁킁한 속에서 자취도 없이 다가오다가 박일성이가 말을 건다. 조고만 체통에 비를 쪼르르 맞은 행색은 쪽제비 같고 삼삼개 같으나 캄캄한 속에서 반짝이는 눈은 올빼미 눈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준이택의 말에는 역시 가시가 품겨 있었다.
 “수고랄 거 있습니까. 애쓴 보람 없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 마세요. 저기 가서 자리만 잡히면 곧 편지가 올 거니까 따라가서 편안히 사시게 될 겁니다.”
 이 집 살림을 제가 말아보는 듯한 수작이다.
 “그런데 하꼬방*은 꼭 헐라는 건지요?”
 이 남자와 다시는 인사도 어울리기는 싫었으니 당장 급한 사정이라 말을 돌렸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시게 될 텐데 그까짓 하꼬방쯤 내게 뻗기구 가시구려.”
 ㉠ “가긴 어딜 가요? 누가 가라 마라 해요.”
 필준이택은 발끈하며 핏대를 돌리다가 지금 말눈치 보아서는 당장 헐어 가라는 것은 아닌 모양이니 무슨 도리를 차리자면, 이 사람을 덧들여 놓아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성을 높여 사정을 하였다.
 “혼жат손에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작자만 나서면 팔아 버릴까 하는데…….”
 “글쎄…… 그래 얼마나 받으시게?”
 역시 금시로 헐리지는 않을 것을 알고 하는 말눈치 같다.
 “하꼬방만 터값 합쳐 십만 원에 사구 솔 하나 걸었죠. 그 외에 그릇 나부렁이까지 껴서 십오만 원은 받을까 하는데요?”
 동네 집에서 쫓겨 나가는 사람들이 반의 샅에도 찢찢매는 꼴을 보고 거의 빼앗다시피 헐가로 흥정을 붙여서 저희 동무들에게 넘기는 것이었지마는, 하여간 그런 자국에 소개도 곧잘 하는 박일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꺼낸 것이었다.
 “아 언제 헐릴지 모르는 걸 십오만이라니 어림두 없습니다.”

게다가 ㉠ 그까짓것 붙들구 앉았어야 세금은 점점 오르구.....”
 세금 노래를 꺼내는 것을 보니, 너 같은 빨갱이도 그런 줄이나 아는구나 하고 필준이덕은 속으로 웃자니까
 “한 오만 원이라면 내가 살까!”
 하고 썩 웃는다. 필준이 내외가 걸어붙이고 나서서 하꼬방 하나로 다섯 식구가 뜯어먹고 사는 것을 보고, 저희는 쌀배급 광목배급이니 소고기가 공짜로 들어왔느니 하고 땡땡거리고 살면서도 그 하꼬방이 부러워서 여편네를 그런 거나 시켜 보았으면 하고 배를 앓던 박일성이었으니 제가 사겠다는 말도 실없는 소리가 아닐 것 같기는 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인민군에게 끌려갔던 필준은 겨우 도망쳐 집으로 돌아와 비밀 지하실에 숨어 지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평소 하꼬방을 탐내던 박일성 반장 내외가 이를 눈치 채고, 반장덕은 내무서원과 인민군을 대동하고 필준이덕(진숙 어머니)의 집으로 갑자기 들어닥친다.

“지하실은 어디야?”
 이때까지 다다미를 밟는 투박스러운 구둣발자국 소리밖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던 캄캄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앞을 우뚝 막아서며 그 거센 목소리로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 놓는다.
 “이 동네 집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지하실이란 말에 남편의 얼굴이 또 떠오르면서 속이 떨렸다.
 “마루 밑에 없으면 다다미 밑에라도 봤겠지?”
 진숙 어머니는 다시 머리가 어쩔하였다.
 ‘하누님 맙시사!’
 하고 속으로 빌었다. 전신의 기운이 쪽 빠지고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것을 간신히 몸을 가누고 섰다.
 “여보 이리 오슈.”
 마루 끝에서 치어다보고 섰는 병정에게 소리를 치고 내무서원이 앞장을 서 방으로 다시 들어간다.
 아이들 옆의 빈자리를 구둣발로 걸어차며
 “여길 열어 봐.”
 하고 호령을 한다.
 뒤따라 들어온 진숙 어머니가 요를 걸어치우고 다다미를 들어 내려니까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반장 여편네도 머리맡으로 가서 거든다. 다다미를 들어내고 널판지를 벗긴 뒤에 회중전등을 비춰 보아야 별 수는 없었다. ㉡ 깊이 빠져 머쓱해진 내무서원은 여전히 잠자코 온돌방을 거쳐 삼조 방으로 뚜벅뚜벅 건너간다.
 아이들은 이 법석에도 세상 모르고 곤드라져 숨소리 없이 잔다.
 인제는 될 대로 되라고 기진맥진한 진숙 어머니는 등신처럼 떨거니 섰기만 하다가 반장 여편네가
 “여보 그래두 어떻게 됐는지 가 봅시다.”
 하고 등을 미는 바람에, 온돌방으로 들어서니 벌써 남편의 기어 나오는 허연 그림자가 눈에 힐끗 띈다. ㉢ 진숙 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철그럭.....
 수갑을 채우는 소리다. 다음 순간 남편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앞장을 서고 내무서원 병정 반장 여편네..... 아무 소리도 없이 줄달아 나온다. 밖에 나와서도 반장 여편네는 진숙 어머니의 옆을 지날 때 외면을 하였다.
 얼이 빠져 섰던 진숙 어머니는 무슨 새 힘이 났는지 쭈르르 뛰어나가 남편 옆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 다만 현관에서 고무신을 바로 놓아 주었다.
 ㉣ “아이들하구 잘 있어!”

내무서원이 문을 열어 주니까 필준이는 멍뚱하고 얼굴을 돌리며 한마디 던지듯이 하고 나간다.
 “안녕히 가세요.”
 반장 여편네가 꼬박 인사를 하고 문밖에 나선 진숙 어머니에게는 알은체도 없이 달음질을 쳐서 저의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진숙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진숙 어머니는 남편의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를 곱뜨려 스러질 때까지 병어리처럼 아무 소리 없이 떨거니 섰었다. 눈에는 눈물 한 점 스며나지 않았다. 대문도 거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으로 들어온 진숙 어머니는 자는 아이들 옆에 쓰러지며 고개를 파묻고 비로소 목이 메여 울음이 복받쳤다. 한 십 분은 그대로 인사 정신 없이 울었으리라. 어머니 울음소리에 아이들이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자 진숙 어머니는 몸을 어떻게 지향할 수가 없는 듯이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나—”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람에 잠이 덜 깨어 떨거니 앉았는 아이들은 혼이 나서 어머니가 미쳤다? 하고 덜덜 떨고 있다.
 -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

*하꼬방: 판잣집을 뜻하는 일본어.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이념 대립으로 인한 참혹한 전투 장면보다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처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위협 받고 가족 공동체의 삶이 파괴된다. 이를 통해 인간성 상실과 비극적 삶이 부각되고 있다.

- ① 하꼬방 값을 흥정하기 위해 ‘언성을 녹여 사정’하는 진숙 어머니의 모습에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인물의 삶을 엿볼 수 있군.
- ② 인민군 치하에서 ‘땡땡거리고’ 사는 박일성을 보며 ‘속으로 웃’는 진숙 어머니를 통해 혼란한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③ 필준을 찾는 ‘거센 목소리’가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 놓는’ 장면에서 인물의 삶이 위협 받는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엿볼 수 있군.
- ④ ‘다다미를 들어내’는 진숙 어머니를 거들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반장 여편네를 통해 부정적인 인간상을 엿볼 수 있군.
- ⑤ 진숙 어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공동체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군.

2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필준이택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박일성의 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박일성은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준이택을 염려하고 있다.
- ③ ㉢: 내무서원은 자신의 예측과 다른 결과에 멧쩍어 하면서도 하던 일을 지속하고 있다.
- ④ ㉣: 진숙 어머니는 자신이 걱정하던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다.
- ⑤ ㉤: 필준은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다.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난 너를 구경오진 않았대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왔대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顛倒)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

(나)

무르익은
과실의 밀도(密度)와 같이
밤의 내부는 달도록 고요하다.

잠든 내 어린것들의 숨소리는
작은 벌레와 같이
이 고요 속에 파묻히고,

별들은 나와
자연(自然)의 구조에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

한 시대 안에는 밤과 같이 해체(解體)나 분석(分析)에는
차라리 무디고 어두운 시인들이 산다.
그리하여 토의의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

꽃들은 떨어져 열매 속에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

그리하여 시간으로 하여금
새벽을 향하여
이 풍성한 밤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할 줄을 안다.

-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다)

문학에서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감각적 체험을 통해 얻은 심리적 인상 체계나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에서의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시적 상황을 암시하여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 이미지란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인 것이다.

한편 이미지의 기능으로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등을 들기도 한다. 신선감이란 어휘나 소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빚어내는 새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낮익은 대상을 낯설게 드러내어 독자들이 참신함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강렬성이란 작품 속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고, 환기력이란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정서가 환기되는 것을 뜻한다.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0. (다)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쇠창살’, ‘철책’, ‘창살 틈’ 등의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긴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강렬성을 통해 단절과 속박이라는 시적 의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와 같이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전도된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나)의 ‘별들이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와 같이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신선감을 통해 시간적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⑤ (나)의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과 같이 비유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윤희함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31. ㉠과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작가는 과실 ‘밤[栗]’과 시간 ‘밤[夜]’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다. 과실이 지니는 속성과 가치는,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와 연결되어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한편 시간으로서의 ‘밤’은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며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과실로서의 ‘밤’의 속성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으로서의 ‘밤’과 중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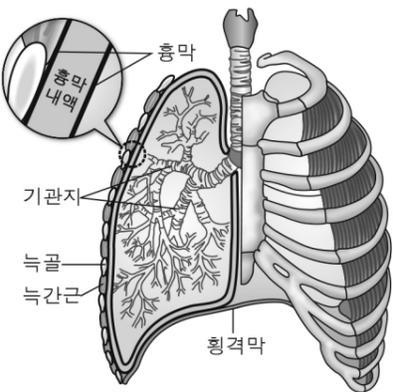
- ① 1연의 ‘과실의 밀도’처럼 ‘달도록 고요하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라는 것에서 과실과 시간의 중첩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군.
- ② 2연의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를 통해 독자는 ‘밤’이 ‘새벽’이 오기 전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4연의 ‘해체나 분석’과 ‘상상’의 대비를 통해 독자는 ‘밤’이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겠군.
- ④ 4연의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6연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하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시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군.

[32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물질대사 결과 발생한 이산화 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을 호흡이라 한다. 이때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하는 것을 흡기, 폐에서 체외로 이동하는 것을 호기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와 입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포로 들어간다.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지고 수증기가 첨가되어 습윤한 상태가 되며,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폐포는 폐 속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공기주머니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기관지와 폐포 등으로 구성된 폐는,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한다. 흉곽은 늑골을 비롯한 뼈와 늑간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 또한 흉막강은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흉막과 흉막 사이는 흉막 내액으로 채워져 있다.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 흉막은 흉곽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막 내액은 결국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



[그림]

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물에 의해 붙어 있는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이 물의 응집력 때문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용기의 부피 감소는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폐포 안의 기체 압력을 폐포압이라고 하고 체외의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흡기와 호기 동안 폐의 부피는 변화하고, 이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 폐 안팎으로 공기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폐의 부피 변화에는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한다. 먼저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탄성 반동이란 변형을 주고 있는 힘에 반발하여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인데 폐는 마치 풍선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 반동을 가지고 있다.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므로 공기의 이동이 없다. 그런데 이때에도 폐는 항상 공기로 차 있으므로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도 함께 작용한다. 이때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므로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폐는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 여기서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뺀 것이다. 따라서 흉막 내압이 변화하면 경폐압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폐의 부피가 변화되는 것이다.

흉막 내압은 흉막강 속 흉막 내액의 압력을 말하는데 항상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바깥쪽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은, 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흉곽벽의 탄성 반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흉곽벽의 탄성 반동은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 반동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 결과 폐와 흉곽벽은 서로 살짝 떨어진 상태가 되어 흉막 내압은 아대기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해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하면 흉막 내압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흡기는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흉곽이 확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흉곽벽은 폐 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경폐압이 증가하고 이 힘이 폐의 탄성 반동보다 커져 폐는 더욱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하므로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되며,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후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흡기 끝에는 공기 흐름이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흉막 내압, 경폐압 등의 변화로 인해 폐의 부피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공기는 폐포로부터 기도를 거쳐 대기압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아대기압: 대기압 아래의 기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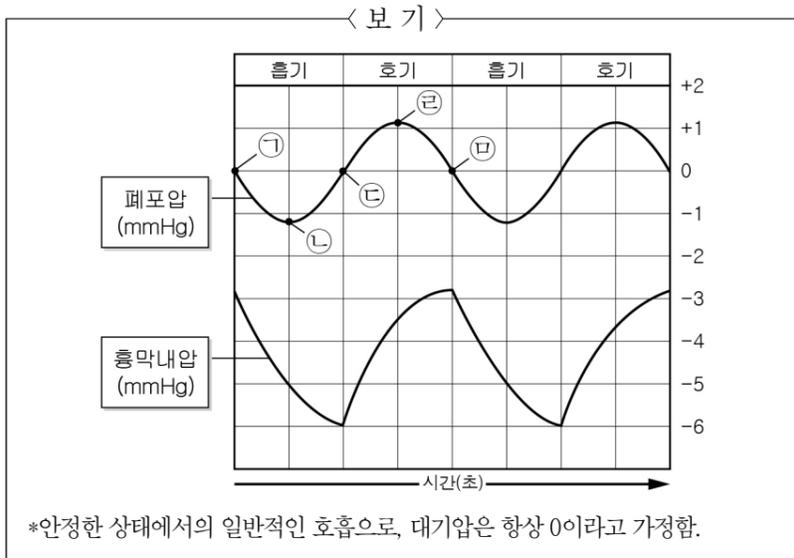
32. 밑글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호흡 과정에서 폐의 부피 변화는 어떠한가?
- ② 호흡의 정의와 호흡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 ③ 호흡 시 발생하는 공기 흐름의 원리는 무엇인가?
- ④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의 내부 구조는 어떠한가?
- ⑤ 호흡과 관련된 압력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33. ㉠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폐는 두 개의 흉막 중 안쪽 흉막과 붙어 있다.
- ② 폐는 흉곽 내에 위치하며 흉막강에 둘러싸여 있다.
- ③ 폐포에서 교환된 이산화 탄소는 기관지를 거쳐 이동한다.
- ④ 폐는 뼈와 늑간근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호된다.
- ⑤ 폐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체외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진다.

※ <보기>는 흡기와 호기에서의 폐포압과 흉막 내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4번과 35번 물음에 답하시오.



34.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② ㉡은 흉곽이 확장되고 있는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적은 지점이다.
- ③ ㉢은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④ ㉣은 흉곽이 축소되고 있는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⑤ ㉤은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폐의 부피는 큰 지점이다.

35. ㉢에서 ㉣로 호흡이 진행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횡격막은 이완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위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② 횡격막은 이완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③ 횡격막은 수축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위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 ④ 횡격막은 수축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⑤ 횡격막은 수축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36.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사례]
A 씨는 외상으로 인해 흉막강에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흉막 내압이 변화하다가, 현재는 외부에서 흉막강으로의 공기 이동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치료가 필요하다.

*단, 폐의 손상 없이 흉곽벽이 찢린 경우로 한정함.

[학생의 반응]
현재 A 씨는 흉막 내압이 (㉠)과 같아졌고 폐는 외상이 생기기 전보다 쪼그라들었겠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 난 부위를 막고 흉막강 속 공기를 제거하여 (㉡)을 증가시키면 될 것 같아.

- | | | |
|---|-------|------|
| | ㉠ | ㉡ |
| ① | 대기압 | 경폐압 |
| ② | 대기압 | 아대기압 |
| ③ | 탄성 반동 | 아대기압 |
| ④ | 탄성 반동 | 경폐압 |
| ⑤ | 경폐압 | 대기압 |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소슬하야 나뭇잎이 다 진 후의 계산(溪山)이 삭막거늘
겨울이 조화 부러 백설(白雪)을 누리오니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가 경요굴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노피 드니
가없는 설경(雪景)은 다 시(詩)의 체재가 되었시니
우환(迂闊)*흔 정신(精神)이 추위를 어이 알꼬
사계절의 모습이 가는 듯 도라오니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ㄹ즐세고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라
냇숫대 드리우니 칠리탄*과 엇더흔고
이원의 반곡*이 이리턴가 엇더흔며
무이산의 청계는 이에서 더 도흔가
화산(華山)의 한 부분은 나누자 흐거니와

이 ㉔ 별천지는 나밖에 뉘 아논고

< 중략 >

산조산화(山鳥山花)를 내 버즐 삼아 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삼킨 대로 노는 몸이
공명(功名)을 생각하며 빈천(貧賤)을 설위홀가
 단사표음(簞食瓢飲)을 내 분수로 여기니 일월(日月)도 한가홀사
 이 **계산(溪山) 경물(景物)**을 슬도록 거느리고
 백 년 세월을 노닐다가 마치리라
 아이야 사립문 닫아라 세상 알까 흐노라

- 정훈, 「용추유영가」 -

*우환: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허유: 중국 요임금 때 은사(隱士).

*칠리탄: 중국 후한 때 엄광이 몸을 숨긴 동강의 여울.

*반곡: 중국 당나라 때 이원이 은거한 곳.

(나)

맑은 하늘 들 붉거늘 일장금(一張琴)을 빗기 안고
 난간(欄干)에 기대 안자 옛 **양춘곡(陽春曲)**을 뜬마리
 었더타 님 향흔 시름이 곡조(曲調)마다 나느니

<제1수>

시절이 하 수상하니 마음을 둘 더 업다
 교목(喬木)도 네 곳고 신하도 그득하되
 의론(議論)이 여기 저기 하니 그를 몰라 흐노라

<제3수>

송옥(宋玉)*이 ㄱ을홀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
 차가운 서리 흰 이슬은 하늘히 기운이라
 이 내의 남은 저 근심은 봄 ㄱ을이 업서라

<제6수>

공맹(孔孟)의 적통(嫡統)*이 느려 주자(朱子)께 다다르니
 자세한 학문(學文)은 궁리(窮理) 정심(正心) 나란히 일렀네
 었더타 강서(江西) 의론(議論)*은 그를 지리(支離)타 흐던고

<제9수>

장부(丈夫)의 몸이 되어 기한(飢寒) 두려울까
일산(一山) 풍월(風月)애 즐거움이 ㄱ이 업다
 내 마다* 부운(浮雲) 부귀(富貴)를 따를 줄 이시라

<제11수>

득군행도(得君行道)는 군자(君子)의 뜻이로되
 때를 못 만나며는 고반(考槃)*을 즐겨흐니
 넉넉흔 술바람에 달보기야 **나 썬인가 흐노라**

<제12수>

- 장경세, 「강호연군가」 -

*송옥: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굴원의 제자.

*적통: 정식으로 대를 이은 계통.

*강서 의론: 주희와 육구연이 강서에서 논쟁함. 주자학을 비판한 강서학파를 의미함.

*마다: 싫다.

*고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김.

(다)

바구니를 가지고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가던 그 시절이 얼마
 나 행복했는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이다.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네째는 모두 다 내 나물 동무들이었다.
 활나물, 고사리 같은 것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만 꺾을 수가

있었다. 뱀이 무섭다고 하는 나한테 섭섭이는 부지런히 뽕순을
 꺾어서 내 머리에다 갈아 꽃아 주며, 이것을 꽃고 다니면 뱀이
 못 달려든다는 것이었다. 산나물을 캐러 가서는 산나물만을 찾
 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며 **뽕뽕채**를
 꺾고 **싱아**를 캐고 심지어는 **쫄뿌리**도 캐는 것이었다. 쫄뿌리를
 캐서 그 자리에서 먹는 맛이란 또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꿩이
 푸드덕 날면 깜짝들 놀라곤 하는 것이었다. 내가 산나물을 뜯던
 그 그리운 고향엔 언제쯤 가게 될 것인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나는 늘 내 기억에 남은 고향이 그림고
 오늘처럼 이런 **산나물**을 대하는 날은 고향 냄새가 물큰 내 마
 음을 찢러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

< 중략 >

진달래도 아직 꺾어 보지 못한 채 봄은 완연히 왔는데, 내 마
 음속 골짜구니에는 아직도 얼음이 안 녹았다. 그래서 내 심경은
 여태껏 춥고 방 안에서 밖엘 나가고 싶지가 않은 상태에서 모
 두가 을씨년스럽다.

시골 두메 촌에서 어머니를 따라 달구지를 타고 이삿짐을 실
 리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㉕ 에덴 동산에서 내
 쫓긴 것이다.

그리고 뽕순을 머리에다 안 꽃고 다닌 탓인가, 뱀은 내게 달
 려들어 술한 나쁜 지혜를 넣어 주었다.

10여 년 전 같으면 고사포(高射砲)를 들이댔을 **미운 사람**을
 보고도 이제는 곧잘 웃고 혼연스럽게 대해 줄 때가 있어 내가
 그 순간을 지내놓고는 아찔해지거니와 풍우난설(風雨亂雪)의
 세월과 함께 내게도 꽤 때가 앉았다.

심산(深山)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의 품에서 퍼질 대
 로 퍼지고 자랄 대로 자란 싱싱하고 향기로운 이 **산나물 같은 사
 람**을 만나기란 요즘 세상엔 힘든 노릇 같다. 산나물 같은 사
 람이 어디 없을까? 모두가 억세고 꼬부라지고 벌레가 먹고 어떤
 자는 가시까지 돋쳐 있다.

어디 산나물 같은 사람은 없을까?

- 노천명, 「산나물」 -

37.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고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38.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우환흔 정신'은 속세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의 '장부의 몸'은 자연 속에 사는 화자를 가리킨다.
- ② (가)의 '내 부러워하랴'와 (나)의 '나 썬인가 흐노라'에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③ (가)의 '뉘싯대'는 화자의 흥취가 드러나는, (나)의 '양춘곡'은 화자의 시름이 묻어나는 소재이다.
- ④ (가)의 '공명'과 (나)의 '부귀'는 화자가 거리를 두는 대상이다.
- ⑤ (가)의 '계산 경물'과 (나)의 '일산 풍월'은 화자가 즐기는 풍류의 대상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강호연군가」에서 강호에 은거해 풍류를 즐기는 작가는 자연 속에서 성현의 학문을 칭송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 임금을 잊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당쟁으로 인해 혼란한 정국 속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던 작가의 고뇌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1수: 강호에서도 임금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3수: 당쟁이 계속되는 나라의 상황을 걱정하는 작가의 고뇌를 엿볼 수 있군.
- ③ 6수: 자신을 다른 인물과 비교하며 자연의 변화 속에서 근심을 잊고 사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9수: 성현의 학문적 정통성을 언급하며 그들의 학문을 칭송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⑤ 12수: 군자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혼란한 정국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에는 고향과 인정(人情)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나타난다. 글쓴이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의 체험과 그 체험 속의 풍물들을 통해 지난날의 순수를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 ①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네째’ 등을 떠올리는 것에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삐죽채’, ‘싱아’, ‘침뿌리’ 등은 유년 시절 글쓴이의 체험 속 풍물들에 해당하는군.
- ③ ‘나’가 오늘 마주한 ‘산나물’은 글쓴이에게 고향과 인정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군.
- ④ ‘미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웃어주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바람이 드러나는군.
- ⑤ ‘산나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4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동심이 유발되는 공간이다.
- ② ㉡는 ㉠와 달리 새로운 소식을 듣는 공간이다.
- ③ ㉠와 ㉡는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 ④ ㉠와 ㉡는 모두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다.
- ⑤ ㉠와 ㉡는 모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공간이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아(三兒) 점점 자라 십 세에 미치매 절세한 용색과 선연(嫵妍)한 품성이 비상특이하고 문견(聞見)이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詩書百家)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에서 조약들로 진(陣)을 벌이며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익히거늘 왕씨 알고

가장 민망히 여겨 삼녀를 타이르며 왈,

“여자의 도(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중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를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勘審)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 안 됨이라. 만일 네 부친이 아시면 특별히 대죄할 것인데 내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

삼소저 이 말을 듣고 대경 사죄 왈,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뵈올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 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오?”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 그 후에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새 유생이 다다라 보고 대경하여 궁시와 병서를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으며 왈,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음은 이 어쩐 일이뇨? 일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자주, 벽주, 명주)는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 진원 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육 인(六人)은 조광윤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육 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차설. 육 인이 원양성 십 리에 주둔하고 계교를 의논할 새 명주 왈, “㉠ 여차여차 하면 어떠하뇨?”

최완이 대희 왈,

“그대 말이 정히 내 뜻과 일반이라.”

하고 명일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 각각 변복하고 원양성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 왈,

“아등(我等)이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문루에 올라 바라본 즉 양인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낫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여등(汝等)은 어떤 사람이완대 성에 들고자 하느냐?”

양인(兩人)이 왈,

“아등은 절강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으며 문을 열어 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 들이니 양인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읊고 왈,

“아등은 원래 물화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여 자생하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물화를 다 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 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삐 여겨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청과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諫)왈,

“양진이 상대하매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 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차인 등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 하느냐. 익히 생각하여 타일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명주 읍 왈,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이제 이렇 듯 의심하매 가위 진퇴유곡이라.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낫 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 왈,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 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육으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심복이라. 일을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삼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㉞ 여차여차 덮치면 아등이 합력 내응하리라.”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 이 르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최완은 이천 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 가 삼경 후 북병에게 패한 채하고 북문을 열라 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 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차일 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한지라.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 고 최완 등의 내응이라 하여 부장 한양으로 성을 지키오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향하고 짓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날날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대포 소 리에 사면 북병이 일어나니 북군이 불의지변을 만나 사방 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 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나니라. 차시 최완이 본진에

[A]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대호(大號) 왈,
 “우리 북한(北漢)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최 완이 급히 군을 몰아 짓쳐 들어가니 한양이 대경하여 대적 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최완이 승세하여 서문 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십여 합을 싸울 새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주 고성 왈,
 “장임 적자는 단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기어 장임의 어깨를 맞추니 장임이 몸 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지매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 하여 돌아가거늘 원평이 대로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불어 교전하여 십여 합에 이르러는 자주의 칼이 번듯하며 원 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말에서 내려 할 일 없어 항복하는지라.

— 작자 미상, 「옥주호연」 —

*독시지추: 기다리던 때를 얻게 된 때.

4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4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은 원양 북문을 개방하여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유생’은 ‘삼소저’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한 ‘왕씨’를 책망하고 있다.
- ③ ‘왕씨’는 ‘삼소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④ ‘삼소저’는 천하가 어지러움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장임’은 ‘원건’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명주’와 ‘최완’을 환대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된 효는 학문과 무예에 힘 써 입신양명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여성에게 요구된 효는 규방에 서 예절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 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 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함 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삼소저가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영 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군.
- ②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 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군.
- ③ 삼소저가 여자의 도에 대해 설명하는 왕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군.
- ④ 벽주가 한 번 쏜 화살에 장임이 말에서 떨어진다든 것에서 여성 주 인공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는군.
- ⑤ 삼소저가 최완, 최진, 최경과 함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 드러 나는군.

45. ㉠와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 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대화 상대방에게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에 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석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관리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 건축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제로 에너지 주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6%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 있는 집이 제로 에너지 주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옥상에 설치된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160m에도 수십 개의 관을 박아 지열을 끌어 올려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전력 회사에 보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한편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공법을 이용해 에너지를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른바 패시브 공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 다음 영상을 보시죠. 지금 보시는 실험은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창문은 아르곤 가스를 채운 3중창으로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 설치된 외벽이 무척 두껍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반 주택보다 다섯 배나 두껍게 설계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이뿐만 아니라 ㉢ 이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집 안의 중앙 천장에는 폐열 회수 순환 장치를 설치하여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더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②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 ④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야겠어.
- ⑤ 중심 화제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유용성과 한계가 함께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2.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패널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제시하였다.
- ② 지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지열을 끌어 올리는 장치를 제시하였다.
- ③ 창문의 단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에 이와 관련된 실험을 제시하였다.
- ④ 외벽 구조의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에 두꺼운 외벽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 ⑤ 열 손실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에 폐열 회수 순환 장치가 설치된 실내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3.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 1: 집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이 마음에 잘 와닿았어.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와 어떻게 다른지, 또 ‘폐열 회수’는 무슨 뜻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어.

청자 2: 과학 선생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셨는데, 패시브 공법의 내용을 활용하면 좋겠어. 그런데 지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 그리고 발표자가 처음에는 너무 여유 있게 발표를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발표를 마무리한 게 좀 아쉬웠어.

- ① 청자 1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군.
- ② 청자 1은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관련지어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있군.
- ③ 청자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갖게 된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군.
- ④ 청자 2는 발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군.
- ⑤ 청자 2는 발표자가 정해진 발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군.

[4~7] (가)는 도서관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규연: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희찬: 우리 반 친구들 몇 명에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 친구들 말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자신들의 흥미를 끄는 책이 없다고 하더라.

규연: ㉠ 흥미를 끄는 책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희찬: 추리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것 말이야.

윤지: 우리 학교 도서관의 장서 목록을 본 적 있는데, 추리 소설과 판타지 소설이 500여 권이나 있던걸.

민수: 난 도서관에 있는 책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 학생들이 도서관에 흥미로운 책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이 있는지 몰라서 안 오는 거지.

윤지: 맞아. 매달 새로 들어오는 책에 대한 안내도 잘되지 않고 있어.

규연: ㉢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 앞 게시판에 새로 들어온 책에 대해 공지하시잖아.

윤지: 도서관에 오지 않는 학생들은 그걸 알 수가 없지.

규연: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도서 안내 방법을 마련해야겠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희찬: 학교 식당 안의 벽면에 도서 게시판을 설치해서 새로 들어온 책이나 좋은 책을 안내하는 것은 어때?

윤지: 좋은 생각이네.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게시판을 볼 테니까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아.

민수: ㉣ 그렇기는 해. 그런데 게시판에는 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게 되어 있잖아. 어떤 내용의 책인지 알려 줘야 학생들이 책을 찾아 읽으려고 할거야.

희찬: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 나눔방을 활용해 보는 건 어때? 거기에 게시물을 올리면 조회 수도 아주 높을 거야.

규연: ㉤ 정보 나눔방에 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는 거지?

희찬: 그렇지. 거기에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거지.

윤지: 무엇보다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책에서 찾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자. 그러면 도서관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야. 이에 맞춰 정보 나눔방에 올릴 글은 내가 구상해 볼게.

규연: 그럼 난 사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문을 써야겠다. 민수야, 네가 그 글을 검토해 줘.

민수: 그렇게.

(나)

사서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 반장 김규연입니다. 늘 학생들을 위해 마음을 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번 달 도서 대출 대장을 보니, 1,500명이나 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도서 대출 권수가 15권 남짓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학교 신

문에 실린 설문 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 절반 이상이 ‘읽고 싶은 책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습니다. 도서관에는 매달 20권씩 새로운 책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은 도서관에 있는 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적극적으로 도서 안내 활동을 하고자 선생님께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교 식당 안의 벽면에 도서 게시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매달 이 게시판을 활용하여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과 도서관에 비치된 책 중 추천할 만한 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학교 식당 안 게시판은 도서관 앞 게시판보다 홍보 효과가 클 것입니다. 둘째,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 나눔방에 도서 관련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북돋울 수 있는 글을 수시로 작성해 올릴 계획입니다. 이 페이지가 활성화되면 도서관 이용률도 증가할 것입니다. 학교 식당 안 게시판과 웹 페이지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이 당번을 정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독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도서관 활동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서관 반장 김규연 올림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② ㉡: 상대방과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지니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다.

5. 다음은 ‘규연’과 ‘윤지’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규연: 홈페이지의 정보 나눔방에 올릴 글을 어떻게 쓸 거야?

윤지: _____ [A]

- ①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추리 소설과 판타지 소설을 도서관에서 찾아 목록을 제시할 거야.
- ②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내용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할 거야.
- ③ 학생들이 배경지식 없이도 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상세하게 줄거리를 쓸 거야.
- ④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평을 찾아 소개할 거야.
- 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제시할 거야.

6. <보기 2>는 (나)를 쓰기 위한 '규연'의 글쓰기 계획이다. <보기 2>의 ㉠~㉣를 <보기 1>의 ㉡~㉤와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1 >

건의문은 개인이나 기관에 문제 상황과 관련된 요구나 제안을 밝히는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문에서는 ㉡ 문제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심각성을 부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문제 상황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서술해야 한다.

< 보기 2 >

㉠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해야지.
 ㉡ 효과적인 도서 안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해야지.
 ㉢ 도서관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는 도서 대출 대장을 활용해야지.

- | | | | |
|---|---|---|---|
| | ㉡ | ㉢ |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7. <보기>는 (나)를 읽은 '민수'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규연'이 고쳐 쓴 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민수'의 검토 의견]
 네가 쓴 글 잘 읽었어. 마지막 문단에서 (㉠) 하는 것이 좋겠다.

[고쳐 쓴 글]
 도서관 활동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의 도움으로 도서 안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학교 도서관은 활기차고 생기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 ① 독서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건의 사항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은 추가
- ② 독서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건의 사항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은 추가
- ③ 도서관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건의 사항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은 추가
- ④ 독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도서 안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추가
- ⑤ 도서관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도서 안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추가

[8~10] 다음은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과 그 요청에 따라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소개하는 글을 써 주세요.

<초고>

'마을 교육 공동체'란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 등이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교육의 장을 학교 밖으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책임질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 마을에서도 작년부턴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시작하였는데, '희망 목공 학교'와 '마을 숲 생태 학교'라는 두 개의 사업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내가 참여했던 '희망 목공 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목공소를 운영하시는 목공 기술자 두 분이 재능 기부를 해 주신 데다, 작업 도구가 잘 갖춰진 그분들의 작업장에서 실습 위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목공 학교'에서는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희망 목공 학교'와 '마을 숲 생태 학교' 외에 연극 및 직업 탐방과 관련된 사업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본교의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신나는 국악 교실'이라는 수업도 준비 중이어서 공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을 교육 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을 지역 사회가 나누어 맡아 줌으로써, '마을 교육 공동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재능을 나누어 줄 많은 전문 인력과 관계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올해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하기를 바란다.

8. <보기>는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것은?

< 보 기 >

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학생도 있을 테니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주어야겠어.
 ㄴ. '○○마을 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야겠어.
 ㄷ.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진행한 사업과 내년에 추가될 사업을 함께 소개해 주어야겠어.
 ㄹ. '마을 교육 공동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 그 개념을 제시해야겠어.
 ㅁ.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알려 주어야겠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최근 ‘마을 교육 공동체’가 ㉠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 학교 교육과 연계한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교육 전문 잡지 「△△ 교육」 —
- ‘○○마을 교육 공동체’의 ‘희망 목공 학교’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출석률은 87%였고, 만족도는 94%였다. 공교육에서는 ㉤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작업장이나 작업 도구도 갖추기 어려워 감당하기 힘들었던 수업을 ‘희망 목공 학교’가 해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보고서」 —

- ① ㉠에 펼쳐질 상황을 예측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극복해야 할 점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② ㉡이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을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준비 중인 사업의 하나로 소개하였다.
- ③ ㉢과 관련된 효과를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의 과정에서 거둔 성과로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④ ㉣의 정보를 활용하여 ‘희망 목공 학교’의 학생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 ⑤ ㉤을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일부 교육 활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였다.

10.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한 홍보 문구를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에 담긴 ‘마을 교육 공동체’의 특성과 ㉡를 권유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 직유법을 활용할 것.

- ① 마을 교육 공동체의 열매가 영글어 갑니다. 함께 열매를 가꾸어 더욱 풍성하게 수확합시다.
- ② 마을 교육 공동체는 나침반처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떠올려 봅시다.
- ③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처럼 마을 교육 공동체는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나누어 더욱더 믿음직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듭시다.
- ④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학교 밖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여러분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⑤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좋은 양분을 먹고 자란 나무처럼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가령 ‘국’과 ‘물’은 따로 발음하면 제 소리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지만, ‘국물’처럼 ‘ㄱ’과 ‘ㄹ’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화[구과]’, ‘종다[조:타]’처럼 예사소리와 ‘ㅎ’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국밥’은 반드시 [국뽕]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짜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갑자기’로 표기하더라도 발음할 때에는 예외 없이 [갑짜기]가 된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가 [신:쑤]로 발음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申告)’는 [신고]로 발음되듯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는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장애음: 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이룸.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 집념[짐념]도 강하다.
- 춤을 ㉡ 곧잘[곤잘] 춘다.
- 책상에 ㉢ 놓고[노코] 가라.
- 음식을 ㉣ 담기[담:끼]가 힘들다.
- 모기한테 ㉤ 뜯긴[뜯긴] 모양이다.

- ①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③ ㉢와 ㉣는 발음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㉑와 ㉒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⑤ ㉑와 ㉒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가꿈, 어찌
2. ‘ㄴ, ㄹ,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잔뜩, 훨씬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몹시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딱딱	딱딱

- ①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꿈’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 ② 예사소리인 과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몹시’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③ ‘딱딱’은 ‘딱딱’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딱]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쑤]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 ⑤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다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모듈별로 <그림>의 대상을 지칭하는 새말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새말들의 단어 구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모듈 활동 결과

 <그림>	㉠	새말
	㉡	오이칼, 껍질칼
	㉢	감작감작칼, 사각사각칼
	㉣	까개, 깎개
	㉤	긁도구, 밀도구
	㉥	박박이, 쓱쓱이

- ① ㉠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은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은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 ④ ㉣은 명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 ⑤ ㉤은 부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이 드러났다.

- ① ㉠, ㉢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 ④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1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활동	다음 자료를 보고,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탐구해 보자.
학습 자료	ㄱ. 드 리 즘은 ㄱ ^ㄹ 때 비취요미 곤 ^ㅎ 니라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침과 같으니라) ㄴ. 네 후(後)에 부테 ㄷ·외야 (네가 후에 부처가 되어) ㄷ. 부텃 모미 여러 가짓 상(相)이 ㄱ·ㅈ·샤 (부처의 몸이 여러 가지의 상이 갖춰져 있으시어) ㄹ. 사스 ㅅ ^ㅅ 등과 도즈 기 입과 눈 (사슴의 등과 도적의 입과 눈) ㅁ. 사 ^ㄹ ·ㅁ ^ㅇ 이 모 · 르 득(得)ᄃ·고 부터 를 맞나 잇 ^ㄴ ·니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활동 결과	(가)

- ① ㄱ의 ‘ㄷ·리’와 ‘비취요미’에서 ‘이’가 각각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② ㄴ의 ‘네’에서 ‘ㅣ’가 주격 조사로, ‘부테’에서 ‘ㅣ’가 보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③ ㄷ의 ‘부텃’과 ‘가짓’에서 ‘ㅅ’이 모두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④ ㄹ의 ‘사스·ㅁ·기’와 ‘도즈·기’에는 ‘ㅇ·ㅣ’가 각각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ㅁ의 ‘모·르’, ‘부터를’에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며, 전기는 『논리 철학 논고』로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그는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적 사유는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

『철학적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기와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림 이론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즉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그러한 다양성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은 ㉠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족 유사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놀이’라는 말은 카드놀이, 숨바꼭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들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들이 있을 뿐이다. ‘놀이’라는 낱말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 모두에 공통되는 성질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놀이’의 본질로 고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본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하여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를 의미한다.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 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으로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며, 다양한 언어 놀이들은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건축 현장에서 누가 “망치!”라고 말했다 때, ‘망치’는 그냥 놓여 있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치를 건네 달라는 목적으로 사용된 말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망치’가 망치라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그 건축 현장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언어 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며, 언어 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의의 일치’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를 말하며, ‘판단에서의 일치’는 ‘낱말 적용 방식의 일치’,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일치’를 말한다. 가령 ‘불다’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그 말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 정의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불다’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도 일치해야만 한다. 어떤 사물의 색에 대해서 ‘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다’라는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삶의 형식의 일치’는 곧 정의와 판단에서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함을 나타낸다.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것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유아론적 세계의 언어이다.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은 ‘나의 의식’의 유아론적 세계가 아니라 나와 나 그리고 타인들을 포함한 공동체, 즉 ‘우리들의 삶’의 세계이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

16. 윗글을 통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기 철학에서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 ② 전기 철학에서 문장에 사용되는 낱말들의 의미는 문장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 ③ 후기 철학에서 언어 놀이의 규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④ 후기 철학에서 ‘사적 언어’는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후기 철학에서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놀이에서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

17. 윗글의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 (건축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짓고 있다.)

건축가: 벽돌!

조 수: (벽돌을 건축가에게 가져다준다.)

건축가: 석판!

조 수: (석판을 건축가에게 가져다준다.)

(나) (태권도 사범의 지시에 따라 훈련생이 격파 시범을 보여 주고 있다.)

사 범: 벽돌!

훈련생: (벽돌을 격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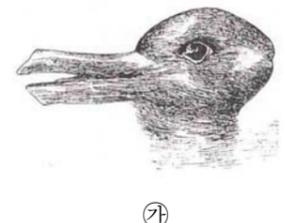
사 범: 석판!

훈련생: (석판을 격파한다.)

- ① (가), (나)에서 ‘벽돌’, ‘석판’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은 목적에 따라 규정된 언어 놀이의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 (나)에서 ‘벽돌’, ‘석판’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가와 조수가, 사범과 훈련생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형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 (나)에서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의 의사소통은 언어 놀이로 언어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 (나)에서 ‘벽돌’, ‘석판’이 발화되었을 때 조수와 훈련생이 서로 다른 행위를 한 것은 그들이 각각의 규칙에 따라 언어 놀이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조수와 훈련생이 ‘벽돌’과 ‘석판’이란 말을 벽돌과 석판이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만 안다면 각각의 상황에서 언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18. <보기>와 [A]를 관련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과 관련하여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이는 것이다.

- ① ㉠을 ‘오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오리의 형상에 대한 ‘정의의 일치’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② ㉠은 대상을 보는 방식이 삶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을 설명하는 언어는 삶의 형식과 무관하게 존재할 것이다.
- ③ ‘오리’나 ‘토끼’라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을 바라보는 방식이 일치하면 ㉠을 설명하는 언어 사용이 일치할 것이다.
- ④ 토끼나 오리의 형상에 관한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을 ‘토끼’나 ‘오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 ⑤ 동일한 낱말을 발화하면 필연적으로 그 낱말에 대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낱말의 사용 여부가 ㉠을 ‘오리’나 ‘토끼’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언어 표현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 ② 언어가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언어 놀이의 규칙이 언어 놀이들 간의 유사성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
- ④ 각각의 언어 놀이를 다른 언어 놀이와 뚜렷하게 구별시켜 주는 변별점이 된다.
- ⑤ 언어 표현이 지칭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 지닌 공통된 성질이 그 표현의 의미가 됨을 나타낸다.

20.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의식’에 기초한 사적 언어는 규칙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로군.
- ②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루어져야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로군.
- ③ ‘나의 의식’의 유아론적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의 규칙은 ‘사적 언어’의 규칙과 일치한다는 것이로군.
- ④ ‘사적 언어’에 규칙성이 없다는 것은 ‘나의 의식’에 관한 언어가 언어 놀이에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것이로군.
- ⑤ ‘나의 의식’이 ‘우리들의 삶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가 언어의 규칙을 생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로군.

[21 ~ 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혈액을 통해 운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일차적으로 여과된다. 사구체는 모세 혈관이 뭉쳐진 덩어리로, 보먼주머니에 담겨 있다. 사구체는 들세동맥에서 ㉠ 유입되는 혈액 중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날세동맥으로 흘러보내며, 물·요소·나트륨·포도당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켜 보먼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한다. 이 과정을 ‘사구체 여과’라고 한다.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막 바깥쪽으로 밀어 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주로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구체로 혈액이 들어가는 들세동맥의 직경보다 사구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세동맥의 직경이 작다. 이에 따라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사구체의 모세 혈관에는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 혈관보다 높은 혈압이 ㉡ 발생하고, 이 혈압으로 인해 사구체의 모세 혈관에서 사구체 여과가 이루어진다. ㉢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구체막은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구체막은 모세 혈관 벽과 기저막, 보먼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진다. 모세 혈관 벽은 편평한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피세포들에는 구멍이 있으며 내피세포들 사이에도 구멍이 있다. 이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 혈관은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 혈관에 비해 동일한 혈압으로도 100배 정도 높은 투과성을 보인다. 기저막은 내피세포와 보먼주머니 내층 사이의 비세포성 젤라틴 층으로, 콜라겐과 당단백질로 구성된다. 콜라겐은 구조적 강도를 높이고, 당단백질은 내피세포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의 여과를 ㉣ 억제한다. 이는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띠는데 당단백질 역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보먼주머니 내층은 문어처럼 생긴 발세포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발세포에서는 돌기가 나와 기저막을 감싸고 있다. 돌기 사이의 좁은 틈을 따라 여과액이 빠져나오면 보먼주머니 내강에 ㉤ 도달하게 된다.

한편 사구체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혈액 속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 혈관 내에는 존재하고 보먼주머니 내강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먼주머니 내강보다 사구체의 모세 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다. 그 결과 보먼주머니 내강의 물이 사구체의 모세 혈관 쪽으로 이동하려는 삼투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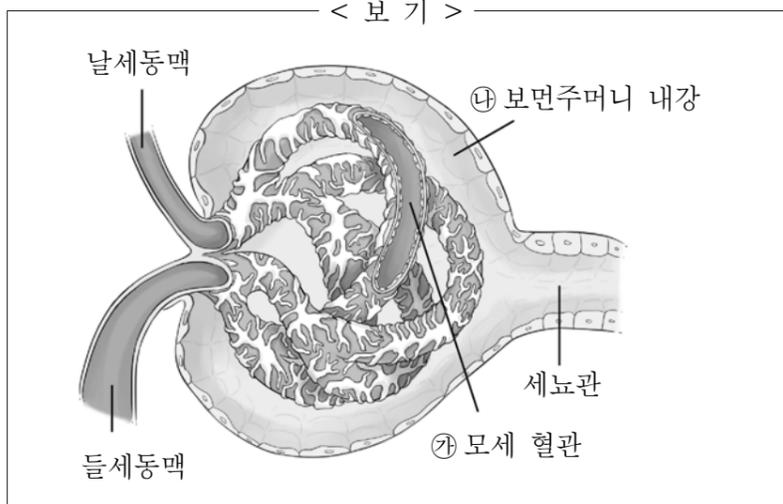
를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한다. 이 압력은 보먼주머니 쪽에서 사구체의 모세 혈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과를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과 억제하는 압력의 차이가 ‘실제 여과압’이 된다.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 같은 변동은 생명 유지에 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 조절 기능에 의해 관리된다. 즉 콩팥은 심장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혈압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가 조절은 주로 들세동맥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2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은 기저막의 당단백질과 상반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가 억제될 수 있다.
- ② 기저막을 감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내층의 발세포 돌기 사이로 여과액이 빠져나온다.
- ③ 질병이 생길 경우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할 수 있다.
- ④ 기저막은 비세포성 젤라틴 층으로 콜라겐과 당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사구체 여과를 통해 물이나 포도당이 세뇨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㉔에 있는 내피세포 층의 구멍들을 통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다.
- ② ㉔의 혈압이 콩팥의 자가 조절 기능의 훼손으로 감소하면 ‘실제 여과압’이 감소할 수 있다.
- ③ ㉔에 도달하는 여과액이 감소하면 ‘실제 여과압’이 증가할 수 있다.
- ④ ㉔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발생한 수압은 ㉔의 혈압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⑤ ㉔와 ㉔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실제 여과압’이 감소할 수 있다.

23.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들세동맥의 혈액 속도가 나세동맥을 통해 사구체 밖으로 나가는 혈액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 ② 들세동맥의 직경이 조절되어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 ③ 사구체의 모세 혈관 벽이 편평한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 ④ 사구체의 모든 모세 혈관을 통해 사구체 여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24. ㉔ ~ ㉔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액체나 기체 따위가 어떤 곳으로 흘러들.
- ② 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
- ③ ㉔: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 ④ ㉔: 목적인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
- ⑤ ㉔: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음.

[25 ~ 2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양창곡이 벽성선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러서 가고 없었다. 양창곡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보아야겠구나.’

그는 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기이한 꽃과 괴석이 곳곳에 널려 있고, 맑은 시내와 빼어난 봉우리는 골짜기마다 둘러싸여 있다. 양창곡은 경치를 따라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위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살 한 분이 나타났다. 그는 비단 가사를 입고 석장을 손에 들었으며, 꽃 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하고 단아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보살은 양창곡을 보더니 길게 읊을 하며 말했다.

“문창성은 그동안 별로 없으셨소?”

양창곡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홍란성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게요?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의 관음보살이외다. 옥황상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서(兵書)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

말이 끝나자 석장을 들어 바위를 후려치면서 높은 소리로 말했다.

“돌아갈 길이 매우 바쁘니 빨리 돌아가시오.”

양창곡이 놀라서 깨니 한바탕 ㉔ 꿈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까처럼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만, 단서(丹書) 한 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양창곡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소매 속에 잘 갈무리하고 내려왔다. 다시 별당에 들렀지만 벽성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양창곡은 즉시 객관으로 돌아와 단서를 꺼내 보았다. 과연 천상 무곡성의 천문 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 양창곡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닫겠는가.

상자 안에 넣어 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성선이 두 여종을 데리고 달빛을 띠고 이르렀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달나라 항아가 광한전에서 내려온 듯, 은하수에 직녀가 견우를 찾아온 듯하였다. 양창곡은 정신이 혼날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중략)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내 정말 무료하여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벽성선 역시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고 하늘은 개었으며, 달은 밝고 바람은 맑습니다. 객관 차가운 등불 아래 상공의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양창곡이 흔쾌히 웃으며 함께 별당으로 갔다. 달을 마주하고 여러 잔을 마시는데, 벽성선이 술잔을 들고 갑자기 슬픈 빛을 띠는 것이었다.

양창곡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벽성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을 있다가 대답을 했다.

“첩이 청루 생활 10년 동안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공을 모시게 되어 울적한 심회를 위로할 수 있었지요. 물 위의 부평초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이제 밝은 달을 대하니 한번 등글어졌다 한번 이지러졌다 하는 ㉠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에서 돌아갈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첩이 지난번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 꿈을 꾸었습니다.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가시더군요.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홀연 우렛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기는 하지만, 상공께선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양창곡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달 20일은 황상의 생신이오. 황태후께서는 황상을 위하여 매년 이날을 맞으면 방생지에 물고기를 풀어서 살려주고 천하에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지요. 그대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 듯싶소.”

그러자 벽성선이 더욱 놀라며 말했다.

“은혜로운 명령으로 씻어 낸다면 이 어찌 상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기약이 없을 것입니다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남방에 어떤 새는 ‘난(鸞)’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울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어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울다가 기운이 쇠진해져서 죽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록 청루의 천한 인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공을 모시니 마치 꿈인 듯, 거울 속 그림자인 듯 황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산 속에 종적을 감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

을 면해 볼까 합니다.”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구려.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할 거요. 벽성산 머리의 ㉢ 둥근 달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토록 이지러지지 않겠소.”

벽성선이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군자의 말씀은 천금과 같습니다. 첩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 남영로, 「옥루몽」 -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달밤에 벽성산을 올랐다.
- ② 양창곡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벽성선의 자태에 매료되었다.
- ③ 양창곡은 보살에게 받은 책을 여러 번 읽지 않고도 방법을 익혔다.
- ④ 벽성선은 양창곡에게 이별 후에는 자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하였다.
- ⑤ 벽성선은 난새를 언급하며 양창곡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옥루몽」은 천상계에서의 꿈을 통해 천상계 인물인 문창성, 제천선녀, 홍란성 등이 양창곡, 벽성선, 강남홍 등과 같은 지상계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윗글에서 양창곡과 벽성선이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꿈속의 꿈’은 인물들의 정체 암시, 인물들의 행동 유도, 지상계에서 발생할 사건 예시 등의 서사적 기능을 한다.

- ①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천상계의 문창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보살은 장차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사랑하는 인물이 본래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에서 벽성선이 경험한 것은 양창곡이 조만간 사면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 ⑤ ㉡에서 양창곡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벽성선이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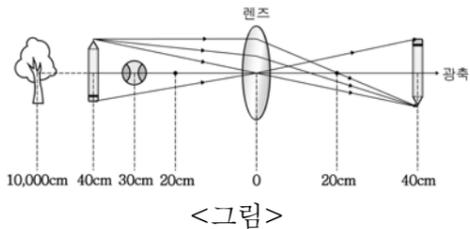
- ① ㉠과 ㉡ 모두 재회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대비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과 ㉡ 모두 비극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은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가, ㉡는 인물이 부정하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 ⑤ ㉠은 인연의 단절에 대한 슬픔이, ㉡는 인연의 지속에 대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다.

[28 ~ 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초상화보다는 초상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느낀다. 회화에 비해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진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하여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진이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사진 미학 이론에서 다양한 논의를 ㉠ 펼쳤다. 이런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기의 주요 장치인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등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피사체의 상을 필름 면에 맺게 한다. 이 장치에는 렌즈와 관련한 광학 원리가 적용된다. 사진기 렌즈는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볼록 렌즈인데, 렌즈 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되므로 광축*에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광축의 한 점에 ㉡ 모인다. 렌즈의 중심부터 빛이 모이는 점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f)라고 한다. 렌즈의 초점 거리는 렌즈를 제작할 때 결정되므로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 거리를 갖는다. 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인 물체 거리(o)가 달라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즈의 중심과 상이 맺히는 지점 사이의 거리인 상 거리(i)가 달라진다.

물체 거리(o)와 상 거리(i)가 렌즈의 초점 거리(f)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frac{1}{o} + \frac{1}{i} = \frac{1}{f}$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렌즈 공식이라 한다.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i 를 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f 가 20 cm인 렌즈가 있다고 하자. 피사체인 연필의 o 가 40 cm인 경우에 연필의 i 는 40 cm가 된다. o 가 10,000 cm인 나무의 i 는 어떻게 될까? o 가 f 보다 100배 이상 크면 물체가 무



한대의 거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따라서 $\frac{1}{o}$ 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으므로 나무의 i 는 f 와 거의 같다. 만약 o 가 f 보다 작으면 피사체의 빛이 퍼져서 모이지 않아 렌즈 뒤에는 상이 맺히지 않는다.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다.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나눈 값은 i 를 o 로 나눈 값과 같다. 그러므로 이 값과 피사체의 크기를 알면 상의 크기도 알 수 있다.

조리개와 셔터는 노출을 결정한다. 노출은 필름에 입사되는 빛의 양이다. 노출이 과하면 사진이 허영게 번져 나오고, 노출이 부족하면 사진이 어둡게 된다. 조리개 값과 셔터 속도로 노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조리개는 렌즈 바로 뒤에 있는 구멍으로, 그 면적을 늘리거나 ㉢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조리개 조절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1.4, 2, 2.8, 4, 5.6, 8, 11 등의 수치들은 렌즈의 초점 거리(f)를 조리개의 지름으로 나눈 값인데, 이를 조리개 값이라 한다.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꿀 때마다 조리개 지름은 약 1.4배 커져 조리개 면적이 약 2배 넓어진다. 따라서 빛의 양도 약 2배 증가한다. 한편 셔터는 촬영 순간 열렸다 닫혀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셔터 속도는 1, 2, 4, ... 등으로 표시된다. 이는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이 1/1초, 1/2초, 1/4초, ... 등임을 뜻한다.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노출 시간 역시 2배 짧아지므로 빛의 양이 2배 감소한

다. 따라서 사진가는 조리개와 셔터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조리개와 셔터에는 다른 기능도 있다. 조리개는 사진의 심도에 영향을 ㉣ 미친다. 심도란 상이 필름에서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가 넓은데, 이를 심도가 깊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는 좁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 찍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심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셔터 속도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빠른 셔터 속도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다. 노출 시간이 짧아 피사체의 잔상이 필름 위에 남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면 움직임을 암시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움직이는 피사체는 흘러가듯이 표현된다.

이와 같은 사진기 장치들의 특성은 대상을 사진으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의도적으로 변형할 수도 있게 한다.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 역시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 바깥은 사진은 기계 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성을 띠는다고 본다. 조리개와 셔터 등의 요소에서 인간의 주관 개입되는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기계적 방식으로 대상을 기록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월튼은 사진은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만 사진이 사실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사진이 기계에 의존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한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림은 그 대상의 가시적 특징을 추가하거나 누락할 수 있지만 사진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과 달리 사진이 사실성을 띠는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 또 다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진은 대상에서 나온 빛 이미지의 자취를 기계 장치로 기록한 것이다. 발자국이 대상의 실재를 함축하듯 사진은 그 대상의 실재를 함축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발자국은 사진과 동일한가? 이 견해에 의하면 사진은 대상 자체의 자취가 아니라 대상에서 나오는 빛 이미지의 자취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발자국과 구별된다. 또한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사진 형성 과정에 사진가가 적극 개입한 사진이건 우연히 찍힌 사진이건 빛 이미지의 자취라는 점에서는 모두 사실성을 띠는 것이다.

* 광축: 렌즈의 중심과 초점을 연결한 선.

2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진기의 역사를 소개하고, 사진기를 다룰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사진의 사실성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 기술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③ 사진기의 주요 장치를 설명하고, 사진의 사실성에 대한 여러 사진 미학 이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사진기의 여러 기능을 설명하고, 사진이 대상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사진에서 초점과 노출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사진 미학이 사진기 발달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리개 값이 커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된다.
- ②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초점 거리를 변경한다.
- ③ 사진기의 초점 거리와 상 거리를 알면 렌즈 공식을 활용하여 물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 ④ 광축에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사진기 렌즈의 중심보다 가장자리에서 더 많이 굴절된다.
- ⑤ 조리개와 셔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대상을 왜곡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30. 윗글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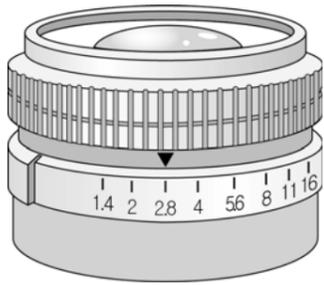
- ① 연필의 i 가 공의 i 보다 더 크다.
- ② 나무의 i 는 렌즈의 f 와 거의 같다.
- ③ 연필의 실제 크기와 그 상의 크기는 같다.
- ④ 공은 실제 크기보다 그 상의 크기가 더 크다.
- ⑤ 공의 o 가 15 cm라면 상은 렌즈 뒤에 맺히지 않는다.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관련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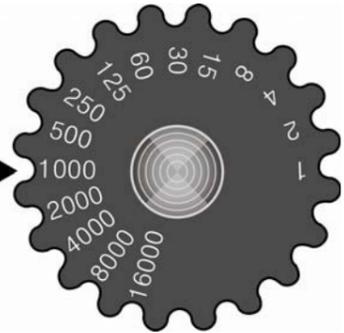
< 보 기 >

조리개 값은 2.8, 셔터 속도는 1000으로 각각 설정하여 피사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후, (가), (나)를 조절해 보았다. (단, 렌즈나 필름 감도, 삼각대 등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가) 조리개 조절 장치



(나) 셔터 속도 조절 장치



- ① 피사체만 선명하게 촬영하려 했지만 주변 사물까지 선명하게 보였다면, (나)는 고정하고 (가)를 2.8보다 큰 수로 조절해 심도를 깊게 하여 피사체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겠어.
- ② 맑은 날 촬영하여 피사체가 허영게 번져 보였다면, (가)를 4로, (나)를 2000으로 조절해 입사하는 빛의 양을 두 배로 늘려 상이 허영게 보이는 현상을 막아야겠어.
- ③ 해질 무렵 촬영하여 피사체가 어둡게 보였다면, (가)는 고정하고 (나)를 1000보다 더 작은 수로 조절해 입사하는 빛의 양을 줄여 상을 밝게 보이도록 해야겠어.
- ④ 피사체가 매우 빨리 움직여 잔상이 생겼다면, (가)는 2.8보다 작은 수로, (나)는 1000보다 더 큰 수로 조절해 밝기는 유지하며 잔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겠어.
- ⑤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가 넓어 보였다면, (가)는 고정하고 (나)를 2000으로 조절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를 좁혀야겠어.

3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진가가 조리개 값을 조절하여 피사체의 일부가 초점이 맞지 않더라도 그 사진은 사실성을 띤다.
- ② ㉡: 육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불빛을 표현한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다.
- ③ ㉢: 정밀하게 그린 초상화라고 하더라도 그 초상화는 인물의 특징이 누락될 것일 수 있으므로 사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 사진가가 적극 개입한 사진이건 우연히 찍힌 사진이건 인간의 주관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사실성을 갖는다.
- ⑤ ㉤: 곰 발자국은 대상 자체의 자취지만 곰 발자국 사진은 대상에서 나온 빛 이미지의 자취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33.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독수리가 창공에서 날개를 펼쳤다.
- ② ㉡: 올해는 동아리 신입 회원이 세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 ③ ㉢: 사무실 평수를 줄여 휴게실을 만들었다.
- ④ ㉣: 선수가 결승점에 못 미쳐서 넘어지고 말았다.
- ⑤ ㉤: 종이 위에 연필로 선을 긋고 점을 찍었다.

[34 ~ 3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人間)을 썬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혀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뉘 곳츠란 뉘 쓸려노
 아춤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나을소나
 ㉠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허라
 이 뉘희 안즈 보고 더 뉘희 거러 보니
 번로(煩勞)흔 막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허리야
 다만 흔 청려장(靑藜杖)이 다 므디여 가노미라
 술리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불늬며 트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랴 이시며 시름이랴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꾀람허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흥가(閑暇)허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약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렇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 -

(나)

㉠ 연하(煙霞)의 김피 든 병(病) 약(藥)이 효험(效驗) 업서 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밧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귀 성은(聖恩)인가 흥·노라
<제3수>

㉡ ㄷ·ㄹ ㅂ·ㄹ이고 ㅂ·람 자니 물결이 비단 일다
단정(短艇)*을 밧기 노하 오락가락 흥·난 흥(興)을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흥·노라
<제5수>

㉢ 식록(食祿)을 굿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 흥·니
험 업슨 아흥·니들은 괴롭다 흥·건마니·ㄴ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흥·노라
<제9수>

- 나위소, 「강호구가」 -

*바리연디: 버려진 지. *단정: 자그마한 배.

(다)

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런 취미를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양목 등 작은 놈만 골라 심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이는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평평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이는 이도 더러 있었는데,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이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 작지만 큰 산을 본땡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이 연못은 겨우 너비가 두어 장(丈)이고 깊이도 두어 자밖에 안 되며, 산 높이는 다섯 자이고 둘레는 일곱 자이며, 폭포의 높이는 두 자인데 나무들의 크기는 서너 치쯤 되어 마치 높은 산을 축소하여 만든 것 같았다.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건이나 왕유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眞假)를 논하겠는가?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 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췌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나는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 -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35. <보기 1>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1 >

선생님: (가)와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들이 귀향한 후의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요. 두 작품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 보기 2 >

ㄱ.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ㄷ.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ㄹ.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 ③ ㉢: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다.
- ⑤ ㉣: 자신이 만든 석가산과 폭포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상하면 산의 진경(眞景)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글쓴이는 노쇠하여 산과 물을 직접 찾기 어렵게 되자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고 있군.
- ② 글쓴이는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글쓴이는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글쓴이가 진가를 논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군.
- ⑤ 글쓴이가 석가산의 샘플에서 비롯된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층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군.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A]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을 [B]에서 해소하고 있다.
- ② '나'는 [A]에서 한 행위로 인해 [B]에서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 ③ [A]의 '계단'은 관념적 소재에, [B]의 '절벽'은 실제적 소재에 해당한다.
- ④ [A]의 '사람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B]의 '이웃들'은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B]에서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39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의 감찰 완장들 중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내달리며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딱 십 분을 주셨으니 잘 생각들 해서 정하우다. 뒷집에서 풀러나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사이에는 태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한 허연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다. **양갈지게 불어제치는 호각** 소리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꿩꿩이속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오 분쯤 지나자 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 이쪽 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였다. 머릿속이 뿔뿔이 벌어 버려 망창히 앉아 있던 아버지에게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 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남 자리로 넘어가서는 아버지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구 난리를 쳤다. 갑자기 겁이 더러 올라붙은 아버지는 **시적시적** 이남 자리로 옮겨 갔다. 그러나 개인적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A]**라는 생각이 스쳤다.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을 **부모처자** -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다 -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들거리리는 다리를 끌고 이북 자리로 넘어갔다. 그러나 자리에 앉고 보니 불현듯 물밑 쪽 같은 신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이 뿔 울렸다. 아버지는 둔기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져 왔다. 저 북도는 이미 단순한 북도가 아니라 삼팔선 바로 그것이었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차오르는 숨을 가누지 못해 고개를 쳐든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썩듯 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끄무레한 물체가 들어왔다.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 준 그 흰쥐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북도 사이로는 감찰 완장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판국이였다. 아버지는 얼른 북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르는 통에 발목을 접질려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이 하며 엉덩이를 걷어찼다.

내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루 못 가갔드란 말이야.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 웬 쥐였냐고? 글썽 모르지. 기러다 보니 멍탕 햇것이 눈에 끼었는지두.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 암만 생각해 봐두 꿈 같기두 하구..... 기리고 이젠 모르겠어..... 정짜루다 돌아가구 싶은 겐지 그럴 맘이 없는 겐지..... 늠으니까니 암만해두.

짓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민홍은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 덩어리가 솟구침을 느꼈다. 비껴 앉은 아버지의 **야윈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렸다. 그 화석에 대한 일차적 기억은 **양상함**이었고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였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중략 부분의 줄거리> 대학생인 민홍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화상을 입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진 후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민홍은 어머니인 철원네로부터 쥐를 잡으라는 성화를 듣는다.

민홍은 철원네가 열고 나간 가게문을 닫기 위해 무심코 한 발을 방문턱에 올리는 순간 흠칫 몸이 굳어졌다. ㉠ 그놈, 바로 철원네가 입버릇처럼 너던 그놈이 아주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했다.

- 예유, 어찌 된 애가 응,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까지 뛰어들었다는 애가 그래 그깟 쥐 한 마리를 못 잡는대서야 말이 되니? 기가 맥혀서. 이젠 그놈이 새끼까지 치고 아예 놀러갔으려는지 배가 이리 불룩하고 이만하게 늙은 놈이 등허리는 비루가 먹었는지 털이 훌쩍 벗겨져서는.....

민홍은 입을 조금 벌렸다.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애가. 정수리 끝까지 뻗쳐오른 기운 때문에 미세한 오한에 휩싸였다. 녀석은 민홍을 슬쩍 쳐다보았으나 느린 동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 녀석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손을 가만히 내려 냉장고 옆에 세워 둔 연탄집게를 들어 올렸다. 이거면 족하다. 민홍은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사정거리권 안으로 다가서는 민홍의 손아귀에서는 짙은 땀이 배어 나왔다. 녀석이 버거운 뱃구레를 추스르며 문턱에 오르는 순간을 일격의 시기로 잡았다. 그래 서두를 건 없어. 민홍은 손아귀에서 힘을 빼고는 일부러 탄 데를 쳐다보는 여유를 부렸다.

“그래 죽여라 죽여. 이려고 더 살든 뭐 하니? 너 죽고 나 죽자.”

민홍의 눈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아아, 나의 어리석음이어!

민홍은 낮은 신음을 흘리며 황급히 뒤쫓아 나갔지만 허사였다. 녀석의 굼뜬 동작은 괜히 상대방을 자만하게 만들기 위한 위장술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것은 등허리의 털이 벗겨질 만큼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새끼를 뺨 암컷의 빈틈없고 대담한 산술이었으리라. 녀석은 문턱에 오르려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람쥐보다 더 민첩한 동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민홍이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빨려 들어가는 꼬리만 설핏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다. 민홍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우두망찰 서서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 모르지 맹탕 헛것이 눈에 보였는지두.

아버지의 늘썩한 목소리가 귓전에 와 달라붙었다. 민홍은 찬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골목 저편에서 비닐봉지와 함께 다가온 바람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달싹이고 갔다. 민홍은 입을 굳게 다물어 보았다. 그냥 그렇게 서 있고 싶었다. 불끈 쥐어 본 주먹에는 연탄집게가 알맞춤하게 들어 있었다. 웬지 느껴온 감정이 밀려오면서 저만치서 채 시작되지도 않은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쪽은 맨발이었다.

- 김소진, 「쥐잡기」 -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전쟁 포로였던 아버지는 북에 있는 가족을 외면하고 남한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이념적 당위를 앞세운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상황에서 가해진 폭력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에게 그 선택은 평생 상처로 작용한다. 민홍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이면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게 된다.

- ① 감찰 원장의 ‘양칼지게 불어제치는 호각 소리’는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강요했던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되는 것이겠군.
- ②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깝드란 말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은, ‘부모처자’를 위해 남한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한 것이겠군.
- ③ ‘깃물러진 눈자위’를 누르는 아버지를 마주한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민홍이 보게 된 ‘아버지의 야윈 잔등’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민홍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린 것은, 아버지가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평생 전쟁의 상처에 갇힌 채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41.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홍’은 ㉠와 관련해 ‘철원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다.
- ② ‘민홍’은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를 발견하고 긴장하고 있다.
- ③ ‘민홍’은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를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 ④ ‘민홍’은 ㉠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소리 없이 웃으며 ㉠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내뱉고 있다.
- ⑤ ‘민홍’은 ㉠를 놓친 후 ‘나의 어리석음이어!’라고 하며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4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뒤죽박죽'은 여럿이 마구 뒤섞여 엉망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당면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적시적'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사람들의 성화로 인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살금살금'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피며 살며시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살랑살랑'은 꼬리를 가볍게 자꾸 흔드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쪽으로 이끌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저벅저벅'은 발을 크고 묵직하게 내디디며 잇따라 걷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느낀 중압감을 드러내고 있다.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海溢)** 엔요.
예선 살 나이에 스물한 살 얼굴을 한
그러고 천 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생솔가지 울타리, 옥수수밭 사이를
올라오는 해일 속 신랑을 마중 나와
하늘 안 천 길 깊이 묻었던 델 파내서
새각시 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는

다시 또 파, 무더기 웃는 청사초롱에
불 밝혀선 노래하는 나무나무 잎잎에
주절히 주절히 매어달고, 할머니는

갑술년이라던가 바다에 나갔다가
해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 혼신(魂身) 앞
열아홉 살 첫사랑쩍 얼굴을 하시고

-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

(나)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밤에도 흰 돛배처럼 떠 있다
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
더는 알 수 없는 빛도 스며서는
손 닿지 않은 데가 결리듯
담장 바깥까지도 흰하다

지난 겨울엔 빈 가지 사이사이로

하늘이 뜬어진 채 쏟아졌었다
그 하늘을 어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고 또
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밭소리 같은 것 들려
서 내려온

신(神)과 신(神)의 얼굴만 같고
어스름녘 말없이 다니러 오는 누이만 같고

(살구가 익을 때,
시디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영글어 올 때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한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보자
그런 어느 날은 한 끼니쯤은 굶어라도 보자)

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은 피었다
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어머니에,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

- 장석남, 「살구꽃」 -

(다)

‘내 마음은 호수’로 대표되는 은유는 흔히 ‘마음=호수’라는 등식과 함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1:1로 대응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음’과 ‘호수’가 상호 작용하면서 사랑의 심리 상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행인 ‘그대 노 저어 오오’도 실체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읽히게 된다. 이는 은유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관여하며,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관점에서 (가)를 보면, ‘해일’이 일어난 것은 실제이지만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의 진술을 통해 ‘해일’과 ‘풀밭길’은 상호 작용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각각 그 이상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이 드러나며,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마당’은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재생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나는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여기에는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나)는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과 바느질이라는 이질적인 속성을 연결하여 의미를 확장해 간다.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신(神)’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그 상처를 감싸고 꿰맨 봉합의 흔적이다. 결국 시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의 차원을 넘어 층위가

다른 대상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주제에 관여하고 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세계 인식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 낼 때 우리는 시가 주는 깊은 울림에 좀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 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44. [A]를 바탕으로 (가)의 **해일**과 (나)의 **살구꽃**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해일'은 '풀밭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할머니'가 '신랑'을 '마중' 나가는 허구적 상황이 시적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② '해일'로 인해 '바다'가 죽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보아, '해일'에는 영원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살구꽃'은 '하늘'을 '여러 번씩 쳐다보던' 시선에서 비롯되는 상승의 심상과 '내려온'에서 비롯되는 하강의 심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해일'은 '청사초롱'에 '불 밝'히는 '할머니'의 행위를, '살구꽃'은 '늦은 밤에라도' '불을 켜'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내어,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⑤ '해일'은 '마당'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구꽃'은 '마당'과 '하늘'의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세계의 만남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군.

45. (다)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하여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굽은 실밥, 자국들'은 바느질의 속성을 통해 상처를 봉합한 흔적으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드러내며 주제 의식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뜯어진', '꿇매는가', '꿇매 감친'과 같은 시어를 통해 바느질의 속성을 '살구꽃'과 연결하여 작품 전반의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살림살이의 사연'과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는 삶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며 삶의 위안적 존재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생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흰 돛배처럼 떠 있는',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으로 나타낸 땅의 이미지를 '신과 신의 얼굴'로 변주하여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최근 들어 학교 후문 근처의 골목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학생의 81.6%가 '후문 근처 골목의 환경적 특성'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후문 근처 골목의 환경 개선 요구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범죄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의 방법에는 특정 장소의 가시권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거나 조정하기, 사람들이 공간과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시 기회를 증가시키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낙후되지 않게 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에 위치한 골목은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이후 2년 동안 범죄 발생률이 무려 22.1%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범죄 예방 디자인'을 활용해 우리 학교 후문 근처의 골목을 어떻게 바꿔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골목 입구에 높게 쌓여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근처 공사장의 건축 자재들을 정리하도록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골목길의 낡은 벽을 보수하고 그 벽에 화사한 색깔의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가능하겠죠? 이런 바람직한 변화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연계가 되어 '우리 마을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찾아보면 우리의 손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후배들에게 물려줄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바로 지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 ㉥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범죄 예방 디자인'을 환경 개선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해야겠어. ㉠ 먼저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해야겠어. 그 다음 ㉡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겠어. 그리고 ㉢ 해결 방안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언급하면서 그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지. ㉣ 그 방법을 우리 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야. ㉤ 끝으로 개선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말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자.

- ㉠ ㉠ ㉡ ㉡ ㉢ ㉢ ㉣ ㉣ ㉤ ㉤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지>

- 발표를 듣기 전 어떤 내용을 예상했나요?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 발표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보세요.
 - '범죄 예방 디자인'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낙후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하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
- 발표를 듣고 나서 이 발표가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 통계 자료의 조사 기관과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 발표를 듣고 난 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 ○○구에 위치한 골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를 줄였는지 궁금하다. ㉣
- 발표에서 들은 내용을 우리 주변에 적용시켜 볼까요?
 - 우리 집 앞의 놀이터에 으스스한 곳이 있는데, 사람들 눈에 잘 보이도록 볼록 거울을 설치해 달라고 관할 기관에 건의해야겠다. ㉤

- ① '범죄 예방 디자인'은 주변 환경의 설계나 관리와도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 ② '범죄 예방 디자인'의 효과를 잘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 ③ 발표에서는 자료의 조사 기관과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군.
- ④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군.
- ⑤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았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3 ~ 5] (가)는 면접 준비를 위한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 1: 신입 부원을 선발하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학생 2: 먼저 ㉠ 우리 창업 동아리에 지원한 동기를 확인해야겠지? 그 다음에는, 우리 동아리가 창업 아이디어를 내어 타당한 사업인지 평가하는 활동을 하잖아. 그래서 ㉡ 지원자가 생각해 본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질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원자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하자.

(나)

면접자: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원자: 저는 디저트 전문점을 창업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자: 디저트 전문점 창업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원자: 어렸을 때부터 디저트를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전문점 창업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A]

면접자: 그렇다면 창업 동아리보다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원자: 제과·제빵 동아리는 디저트를 만드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창업 동아리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창업 동아리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B]

면접자: 네, 그럼 디저트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나요?

지원자: (당황하며) 아이디어요?

면접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평소 창업하고 싶던 디저트 전문점의 모습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과와 서양의 쿠키를 접목한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게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디저트 전문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C]

면접자: (웃으며) 좋은 아이디어군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사업 타당성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지원자: 네, 책에서 읽어 알고 있습니다.

면접자: 우리 동아리에서는 매월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합니다. (종이를 주며) 이 창업 아이디어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타당성을 평가하실 때는 소비자의 특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품 제작 여건 등의 요소를 고려해 주시겠어요?

모의 창업 아이디어

- 제품: 주먹밥 • 가격: ××원
- 예상 소비자: 우리 학교 학생
- 내용: 주먹밥을 만들어 아침에 학교 정문에서 판매

지원자: (잠시 생각한 후에) 저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원짜리 주먹밥은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지원자께서는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

지원자: 일찍 등교하느라 시간이 부족하여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에 간편한 주먹밥을 판매하는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면접자: 네,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3. (가)의 ㉠~㉢과 관련지어, (나)의 면접자의 질문 전략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원 동기를 물어본 후 지원자의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을 추가로 질문했다.
- ② ㉡: 지원자가 자신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완해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방향을 제시하며 질문했다.
- ③ ㉢: 창업 아이디어에 관한 질문에 당황한 지원자가 긴장을 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④ ㉢: 지원자가 질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 ⑤ ㉢: 모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성하여 제시하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했다.

4. [A] ~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하며 꿈을 정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 ② [B]: 창업 동아리와 제과·제빵 동아리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창업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B]: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열거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동아리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 ④ [C]: 다양한 창업 사례로부터 디저트 전문점의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C]: 디저트 사업의 최신 동향을 제시하며 창업하려는 디저트 전문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5. 대화 맥락을 고려했을 때, ㉠에 들어갈 면접자의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번에는 소비자의 특성을 제외하고 판매자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 ② 이번에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제품 제작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 ③ 경제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에서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 ④ 그렇게 평가했다면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 ⑤ 주변에 주먹밥을 파는 가게가 많이 있는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6 ~ 7]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시골의 마을 회관 옆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의 넉넉한 그늘 아래에 모여 더위를 식히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정겹다. 가을이면 풍성하게 달린 노란 은행잎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떨어진 은행잎들을 서로 던지며 웃음꽃을 피운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오랫동안 살며 지켜 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은행나무를 정성껏 가꾼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무를 귀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가로수로 서 있는 은행나무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은행나무는 점잖은 기품을 가지고 있어 조선의 선비들이 애착을 보인 나무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부터가 인위적이다. 이렇게 인간에 의해 개성이 사라져 버린 은행나무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교통 신호등이나 길거리의 간판을 ㉡가려지면 잘 자라던 나뭇가지도 여지없이 가지치기를 당한다. 마음껏 성장할 자유를 빼앗긴 은행나무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게다가 은행의 고약한 냄새를 아예 ㉢없애니까 암나무를 모두 수나무로 교체해 버렸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저 가로수는 열매도 맺기 어렵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사람들이 거리의 은행나무를 대하듯이 나도 내 편의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대했던 것은 아닐까?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강요하지는 않았던가.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나에게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6. 초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학생의 연상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골의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한 휴식처가 되어 주는 모습에 대해 정겨움을 느꼈다.
- ②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풍성하게 달린 시골의 은행나무를 보고, 할머니와 함께 은행잎을 던지며 놀았던 추억을 떠올렸다.
- ③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리의 은행나무를 보고, 인간에 의해 개성을 잃게 된 은행나무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 ④ 가지치기를 당한 거리의 은행나무를 보고, 마음껏 성장할 자유를 빼앗긴 은행나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 ⑤ 암나무 대신에 수나무로 교체된 거리의 은행나무를 보고, 인간의 이기심을 떠올렸다.

7.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자신들을'을 삽입한다.
- ②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③ ㉡은 피동 표현을 잘못 사용하였으므로 '가리면'으로 고친다.
- ④ ㉢은 뒤 절과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없어서'로 고친다.
- ⑤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서슴치'로 고친다.

[8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자 한다.

학생의 초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어린이 통학 버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5%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로 보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 교육의 의무화,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학 버스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의 대상을 일반 운전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그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이 마련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는 주로 오전 8~10시, 오후 4~6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유의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를 만나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안전 확인 후 통과하기, 주변을 살펴서 안전을 확보해 주기, 같이 길 건너 주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

8. [A]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밝힌다.
- ② 통념을 제시하여 문제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 ④ 중심 화제의 특징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 ⑤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제시한다.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 ~ ㉣이 초고에 활용된 방안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본보에서는 ㉠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통학 버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에 이르렀으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 (중략) ...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 개정된 법은 안전 교육, 보호자 탑승, 안전 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기존의 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 ○○신문 -

○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8~10시, 오후 4~6시이다. ... (중략) ... ㉣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 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면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 연구 보고서 -

- ① ㉠의 결과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② ㉡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 ③ ㉢의 정보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④ ㉣에 제시된 원인을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 ⑤ ㉤의 내용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을 주장하였다.

10. <조건>에 따라 초고의 ㉦ 부분을 완성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할 것.
○ 글에 제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독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 ① 몇몇 사람만의 노력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 함께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②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부터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 ③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버스 승하차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전용 승하차 장소를 지정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 ④ 어린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통학 버스 승하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어린이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안전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 ⑤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나 운영자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11.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 벌써 바깥이 칠혹같이 어둡다.
㉢ 신임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 ① ㉠과 ㉡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② ㉠과 ㉢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 주고 있다.
- ③ ㉠과 ㉢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 ④ ㉡과 ㉣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⑤ ㉢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12. <보기>를 참조하여 단어의 발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연음은 앞 음절의 중성에 있던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 발음되는 현상이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곧바로 연음이 일어나지만, ‘ㄱ, ㅋ, ㆁ, ㄷ, ㅌ, ㄱ’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홀웃[호돋]’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 연음이 일어난다.

- ① ‘발은소리’는 용언의 활용형인 ‘발은’과 명사 ‘소리’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바든소리]로 발음한다.
- ② ‘날’에 조사 ‘으로’가 붙으면 [나트로]라고 발음하지만, 어근 ‘알’이 붙으면 [나달]로 발음한다.
- ③ ‘앞어금니’는 어근 ‘앞’과 ‘어금니’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아버금니]로 발음한다.
- ④ ‘겉웃음’은 ‘웃-’이 어근이고, ‘-음’이 접사이므로 [거두슴]으로 발음한다.
- ⑤ ‘발’ 뒤에 조사 ‘을’이 붙으면 연음되어 [바를]로 발음한다.

13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어떠한 두 사건을 ‘-다가’나 ‘-아서/-어서’에 의해 연결할 때, 두 사건의 시제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두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 지 (가)~(라)에서 살펴봅시다.

- (가) 찌개를 먹다가 혀를 데었다.
- (나) 찌개를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
- (다) 그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 (라) 내가 문을 쾅 닫아서 동생이 잠을 잤다.

- ① (가)와 (나)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지만, (가)에는 (나)와 달리 ‘-다가’로 연결된 앞 절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다.
- ② (가)와 (다)에서는 뒤 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 ③ (가)와 (라)에서는 모든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어.
- ④ (나)와 (다)에서는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 ⑤ (다)와 (라)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 모두 ‘-아서/-어서’로 이어졌지만, (라)는 (다)와 달리 앞 절의 사건이 뒤 절의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로 이해될 수 있어.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사동 표현은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거나,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진다.

서술어가 형용사나 자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ㄱ)과 사동문 (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 (ㄱ) 얼음이 녹는다.
- (ㄴ)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한편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ㄷ)과 사동문 (ㄹ)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 (ㄷ) 영희가 책을 읽었다.
- (ㄹ) 선생님께서 영희에게 책을 읽히셨다.

한편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을 단형 사동이라 하고,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을 장형 사동이라 한다. 사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사동 행위를 받는 대상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를 직접 사동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접 사동이라 하는데, 단형 사동은 맥락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나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범주는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오-’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졌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 얼음 위에서 팽이가 둔다.
- ㉡ 지원이가 그 일을 맡았다.
-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 ①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목적어로 바뀔 것이다.
- ②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③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뀔 것이다.
- ④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⑤ ㉢은 ㉣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15세기 국어] ㄹ라매 빅 업거늘 ㉠ 얼우시고
[현대 국어] 강에 배가 없으므로 (강물을) 얼리시고
- [15세기 국어] 목수를 ㉡ 일케 흐야노
[현대 국어] 목숨을 잃게 하였는가
- [15세기 국어] 比丘란 노피 ㉢ 안치시고
[현대 국어] 비구는 높이 앉히시고
- [15세기 국어] 나랏 小民을 ㉣ 사르시리잇가
[현대 국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시겠습니까
- [15세기 국어] 투구 아니 ㉤ 맞기시면
[현대 국어] 투구를 아니 벗기시면

- ① ㉠은 동일한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다른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은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게 하다’가 쓰인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은 15세기 국어에서 어근과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④ ㉣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에서 쓰인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근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는군.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㉔ 저명한 프랑스의 현대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조각이 시각적인 예술이라는 통념을 거스른다. ‘생각하는 사람’은 작가가 청동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표면이 거칠며 시각적으로 완벽한 실루엣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한 감상자는 표면의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

시각적인 조각 작품을 대한 감상자가 거친 표면에 반응한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㉕ 시사한다. 표면의 질감에 반응하는 촉각적 경험은 눈과 손, 코와 귀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우리의 ‘몸’을 전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 경향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몸(corps)의 철학’을 생각나게 한다. 메를로퐁티는 모든 경험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몸에 대해 ‘시각적 광경을 살아 있게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몸에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는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세계의 의미는 그 속에 뿌리박고 사는 주체인 몸에 의해서만 길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말하는 몸은 그저 물리적·화학적·생리적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몸의 경험을 ‘현상’과 관련짓는다. 그에게 현상은 객관과 주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을 ‘쨍그랑’ 소리와 그 소리가 난 원인에 ㉖ 주목해 어떤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소리를 지각하는 수용자가 있어야 이 사건이 현상이 된다고 본다. 접시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아무리 큰 ‘쨍그랑’ 소리가 났더라도 그 진동을 소리로 지각하는 수용자가 없다면 소리라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리라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객관과 수용자인 주관이 결합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현상이다. 그런데 현상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는 현상의 발생은 곧 ‘의미의 탄생’이라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독일의 철학자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활용한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항상 무엇으로 향하여’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지향성 개념을 ㉗ 수용하여 지향성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의미의 토대라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읽어낸다면 그것은 그 대상과 사건에 대한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메를로퐁티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지각은 단순히 감각 기관이나 두뇌의 활동이 아닌 몸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령,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하자. 우리는 항상 어느 하나의 시공간적인 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나의 조망에는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모니터의 정면이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이때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이때 다양한 감각이 소통되고 통일될 수 있는데, 그는 이것 또한 순수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이라고 본다. 그는 지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를 ‘세계에의 존재(être au monde)’

라고 부른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지각 활동을 통해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다.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순수한 객관적 세계도, 순수한 주관적 세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대상과 주체가 서로 만나 관계함으로써 지각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지각이 일어나는 장을 메를로퐁티는 ‘현상적 장’이라고 부른다. 현상적 장에서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 활동은 사유보다 앞서는 몸의 활동이며, 그 활동의 순간 지각하는 주체는 세계에 참여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세계를 주체가 사유를 통해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여긴 주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한다.

메를로퐁티가 몸을 근원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데는 몸보다 인간의 추상적 정신 활동, 즉 지성을 궁극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서양 철학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을 ㉘ 편협하고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는데, 메를로퐁티는 그에 반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성 또한 광범위한 몸의 활동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서양의 지적 전통과 대립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은 세계를 지각하는 주체이며 또한 인간 존재의 실존적 표현이다. 몸을 중시한 로댕의 작품은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떠올리게 한다. 로댕은 조각을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작품은 그저 시각적 충격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몸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은 관람객과 밀착된 관계를 맺게 된다. 반면에 ㉙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는 작품은 몸과 분리되어, 작품과 몸의 밀착된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주체가 되는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연계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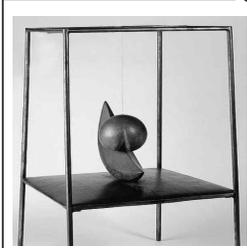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작품이 창작된 계기를 소개하며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특정 작품의 의의를 제시하며 그와 관련 있는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예술 갈래의 특징을 제시하며 그 갈래와 연관된 여러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④ 특정 예술 갈래의 예술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철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⑤ 특정 작품에 활용된 철학적 제재의 특성을 밝히며 그 제재가 여러 예술 작품에 활용되어 온 양상을 규명하고 있다.

17. 윗글의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각의 주체가 없는 소리는 ‘현상’이 아니다.
- ② ‘몸’은 인간의 모든 경험이 비롯되는 근원이다.
- ③ 주체의 ‘지각’이 세계를 창조해서 존재하게 만든다.
- ④ ‘몸’은 다양한 감각의 소통과 통일을 이루는 작용의 주체이다.
- ⑤ 근대 서양 철학의 전통과 달리 ‘지성’보다 ‘몸’을 더 중시해야 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코메티, 'suspended ball'

< 보 기 >

이 작품은 두 개의 돌조각이 불안정하게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승달 모양의 비스듬하게 누운 돌 위에 흠이 파인 공모양의 돌이 배치되어 아래에 있는 돌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상태는, 관람객에게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한 위태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느낌은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시각이 아닌 '몸'을 겨냥해 이 작품을 창작했음을 나타낸다.

- ① 아래에 위치한 돌조각이 관람객에게 '초승달과 닮은 돌'이라는 의미로 지각된 순간은 작품이 '현상'이 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두 개의 돌조각이 포개져 있는 것에 대한 시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현상적 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작품이 관람객에게 위태로움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시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관람객이 위쪽에 있는 돌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던 추억을 떠올렸다면 관람객의 '몸'에 친구들과의 공놀이 체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관람객이 아래쪽 돌의 가려져 있는 부분을 지각했다라도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주체가 참여한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19. 윗글의 메트로포티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와 B는 ○○밴드의 공연장에 함께 갔다. A는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의 연주를 좋아해 공연장에서 그의 베이스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연이 끝난 후 A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도 좋았지만 베이스 연주가 매우 훌륭했다고 하자, B는 베이스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A가 그 까닭을 묻자, B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 소리에 빠져 베이스 연주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 ① A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현상'으로 지각되었다.
- ② B와 달리 A는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 활동에 의존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즐겼다.
- ③ B와 달리 A의 '몸'은 가수의 노랫소리라는 '현상'을 지각하는 주체로 기능하지 않았다.
- ④ A와 달리 B에게는 베이스 연주 소리가 공연장에 실재하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었다.
- ⑤ A와 달리 B는 의식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지향하지 않아 베이스 연주 소리를 못 들었다.

20.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각적 작품에 몸이 반응해 관계 맺음이 가능하려면 작품과 몸이 분리되어야 한다.
- ②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시각적 감각 기관의 활동은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한 몸의 구체적인 반응을 어렵게 만든다.
- ④ 작품에 대해 몸이 반응해 관계를 맺으려면 '시각' 활동이 사유보다 앞서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세계를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의 사유는 작품과 몸의 관계 맺음을 촉진해 몸과 작품의 관계를 밀착시킨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 ② ㉢: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 ③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④ ㉡: 옳다고 인정함.
- ⑤ ㉣: 가치를 깎아내림.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삼월 삼짇날, 청명절 등에 부녀자들은 인근 산천을 찾아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가사를 낭송하며 하루를 즐겼다. 화전가는 이때 지은 규방 가사로서 현장에서 창작되거나 집에 돌아간 후 지어지기도 했다. 때로는 남편이 지어 준 글을 가져 오거나 미리 지어 오기도 했다.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면서 문답 형식의 화전가를 낭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흥취를 공유하거나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화전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봄의 찬미,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통문, 허락, 경비 주립, 화전놀이 출발, 도착 후 화전놀이, 재회의 기약, 이별, 귀가와 발문이 이어진다. 그중 화전놀이의 내용으로는 '내척'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 부녀자의 신세 한탄, 놀이에 대한 감흥 등을 들 수 있다. [A]는 화전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춘삼월 좋은 가절 군생지물 자랑하다
 생기로운 꽃다운 풀 푸릇푸릇 짝이 돋고
 향기로운 두견화는 불긋불긋 송이 핀다
 버들막에 ㉠ 꾀꼬리는 빗을 찾아 날아들고
 수풀 사이 노래하고 꽃나비 춤을 춘다
 때는 좋다 벗님내야 내 말씀 들어 보소
 이와 같이 좋은 시절 엿지 그리 허송하라
 (중략)

[A]

일년일차 화전놀음 여자놀음 이뿐일세
 하루이틀 물림 받고 하로 물림 여호리라
 무정풍우 밤사이에 앓가울사 꽃이 지면
 꽃을 찾아 화전놀음 무슨 흥미 잇으리오
 갑자울축 택일은 많으나 천기를 살펴보니
 일구풍화 오늘같이 대동대길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화전놀이를 통한 상춘(賞春)의 흥취와 함께,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한스러운 심정과 현실의 굴레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녀자들의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화전가 중에서 독특한 구성으로 주목을 받는 「텐동어미 화전가」는 ‘외부 이야기’ 안에 텐동어미의 일생담이 담긴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식 구성을 띤다. ‘외부 이야기’는 대체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내부 이야기’는 상부(喪夫)와 개가(改嫁)를 반복하는 비극적인 삶을 산 텐동어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내척 편을** 외워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보네
그중에도 텐동어미 멋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중에도 **청춘과녀** 눈물 콧물 괴피하다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후한심 웬일이오
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B] 열네 살에 시집올 때 청실홍실 늘인 인정
원불상리 맹세하고 백 년이나 살았더니
겨우 삼 년 동거하고 **영결중친 이별**하니
임은 겨우 십육이요 나는 겨우 십칠이라
신평도골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불교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

[C] 십육 세 요사 임뿐이요 십칠 세 과부 나뿐이지
삼사 년을 지냈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 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탐탐하면 **우리 낭군** 자나깨나 잊을쏜가
잠이나 잘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꾸야 입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입을 잠깐 만나
만단정담을 다하겠더니 일장설화를 채 못하여
㉠ **피꼬리** 소리 깨달으니 입은 정녕 간 곳 없고
춧발만 경경불멸하니 아까 울던 저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 하되 나와 백 년 원수로세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 깨우려고
정정한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재던 차에

[D] **화전놀음이** 좋다 하기에 **심회를** 조금 풀까 하고
자네를 따라 참여하니 축처감창뿐이로세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듣나니 족족 한심일세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핀 길 보아도 비창한데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텐동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체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양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 도망*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일러니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고리장 키우다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천 읍내 그중 큰 집에
치행 차려 들어가니 장 이방의 집일러라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비범 풍후하고
시부모님께 현알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데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매마침 단오러라
삼백 장 높은 가지 추전을 뛰다가서
추천 줄이 떨어지며 공중에 메박으니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 작자 미상, 「텐동어미 화전가」 -

* 신명 도망: 운명이나 괘자로부터 도망을 침.

2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전가의 내용이 여성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은 창작과 향유에서 배제되었군.
- ② 화전가에서는 특정한 계절의 풍속을 배경으로 화전놀이의 여러 과정이 제시되었군.
- ③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하기 전이나 화전놀이가 끝난 후에도 창작이 가능했군.
- ④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어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하기도 했군.
- ⑤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지기도 했군.

23. (가)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봄을 맞이한 심회를 읊음. ㉠
- 화전놀이를 행할 날을 택함. ㉡
- 화전놀이를 위한 경비를 주렴함. ㉢
- 화전놀이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함.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가)의 ㉠과 (나)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② ㉠과 ㉡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은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 ⑤ ㉠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25. (나)의 [B]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영결중천 이별'에 대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C]: 대구를 활용하여 부재하는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C]: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낭군'과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D]: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 '천하 만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다.

26.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부인들이 '내척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풍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청춘과녀'가 '한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여성들의 한스러운 심정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넌동어미'가 '이내 말을 들어 보소'라는 말을 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넌동어미'가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경험에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화전놀음이 좋다'며 '심회를 조금 풀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당대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27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 왔다. 한 사람은 출산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무 충돌이라 한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작위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구분된다.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부작위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한 것을 말한다.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형법학자들은

㉡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이때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협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 피하려 했는데, 좌측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작위에 의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무 충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작위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즉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 자신의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무 충돌은 대개의 경우 작위 의무 간의 충돌을 ㉤ 뜻한다.

의무 충돌을 작위 의무 간의 충돌로 한정한다면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와 서로 동등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치가 낮은 의무를 희생하고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형법학의 일반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복수의 의무 중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와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로 ㉔ 나눌 수 있다.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㉔ 일러 위법성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법하다면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의 행위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동등한 가치의 의무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있지만 다만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책임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하지만 의무 충돌에서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면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위자가 의무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닐 때라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이다.
- ④ 의무 충돌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가 위법 행위를 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법성 조각설은 만약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면 의무 충돌 상황에서의 의무 위반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8. ㉑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의무 충돌은 법적 의무의 충돌이어야 하는데, 부작위 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 ③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의무만이라도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 ④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동시에 있을 때 행위자가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⑤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이 있다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29. 윗글과 <보기 1>을 근거로 ㉒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기 1 > —

행위자는 더 높은 가치 혹은 적어도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생명과 생명 사이의 법익 충돌이 있는 경우 생명의 수의 많고 적음이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고귀하다고 하여 생명 가치의 경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 < 보기 2 > —
- a.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 b.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남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형법학자들이 있겠군.
 - c. 담당 의사가 출산을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의 생명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 ① a
- ② c
- ③ a, b
- ④ b, c
- ⑤ a, b, c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떤 선로에서 한 량의 빈 객차가 역으로 돌진하고 있다. 역에는 승객을 태운 객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만약 그대로 충돌한다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지한 선로 관리자가 돌진하는 객차의 선로를 변경하려 했더니 그곳에는 이미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선로 관리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의 노동자는 선로 관리자가 예견한 대로 피해를 입었다.

- ① 선로 관리자는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두 의무 사이에서 어느 한 의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 ③ 역에 정차한 객차 승객들의 법익과 선로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충돌로 볼 수 있다.
- ⑤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위난과 관련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 인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31. ㉠ ~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이곳에서 암전히 몸을 피하고 있어라.
- ② ㉡: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했다.
- ③ ㉢: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 ④ ㉣: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으면 한다.
- ⑤ ㉣: 사람을 일러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계나 설비 등이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온도, 압력, 유량, 회전 속도 등의 물리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제어 기술이라고 한다. 제어 대상의 현재 물리량의 크기를 센 측정값을 원하는 목표인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 출력되는 조작량을 조절하는 제어 기술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식은 ‘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물의 온도를 맞출 때 사용되는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흔히 활용된다. 이 장치에서는 ㉠ 현재 온도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으면 스위치가 on되어 가열기에 전원이 공급되며, 원하는 온도보다 높으면 스위치가 off되어 가열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다. 스위치가 on일 때에는 100%에 해당하는 조작량이 출력되고, 스위치가 off일 때에는 조작량이 0%가 된다. 가열기가 처음 작동될 때 수온을 올리기 위해 on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느 순간 수온이 설정값을 넘는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여 현재 온도를 설정값에 이르도록 한다. 수온은 압력이나 유량처럼 물리량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 속성을 지니므로 수온이 상승하여 스위치를 off로 바꾸었다고 해서 급세 낮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면 설정값을 기준으로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헌팅’이 발생한다.

on/off 스위치 방식은 오버슈트와 헌팅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 이런 on/off 스위치 방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된다. PID 제어 방식은 P(비례) 제어, I(적분) 제어, D(미분) 제어를 모두 활용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 P 제어 방식, PI 제어 방식, PD 제어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P 제어는 설정값의 위아래에 일정한 비례대를 설정하여, 비례대 안에서 설정값과 측정값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한다. 예컨대 P 제어가 활용된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서 현재의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 아래에 있을 경우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에 이를 때까지는 10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스위치를 on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다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보다 높아지면 비례 주기를 갖게 되는데, 각 주기에서는 스위치의 on과 off 동작이 반복된다. 즉, ㉢ 비례대 하한선을 넘은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이르기 전까지는 on 시간이 off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면 5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on과 off 시간이 1:1인 동작이 반복된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보다 오르면 off 시간이 on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현재 온도가 비례대 상한선을 넘으면 off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P 제어를 활용하면 측정값을 설정값에 정밀하게 근접시킬 수

있으므로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할 때보다 헌팅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P 제어에서는 ㉣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가 되어도 설정값에 대하여 일정한 오차가 설정값의 위 또는 아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잔류편차’라 한다.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P 제어가 활용될 때, ㉣ 비례대를 넓게 설정할수록 가열을 위한 on과 off의 반복 동작이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잔류편차가 커지지만 헌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비례대를 좁게 설정할수록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잔류편차가 작아지지만 헌팅이 발생하기 쉽다.

I 제어를 P 제어와 같이 활용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어 측정값이 설정값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PI 제어의 적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으로, 적분 동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적분 시간을 통해 동작의 세기를 조절한다. 적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강해져 잔류편차를 짧은 시간에 없앨 수 있지만 헌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약해져 헌팅은 발생하지 않지만, 잔류편차를 없애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P 제어나 PI 제어만 활용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측정값이 설정값으로 돌아가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이때 D 제어를 활용하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가갈 수 있다.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면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에 편차가 커지는데, PD 제어나 PID 제어의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미분 동작의 세기는 미분 시간을 통해 조절하는데,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설정값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오버슈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미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강해져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오버슈트가 발생하기 쉽다.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일정할 때 수행된다.
- ② 헌팅 현상이 지속되면 측정값과 설정값이 일치하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③ PI 제어에서 조작량은 측정값과 설정값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출력된다.
- ④ on/off 스위치 방식이 활용된 온도 조절 장치로 물을 데울 때, 조작량은 데울 물의 양이다.
- ⑤ P 제어는 단독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I 제어와 함께 활용되기도 하고 D 제어와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

3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측정값이 설정값보다 낮은 경우이다.
- ② ㉡: 조작량이 100%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이다.
- ③ ㉢: 100%에서 50% 사이의 조작량이 출력되는 때이다.
- ④ ㉣: 스위치가 on 상태로 지속되는 때이다.
- ⑤ ㉣: 비례 주기가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이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근 강한 수증기 압력으로 진한 커피를 추출하는 커피 기계가 많이 쓰인다. 이 기계에는 물을 끓이는 가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 분출되는 수증기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증기압 조절 장치, 수조의 물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물을 보충해 주는 수위 조절 장치가 등이 장착되어 있다.

- ① 온도 조절 장치에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가열기의 작동 초기에 on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온도 조절 장치에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온도가 설정값 위로 갑자기 상승해도 미분 동작에 의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 ③ 증기압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비례대를 좁게 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④ 증기압 조절 장치에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현재의 증기압이 설정값 위로 급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스위치를 off로 바꾸어도 증기압이 설정값 아래로 곧바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 ⑤ 수위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보다 현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음의 그래프는 'PID 제어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모터 회전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A]에서는 P 제어, [B]에서는 PI 제어, [C]에서는 PID 제어를 활용하였다. (단, 설정값은 500 rpm*, 비례대는 400 ~ 600 rpm, 잔류편차는 50 rpm이다.)

* rpm : 1분당 회전 속도를 표시하는 단위.

- ① [A]에서 비례대가 430 ~ 570 rpm으로 수정되면 잔류편차는 50 rpm보다 크겠구나.
- ② [B]에서 현탕이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짧게 수정하면 현탕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겠구나.
- ③ [B]에서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45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짧아지겠구나.
- ④ [C]에서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30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지겠구나.
- ⑤ [C]에서 미분 동작으로 오버슈트가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길게 수정하면 오버슈트를 막을 수 있겠구나.

[36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사내'는 한국 전쟁 중에 아내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벌이다 그 대가로 일가친척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게 된다. 폐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된 '사내'는 새 여인에게서 얻은 어린 아들을 맡기고 자신도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는다. '노인'은 2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 온 '사내'를 데리고 밤에 산을 오른다.

사내가 일어서서 골짜기 아래를 눈으로 더듬었다. 골짜기에서부터 부챗살처럼 펼쳐 나간 벌판에는 가득히 달빛 [A] 이 내려앉고 있었다. 달빛, 달빛뿐이었다. 그 달빛에 사내는 어쩐지 눈이 시렸다. 사내는 마른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달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달빛 속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다. 사내의 귀에 가득히 꿩소리 소리가 밀물져 들어왔다. 사내는 바로 사내가 선 자리에 뼈를 묻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 그만 가 보자.”

노인이 이번엔 앞장을 섰다. 등성의의 가르마 길을 타고 오르자 산 중턱쯤에서부터 숲이 끊기고 벌거벗은 민둥산이 나타났다. 갑자기 산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서 그들을 허우적거리게 했다.

노인이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잡고 민둥산을 훑어보았다. “버렸어. 산두 그때 다 버렸어. 포탄으로 맥이란 맥은 다 끊어 버리구…… 다야 니놈들 때문이여.”

사내도 노인의 시선을 따라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들을 보았다. 새삼스럽게 사내의 귀에는 광광 터쳐 나던 포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내가 마치 그것들을 털어 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빨리 말했다.

① “가지랴우.”

민둥산을 가로질러 다음 골짜기에 이르자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평지가 나왔다. 노인이 멈추어 섰다.

“여기여.”

노인이 사내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맥이 다치지 않은 데라군 이 산에서 여기뿐여.”

사내는 평지의 잔솔 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봉분들을 보았다. 사내가 얼굴에 두려운 기색을 떠올리며 봉분들에서 눈을 돌렸다.

“사죄해라. 이게 다 니놈 때문에 생기신 원혼들이여.”

“…….”

사내가 머뭇거리자 노인이 날카로운 음성으로 재촉했다.

“아, 뭘 해? 빨리 엎드려 잘못을 빌지 않구.”

사내가 가까운 봉분 앞에서 재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자, 노인이 뒤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게 슬득이여.”

[B] 사내는 노인의 떨리는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속 저 밑 바닥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들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회오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형언키 어려운 것들이 저 골짜기 아래 가득한 만공(滿空)의 달빛처럼 사내를 부풀리는 것이었다. 사내의 얼굴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내려 마른 풀잎을 적었다. 사내가 하나하나 봉분을 옮겨 가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노인은 뒤에서, 그제 당숙 둘째 자제여, 그제 사촌 형님 손자여, 그제 누이여, 사내에게 일일이 소개를 했고, 그럴 때마다 사내는 잠깐씩 얼굴들을 떠올리곤 했다.

(중략)

노인은 다른 봉분들과는 달리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내가 미처 알아보기 못했던 한 봉분으로 사내를 데려갔다. 사내가 봉분 앞에서 엎드리려 하자, 노인이 만류했다.

“그건 사죄할 필요 없다.”

“.....?”

“그건 니놈이여.”

㉠ “.....에?”

노인이 차가운 시선으로 힐끗 사내를 쳐다보았다.

“아, 우린 죄다 니놈을 죽은 사람으로 치부했으니까. 설사 니놈이 살아 있는 걸 알았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니놈두 죽이 다른 원혼들을 묻는단 말이여?”

노인을 바라보는 사내의 표정에 일순 애매한 표정이 스치자 노인이 사내의 표정을 피했다.

“니놈은 호적에도 없다. 사망 신고를 했어. 살아남은 사람은 살어야 허니까.....”

사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 쿨룩, 쿨룩, 쿠루옥..... 은몸의 가래를 훑어 올리는 듯한 기침 끝에 사내는 한 움큼의 피를 토해 냈다. 노인이 부옥, 두루마기 자락을 찢어 사내에게 내밀었다.

“뉘어라.”

사내가 잠자기 두루마기 자락을 받아 얼굴과 손의 피를 씻었다. 흰 두루마기 자락에 핏빛이 선명하게 묻어났다. 문득 사내의 눈에 달과 함께 수면에서 흔들리던 피 묻은 얼굴이 어른거렸다. 사내가 말했다.

“아부님, 전 인제 아무 테도 못 가겠수.”

노인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니놈은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할 놈여.”

“아무래도 죽을 목숨이우.”

“죽드라두 타처에 가서 죽어라.”

“아부님.”

사내가 노인 앞에 엎드렸다. ㉢ 노인이 백랍 같은 표정으로 사내를 때치고 일어섰다.

“이 길투 곧장 떠나가라. 자식 놈은 내가 맡으마.”

노인과 사내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다다랐을 때에는 달이 툇날 같은 연봉에 걸려 있었다. 사내가 노인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아부지, 그럼.....”

사내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어서 가.”

㉣ 사내가 몸을 돌려 비칠비칠 걷기 시작했다. 저만큼 멀어질 즈음에 노인이 사내의 등을 향해 외쳤다.

“죽게 되든 연락해라. 내 니놈 뒷수습은 해 줄 테니까.”

[C] 이윽고 노인은 앞이 침침해지면서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선 자리에서 나무토막처럼 폭 쓰러졌다.

달이 졌다.

— 송기원, 「월행」 —

3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말에 의아해 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 인물의 병이 위중한 상태임이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 인물의 단호한 태도가 표정과 행위 속에 드러나 있다.
- ⑤ ㉣: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60~1970년대에 많이 등장한 귀향 모티프 소설 중에는 고향과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게 된 주인공이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며 귀향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월행」에도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시 찾은 고향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기에 주인공과 고향의 관계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던 주인공은 속죄의 의식을 치르지만, 고향은 그의 귀향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관련된 용서와 화해의 과제가 당대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함을 암시한다.

- ① ‘민동산’의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노인’이 ‘사내’의 ‘자식 놈’을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심화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사내’가 고향에 ‘뼈를 묻히고 싶다’고 한 것은 ‘사내’에게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노인’이 ‘사내’에게 ‘죽게 되든 연락’하라고 한 것은 ‘사내’가 죽기 전에는 귀향이 쉽게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사내’가 봉분들 앞에서 재배를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 때문에 희생된 원혼들에 대한 속죄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8. [A]~[C]에서 ‘달’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인물의 시선에 포착된 ‘달빛’을 통해 인물이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이 제시되고 있다.
- ② [B]에서는 ‘달빛’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 ③ [C]에서는 ‘달’의 변화된 상황이 ‘사내’의 보이지 않게 된 상황과 조응하여 제시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이 지닌 소망이 ‘달빛’의 속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B]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C]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달빛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나)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짝을 티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술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굽이에 나, 풀꽃 한 포기 를 위해
몸의 한편 내어 준 적 있었는가 피워 본 적 있었던가
- 박남준, 「아름다운 관계」 -

3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하여, (나)는 동일한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40. (가), (나)의 시상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상에서 현실로의 전환을, ㉡은 외적 고찰에서 내적 응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 ② ㉠은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은 애상적이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은 화자의 관조적인 태도를, ㉡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유도한다.
- ④ ㉠은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을, ㉡은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이끌어낸다.
- ⑤ ㉠은 화자의 소망과 염원을, ㉡은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함축한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무수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순수를 지향하며 단절과 고립을 자처하기도 하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들을 포용하며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계를 대하는 저마다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각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탐지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나'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는 것은 속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눈' 내리는 상황의 지속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자처한 고립과 '나타샤'에 대한 '나'의 몰입을 심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바위'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삼아, '강물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를 매개로 '소나무'와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틀어 '소나무'를 키워낸 것을 통해, 주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바위'가 먼저 '술씨'에게 '틈'을 내어 뿌리를 내리게 했듯이, 내가 먼저 '몸의 한편'을 내어 누군가를 품어 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정수정은 남북을 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장연과 함께 제후가 된다. 정수정이 자신을 부마로 삼으려는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히고, 황제는 정수정과 공주를 장연과 혼인시킨다. 한편 정수정은 장연의 첩이 방자하게 글자 참수한다.

궁중 상하 크게 놀라 태부인께 고한대 태부인이 대경실색하여 즉시 장 후를 불러 대책(大責) 왓

“네 벼슬이 공후에 있어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찌 세상에 행신하리오? 며느리가 되어 나의 신임하는 시비를 때로써 별하는 것도 불가하거든 하물며 참수지경에 이르니 이는 남이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거늘 장 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물러나서 이에 정후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내어 무수 곤책하고 죽이고자 하거늘 공주와 원 부인이 힘써 간하여 그치니라. 이후로부터 장 후가 정 후를 마뜩잖게 여겨 조석정성(朝夕定省)에 만나매 외대(外待)함이 많은지라. 정 후가 마음에 극히 불쾌하면서도 장후의 냉대함은 거리까지 았았다. 일일은 중당에서 장 후를 대하여 왓

“군후가 일개 회첩으로 말미암아 첩을 깊이 한하시나 군자의 제가(齊家)하시는 근본이 아닌가 하나이다.”

장 후가 대로 왓

“그대 한낱 공후의 위를 받고 여자의 경부(敬夫)하는 도리 없어 감히 가부의 회첩을 처살하여 교만 방자함이 이를 데가 없으니 가히 운순한 부덕(婦德)인가?”

정 후가 분해하여 함루(含淚) 왓

“내 일찍 이 같음이 본대 부모 유교(遺敎)를 저버리지 못함 이요, 다시 황은을 받들므로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부 되었으나 어찌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하리오?”

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진시회를 불러 분부하되

“내 이제 청주로 가려 하나니 군마를 대령하라.”

하고 이에 정당에 들어가 태부인께 하직을 고한대 태부인 발연 왓

“어찌 연고 없이 가려 하나뇨?”

정 후 왓

“봉음이 중대하옵고 군무 긴급하옵기 돌아가려 하나이다.”

하고 공주와 원 부인을 이별하고 외당에 나와 위의(威儀)를 재촉하여 ㉠ 청주에 돌아와 좌정 후 전령하여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城地)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방비하라 하다.

차설. 이전에 철통골이 겨우 일명(一命)을 보전하여 호왕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한대 호왕이 대성통곡 왓

㉡ “허다 장졸을 죽여시니 어찌 원수를 갚지 아니하리오?”

하고 문무를 모아 대장을 의논할새 문득 한 장수가 왓

“마웅은 신의 형이라. 원컨대 병사를 주시면 당당히 형의 원수를 갓고 태종의 머리를 베어 대왕 휘하에 드리리다.”

하거늘 모두 보니 이는 거기장군 마원이라. ㉢ 벌의 머리에 잔나비의 팔이며 곱의 등에 이리 허러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는지라. 호왕이 대화하여 마원으로 대원수를 삼고 철통골로 선봉장을 삼아 정병 오만을 정발하여 출사할새 수삭지내(數朔之內)에 하북 삼십여 성을 항복받고 이미 양성에 다다랐는지라. 양성 태수 범규홍이 대경하여 바빠 상표 고변한대 상이 대경하사 문무를 모아 의논할새 제신(諸臣)이 다 정수정 아니면 대적할 자 없나이다 하거늘 상 왓

“전일에는 정수정이 남장한 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거니와 이미 여자인 줄 알진대 어찌 만 리 전진에 보내리오?”

제신 왓

“차인이 비록 여자이나 하늘이 각별 폐하를 위하여 내신 사람이오니 폐하는 염려 마소서.”

하거늘 상이 마지못하여 사관(仕官)을 청주에 보내어 정 후를 명초(命招)하신대 정 후가 대경하여 즉시 사관을 따라 황성에 이르러 입궐 속사하니 상이 반기시며 왓

㉣ “이제 국운이 불행하여 북적(北狄)이 다시 일어나 여차여차 하엿다 하니 가장 위급한지라. 만조가 경을 천거하나 권이 차마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함이니 경의 소견이 어떠하뇨?”

정 후가 왓

“신첩이 규중에 침몰하오나 성은을 감축하옵는 바라. 차시를 당하여 어찌安然히 앉아 있으리요? 신첩의 몸이 바스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적을 소멸하여 천을 만분지일이나 갚아올까 바라나이다.”

(중략)

원수가 소와 양을 잡아 삼군을 위로할새 원수가 또한 술이 연하여 나와 취흥이 도도하매 문득 생각하고 좌우를 호령하여 중군 장연을 나입하라 하니, ㉤ 무사 쇠사슬로 장연의 목을 읊어 장하에 이르매 장 후 꿇지 아니하거늘 원수가 대로 왓

“이제 도적이 지경을 침노함에 황상이 근심하사 나로 도적을 막으라 하시니 내 황명을 받자와 주야로 근심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 군량을 때에 맞추어 대령치 아니하였느뇨? 장령을 어긴 죄를 면치 못하였는지라. 군법은 사사 없으니 그대는 나를 원(怨)치 말라.”

하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배라 한대 장 후가 대로 왓

“내 비록 용렬하나 그대의 가부이거늘 소소 혐의로써 군법을 방자하고 가부를 곤욕하니 어찌 여자의 도리리오?”

하거늘 원수가 차언(此言)을 듣고 항복을 받고자 하는 뜻이 더욱 강해져 짐짓 꾸짖어 왓

“그대 일의 형세를 모르는도다. 국가 중임을 말씀에 그대는 내 수하에 있는데 그대 이미 범법하였은즉 어찌 부부지의를 생각하여 군법을 착란케 하리오. ㉥ 그대 나를 초개(草芥)같이 여기는데 내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무사를 재촉하는지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4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연은 정수정이 신임하던 시비를 죽이고자 하였다.
- ② 정수정은 부모의 뜻과 황제의 명에 따라 장연과 결혼했다.
- ③ 황제는 정수정을 남자로 알고 전장에 내보낸 적이 있었다.
- ④ 정수정은 전쟁 중에 장연에게 군량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겼다.
- ⑤ 정수정은 장연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낙심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수정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서술을 통해 마왕이 용맹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황제는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며 정수정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증을 물어보고 있다.
- ④ ㉣: 장연은 장수로서의 능력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수정에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정수정은 장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균열이 생겨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며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장연을 만류하는 공주와 원 부인의 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장연을 질책하는 태부인의 말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체신들이 황제에게 정수정을 천거하는 것에서,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군.
- ④ 장연이 정수정에게 경부하는 도리가 없음을 책망하는 것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정수정이 녹록한 아내자의 소임을 기꺼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겠군.

45 ㉠에 나타난 '호왕'의 심리를 표현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분축원(含憤蓄怨)
- ② 만시지탄(晩時之歎)
- ③ 득의양양(得意揚揚)
- ④ 각골난망(刻骨難忘)
- ⑤ 천려일실(千慮一失)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모듬은 조선 시대의 경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경연이라는 말이 생소하지요?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경연이란 조선 시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선현의 가르침인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경연은 대부분 편전에서 행해졌는데,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루어졌지요.

그렇다면 왕을 가르치는 경연관들은 누구였을까요? (대답을 기다린 후) 겸임 관원과 전임 관원이 있었는데, 그 중 겸임 관원은 의정부의 삼정승과 승정원의 승지 등으로, 의정부나 승정원의 일을 하며 경연관의 일도 함께 하는 양반 관료 집단의 수뇌들이었죠.

한편 전임 관원은 홍문관의 관리들이었는데, 경연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했죠. 조선 시대 국왕 교육의 전담 기관이 홍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홍문관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으로, 홍문관의 관리가 되려면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도 받아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진은 경복궁의 배치도예요. 편전과 홍문관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겠지요?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청들은 대궐 밖에 있었지만 홍문관만큼은 대궐 편전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을 기다린 후) 그것은 왕이 한밤중에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관리들을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왕과 함께 밤낮없이 공부해야 했겠죠.

경연은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교재로 하는 강독과 이와 관련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독의 순서에 따라 경연관이 먼저 경전을 읽고 나면 왕이 따라서 읽었고, 이어서 경연관이 경전의 뜻을 설명하고 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돌아가며 그 뜻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전의 강독을 끝내고 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강독한 경전의 내용과 관련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왕과 경연관들은 각자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토론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연의 과정에서 왕은 유학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었고 신하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경연은 학문의 탐구를 정치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유교 정치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왕과 양반 관료들은 많은 시간을 경연에 할애함으로써 유교적인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연에서 조선 시대 유교적 문치주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제 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연에 대해 알고, 경연에 참여했던 왕과 관리들의 노력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청중이 발표 대상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며 설명해야지.
 -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관련한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지.
 -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청중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지.
 - 청중이 발표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이와 관련한 시사적 문제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지.
-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경연'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연관의 구성
 - 겸임 관원은 의정부의 삼정승이나 승정원의 승지 등으로 양반 관료 집단의 수뇌들이었음. ㉠
 - 전임 관원은 홍문관의 관리들이었으며, 홍문관의 관리를 선발할 때는 추천의 방식을 배제하였음. ㉡
 - 경연의 방식
 - 강독의 순서에 따라 경연관과 왕이 차례로 경전을 읽은 후, 경전의 뜻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히며 경연을 진행하였음. ㉢
 - 경전의 강독이 끝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경전의 내용과 관련한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토론하였음. ㉣
 - 경연의 의의
 - 경연은 학문과 정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유교 정치 문화의 산물이었음. ㉤

[경연관의 구성]

- 겸임 관원은 의정부의 삼정승이나 승정원의 승지 등으로 양반 관료 집단의 수뇌들이었음. ㉠
- 전임 관원은 홍문관의 관리들이었으며, 홍문관의 관리를 선발할 때는 추천의 방식을 배제하였음. ㉡

[경연의 방식]

- 강독의 순서에 따라 경연관과 왕이 차례로 경전을 읽은 후, 경전의 뜻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히며 경연을 진행하였음. ㉢
- 경전의 강독이 끝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경전의 내용과 관련한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토론하였음. ㉣

[경연의 의의]

- 경연은 학문과 정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유교 정치 문화의 산물이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난주에 □□방송국에서 우리 학교를 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서의 드라마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촬영한다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어 학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예상 시청자가 주로 청소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홍보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클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 촬영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도 높여 줄 것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으로 나오는 학교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학교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쓰일 만큼 아름답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촬영이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라마에서 학교나 학생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이미지 [A] 시로 연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이 드라마의 줄거리와 개요를 공개하였는데, 사제 간의 정을 소개로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인근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 당시 촬영 때문에 소란스러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일부 학생들은 촬영을 구경하느라 수업 분위기를 망쳐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촬영 도중에 촬영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촬영을 허가하게 되면 분명히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촬영 관계자와 구경꾼 등 많은 외부인들, 그리고 촬영 관련 차량까지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 시설이 훼손되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반대 측과 함께 살펴본 촬영 일정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서는 주말에만 촬영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B]

반대 1: 주말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드라마 방영 후에 학교가 유명세를 타면 평일에도 학교를 찾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이 주말에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의 학습은 방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촬영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상대의 생각에 일부 동의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의문형 진술을 통해 상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사용한 어휘의 개념을 확인하고,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과 공유한 정보를 언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측 주장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학교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면학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촬영 일정이 변경되면 평일에도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촬영 과정에서 학교 시설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 **주제**: 주택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하자.
- **글의 구성**
 - 1문단: 주택 화재 발생 실태 및 피해의 심각성 ㉔
 - 2문단: 주택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가 심각한 이유 ... ㉕
 - 3문단: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그 한계 ㉖
 - 4문단: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주민들의 실천 방안 ㉗
 - 5문단: 주민들의 실천 촉구 ㉘

초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의 발생 건수가 1/5 정도 차지한다. 그런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이다. 이는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㉑ 피해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화재는 누전, 전기용품의 부주의한 취급 등의 전기적 요인과 담뱃불, 방화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시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건물 간의 간격도 좁아서 인근 건물로 화재가 ㉒ 확충되기 쉽다. 또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심야나 새벽에 발생한 화재는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최근에 정부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다. 이른바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 이는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㉓ 했다면, 건물 사이의 일정한 거리 확보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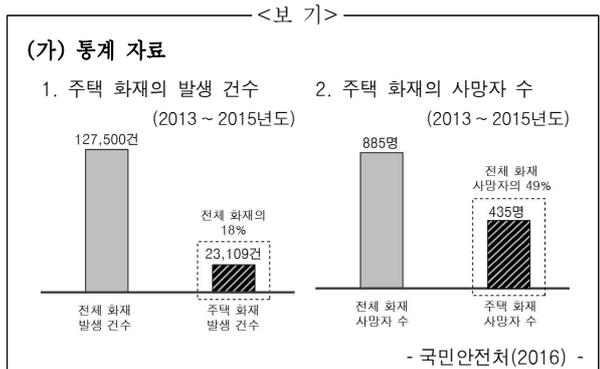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 주민들은 우선 정부의 법령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과 같은 기초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힌 후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 시설 관련 안전 교육을 통해 전열기나 난방기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이웃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담뱃불이나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㉔ 지정되어진 기초 소방 시설 외에도 누전 경보기, 피난 사다리 등의 다양한 시설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화재는 우리의 보금자리는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 ㉕ 그런데 우리를 각자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6. ㉔ ~ ㉘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7.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 신문 기사

미국은 법령에 따라 1977년부터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96%의 주택에 기초 소방 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이에 따라 주택 화재 사망자는 6,000여 명에서 2,400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영국은 1991년부터 이를 시행해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줄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2011년에 제정하고 이를 의무화해서 주택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진형 화재 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 소방관과의 인터뷰

작년에 발생한 주택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이 36%, 담뱃불이 23%, 방화가 17%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 외에도 가스 사고, 불량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죠. 또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화재 대응이 어려운 심야나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취침 중인 경우 화재 발생에 대한 인지가 늦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라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주요 화재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보완한다.
- ④ (다)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에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커지는 이유를 둘째 단락에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한다.
- ⑤ (가)와 (나)를 활용하여, 주택 화재의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넷째 단락에 추가한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말인 가변어로 나뉜다.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관계언, 다른 성분에 없 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뉜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냐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앞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A]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의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잘못’이 ㉠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도 존재한다.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 ㉡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로 만두를 곱게 빚으셨다.
- ㉢ (대화 중) “들어가요 됩니까?” / “네, 어서 오십시오.”

- ① ㉠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 ② ㉡에서 ‘온갖’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 ③ ㉢에서 ‘네’는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④ ㉠과 ㉡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 ⑤ ㉠과 ㉡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14.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돌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여기에 사과 일곱 개가 있다.
- ② ㉠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③ ㉠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
- ④ ㉡ [나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⑤ ㉡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이 생각난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나랏 말쑥미 中囡國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몃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棼姓성이 ㉡ 니르코겨 홍 ㉢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ㅼ뜨들 시러 ㉣ 퍼디 ㅁ흔 ㉤ 노미 하니라 내 ㅽ이를 爲彔ㅎ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宗를 ㅁㅇ노니 사름마다 ㅎ여 수비 니겨 날로 ㅁ메 便彔安한리 ㅎ고겨 ㅎ 썩르미니라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스’는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② ㉡의 ‘-고겨’는 현대 국어의 ‘-고자’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로 쓰였군.
- ③ ㉢의 ‘ㅁ’는 주격 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과 현대 국어의 ‘퍼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군.
- ⑤ ㉤의 ‘ㅽ’는 목적격 조사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체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

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 밑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① 롤스는 ‘예’, 노직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② 롤스는 ‘아니요’, 노직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③ 롤스와 노직은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④ 롤스와 노직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⑤ 롤스, 노직, 왈처는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1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군.
- ②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군.
- ③ 왈처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 분배의 대상이 되겠군.
- ④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철학자들에 따라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군.
- ⑤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겠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가) 미국에서는 기여 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를 기여 입학 대상자로 선정하여 1,600점 기준의 SAT 점수에 160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
- (나) 미국의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것에 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득세율은 그 두 배 정도인 33~41%라며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하고 1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초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자고 주장했다.

- ① (가):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가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준다면 기여 입학제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입학의 기회가 결정되는 기여 입학제는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가): 왈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는 경제 영역의 가치인 돈이 교육을 침범한 것으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라면 차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초과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 간에 우열을 가리게 되어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
- ② 상호 간에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상황
- ③ 상호 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파괴되는 상황
- ④ 상호 간의 개인적 정보를 모르게 되어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 ⑤ 상호 간에 효율성을 증시하게 되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

2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했다 ② 분석했다 ③ 내세웠다
- ④ 제공했다 ⑤ 살펴봤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조 광해군 때, 청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에 군대를 청한다. 요동 출병으로 참전하게 된 영철은 청의 포로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나 청의 장수 아라나 덕에 살아남아, 건주(建州)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몹시 그리워 목숨을 걸고 탈출해 14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

신사년(辛巳年, 1641) 봄에 청나라가 금주(錦州)를 공격하면서 조선에 군대를 요청하였다. 조선 군대가 금주에 이르니 청나라가 금주를 반드시 함락하고자 하여 청나라 황제가 친히 나서고, 여덟 명의 고산대장(高山大將) 또한 각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금주성을 에워쌌다. 고산대장이 매번 사자(使者)를 조선군 진중(陣中)에 보내니 유럽이 사자 대접하는 일을 영철에게 맡겼다. 한번은 청나라 장수가 조선군 진중에 와서 일을 논의하는데 영철이 청나라 말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그때 그 청나라 장수가 영철을 한참 보더니

“내 너를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데,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소신(小臣), 장군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하니 청나라 장수가 노하여 말하되

“내 이제 너를 자세히 보니 누군지 알겠거늘 내가 어찌 너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에 영철이 청나라 장수를 자세히 보니 옛적 건주에 있을 때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라나(阿羅那) 장군이었다.

“이놈아 듣거라! 내가 네게 세 번의 큰 은혜를 베풀었노라. 내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요, 내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 준 것이 그 둘이며, 건주의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진 것이 셋이니, 목숨을 살려 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그 하나요, 너로 하여금 말을 먹이도록 할 때 진심으로 너에게 맡겼거늘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한 것이 그 둘이요,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친 것이 그 셋이다. 나는 네가 도망한 것이 한스러울 뿐 아니라 내 천리마 세 필을 잃은 것이 한스러워 지금도 원통하다. 내 이제 다행히 너를 만났으니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A]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공(主公), 원통하옵니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사옵니다. 그건 한족(漢族) 놈들이 한 것이옵니다. 제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한족 아홉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제가 건주의 살림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어찌 제 본심이었던겠습니까? 몇 년 전 장군의 조카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말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는 살피 용서하여 주소서.”

[B]

“그 일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 죄를 생각하면 어찌 말한 마리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이제 너를 만났으니 진실로 용서치 못하리라.”

영철이 안타깝게 소리쳤으나 아라나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하기를

“장군, 이 자에게 죄가 있으나 이미 공이 살리셨는데 이제

죽어서면 덕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의 몸값을 후하게 치를 것이니 공께서 호생(好生)하는 덕을 보전하소서.”

그러고는 세남초(細南草) 이백 근을 내어 아라나에게 주니 이때는 담배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었다. 아라나가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억지로 받는 듯이 하여 허락하였다.

(중략)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럽이 영철에게 말하되

“네가 금주에서 아라나에게 잡혀갈 때 세남초 이백 근으로 네 몸값을 치러 너를 구하였는데, 그 물건이 나뉘는 데서 나온 줄은 너도 알 것이니라. 이제 각 진영에서 쓰고 남은 것을 계산하여 호조(戶曹)에 바쳐야 하는데 세남초값은 네가 갚도록 하거라.”

영철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장군, 제가 일찍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軍門)에 출입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재산을 아니 갚지는 못할 것이니라.”

“장군, 제가 세 번 전쟁에 나가 그동안 수고한 것과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하니, 그것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는 장군에게 달렸으니 소신의 청을 헤아려 주소서.”

영철은 몇 번이고 유럽에게 간청하였으나 유럽은 끝내 영철의 청을 흘려듣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럽이 이렇게 영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금주에 있을 때 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노새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까닭이었다.

영철이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호조에서 관리를 보내 영철에게 은 이백냥 갚기를 재촉하였다. 호조에 돈 들이는 일이 늦어지자 영유 현령은 영철의 일가친척을 감옥에 가두고 기한을 정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그 중 한 명이 분개하여 말하되

“영철이 임경업 장군과 유럽 장군을 따라 바다로 육지로 종군(從軍)하면서 들인 노고(勞苦)와 세운 공(功)이 적지 아니한데, 어찌 조정에서는 조그마한 보상조차 주는 일은 없고 도리어 이렇게 살과 뼈를 깎는단 말이나? 우리는 조선 백성도 아니더란 말이나?”

영철이 청노새를 팔고 집안의 세간을 다 파니 호조에 갚을 돈의 반 정도를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충당할 길이 없어, 결국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나머지를 갚을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 후로도 영철에게 상 주는 일이 없었으니 이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아니하리오.

- 홍세태, 「김영철전(金英哲傳)」-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럽은 아라나를 설득하여 영철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 ② 영철은 조선군으로 출정하여 통역을 맡다가 아라나를 다시 만났다.
- ③ 영철은 자신의 공을 근거로 유럽에게 세남초값을 갚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
- ④ 영철이 청노새를 유럽에게 팔지 않자 유럽은 영철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 ⑤ 영철이 나뉘는 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은 영철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

22.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며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자신이 상대에게 베푼 호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618년 명나라가 조선에 요동 출병을 요청했을 당시, 사대부들은 명에 대한 의리를 명분으로 출병을 주장했지만, 실제 참전한 백성들에게 전쟁이란 명분이 아닌 현실이었다. 작가는 「김영철전」을 통해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고향을 떠나 참전했던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런 백성들의 노고를 외면했던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①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인 ‘영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의 현실적 고통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라를 위해 종군하느라 모은 재산이 없는 영철에게 ‘세남초 값’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는 아라나의 모습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세간’을 다 팔고 ‘친족’의 도움까지 받아 ‘호조’에 돈을 바쳐야 하는 영철의 모습에서 참전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전쟁과 관련한 백성의 고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군.
- ⑤ 종군하며 공을 세운 영철에게 조정에서 끝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전한 백성들의 노고에 대해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소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의 눈앞에 쥐가 나타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마도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이다. 왜 그럴까? 쥐를 본 시각 정보는 가장 먼저 뇌에 있는 시상으로 전송되고, 시상에 전송된 정보는 편도체와 시각피질로 각각 전달된다. 그런데 생존 본능으로 즉각적인 신체 반응을 유도하는 편도체는 이성적인 사고 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각피질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는 비명부터 먼저 지르게 된다. 이처럼 편도체는 공포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포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편도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혈류로 유입된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며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량인 박출량도 증가한다. 또한 호흡 속도가 빨라져 평소보다 많은 산소가 체내로 유입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로 인해 근육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산소와 열량이 공급됨으로써 우리 몸은 공포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신할 정도로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 수와 박출량을 무리하게 늘린다. 이처럼 심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 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 수가 떨어진다.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맥박 수는 보통 60~80회 정도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거나 순간적으로 혈류가 중단되기도 한다.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때 실신하기도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공포는 학습되기도 한다. 우리 몸의 편도체는 공포 학습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포 조건화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적인 조건 자극을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과 연합하는 과정이 바로 공포 조건화인데, 버몬트 대학의 교수 ㉠ 카프는 토끼에게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전기 자극을 제시했을 경우 토끼가 즉각적인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특정 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토끼의 발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하고, 다른 소리를 들려줄 때에는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건화된 토끼는 전기 자극을 단독으로 제시했을 때처럼, 그 특정 소리만 들어도 공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토끼가 공포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특정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심장 박동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편도체가 반응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편도체가 손상된 토끼의 경우에는 공포 반응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르바흐-비테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병에 걸릴 경우 편도체가 포함된 양쪽 측두엽 부위가 칼슘 침착에 의해 그 기능이 상실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공포라는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포 극복 방안과 사례
- 우르바흐-비테 증후군의 특징을 중심으로
- ② 공포 반응과 공포 학습
- 편도체의 기능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중심으로
- ③ 공포 조건화 연구와 그 의미
-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 연합을 중심으로
- ④ 생존 본능에 따른 생리적 변화
- 호르몬이 교감신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 ⑤ 자극 강도에 따른 공포 상황의 분류
-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박출량은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다.
- ②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 수가 낮아진다.
- ③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맥박 수는 보통 60~80회 정도이다.
- ④ 일반적으로 공포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신체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 ⑤ 공포 상황에서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평소보다 많은 산소가 체내로 유입된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질문 : 만약 실신할 정도로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① 공포 자극이 편도체로 전달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 ②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근육에 공급되는 열량을 감소시킨다.
- ③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자극을 과도하게 받게 된다.
- ④ 맥박 수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진다.
- ⑤ 측두엽 부위에 칼슘이 침착됨에 따라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7. ㉠이 진행한 실험에서 사용한 **특정 소리**와 **전기 자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건화되기 전에 토끼에게 들려준 특정 소리는 무조건자극이다.
- ② 조건화되기 전에는 특정 소리만 제시해도 토끼의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진다.
- ③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해도 특정 소리가 없으면 고통이 유발되지 않는다.
- ④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해도 편도체가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 ⑤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하지 않아도 특정 소리를 들려주면 편도체가 반응한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벌목 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술이 베혀짐즉도 하이 골이 울어 땡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움죽도 하이 다 람쥐도 좃지 않고 뿔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걸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좃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벌목 정정: '정정'은 커다란 나무를 벨 때 울리는 '찌르렁' 소리를 한문구로 표현한 것임.

*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나)

- [A] 오늘, 북창(北窓)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쌍지만
태고(太古)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 [B] 고요하고 너그르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 [C]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 [D]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 [E]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II」 -

(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퐁'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祈雨祭)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제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

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 객줏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鄭)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록 '호까(연초잡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베짚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듯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類)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 슬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합니다.

그저께신문을 찢어버린
때물은 흰나비
봉선화는아름다운애인의귀처럼생기고
귀에보이는지난날의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石英質)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난계(寒暖計)*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 없은 지붕에 별빛이 내려찍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조(才操)로 광음(光陰)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채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줄음이 오는 기본입니다.

㉤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끝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 이상, 「산촌 여정」 -

* MJB: 커피의 상표.
* 체전부: 우편배달부.
* 한난계: 온도계.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이 상징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명령형 문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수산 1」은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세상일에 초연한 옷걸 중의 모습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탈속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①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 소리가 ‘찌르렁’ 하고 울릴 만큼 고요한 장수산에서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군.
- ② 보름달이 뜬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③ 승부에서 모두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옷걸 중’의 초연한 모습은 세속과 절연된 장수산의 이미지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군.
- ④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갈등하고 있음을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표현하고 있군.
- ⑤ ‘장수산 속 겨울 한밤’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울연히’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30. (나)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사람’과 ‘산’의 상반된 속성을 대비하여 ‘복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앓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산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너그러우며 ‘자랑 앓고 ‘겸허한’ 산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를 통해 산에 대하여 화자가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네’를 통해 산이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비유하여, 이승에서와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1. (나)의 [산]과 (다)의 [도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이상적 삶의 공간이다.
- ②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③ ‘산’은 화자에게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도회’는 ‘나’에게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
- ④ ‘산’은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고, ‘도회’는 ‘나’에게 걱정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⑤ ‘산’은 화자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도회’는 ‘나’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견고하게 한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산촌 여정」에서 작가는 낯선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작가는 산촌의 자연적이고 향토적인 사물을 도시인의 관점에서 형상화하거나,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언어를 통해 산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① ㉠: 산촌에서 보는 짐승들을 ‘동물원’과 관련된 도시적 경험과 연결하며, 산촌에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석유 등잔’의 ‘내음새’를 도시에서 접했던 ‘식간’ 신문의 냄새에 비유하며, 자신의 소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 ③ ㉢: 배짱이 울음소리를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가위 소리’에 비유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도시의 경험과 관련 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 ‘가을’이 오는 것을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으로 표현하며,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꿈속에서 본 도회 소녀를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에 비유하며, 산촌에서 갖게 된 이국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제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계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간다 겠을 때 여운지 토끼인 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요? 궐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 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테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관개.”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넬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궐기대회 꼭 나오라 겠는데, 뭐가 잘못됐다.”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촉구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왔을 끼라. 백릿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

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틀 몰았다.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중략)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A]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牛舍), 마른땀만 땀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향상, 생활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름 바 없다.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봐야 그 빛 갚느라고 정신없다.”

(한 집에서 일 년에 한 번 쓰는 이앙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일 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짓던 건 옛날 말이다. ㉡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免稅油)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두 대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 데.)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덩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다. ㉢ 저도 낱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 마이가?”

(모두 빛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주택 개량자금, 무슨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겐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빛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

캐.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했다. ㉠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싣러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3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회관에 모인 동네 사람들 중에 황만근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 ② 민 씨는 황만근의 아들로부터 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 ③ 황동수는 황만근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그가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황계석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이 술 때문이라고 짐작하며 그의 실종으로 인해 모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 ⑤ 황계석 씨는 황만근의 평소 행적을 토대로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가는 농촌을 배경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는 농민 ‘황만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그 안에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① ㉠: 기계화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 서로 도와가며 농사짓던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현실을 볼 수 있군.
- ③ ㉢: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 ④ ㉣: 기관들이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오히려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⑤ ㉣: 자신의 방식대로 소신껏 농사를 짓겠다는 인물의 우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35. [윗글대화]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성품을 드러내며 비극적 사건을 유발한다.
- ② 이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 ③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민 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한다.
- ④ 대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화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⑤ 민 씨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36.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말을 민 씨의 시선을 통해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
- ② 황만근의 말을 인용해 민 씨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황만근의 삶을 민 씨의 반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④ 황만근의 처지가 민 씨의 말에 의해 과거와 대비되어 강조되고 있다.
- ⑤ 황만근의 말에 민 씨의 말을 덧붙여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현금이나 예금 및 유가 증권을 일컫는 금융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한다. 금융 거래는 개인과 금융 기관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개인과 금융 기관 간에는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금리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금리의 방식, 즉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을 연 5% 금리로 2년간 예금하면 단리 이자는 매년 50만 원이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 첫째의 이자는 50만 원이나, 다음 해는 첫째의 이자가 포함된 1,050만 원에 5%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는 52만 5천 원이 되는 것이다. 즉 금리가 같다면, 원금이 커질수록 또 **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와 복리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커진다.

또한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에는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 금리라 하고,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명목 금리에 물가 변동률을 뺀 금리를 실질 금리라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예금한다면 1년 뒤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합계는 11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10%이면 원리금합계의 가치와 1년 전의 원금의 가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철수의 명목 금리는 10%이지만 실질 금리는 0%인 것이다.

금리는 예금자뿐 아니라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른다. 따라서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고정 금리는 대출 기간에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 금리는 적절한 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가 계속 변한다. 금리의 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부 금융 기관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 변동 금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금리를 책정한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의 통화량을 **②조절**하기 위해 매달 인위적으로 결정하는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올려 경기를 안정시킨다. 또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낮추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 기준 금리가 변하게 되면 금융 기관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지거나 작아진다.

금융 거래는 개인과 금융 기관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이루어진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③명시**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합의를 우선시하는데, 이때의 계약은 몇 가지 **④유**의

할 점이 있다.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자에 관한 사항을 서로 합의해야 한다.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이자라 원칙이다. 그런데 만일 이자 지급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 5%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둘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모두를 요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 줄 보증인을 제공하는 것을 인적 담보라 하고, 빚 대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물적 담보라 한다. 물적 담보는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셋째, 돈을 갚을 날짜를 합의해야 한다. 돈을 갚기로 한 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되지만, 직접 만나 갚기로 할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나타나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하여 갚지 못한다면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은 채무자가 돈이나 유가 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할 경우 그날 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⑤상환** 시기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계약이 만료된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 해제나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 내용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 이때 자산보다 빚이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개인 회생 제도**와 **②개인 파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제도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 회생 제도의 경우는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할 당시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이 정해 준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속적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먼저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자가 면책 선고까지 받으면 모든 채무는 없어진다. 이러한 제도로, 과도한 빚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선고를 받기 전까지 채무자와 그 주변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엄청나며, 선고를 받은 후에도 금융 기관과의 신용 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7.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금리의 개념과 방식을 언급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채무자를 위한 법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학적 개념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있다.
- ④ 금리 변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금융 기관과의 금융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 ⑤ 금리 결정에 내제된 경제학적 원리를 소개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 기관 간의 금융 거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출 기간에 기준 금리가 변하면 고정 금리의 금리도 변한다.
- ② 물가 상승률이 명목 금리보다 낮으면 예금으로 자산을 증대할 수 없다.
- ③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통화량이 조절되어 경기가 활성화된다.
- ④ 공탁을 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만료되지만 상환 시기에 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 ⑤ 금융 기관에서 산출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는 여윌돈 1,000만 원을 2017년부터 예금하기로 하고 금융 상품 중 연 8% 단리 상품과 연 5% 복리 상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연 3%로 예측된다.

*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매년 8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겠군.
- ②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의 원리금합계는 복리 상품보다 단리 상품이 더 많겠군.
- ③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실질 금리는 5%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예금 후 2년이 되는 날, 그 해에 발생한 복리 상품의 이자는 1,05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겠군.
- 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에 적용되는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의 실질 금리가 같겠군.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B에게 돈을 빌리고 개인 간의 금융 거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채무자 A와 채권자 B는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적·물적 담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원금은 지정 날짜에 만나서 상환하기로 했다. 이자는 매달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다.

- ① A와 B가 인적 담보에 합의했다더라도 B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A가 지정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B는 채무 내용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A의 소유가 아니면 B는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은 물건이라도 물적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 ④ A와 B가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이자 원칙에 따라 A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원금 상환 날짜에 B가 나타나지 않아도 A와 B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으면 A는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5년간 갚아야 빛이 면제된다.
- ②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자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채무자가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④ ㉡은 ㉠과 달리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 ⑤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선은 유교가 기간이 되는 도덕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 ② ㉡: 체중 관리를 위해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다.
- ③ ㉢: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를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 ④ ㉣: 장마 때에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그 나라는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유배(流配) 시가는 유배지로 가는 여정이나 유배지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시가들을 총칭한다. 유배 시가는 고려 시대 정서의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시초로 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와 시조나 가사 등의 다양한 문학양식으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시조는 초·중·종 3장의 정형화된 형식 안에 유배객의 삶과 정서를 간결하게 응축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가사는 연속체(連續體)로,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에 유배에서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유배객이 많았던 조선 시대의 유배 시가에는 정적(政敵)에 대한 원망, 결백의 호소, 정계 복귀에 대한 소망 등이 주로 표현되었다. 또한 정치적 유배객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며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유교 이념을 굳건히 지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 광해군 때,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어 쓴 연시조 「견회요(遣懷謠)」에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정치적 유배객들 중에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탈속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A] 유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유배객은 정적에 대해 원망하거나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 유배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사실적 체험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 때, 안조원이 공무상의 개인 비리로 유배되어 쓴 가사 「만언사(萬言詞)」가 그러하다.

(나)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쏨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맞고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다)

남방 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겹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 옥식 진찬(玉食珍饈) 어데 가고 맥반 엽장(麥飯鹽藏)* 대하
오며

금의 화복(錦衣華服) 어데 가고 현순백결(懸鶉百結)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田間)에 굽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우회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 내어
일분(一分)은 밥쌀 하고 일분(一分)은 술쌀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거운 줄 청운(靑雲)이 알았으면
탐화봉접(探花蜂蝶)*이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남방 염천: 남쪽 지방의 몹시 더운 날씨.
* 맥반 엽장: 보리밥과 소금장.
* 격양가: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탐화봉접: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43.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사는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 ② 유배 시가가 조선 시대에 처음 창작되어 당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 ③ 유배 시가는 유배객으로서의 일상과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바를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시가를 말한다.
- ④ 시조는 3장의 정형화된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정서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 ⑤ 정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유배객의 소망은 임금에 대한 충정보다는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었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현재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한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45. [A]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제3수'에는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군.
- ② (나)의 '제5수'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 효와 관련하여 담겨 있군.
- ③ (다)의 '남방 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에서, 유배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유배객의 사실적 체증이 나타나군.
- ④ (다)의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다)의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에서 개인의 잘못에 의한 유배를 그물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3] 다음은 학생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생회는 매 학기 학생회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사용한 설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설문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우리 부서에서 통계를 낼 때 보니 뒤 번호의 문항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문지의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요?

학생 2: 모든 선택형 문항에 같은 번호로 답하거나 서술형 문항에 장난스럽게 응답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설문지에 설문의 중요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기명이다 보니 학생들이 성의 없이 설문에 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3: 저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도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 기존의 설문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1: 설문지 문항 수를 줄인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설문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술형 문항은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2: 학생들이 설문 조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설문 목적과 의의를 밝히는 문구를 설문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도 익명보다는 실명으로 이용할 때 학생들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나요?

학생 3: 저는 문항을 각 활동별로 묶어서 구성하되 먼저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한 학생만 해당 활동의 세부 질문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시된 방안들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2: 선택형 문항 수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술형 문항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문항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묻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기존의 질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3: 설문지에 설문 목적이나 의의에 대한 문구를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명을 기재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학생 1: 실명 기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단 ①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해 보고 후속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토의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C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설문 대상자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군.
- ② A에서 '학생 3'은 응답자의 참여 태도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군.
- ③ B에서 '학생 1'은 설문 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B에서 '학생 2'는 설문지의 형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군.
- ⑤ C에서 '학생 2'는 다른 학생이 대안으로 제시한 설문지 형식에 동의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군.

2.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이어질 화제를 안내하여 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의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 ④ 제시된 의견을 요약하며 후속 토의를 안내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3. 다음은 ㉠의 일부이다. 위 토의를 바탕으로 이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회 활동 만족도 조사 설문지

다음은 학생회가 실시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인적 사항
()학년 ()반 (남 / 여)

4.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참여했습니까?
① 예 (4-1번으로 기십시오.) ② 아니요 (5번으로 기십시오.)

4-1.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2.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학생회 주관 수요 콘서트에 참여했습니까?

- ① 1번 항목에 실명 기재란이 없는 것을 보니, ‘학생 1’과 ‘학생 3’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학생 2’와 ‘학생 3’의 공통 의견을 반영한다면, 안내 문구에 설문 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학생 1’과 ‘학생 2’의 공통 의견을 반영한다면, 다양한 의견 수렴 이 가능하도록 설문지에 서술형 문항 수를 늘려야겠군.
- ④ 4번 항목에서 참여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를 안내한 것을 보니, ‘학생 1’과 ‘학생 3’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4-2번의 질문은 학생들이 구체적으 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묻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겠군.

[4~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입니다.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마크를 본 적이 있나요? 마크에 쓰여 있는 ‘HACCP’는 ‘해썹’이라고 읽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해썹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냉동식품, 병과류 등을 비롯한 7개 품목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외 품목이나 업소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죠.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완료한 업체에 한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해썹 인증을 해 줍니다. 한 번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니 해썹 마크가 있는 제품과 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해썹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그 의미나 의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해썹 적용 품목이나 업소가 확대될 것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먹거리의 과수꾼이라 할 수 있는 해썹 마크,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5.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7개 품목군 외에 확대 적용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② 우리나라가 해썹 인증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 ③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④ 인증을 받기 위한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는 구체적으로 무엇 인가요?
- ⑤ 재인증을 위해 3년마다 거쳐야 하는 갱신 절차는 최초 인증 절차 와 동일한가요?

6.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스포일러 문제를 비판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
- 예상 독자: 학급 학생들

[학생의 초고]

자신이 보려던 영화의 결말을 누군가 말해 버려서 속상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 방송, 소설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시청자, 독자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스포일러라고 한다. SNS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에는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음에 벌어질 상황이나 결말을 알지 못할 때 긴장감과 흥미를 느낀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치 않게 스포일러를 접하게 되면 흥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오디션이나 경연 대회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누가 우승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스포일러를 당하면 시청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A])

누리꾼들은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한편 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제목을 꾸며 놓고 클릭을 유도해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포일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는 아닌지 한번 더 의심하고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도적인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누리꾼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스포일러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우리들은 문화 콘텐츠의 향유자로서 스포일러의 폐해에 관심을 갖고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④ 도입부에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비유의 방법을 활용할 것.

- ① 프로그램 제작자가 왜곡된 정보를 예고편에 의도적으로 넣어 스포일러를 하기도 한다. 이유는 시청자가 방송을 보았을 때 예상이 빗나가면 더욱 큰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 ② 스포일러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시청률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적절한 스포일러는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해 시청률을 높이는 달콤한 미끼가 되기도 한다.
- ③ 스포일러가 홍보 역할을 하여 오히려 시청률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시청자뿐만 아니라 제작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④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유는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 ⑤ 시청률의 하락은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시청자들은 스포일러 때문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 신문 기사

영화 전문 예매 사이트 ○○가 2,322명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스포일러에 대한 ㉠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3%였고, '스포일러도 리뷰이므로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27%였다. 단, '상관없다'고 응답한 누리꾼도 ㉡ 스포일러 가능성 여부를 글의 제목에 미리 밝혀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 전문가 인터뷰

㉢ 스포일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자신도 모른 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수치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고, ㉤ 악의적인 스포일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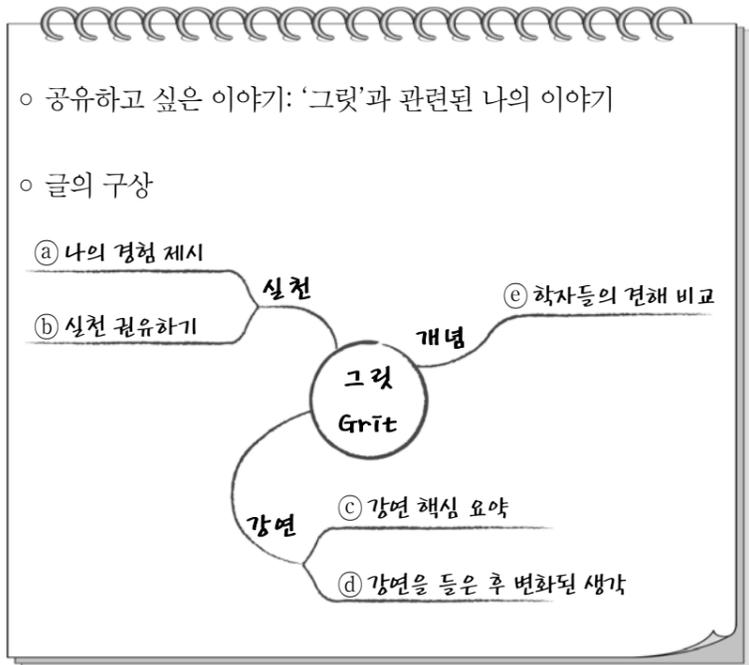
- ① ㉠의 결과를 첫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에 대한 누리꾼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 ② ㉡의 의견을 넷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추가하여 제시한다.
- ③ ㉢의 내용을 셋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한다.
- ④ ㉣의 사실을 셋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의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 ⑤ ㉤의 정보를 넷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의도적인 스포일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보자.

[작문 일지]



[초고]

작년 겨울, 천재들만 받는다는 맥아더 펠로상의 수상자 ‘엔젤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강조한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인 ㉠ 그릿(Grit)이었다. 특히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릿을 향상할 수 있으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짧은 강연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후 나는 ㉡ 그릿에게 빠져들었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 보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으며 그들의 재능을 부러워하기만 했다. 그리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막연한 충고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런데 강연을 통해 그릿의 효과와 그릿 향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열정을 퍼붓는 사람들의 끈기에 ㉢ 주목시키게 되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 그러나 나는 포기하려 했던 기타 연습에 다시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소소한 성취감도 느끼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기까지 했다.

베토벤이 되지 못할 바에는 음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당연히 ‘아니요’다. 베토벤이야말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그릿의 결정체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 떠올리고,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

9. '작문 일지'에 기록한 내용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그릿이라고 주장했다’로 바꿔야겠어.
- ② ㉡: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릿에’로 수정해야겠어.
- ③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목하게’로 고쳐야겠어.
- ④ ㉣: 접속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로 교체해야겠어.
-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그릿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ㄷ], [ㄷʝ]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ㄷʝ]이 되는 현상.

<보기 2>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날날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홀이불을 덮고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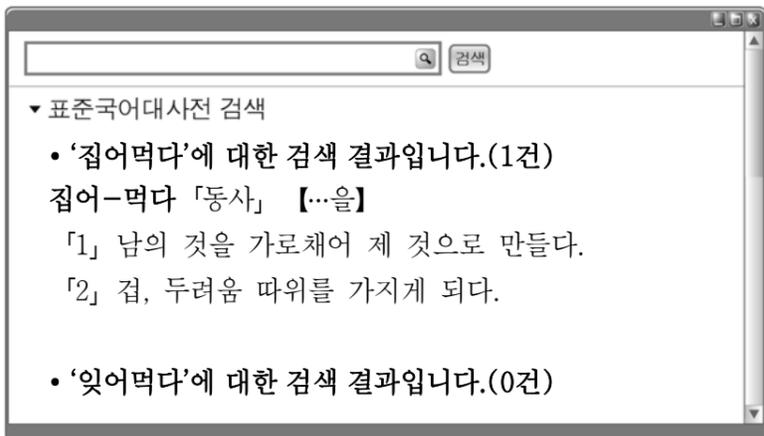
-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날’의 받침 ‘ㅌ’은 [ㄷʝ]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ㄷʝ]으로 발음된다.
-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은 [ㄷʝ]으로 발음된다.
- ⑤ ㉤의 ‘홀-’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홀-’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12.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유형	특징
본용언 + 본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 반드시 띄어 쓴다.
본용언 + 보조 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합성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 반드시 붙여 쓴다.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 보기 >

- 온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 집어먹었다.
-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 잇어 먹었다.
-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 집어먹었다.
-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 집어 먹었다.
-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 잇어먹었다.

- ① ㉠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② ㉡은 뒤의 용언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③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의 용언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허용한 것이겠군.

13. <보기>는 '학습 활동'에 대해 짝토론을 한 것이다. ㉠ ~ ㉤에 알맞은 말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습 활동] 다음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

< 보기 >

- 학생 1: 어제 보았던 거꾸로 수업 동영상 강의에서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했지?
- 학생 2: 그래. 그리고 어떤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먼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부터 찾아보자. 음..... '알려 줬다'와 '받았음' 이렇게 두 개인가?
- 학생 1: 아니야. '아끼던'도 서술 기능이 있잖아.
- 학생 2: 그렇구나. 그러면 그중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그것의 주어는 (㉠)이겠다.
- 학생 1: 맞아. 그럼 '받았음'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2: 응. 명사절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안겨 있는 거지.
- 학생 1: 명사절 외에 관형절도 있잖아. 그러면 이 관형절의 주어는 (㉢)이겠다.
- 학생 2: 그래. 국어의 안은문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안긴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 | | | | |
|---|-----|-----|-----|
| | ㉠ | ㉡ | ㉢ |
| ① | 그녀가 | 제자가 | 그가 |
| ② | 그녀가 | 그가 | 제자가 |
| ③ | 그가 | 그녀가 | 제자가 |
| ④ | 그가 | 제자가 | 그녀가 |
| ⑤ | 제자가 | 그녀가 | 그가 |

6

국어 영역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습-, -습-, -습-, -습-’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븐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하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올므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을 ㉣ 뵈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늘히 駙馬(부마) 달애샤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시어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보기 1〉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보기 2〉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직접 높임	간접 높임		
①	×	○	○	높임
②	×	○	×	낮춤
③	○	×	○	높임
④	×	○	×	낮춤
⑤	○	×	○	낮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예술(藝術)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춤, 시, 음악, 건축, 회화, 조각 등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 시, 음악은 ‘엔투시아스모스(enthousiasmos)’로부터, 그리고 건축, 회화, 조각은 ‘테크네(techne)’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보통 ‘엔투시아스모스’는 ‘열광’, ‘열정’을 의미하고 ‘테크네’는 ‘기술’, ‘제작’을 의미한다.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창작의 기원으로 여겨졌는데, 예술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엔투시아스모스는 종교적인 행사에서 사제가 신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 신과 교감하는 열광적인 상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사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짓, 언어,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으로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활동에 심취하여 사제를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인 엔투시아스모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 춤, 시, 음악이 ㉠ 나왔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테크네는 신적 존재와 무관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발휘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였다. 즉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테크네를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 회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은 실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던 반면 회화와 조각은 실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여겼

다. 또 회화와 조각이 실물의 모방이기 때문에 이 모방은 실물의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왜곡을 사용한 모방, 즉 환상의 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적 세계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예술을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인간에 의한 소산이라기보다는 신과의 교감에 의해서 얻은 메시지에 가까운 것이므로, 인간의 '이성'과는 더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본질인 이데아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데아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플라톤은 테크네를 발휘하여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는데 회화와 조각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건축은 현실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 두 번째 모방의 과정에서 왜곡을 통한 환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회화와 조각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 관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플라톤 이후 예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 속에서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다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엔투시아스모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낭만주의였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예술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투시아스모스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신적 존재와 관련되어 강조되었다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인간 자신의 상상력, 무의식 등과 관련되어 강조되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테크네의 가치는 사실주의에 의해서 부각된다. 사실주의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모방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상의 제작이라는 측면을 제외한 테크네, 즉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 이데아: 인간이 감각하는 현실적 사물의 원형(原形).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초월적인 실재로서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원형.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플라톤은 이데아를 모방해서 현실 세계가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 ② 고대 그리스인들은 테크네가 신적 존재와 무관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 ③ 플라톤은 인간이 테크네를 통해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 작품과 회화 작품의 창작 기원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 ⑤ 고대 그리스인들은 종교 행사에서 행한 몸짓, 언어 등의 활동이 인간을 엔투시아스모스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17.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표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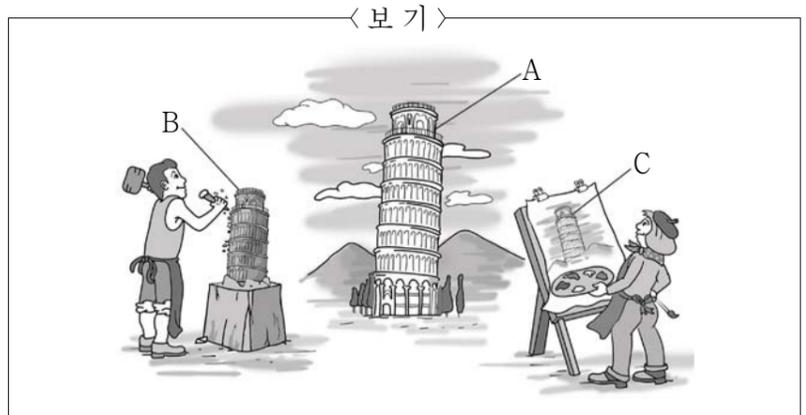
구 분	엔투시아스모스	테크네
고대 그리스인	㉠	㉡
플라톤	㉢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인간의 능력
낭만주의	㉣	
사실주의		㉤

- ① ㉠: 종교 행사에서 사체를 제외한 참가자들이 겪는 열광적인 상태
- ② ㉡: 인간이 규칙 체계를 따르며 행하는 제작에 필요한 지적 능력
- ③ ㉢: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 ④ ㉣: 인간의 감정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에 강조한 개념
- ⑤ ㉤: 정확한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강조한 개념

18. ㉠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작의 기원	특 징
① 엔투시아스모스	인간의 의식적인 상상력의 산물임
② 엔투시아스모스	현실 세계와 동일한 내용이 표현됨
③ 엔투시아스모스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임
④ 테크네	현실 세계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님
⑤ 테크네	교감을 통해 얻게 된 신의 메시지임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 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대 그리스인들은 A, B, C 모두를 지적 능력의 소산으로 보았겠군.
- ② 플라톤은 A가 지닌 가치를 B, C가 지닌 가치와 다르게 규정했겠군.
- ③ 고대 그리스인들은 A, B를 실물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여겼겠군.
- ④ 플라톤은 B, 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플라톤은 C가 A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졌겠군.

20.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세잔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특정한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그 사물의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인 형태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 ① 플라톤은 세잔과 달리 사물의 본질이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고 있군.
- ② 세잔은 플라톤과 달리 현실 세계보다 초월적 세계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③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사물의 형태에서 유발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군.
- ④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추상적인 묘사를 사용한 작품 창작에 대해 비판하고 있군.
- ⑤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현실 세계의 사물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군.

21.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이 상품은 시장에 나온 후에 바로 큰 인기를 끌었다.
- ② 상대가 비열하게 나오면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③ 우리 학교 신문에 내 친구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다.
- ④ 그녀는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 ⑤ 경기에서 상대에게 진 것은 욕심에서 나온 그의 행동 때문이다.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돈의 총량을 뜻하는 통화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으면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업률, 이자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통화량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창출된다.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예금 중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출된다. 예금의 일부가 대출되면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만 원이 시중에 대출될 때, 예금액 1만 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 대출된 1만 원이 통화량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배수를 통화승수라고 한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그 예금액만큼 시중의 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운 까닭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양분된다. 앞 시기에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이라는 통화 지표를 사용했다. '통화'와 '총통화'에는 현금과 예금은행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었고, '총유동성'에는 여기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추가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협의통화', '광의통화', 'Lf(금융기관 유동성)'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다. 협의통화에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바뀔 수 있기에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현금과 같은 지표에 묶였다. 광의통화는 협의통화에,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중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까지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기예금 등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들이 해당된다. 다만 이전 지표의 '총통화'에 포함되었던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Lf는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 등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 포괄한다.

보통 광의통화는 시중의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인정받고, 통화승수 역시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협의통화는 단기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통화 지표는 통화량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 비은행금융기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22. 밑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유동성의 의미
- ② 지급준비금의 용도
- ③ 통화량 파악의 필요성
- ④ 국가별 통화 지표의 종류
- ⑤ 우리나라 통화 지표의 변화

23. ㉠에서 강조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화 지표에 맞도록 금융상품의 만기와 이자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② 통화 지표를 변경하여 예금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③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통화 지표를 편제할 필요가 있다.
- ④ 현금과 예금 상품을 분리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⑤ 경제 주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화 지표를 다양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김 씨는 중앙은행에 사무 용품을 납품하고 받은 현금 100만 원을 A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A 은행은 이 예금 중 1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90만 원을 이 씨에게 대출했다. 이 씨는 대출받은 90만 원을 모두 B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B 은행은 이 예금 중 9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81만 원을 박 씨에게 대출했다. 박 씨는 대출받은 81만 원을 모두 C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중앙은행이 김 씨에게 공급한 100만 원의 통화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

- ① 1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② 18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③ 2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④ 29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⑤ 3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2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같은 상황에서 ㉡의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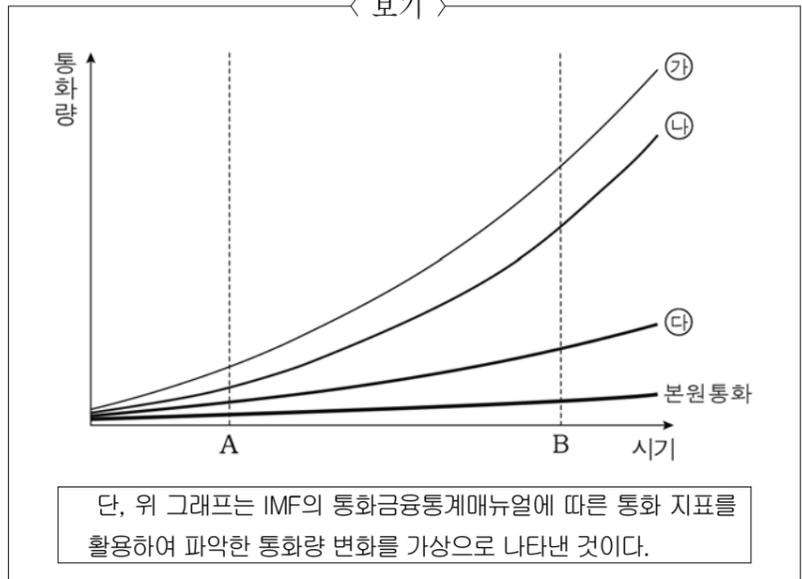
< 보기 >

㉠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공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 통화승수가 하락했다.

- ① 신용창조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 ② 파생된 통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③ 본원통화가 줄어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 ④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 ⑤ 지급준비금이 줄어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26.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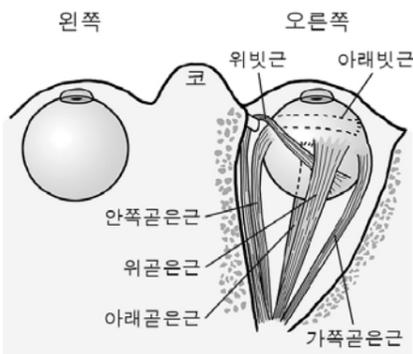
- ① ㉠은 ㉡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겠군.
- ② ㉣은 금융기관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겠군.
- ③ ㉣에 비해 ㉠은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겠군.
- ④ ㉡가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결과이겠군.
- ⑤ A와 B 시기의 통화승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본원통화 대비 ㉣의 통화량을 파악해야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의 사물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눈의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 선명하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이나 머리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동자만을 움직여 일정 범위 내의 사물을 바라보거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계속 바라볼 때 안구가 움직여야만 물체의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오목*에 안정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안구의 움직임을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

안구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주시하는 경우 눈돌림근육 6개가 1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데,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치켜뜨게 되면

위곧은근이 수축되고 이에 ㉢ 상응하여 수축된 정도만큼 아래곧은근은 이완된다. 또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눈을 흘겨 볼 때, 흘기는 방향과 같은 쪽 눈의 가쪽곧은근이 수축되고 그 수축된 정도만큼 그 눈의 안쪽곧은근은 이완된다.



[그림]

한편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하자. 거울에 비친 얼굴을 ㉣ 응시하면서 고개를 위로 살짝 들어도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든 각도만큼 안구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전정안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발생하는데,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곧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곧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곧은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곧은근이 수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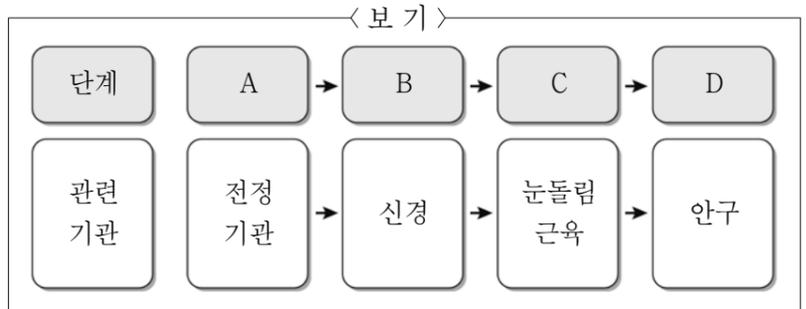
그렇다면 전정안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귓속의 등근주머니는 수직 방향,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 감지한다. 또한 귓속 수평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생성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된다. [그림]에서 위빗근은 도르래신경, 가쪽곧은근은 갓돌림신경, 나머지 근육은 눈돌림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억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이완하게 만들면서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

* 중심오목: 망막의 가운데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의 한 부분.
* 전정기관: 속귀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정안반사는 안구 운동 중 하나이다.
- ② 사람의 한쪽 눈에는 6개의 눈돌림근육이 있다.
- ③ 사람이 움직이며 고정된 사물을 바라볼 때 전정안반사가 나타난다.
- ④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 ⑤ 수평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이 감지하는 머리의 운동 방향은 동일하다.

28. <보기>는 ‘전정안반사’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단계에서 흥분 신호가 생성된다면, C 단계에서는 눈돌림근육 중 일부가 수축되겠군.
- ② 몸이나 머리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A 단계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정기관은 등근주머니이겠군.
- ③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인다면, A 단계에서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생성되어 B 단계의 신경에 전달되겠군.
- ④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C 단계에서 아래곧은근이 수축하여 D 단계에서 물체의 상이 망막의 중심오목에 맺힐 수 있겠군.
- ⑤ C 단계에서 위빗근이 작용하여 D 단계의 안구 운동이 발생했다면, 도르래신경이 전정기관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았겠군.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그림과 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정면의 눈높이에 있는 작은 공을 계속 보면서 머리를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평 방향으로 약간 회전하였을 때, 오른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을 하며, 왼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한다.

(단,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은 의자에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①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 ②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 ③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 ④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 ⑤ | 가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30.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게
- ② ㉡: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되어
- ③ ㉢: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어
- ④ ㉣: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 ⑤ ㉤: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린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C]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C]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D]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D]

- 문정희, 「찔레」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3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33.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 윤씨 부인은 순인(順人) 차렵이불을 걸고 일어나 앉는다. 차렵이불의 갈매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최치수는 양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많이 편찮으신지요?”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

“몸살인가 보다.”

윤씨 부인 역시 문갑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대꾸했다.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A] “그럴 것 없다.”

“하오나,”

치수는 천천히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윤씨 부인도 아들의 눈을 마주 대한다.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룬 탓인지 눈 가장자리에 달무리 같은 푸른 빛깔이 드리워져 있었다. 처연한 모습이다.

‘많이 늙으셨다.’

긴 눈매, 눈매 속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의지와 힘이 사무친 듯 남아 있다.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

치수는 어머니의 흠어진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여전하시다! 언제나 저 모습, 저 눈빛, 대장간에서 수천 번을 찌르려 만든 쇠불이 같으다.’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신을 땀똥똥 뜨거움은 싸아 소리 내며 가시는 것 같았다. 단련된 쇠불이와 쇠불이었다. 싸움터에서 적과 적의 칼이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쌍방이 혼신의 힘으로 겨루는,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 긴장은 두 모자 사이의 공간을 팽팽하게 메운다. 치수는 어머니의 뻘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요즘도 당산에 철포를 쏘러 다니느냐?”

“네.”

“힘을 과하게 써서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도리어 몸이 쾌적해지는 듯합니다.”

“.....”

윤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치수는 햇빛이 부신 것처럼 눈 언저리를 좁힌다.

“뵈은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니와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결혼문제를 어찌 입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겠지.”

‘왜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님.’

“그렇지, 서희에게도 어미는 있어야겠구나.”

‘그럴 리 있겠습니까. 서희에게 당치 않는 흑이 하나 생길 뿐이지요. 서희에게는 유순하고 글이나 읽으며 소일할 신랑감이 필요할 뿐이지요.’

서울 가서 병을 얻어온 후 어머니에게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치수의 관습은 생략되어 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회피였었고 피차 부담을 덜어준 일이기도 하였다. 치수는 아직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몇 석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무관하려 했고 그만큼 윤씨로서는 보다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셈이요,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그 굴레는 무거울수록 윤씨 부인이 원한 바였었는지 모른다.

무당 월선네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꽃갓과 무복이 필러거렸다.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월선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 몇 밤이었다. 별안간 월선네는 칼을 집어던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마님!”

할머니는 당혹했다. 눈을 깜박거리며 월선네를 내려다보았다.

“아썬 절로 가시야졌습니다.”

[중략 줄거리] 윤씨 부인은 의도치 않은 혼외 자식을 비밀리에 출산하려 절에 가게 된다. 어린 치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한다.

이듬해 이월달 꽃바람이 부는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치수는 미친 듯이 마을길까지 쫓아가서 가마를 따라왔다.

“어머님!”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마가 내려지고 어머니가 뜰에 나섰을 때, 치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백랍(白蠟)으로 빛은 사람 같았다. 모습은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는 게 아닌가.

[B] “어머님!”

불렀을 때 어머니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 혐악했다.

그토록 오랜 시일 이별하여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그 동안 잘 있었느냐? 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저럴 수 있는지 치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별당에 들었고 별당 문은 꼭 닫혀진 채 해는 저물고 말았다. 이때부터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였다.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치수의 소년시절은 어둡고 고독했다. 허약하여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며 방약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

- 박경리, 「토지」 -

(나)

S#58. 안방(낮)

병색이 완연한 윤씨가 ㉠ 차렵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소 리 ㉡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 윤씨 이불을 걸고 일어나 앉는다. 들어오는 치수 양 무릎을 모으고 앉는다.

치 수 ㉣ 많이 편찮으신지요?

윤 씨 몸살인가 보다.

치 수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 씨 그럴 것 없다.

치 수 하오나.....
 윤 씨 장암 선생께서는 요즘 차도가 있으시더냐?
 치 수 어려우실 모양입니다.
 윤 씨 근자에 가 뵈었더냐?
 치 수 못 가 뵈었습니다.
 윤 씨 그래서야 쓰겠느냐?
 치 수 사냥을 떠나기 전에 가 뵈어 문안올리고 오겠습니다.
 윤 씨 산으로?
 치 수 예.

모자의 눈이 부딪친다. 열을 뽀다 서로의 눈이 싸늘히 굳어진다. 치수의 두 눈에서 O.L*

S#59. 마당(회상)

김 서방 사랑채로 뛰어오며,

김 서방 도련님. 마님이 오십니다.
 치 수 어머니!

어린 치수 버선발로 토방을 건너 뛰어 마당에 내려선다.

치 수 ㉠ 어머니!

대문개로 뛰어간다.

S#60. 대문 앞(동. 회상)

당도한 가마에서 내려선 윤씨. 얼굴빛이 밀랍처럼 창백하다. 치수를 보는 순간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윤씨.

치 수 (놀라서) 어머니!

불꽃이 이는 듯한 윤씨의 두 눈.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34. (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피하고 있다.

3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치수가 윤씨 부인과 '오랜 시일 이별'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을 통해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과 재회한 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36. [A]와 [B]를 고려하여 (나)의 촬영 대본을 작성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감독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나리오에 언급된 내용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화감독은 촬영 대본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연기, 의상, 소품, 녹음, 촬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록된다. 이때 원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촬영 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 ① ㉠: 시나리오에는 차림이불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갈매빛 이불을 소품으로 준비할 것.
- ② ㉡: 시나리오에 누가 대사를 할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삼월을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
- ③ ㉢: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의 윤씨 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대사를 마친 후에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할 것.
- ⑤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과 같이 윤씨 부인을 향한 어린 치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다급한 어투로 말할 것.

37.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② 후안무치(厚顏無恥)
- ③ 두문불출(杜門不出)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조선 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시가(四時歌)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완상을 담은 노래들을 뜻한다. 고려 중기 이후 사대부층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사시가는 이러한 관심과 중국 한시 및 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는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각 달의 세시 풍속이나 정서 등을 노래한 월령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월령체가는 주로 민요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시가는 한시나 가사, 연시조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했다.

일반적으로 사시는 사계절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간 인식의 기준에 따라 사시는 한 달의 네 때인 삭(朔), 현(弦), 망(望), 회(晦)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루의 네 때인 아침, 낮, 저녁, 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로 보인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사시가는 일년 사시와 하루 사시의 복합적인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춘(아침→낮→저녁→밤)]→[하(아침→낮→저녁→밤)]...’과 같이 일년 사시의 흐름 속에서 각 계절마다 하루의 사시를 모두 포함하거나, ‘[춘:아침]→[하:낮]→[추:저녁]→[동:밤]’과 같이 일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상 전개 양상이 단순하든 복합적이든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 의미상 겨울에서 봄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 즉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간은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데 사시가에서 자연은 이러한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시가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으로서 자연의 모습은 당대의 현실이나 작가의 삶과 관련되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속세와 단절되어 은자(隱者)로서의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벼슬에서 은퇴한 사대부이든 정치 흐름에서 도태되어 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이든 향촌에서 농민과 함께하던 사족(士族)이든 자연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시가는 사시 순환의 질서 속에서 자연을 심미의 대상,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 등으로 인지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 사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A]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 두고
 □ 이 몸이 소일(消日)해음도 역군은(亦君恩)이 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추(秋)> -

가령, 사시가 계열 연시조의 첫 작품인 위 시조의 경우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가 강호 자연에서 계절별로 느끼는 흥취와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연은 유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는 그물 잡고 아희는 밧줄 가니
 뒷 피히 움이 튼 약초를 언지 캐려 흐느니 <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중(細雨中)에 호미 메고
 산전(山田)을 훑매다가 녹음(綠陰)에 누어시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2수>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뜨르며
 벼 벤 그루터기에 게논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3수>

피혀는 새가 굶고 들히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벽에 삿갓 쓴 저 ㉡ 늙은이
 낙딤에 재미가 깊도다 눈 김픈 줄 아는가 <4수>

- 황희, 「사시가(四時歌)」 -

(다)

양파(陽坡)*에 풀이 기니 봄 빗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 비에 다 되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먹여 논밭 갈게 흐야라 <춘(春)2>

잔화(殘花) 다 딴 후의 녹음(綠陰)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 <하(夏)1>

흰 이슬 서리 되니 그을히 느껴 있다
 긴 들 황운(黃雲)이 흰 빛이 피었구나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흐노라 <추(秋)1>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앞 피히 눈이 던다
 모침(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콩죽 니것느냐 먹고 자려 흐로라 <동(冬)1>

이바 ㉢ 아히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현스한 세월(歲月)이 소년(少年) 앓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흐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석(除夕)1>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양파(陽坡): 양지쪽 언덕.

3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시의 순환성은 무한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유기적인 구조를 지닌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 ③ 사시가는 조선 시대 이전의 다른 문학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다.
- ④ 사시가와 월령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취한다.
- ⑤ 사시가는 열두 달의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39. (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르는 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40.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나머지 수에서는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 년의 사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 <1수>부터 <4수>에 걸쳐 일 년 사시만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초기 사시의 단조로운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다)의 <하1>에서는 ‘녹음’과 ‘낮둠’을 통해 여름날 낮의 이미지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다)의 <춘2>와 <동1> 각 수에서는 한 계절 안에 하루의 사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적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다)의 <제석1>에서는 ‘새해’가 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41. ㉠에 주목하여 [A]와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는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사대부층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② [A]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는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③ (나)에서 ‘그물 낚고’, ‘산전을 훗매’는 모습에는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으로 인지하는 사대부층의 관점이 나타난다.
- ④ (다)에서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에는 자연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⑤ (다)에서 ‘비즌 술 걸러라’에는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나타난다.

4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
- ③ ㉠과 ㉡는 모두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고 ㉡는 화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강씨 상서가 집에 없음을 기뻐하여 월을 불러 날로 구박하며 눈앞에 잠시도 쉴지 못하게 하고, ㉠ 음식을 먹이되 독약이 들지 아니하였으니 알고 먹으라 하며 박대가 자심한지라.

강씨 일일은 월의 없음을 괴히 여겨 후원에 가보니 차영을 데리고 서로 우는지라. 대로하여 고성 대책 왈,

“너희 노주*가 무슨 모함을 의논하느냐.”

하고, 무수히 치며 두 발을 끌고 의복을 찢으며 형벌하고, 또 차영을 잡아내어 꾸짖어 왈,

“네 나와 무슨 혐의 있어 노주 의논하고 흥계를 꾸미고자 하느냐. 너 같은 녀은 죽이리라.”

하고 형구 차려 형틀에 올려 매고 무수 난장하여 제정으로 끌어내어 협실에 가두고 분부하되,

“너희 다시 소저와 상대하는 자는 즉시 죽이리라.”

하니, 차영이 또한 기절하여 아무 말도 못하더라.

슬프다. 월이 차영을 보지 못하고 죽인들 뉘가 알며, 음식인들 뉘가 권하리오.

이때 용이 제 밥을 가지고 누이 앞에 놓고 간권하니, 소저가 어찌 먹고 살고져 하리오마는 어린 동생이 원하는 정을 생각하고, 또 부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원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부친으로 하여금 비회를 끼쳐 눈물을 지시게 하리오. 나의 사생은 어렵지 아니하거니와 용의 일신이 부모에게 중한 몸이라. 내 죽으면 여액이 다 용에게 미칠 것이니 어찌하리오. 또한 내 죽으면 불효막대할 것이니, 근근 보명하였다가 부친 오심을 기다림이 옳다 하고, 용이 가져온 음식을 서로 먹고 밤을 당하매, 불기 없는 빈방에 남매 서로 붙잡고 밤을 새우더니, 용은 어린 것이라 잠을 자나 소저는 만신이 아파 견디지 못하여 소리는 아니하고 앓고 누웠더니, 이때 강씨 생각하되

㉡ “이때를 지내면 다시 설치*할 기회를 얻기 어려우리라.”

하고 월의 자는 방에 들어가니, 소저가 홀로 엎어져 앓는 소리 나거늘 문을 열고 들어가 꾸짖어 왈,

“이 아이년아, 누구를 모함하려고 누웠느냐. 너 같은 자식은 보기 싫으니 바빠 나가고 눈앞에 보이지 말라.”

하는 소리 추상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강씨의 구박으로 어룡 남매는 집에서 쫓겨나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후 어룡은 통천도사의 도움으로 도술과 무예를 배워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월은 윤 시랑의 양녀가 되어 임선과 결혼한다. 한편, 어룡 남매를 찾아 집을 나섰던 상서는 기이한 꿈을 꾀다.

이때 날이 이미 저물고 갈 길이 바이 없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실혼한 사람같이 앓았더니, 또 비몽사몽간에 아까 보이던 도사가 다시 이르되,

“죽림 도원 본집으로 가면 자연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급히 황성으로 가라.”

하고 간 데 없거늘, 상서가 깨어 공중을 향하여 무수 사례한 후,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죽림 도원 ㉠ 본집으로 가니, 집은 여구하나 장원이 퇴락하고 후뜰에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 자취 그친 지 오랜지라.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여 눈물 내림을 깨닫지 못할래라.

학사 마음을 진정하고 두루 살펴보니 노복 등도 다 사냥하고 다만 차영이 홀로 있다가 상서를 보고 반겨 복지 통곡 왈,

“노야 어디로 다니다가 이제 오시니까.”
 하며 못내 슬피하다가, 다시 여쭙오되,
 “소저와 아기 용을 찾아 보아 계시니까.”
 하며 반감을 마지 아니하거늘, 상서가 차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차영아, 그간 몸 성히 잘 있었느냐. 난 여러 해 돌아다니되 월의 남매를 보지 못하고 왔노라.”
 하시니, 차영이 상서 말씀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이윽히 앉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왈,
 “그러하오면 어디로 가 죽었는가 아닌가. 진적 유무를 알 수 없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노야 나가신 후에 나라에서 한림으로 패소*하여 계시오니, 황성이나 올라가사 소저와 공자를 찾게 하옵소서.”
 하거늘, 상서가 내심에 현몽하시던 일을 생각하고 황명을 받자와 택일 발행할새, 여러 날 만에 ㉞ **황정**에 득달하여 천자에게 숙배하온대, 상이 보시고 크게 반기사 좌를 주시고 가로되,
 “경의 아들이 멀리 집을 떠난단 말을 들었더니 그간 만나 보았는가.”
 하시거늘, 상서가 복지 주왈,
 “소신의 불초한 자식이 있사옵더니, 나이 어려 우연 집을 떠나 나아가 우금 십여 년이 되옵되 종적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슬픈 빛이 나타나거늘, 상이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가라사대,
 ㉟ “금번 북흥노 병란에 경의 아들 곧 아니어던 종묘와 사직이 위태하고 짐의 몸이 마칠 것을 하늘이 도우사 경의 영자를 만나 북적을 소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그 공을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좌승상 어룡을 급히 명초*하시니, 이때 승상이 부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전지도지*하여 나오더니, ㊱ 나라에서 부르심을 듣고 급히 예궐 숙배하온대, 상이 인견하시고 가라사대,
 “지금 경의 부친을 대하면 그 얼굴을 능히 기억할소냐.”
 승상이 대왈,
 “어려서 아버지를 이별하였사오나 지금도 그 형용이 주야 눈에 있나이다.”
 하고 설위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상이 그 사친지정이 절로 골수에 맺힘을 불쌍이 여기시고, 상서와 대면케 하시니, ㊲ 승상이 부친 앞에 나아가 엎어져 실성 통곡하며 말을 이루지 못하거늘, 한림이 혼미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치 못하고 묵묵히 앉았다가, 이윽한 후 정신을 차려 용의 손을 잡고 가로되,
 “네가 진정 나의 아들 용이냐 아니냐.”
 하며 안고 서로 슬피 우니, 보는 사람은 고사하고 산천초목도 다 슬퍼할러라.

- 작자 미상, 「어룡전」 -

* 노주: 노비와 주인. * 설치: 치욕을 씻음.
 * 패소: 임금이 신하를 급히 만나야 할 때 패를 써서 입궐하게 하는 경우.
 * 명초: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를 부름.
 * 전지도지: 앞드러지고 굽드러지며 몹시 급히 달려가는 모양.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룡전’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을 다룬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로 고통을 받던 전처 자식들은 가장이 부재한 시기에 가정에서 쫓겨난다. 이후 주인공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출세함으로써 가족과 재회하고 가정을 회복한다. ‘어룡전’의 특이한 점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군담 화소가 계모형 가정 소설에 결합되어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 ① ㉠: 전처 자식에 대해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군.
- ② ㉡: 가장이 부재한 시기를 틈타 전처 자식을 쫓아내려는 계모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③ ㉢: 국가의 위기 상황이 주인공에게 출세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 주인공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군담의 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 주인공이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군.

4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달리 ㉡는 ‘상서’가 기대감을 갖고 향하는 공간이다.
- ② ㉠와 달리 ㉡는 ‘상서’가 권위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③ ㉡와 달리 ㉠는 ‘상서’가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는 공간이다.
- ④ ㉠와 ㉡는 모두 ‘상서’가 타인에게서 정보를 제공받는 공간이다.
- ⑤ ㉠와 ㉡는 모두 ‘상서’가 타인에게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 미술관은 최근 전시회 횟수도 줄고 관람객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영 위원 여러분과 이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1: 건물이 너무 낮은 데다 전시 공간도 협소해서 전시도 관람도 불편합니다. [A]

위원 2: 미술관을 전시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시가 없는 기간은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3: 주변의 다른 미술관들에 비해 전시료와 관람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원 3: 다른 전시관보다 전시료와 관람료를 대폭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전시회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미술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을까요?

위원 2: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청소년 미술 대회를 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원 1: 현재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에서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B]

사회자: 그럼 제안해 주신 방안을 평가해 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2: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C]

위원 3: 저도 미술관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넓고 쾌적한 미술관 조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1: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모두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또 가뜰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시료와 관람료를 낮추면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D]

위원 3: 저는 ○○ 문화 재단에 예산 지원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 사업의 취지가 우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 단체나 시설을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잘 준비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그게 좋겠네요. 예산 지원을 받는다면 전시료 인하로 작지만 알찬 전시회가 자주 열릴 수 있으며, 관람료도 인하되어 관람객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E]

위원 1: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해 주

신 내용을 토대로 ○○ 문화 재단에 제안서를 제출해 예산 지원을 받으면 미술관을 이전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시료와 관람료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1. 토의 참여자의 발화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미술관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위원 2'가 제시한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 '위원 1'이 제시한 방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해결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
- ④ [D]: '위원 2'와 '위원 3'이 제시한 방안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경제적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 ⑤ [E]: '위원 3'이 제안한 방안의 시행으로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토의의 진행 순서를 바꾸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② ㉠은 토의 목적을 환기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③ ㉠은 토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④ ㉠은 적극적인 토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한 질문이다.
- ⑤ ㉠은 토의 참여자에게 발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질문이다.

3. 다음은 미술관 측에서 ○○ 문화 재단에 제출할 제안서 초안이다. ㉢~㉤ 중 위 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제안	△△ 미술관의 예산 지원 요청
제안 이유	△△ 미술관은 최근 관람객이 크게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귀 재단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	귀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시 외곽에 제2 미술관 건립 ㉢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강좌 개설 ㉣ ㉤. 청소년을 위한 미술 대회 개최 ㉤ ㉥. 전시료와 관람료 인하 ㉥
기대 효과	㉦. 전시회 개최 횟수의 증가 ㉦ ㉧. 관람객의 증가 ㉨.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생 에너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폐수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의 모습을 촬영해서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쁜 미생물들이 더러운 폐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요? 바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이 폐수 속의 미생물들을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전기도 생산하면서 폐수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대부분 유기성 폐수를 이용합니다. 환경공학 용어 사전을 보니까 ‘유기성 폐수’란 다양한 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흡수하고 분해할 때 전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유기성 폐수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유기성 폐수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것보다 약 9배나 많을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럼 미생물 연료 전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통의 가운데에는 이온 투과가 가능한 막이 있고, 왼쪽에는 산화 전극, 오른쪽에는 환원 전극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화 전극 쪽에 폐수를 넣으면 폐수 속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흡수, 분해하면서 전자와 수소 이온이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를 연구해 온 ○○○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수를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생물 연료 전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여 주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사전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③ 대상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논문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④ 대상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구조가 드러난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⑤ 대상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지.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발표를 듣기 전에 가졌던 의문
 - 가까운 시기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발표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
 - 미생물 연료 전지의 전기 생성 방법: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흡수,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전자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짐.㉠
 - 미생물 연료 전지의 상용화 전망: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중 하나임.㉡
- 발표를 들은 후에 든 생각
 - 발표에 활용된 자료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찾아보아야겠다.㉢
 - ‘미생물 연료 전지 실험’을 주제로 삼아 과학 실험 동아리의 보고서 과제를 작성해야겠다.㉣
 - 축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난방 연료를 추출한다는 것을 글을 읽어 알고 있는데, 미생물 연료 전지와 유사점이 있는 것 같다.㉤

- ① ㉠로 보아, 발표자가 활용한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면서 정리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로 보아, 발표를 듣기 전에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로 보아,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발표를 들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로 보아, 들은 내용과 관련된 것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하려 하고 있군.
- ⑤ ㉤로 보아, 들은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 알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글을 써 주십시오.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과 피해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 피해를 입는 원인을 밝혀야겠어.㉡
- 청소년의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 제시해야겠어.㉢
- 청소년의 안전한 전자 상거래 결제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 방안을 학교와 개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어.㉤
-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겠어.

<초고>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이 입는 전자 상거래 피해는 물질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인증 절차나 결제 과정이 까다로워 성인에 비해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현금으로 전자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절차나 방법, 물품 배송 등의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런데 상당수 청소년이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 판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것,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을 받는 것, 물품을 제때에 배송 받지 못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청소년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피해 신고 방법이나 보상 절차를 몰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유관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해 소비자 보호 정책, 관련 법률,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전자 상거래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개개인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거래 약관, 이용 후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 상거래에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B]

6.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가), (나)를 모두 활용하여 [A]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전자 상거래 사기 피해 발생 품목 순위

순위	품목
1위	휴대 전화 및 주변 기기
2위	공연 입장권 및 상품권
3위	의류 및 액세서리
4위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나) 청소년이 이용한 전자 상거래 주요 품목(복수 응답)

전자 상거래 품목	응답 비율
의류 및 액세서리	52 %
도서	33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21 %
휴대 전화 및 주변 기기	14 %

- ①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한다.
- ② 전자 상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방안을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한다.
- ③ 유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전자 상거래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 ④ 전자 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 ⑤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주요 이용 품목이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 [B]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에 관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것.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② 전자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사회에는 청소년이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청소년부터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불공정한 전자 상거래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 ④ 청소년 개개인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 ⑤ 청소년은 전자 상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9~10] 다음은 학생이 쓴 수행 평가의 후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국어 수행 평가는 문학 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수행 평가 결과를 보니 나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최하 점수를 받았다. 결과에 놀라 최하 점수를 받은 까닭을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선생님께서는 표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께서서는 수업에 들어오셔서 수행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이 남의 생각을 ㉠ 결코 자신의 생각인양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셨다.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표절하는 것을 반복하면, 잘못된 글쓰기 태도뿐만 아니라 왜곡된 윤리 의식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셨다. ㉡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셨다.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서나 독후감을 작성할 때 인터넷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㉔ 짜집기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해 왔던 나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비윤리적으로 글을 썼던 것의 문제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번 국어 수행 평가는 쓰기 윤리에 대한 나의 안일한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㉕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의 생각을 나의 생각인 양 표현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쓰기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9. 윗글의 작문 수행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절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조사하여 글의 내용으로 생성하였다.
- ② 쓰기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자신의 실천 계획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 ③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습관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 ④ 쓰기 윤리 준수와 관련한 개인적 깨달음을 지역 사회 차원으로 확장하는 글을 계획하였다.
- ⑤ 쓰기 윤리를 소재로 하여 표절의 개념, 실태, 문제점, 해결 정책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10. ㉑~㉔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부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마치'로 대체한다.
- ② ㉒: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③ ㉓: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출처를'을 첨가한다.
- ④ ㉔: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짜집기'로 수정한다.
- ⑤ ㉕: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의 ㉑, ㉒가 사용된 예를 ㉑~㉔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 보 기 >

선생님: 여러분이 헛갈려 하는 것들 중 ㉑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으)㉑', '-기'와 ㉒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 '-기'가 있어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세상은 홀로 ㉑ 살기가 어렵다.
- 형은 충분히 ㉒ 잡으셔서 피로를 풀었다.
- 날씨가 더워 시원한 ㉓ 얼음이 필요하다.
- 우리에게 건전한 ㉔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 이곳은 풍경이 매우 ㉕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 | | |
|---|---------|---------|
| | ㉑ | ㉒ |
| ① | ㉑, ㉒ | ㉓, ㉔, ㉕ |
| ② | ㉑, ㉒ | ㉒, ㉓, ㉔ |
| ③ | ㉓, ㉔ | ㉑, ㉒, ㉕ |
| ④ | ㉑, ㉒, ㉕ | ㉓, ㉔ |
| ⑤ | ㉒, ㉓, ㉔ | ㉑, ㉕ |

12. <보기>의 ㉑~㉔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미	예문
살다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㉑ <u>살</u> 았다.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	이 한 구절로 글이 ㉒ <u>살</u> 았다.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㉓ <u>살</u> 았다.
놀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그는 잠시 일손을 ㉔ <u>놀</u> 았다.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형은 책을 책상 위에 ㉕ <u>놀</u> 었다.

- ① ㉑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군.
- ② ㉒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③ ㉓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④ ㉔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⑤ ㉕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군.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 보 기 >

채 「의존 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채 「의존 명사」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째 「접사」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다.
- ② 나는 앓은 채로 잠이 들었다.
- ③ 그녀는 혼자 똑똑한 채를 한다.
- ④ 사나운 멧돼지를 산 째로 잡았다.
- ⑤ 꿈이 다가오자 그는 죽은 채를 했다.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ㅏ, ㅑ, ㅓ’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ㅗ’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을/을, 를/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은/-은’, ‘-음/-음’,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ㅓ’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ㅓ’가 소실되면서 주로 ‘ㅗ’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ㅓ’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ㅓ’ 대신 음성 모음인 ‘ㅗ’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의/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슴’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ㅓ’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ㅓ’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렁출렁’,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①	알-	아라	알-	알아
②	먹-	머거	먹-	먹어
③	씨오-	씨와	깨우-	깨워
④	쁘-	뼈	쓰-	써
⑤	ㄱ득ㅎ-	ㄱ득ㅎ야	가득하-	가득하여

1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겨스레 소음 든 오슬 낚디 아니 ㅎ고 녀르메 서늘흔 덕 가 디 아니 ㅎ며 ㅎ르 벌 두 호브로써 죽을 밍글오 소곰과 ㄴ물 흘 먹디 아니 ㅎ더라
- 『내훈』 (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숨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쌀 두 홑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곰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곰과 계즈 ㄱ르와 파과 마늘과 부치와 기름과 댓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ㄴ물과 ㄹ기 알과
- 『박통사언해』 (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곰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ㅎ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슬’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ㅎ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둘째 음절의 ‘ㅓ’가 ‘ㅗ’로 변하였음을 (가)의 ‘ㄴ물’과 (나)의 ‘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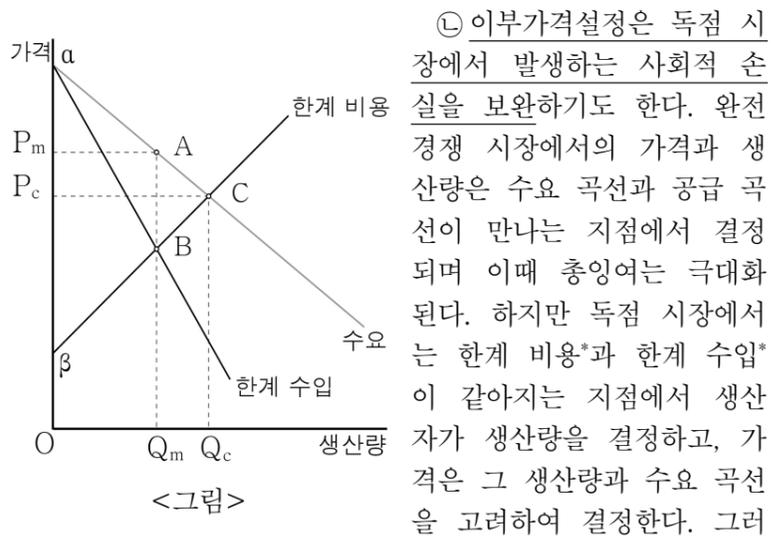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 얻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부가격설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 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

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㉔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 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_m 이 되고 가격은 P_m 이 되며, 생산자의 수입은 사각형 OP_mAQ_m 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βP_mAB ,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_m a A$ 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부가격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_m 에서 Q_c 로 늘리면 총잉여는 삼각형 BAC 만큼 늘어나게 된다.

* 한계 비용: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
* 한계 수입: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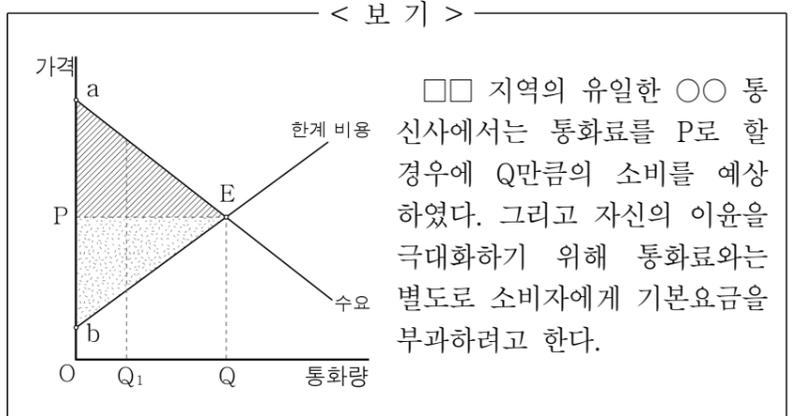
16.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총잉여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이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가?
- ③ 이부가격설정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생산자 잉여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가?
- ⑤ 가격과 생산량은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17. ㉔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지역의 유일한 $\Delta\Delta$ 골프장은 입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골프를 칠 수 있으며 요금은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징수한다.
- ② 한시적인 기간 동안 $\nabla\nabla$ 마트에서는 한 개에 800원 짜리 라면을 다섯 개 사면 3,800원에, 열 개 사면 7,400원에 판매한다.
- ③ 학생들을 대상으로 $\star\star$ 패스트푸드점은 3,000원 짜리 햄버거와 1,000원 짜리 콜라를 함께 묶어 3,500원에 판매한다.
- ④ 어느 지역의 유일한 $\bigcirc\bigcirc$ 철도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상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 ⑤ 어느 지역의 유일한 $\diamond\diamond$ 수도사업소는 수도물 사용량 100톤을 기준으로 추가 소비에 대하여 생산 원가만을 부과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 $\bigcirc\bigcirc$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② $\bigcirc\bigcirc$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화량이 Q_1 일 때 통화료로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bigcirc\bigcirc$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각형 $OPEQ$ 에 해당할 것이다.
- ⑤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bigcirc\bigcirc$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aE 에 해당할 것이다.

19. 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량이 늘어나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가 증가하는 것이겠군.
- ② 생산량이 늘어나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 ③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생산자의 수입보다 커지는 것이겠군.
- ④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구입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겠군.
- ⑤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20. ㉔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감정하면 ② 배정하면 ③ 시정하면
- ④ 책정하면 ⑤ 제정하면

[21 ~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느다
최령(最靈)흔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만
오랜 세월 끈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느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흐노라

<제2수>

말 한마디 업슨 바위 사귄 일도 업건만은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즈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깃흔 골짜기에 알 이 있어 츠즈오라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년가
왕기순인(枉己循人)*하야 내 어딴 읊아가리오
산 도쿄 물 도쿄 골에 삼긴 대로 늘그러라

<제6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 최령흔 오인: 가장 신령스런 우리.
- * 직립불의: 꼳꼳이 섬.
- * 고모진태: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
- * 탁연직립: 뻗어나 끈게 섬.
- * 왕기순인: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나)

우리 집엔 웃어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나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의(風儀)*가 참딱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하다. 웃기를 여미고 입정(入定)*을 맞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얼마 동안이었는진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風霜)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그 몸이 어느 땅 흠에 묻힐지 기약 없는 망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흥중엔 무한한(無限恨)인 채 임종하시고 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네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고,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리시던 것이 이 연적이다. 분원 사기 살이 담청인데 선홍 반점이 찍힌 천도형의 연적이다.

고인과 고락을 같이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 문방구뿐이리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휘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한 구절이 가끔 떠오르거니와 **찰종 하나, 술병 하나**라도 그 모서리가 트고, 금간 데마다 배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중략)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만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운(德潤)이 있는 것이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위낙이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모든 것이 그렇다. 목침, 나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자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들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터 더러워만 지고 보기 싫어지는 운명뿐이나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어야만 표지도 윤택해지고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수일 전에 우연히 **대해보각사의 「서장(書狀)」**을 얻었다. 4백여 년 전인 가정년간(嘉靖年間)의 판으로 마침 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보던 책이다. 그의 장인(藏印)이 남고 그의 친적(親蹟)인진 모르나 전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 있다. 「서장(書狀)」은 위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마는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체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라든지,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획 일자를 써서 사란(絲欄)*을 쳐 가며 칼을 갈아 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완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度日)*거리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직업적이어서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낙사(賞心樂事)*란 무위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태준, 「고완」 -

- * 풍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
- * 입정: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상태로 들어감.
- * 사란: 여러 개의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 도일: 세월을 보냄.
- * 상심낙사: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 ②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⑤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22.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23.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찾중 하나, 슬병 하나'의 금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대해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4 ~ 2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다양한 색을 통해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들의 ㉠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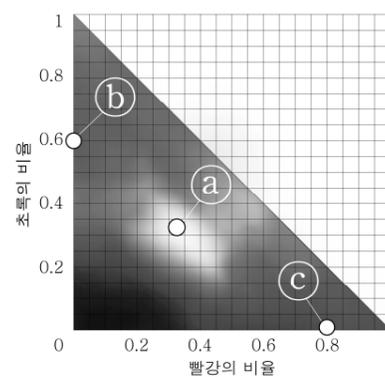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380~780nm로 이를 가시광선이라 한다.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600~700nm대의 빨강(R), 500~600nm대의 초록(G), 400~500nm대의 파랑(B)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색광의 3원색이라고 한다. <그림 1>처럼 색광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색광의 3원색 중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만들어진다.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라 한다. 즉 자홍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한편 자홍, 청록, 노랑은 색료의 3원색이 되는데, <그림 2>처럼 색료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되고,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 만들어진다. 색료에서 보색은 두 색을 섞어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색광을 섞는 방법을 '가법 혼합', 여러 색료를 섞는 방법을 '감법 혼합'이라고 한다.

가법 혼합의 원리는 스크린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백색광이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하여 흰 스크린의 한 지점을 동시에 비추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대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 방출할 때, 각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하면 세 가지 색이 섞이는 지점은 흰색이 되고, 두 색이 만나는 지점은 각각 중간색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3원색의 광량을 달리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S(색) = rR + gG + bB'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r'은 빨강 필터를 단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량을 세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각 광량의 합으로 나눈 값, 즉 빨강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r, g, b의 합은 1이 되며, r, g, b를 ㉢ 조절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가법 혼합의 방식으로 만드는 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림 3>과 같은 색 삼각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색 삼각형의 가로축은 빨강의 비율을, 세로축은 초록의 비율을 나타낸다.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색 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 내는 혼합 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 예측할 수 있다. 두 색을 섞은 혼합 색은 두 색의 좌표를



<그림 3>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 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한쪽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또 색 삼각형을 보면 혼합된 색의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혼합 색의 좌표가 색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㉔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또 색 삼각형을 통해 보색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꼭짓점에서 출발하여 ㉔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의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착점의 두 색은 서로의 보색이 된다.

감법 혼합의 원리는 한 개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자홍, 청록, 노랑의 필터를 연이어 통과시켜 흰 스크린에 닿게 하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색광에서 필터의 색에 따라 특정 부분의 파장은 필터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투과된다. 색료의 3원색은 각각의 보색을 흡수한다. 자홍 필터는 초록, 청록 필터는 빨강, 노랑 필터는 파랑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투과시키는 것이다. 이때 투과율이 높을수록 밝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둡다. 화가가 물감을 섞는 것도 감법 혼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태양 빛과 같은 백색광이 물감의 입자에 닿으면 일부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나머지 파장 영역대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특정한 색으로 보이게 된다. 화가가 빨강과 파랑 물감을 섞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빨강 물감의 입자에 백색광이 비치면 파랑과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한다. 파랑 물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흡수와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빨강과 파랑 물감의 입자들은 서로가 반사하는 파장을 흡수하는데, 이 현상이 혼합된 물감 안에서 매우 여러 번 일어나 결국 빨강과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이처럼 감법 혼합으로 만든 색은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태양 빛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색의 물감을 섞어 사용했다. 모네는 그의 대표작인 ㉕ <인상:해돋이>에서 물감을 섞어 만든 다양한 색으로 아침 안개 속의 태양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화폭에 담으려 하였다. 그런데 혼합된 물감의 색은 감법 혼합으로 인해 그리 밝지 않았다. 이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고 화폭에 일정한 크기의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㉖ 인접한 두 색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서 가법 혼합되어 제3의 색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시냐크는 그의 대표작인 ㉗ <우물가의 여인들>에서 화면에 무수히 많은 원색 점들을 찍어 병치함으로써 중간색을 표현하였지만,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므로 크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시냐크는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대비 효과로 인해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도 활용하였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가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보색이 혼합되어 오히려 흐릿하게 보였다. 이처럼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색에 대한 이들의 탐구 정신은 후대의 화가들이 다양한 회화의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영감을 주었다.

* 명도: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방출하는 광량이 많을수록 높음.
* 채도: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원색에 가까울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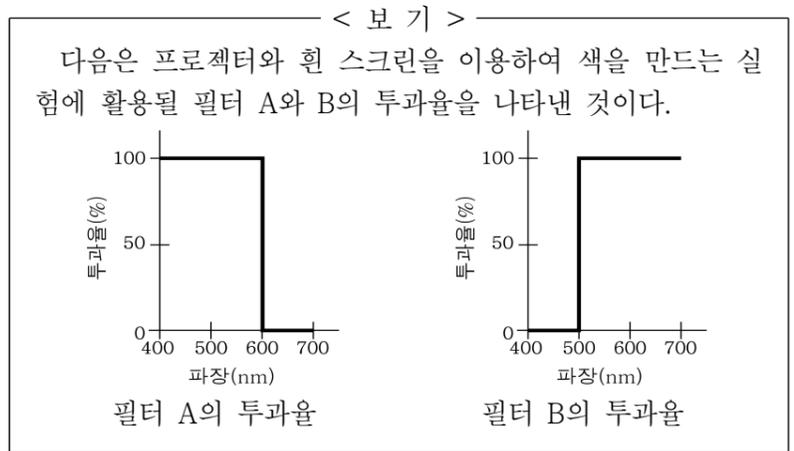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을 혼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②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술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색광과 색료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빛의 색을 표현하는 회화의 방식에 관한 두 학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색의 혼합에 관한 원리를 바탕으로 색을 중시한 회화 유파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광의 3원색의 보색은 색료의 3원색이다.
- ② 색 삼각형에서 자홍, 청록, 노랑은 각각 세 변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 ③ 우리 눈에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 ④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일대일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색의 명도는 흰색인 청록 물감의 색이 지닌 명도보다 낮아진다.
- ⑤ 가법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면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②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키면 청록, 필터 B에 투과시키면 노랑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③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킨 후, 자홍 필터에 투과시키면 스크린에는 검정이 나타난다.
- ④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는 경우, 두 필터의 배치 순서를 바꾸면 스크린에 나타나는 색이 달라진다.
- ⑤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보다 필터 A의 투과율을 50%로 낮춘 필터를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가 더 낮다.

27. 윗글의 <그림 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r, g, b는 ㉠에서 모두 0의 값을 나타낸다.
- ② ㉠과 ㉡를 혼합하면 ㉢보다 채도가 높아진다.
- ③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보다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이 더 높다.
- ④ ㉡와 ㉢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색 삼각형으로 그 혼합 색의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
- ⑤ g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 쪽 변과 만나는 지점에는 자홍이 위치한다.

28. 윗글의 ㉡, ㉢와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고흐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이는 대상의 순간적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려 했다. 고흐는 이를 위해 물감을 섞어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 원색과 중간색만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인 ㉣ <아를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에는 이런 그의 화풍이 잘 담겨 있는데,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과 노란 별, 초록의 나뭇잎과 자홍빛 테라스의 대비를 통해 그의 눈에 비친 화려한 밤거리의 순간적인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 ① ㉡와 ㉢는 모두,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가법 혼합 원리에 의해 채도가 높아 보이겠군.
- ② ㉡와 ㉢는 모두, 원색 점들을 병치하여 물감의 혼합으로 색이 흐릿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겠군.
- ③ ㉡와 ㉢는 모두, 보색 대비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려 했겠군.
- ④ ㉡와 달리, ㉢는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겠군.
- ⑤ ㉡와 달리, ㉢는 대상을 그리는 데 사용된 물감의 색과는 다른 제3의 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겠군.

2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 ② ㉡: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냄.
- ③ ㉢: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④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⑤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30~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과거를 떠올린다. ‘나’는 고향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산동네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던 ‘안’을 만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나는 결국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인쇄소의 낡은 문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 열쇠를 쫓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긴 주말 끝의 월요일.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나섰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인쇄소에 얼굴을 들이밀 처지가 못 되었던 만큼 인쇄소까지의 긴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한 장의 버스표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하라는 안과 정의 원칙은 철저한 것이었고,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당연히 셔터가 내려져 있어야 할 인쇄소의 입구가 먼발치에서 눈에 띄자마자 나는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듯도 했다.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문밖에는 ㉡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황망히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뛰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길을 가로질러라. 제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행인들 사이에 섞여 건널목 앞에 섰다.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미 날은 어두워져 실제로 먼발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당장이라도 옆의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일 것 같았다.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행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유혹은 견디 내기 힘든 것이었다.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너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은 한 이름만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쨌든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문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

이었고 그리움이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안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이 나타나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㉔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더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㉕ **현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를 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령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나의 초라한 욕신을 관리하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나는 깨어 일어났다. 나는 둔화된 기억의 축수를 다시 갈아세우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파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신자 없는 고독한 전파였다. 나는 책상에 공책을 펴고 앉았다. 나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여, 내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교정을 본 바 있는,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공책에 쓰고, 생각나는 대로 각 원고의 내용을 거칠게 요점만이라도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망각의 신비만큼 가끔 기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가끔 한 문단 전체가 고스란히 기억에 되살아오는 것에 나 스스로 경악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나는 머리맡까지 합쳐 모두 세 편의 논문을 그런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두 열여덟 편의 논문이 있었고 그 중의 두 편은 번역이었다. 그 중의 한 편은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이어서 나는 보따리 속에 멩텅이로 갇혀 있던 종이 멩치에서 복사한 원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하루 꼬박 걸려 그 논문의 번역도 끝을 맺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나는 감히 눈을 붙일 생각도 못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였다.

- 최윤, 「회색 눈사람」 -

30.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결핍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회색 눈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나’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나’의 결핍은 ‘안’과의 관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안’은 ‘나’가 결핍의 상황에서 만난 인물로 ‘나’에게 타자이다. 그렇기에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 ①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 속성을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② ‘나’에게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진 ‘적색 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③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맸던’ ‘나’의 모습은 ‘나’가 욕망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⑤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32.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② ㉒: ‘나’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㉓: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④ ㉔: ‘나’가 ‘안’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견뎌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㉕: ‘나’로 하여금 ‘그들’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이다.

[33~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단 논증은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다. 이때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만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추론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추론 과정에서 자주 오류를 범한다. 인지 실험 연구자들은 삼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 현상에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주요 이론은 ‘분위기 이론’이다. 분위기 이론은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에서 <어떤 A는 C이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전제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제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전칭(‘모든’)인가 특칭(‘어떤’)인가에 따라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분위기 이론은 사람들이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전칭 결론을,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선호한다고 본다. 하지만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삼단 논증에 대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을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부당한 논증과 <어떤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타당한 논증이 주어졌을 때, 분위기 이론은 피험자들이 두 논증의 결론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전제 하나가 특칭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타당한 논증인 후자를 부당한 논증인 전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를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는 구체적으로 추론의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삼단 논증에서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그 추론 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심적 모형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설명한다. 가령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에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심적 모형을 상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피험자들은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살펴보고 결론이 만족스럽다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서 표상한다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명제의 잘못된 ‘환위’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론도 있다. 환위란 주어진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이다.>로, <어떤 A는 B

가 아니다.>를 <어떤 B는 A가 아니다.>로 환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위가 비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즉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논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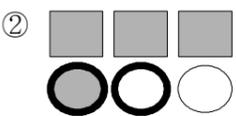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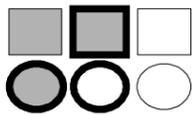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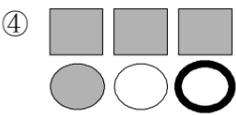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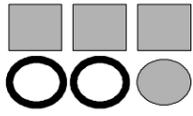
사람들은 결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 피험자들은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거나 적어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른바 ‘믿음 편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예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의 믿을 만함을 평가하고, 믿을 만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여 삼단 논증을 점검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폴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 효과가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지 오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인지 심리학자들은 여러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기꺼이 버리는 사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33.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설명하며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인지 오류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논리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34. ㉠을 뒷받침하는 심적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35. ㉠와 ㉡를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
- ②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은 증가한다.
- ③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자주 일어난다.
- ④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 효과가 발휘된다.
-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렵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떤 인류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모든 생물학자들은 바둑 기사이다.
 따라서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다.

- ① 전제들을 <어떤 생물학자는 인류학자가 아니다.>와 <모든 바둑 기사는 생물학자이다.>로 환위할 경우 환위하기 전과 뜻이 달라지게 되겠군.
- ②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잘못 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겠군.
- ③ 분위기 이론은, 전제에서 특칭과 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에 영향을 받아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에번스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일 리 없다는 믿음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분위기 이론은, 첫 번째 전제의 특칭을 전칭으로,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칭으로 바꾼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보기>의 논증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겠군.

[37~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전 소설에 널리 이용되어 온 ‘기이성(奇異性)’은 새롭고 낯선 것에서 느껴지는 성질로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기이성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현실성이다. 비현실성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초경험적이고 환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이나 사건의 극적인 전개도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전 소설에서는 아름다움, 추함, 선함, 악함, 효심, 충성심 등과 같은 인물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헤어짐에서 만남으로, 가난에서 부귀로, 위험에서 평온으로 등과 같이 사건의 전개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이외에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국정취 등도 기이성 형성의 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이성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이성도 소설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비현실성이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던 17세기의

소설에서는 비현실성이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교계 국문 소설과 전기 소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현실의 논리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현실적 존재가 현실계나 환상계에서 활약하는 것을 극대화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전기 소설의 하나인 「금령전」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면,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초기 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은 점차 희석되고 현실성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경험 세계인 현실계와 초경험 세계인 환상계가 개별적인 독립성과 함께 상호 유기성을 갖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계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성의 근거를 환상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독자들이 큰 저항 없이 비현실성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적강형 영웅 소설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해 간 판소리계 소설은 현실적인 요소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흥부전」, 「심청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과 사건의 극적인 전개 등은 여전히 기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됨으로써,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는 비현실성이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

차설. 해룡이 변씨 집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이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金鈴)*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바라보이며, 해룡이 돌 위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는데, ㉡ 문득 벽력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금털 돋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룡을 물려고 하였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금령이 내달아 막으니, 그것이 몸을 흔들어 변하여 아홉 머리가진 것이 되어 금령을 집어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룡이 낙담하며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갑자기 한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 속에서 크게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간 데 없었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에 촌철(寸鐵)이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몇 리를 들어가되 종적이 없거늘, 죽을힘을 다하여 기어 들어가니 ㉢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였다. 두루 살펴보니 돌 비석에 금자로 새겼으며, ‘남전산 봉래동’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거기를 지나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여니 동중에 주궁패궐*과 내성 외곽이 은은히 뵈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라 써어 있었다.

(중략)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누워 앓다가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일신을 뒤틀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였다. 해룡이 하수하고자* 하나 손에 촌철이 없었는데, 홀연 미인 한 사람이 칠보 홍균을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들고 달려들어 요귀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 터럭 돋친 암돼지이거늘, 가슴을 헤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 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인 계집이 다 요귀로 변하여 사람을 속임이 아니냐?”

모든 여자들이 일시에 꿇어 아뢰기를,

“우리들은 요귀가 아니요. 사람으로서 요귀에게 잡혀 와 옥을 참고 사환하였나이다. 아까 칼 갖다 주던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천자의 외동딸 금선 공주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주가 슬픈 기색으로 나아와 사례하기를,

“나는 과연 공주러니, 6년 전에 모후 낭낭을 피시고 후원에서 달구경을 하다가 이 요귀에게 잡혀 와 시녀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까닭으로 지금까지 옥을 참고 살았었습니다. 천행으로 그대의 구함을 입어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 보고 죽게 되니 다시 한이 없을까 합니다.”

하며 소매로 낫을 가리고 통곡하였다.

- 작자 미상, 「금령전」 -

* 금령: 금방울.

* 주구패결: 진주나 조개 따위의 보석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민 궁궐.

* 하수하고자: 손을 대어 죽이고자.

(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
“심 소저 혼약할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돌려보내어 [B]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심 소저를 보내실 제,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시녀를 곁에서 모시게 하여 아침저녁 먹을 것과 비단 보배를 많이 넣고 옥 화분에 고이 담아 인당수로 보내었다. 이때 사해용왕이 친히 나와 전송하고 각궁 시녀와 여덟 선녀가 여쭙기를,

“소저는 인간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와 영광으로 만만세를 즐기소서.”

소저 대답하기를,

“여러 왕의 덕을 입어 죽을 몸이 다시 살아 세상에 나가오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녀들과도 정이 깊어 떠나기 섭섭하오나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이별하고 가기는 하지마는 수궁의 귀하신 몸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순식간에 꿈같이 인당수에 번듯 떠서 뚜렷이 수면을 영롱케 하니 천신의 조화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 바람이 분들 끄떡하며 비가 온들 떠내려 갈소냐. 오색 무지개가 꽃봉 속에 어리어 등덩실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억 십만 금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인당수에 다다라서 배를 매고 제물을 깨끗이 차려 용왕에게 제를 지내면서 비는 말이,

“우리 일행 수십 명 몸에 재액을 막아 주시고 소망을 뜻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용왕님의 넓으신 덕택을 한 잔 술로 정성을 드리오니, 어여뻐 보셔서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제를 올린 뒤에 제물을 다시 차려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위로한다.

“출천 효녀 심 소저는 늙으신 아버지 눈 뜨기를 위하여 젊은 나이에 죽기를 마다 않고 바닷속 외로운 혼이 되었으니 어찌 아니 가련하고 불쌍하리오. 우리 뱃사람들은 소저로 말미암아 장사에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소저의 영혼이야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까? 가다가 도화동에 들어가서 소저의 아버지 살았는가 여부를 알아보고 가오리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아시거든 영혼은 이를 받으소서.”

제물을 풀고 눈물을 쏟고 나서, 한곳을 바라보니 한 송이 꽃봉이 너른 바다 가운데 등덩실 떠 있으니 뱃사람들이 괴이히 여겨 저희들끼리 의논하기를,

“아마도 심 소저의 영혼이 꽃이 되어 떴나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심 소저가 빠졌던 곳이어서 마음이 감동하여 꽃을 건져 내어 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생겼고 두세 사람이 넉넉히 앉을 만했다.

(중략)

하루는 천자께서 당나라의 옛일을 본받아 궁녀에게 명하시어 화청지에 목욕하시고 친히 달을 따라 화단을 배회하시는데, 밝은 달은 뜰에 가득하고 산들바람 부는 중에 문득 강선화 봉오리가 흔들리며 가만히 벌어지고 무슨 소리 나는 듯했다. 천자께서 몸을 숨겨 가만히 살펴보니 ㉔ 예쁜 용녀가 얼굴을 반만 들어 꽃봉 밖으로 반만 내다보더니, 사람 자취 있음을 보고 도로 헤치고 들어갔다. 천자께서 보시고 문득 몸과 마음이 황홀하시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 아무리 서 있어도 다시는 기척이 없었다. 가까이 가서 꽃봉을 가만히 벌리고 보시니 한 처녀와 두 미인이 있기에 천자 반기며 물으시기를,

“너희가 귀신이나 사람이냐?”

미인이 즉시 내려와 땅에 엎드려 여쭙기를,

“소녀는 남해 용궁 시녀이온데 소저를 모시고 세상으로 나왔다가 황제의 모습을 뵈오니 극히 황공하옵니다.”

하니 천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상제께옵서 좋은 인연을 보내신 것이로구나. 하늘이 내리신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하시고, ‘배필을 정하라.’ 결심하시어 혼인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태사관으로 하여금 날을 잡으라 하니 5월 5일 갑자일이었다. 소저를 황후로 봉하여 승상의 집으로 모신 뒤에 혼인날이 당하매 명하시기를,

“이러한 일은 천만고에 없는 일이니 예의범절을 특별히 마련하도록 하라.”

하시니 ㉕ 위엄이 이 세상에서 처음이요 천고에 더욱 없는 일이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3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판소리계 소설에는 민중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 ② 전기 소설에서는 현실 세계의 논리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 ③ 18세기 적강형 영웅 소설은 이원적인 세계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 ④ 기이성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고전 소설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 ⑤ 합리적 사고의 성장은 고전 소설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약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38. '기이성'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금령이 굴러서 해룡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이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해룡이 요귀를 무찌르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이성이 구현된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에서 심 소저와 용궁 시녀가 함께 꽃봉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기이한 일로 받아들여지겠군.
- ④ (다)에서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 소저가 수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한 효성을 지닌 인물의 비현실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기이성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심 소저가 중국 천자의 배필이 된 것은 이국정취가 인물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국정취를 기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군.

39. ㉠을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뱃사람들이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장면은 환상계의 존재와 현실계의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계기를 드러낸 것이다.
- ② 천자가 심 소저를 상제가 맺어 준 인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가 귀속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심 소저가 여덟 선녀와 이별하며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수궁에 머물던 심 소저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인당수에 번듯 떠오르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다.
- ⑤ 환상계에 머물던 심 소저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현실계에서 천자와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은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40.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이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게 하고, [B]는 인물이 집단적 요구에 저항하게 한다.
- ② [A]는 인물이 환상계로 가도록 이끌고, [B]는 인물이 현실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A]는 인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고, [B]는 인물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A]는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도록 하고, [B]는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도전할 근거를 제공한다.
- ⑤ [A]는 인물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B]는 인물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41. <보기>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납치된 공주와 공주를 구출한 남주인공의 결연담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신이담(神異譚)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사건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하국에 사는 요귀가 공주들을 납치하자 무사와 부하들이 공주들을 구하기 위해 뜻을 모음.
- (2) 무사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무사가 바구니를 타고 요귀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함.
- (3) 무사가 요귀의 거처에 들어가고, 공주들이 직접 요귀의 약점인 비늘을 떼어내어 죽이는 데 성공함.
- (4) 무사가 공주들은 지상으로 올려 보내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무사는 지하 세계에 남게 됨.
- (5) 무사는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무사는 공주 중 한 명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됨.

이 설화는 우리의 고전 소설에서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여 주는데, '금령전'도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나)와 이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나)에서는 _____

- ① 남주인공이 찾아간 요귀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유지되었습니다.
- ② 남주인공을 배신하여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③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④ 남주인공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 ⑤ 남주인공이 요귀를 찾아가게 된 동기가 공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대적인 대상이 출현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② ㉡: 갑자기 변화된 주변 상황과 비석에 새겨진 지명을 통해 새로 진입한 공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외부 영향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대상의 모습을 통해 초월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연속되는 행동을 묘사하여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43~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어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汽笛)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춡고 쓸쓸함이 몽당뱃자루 같은 날
 운암담 소릿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떼** 본다
 혼자 보기는 아슴찬히 미안하여
 그리운 그리운 이 그리며 본다
우리가 춡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별, 별, 새, 새, 들, 을, 본다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비상을 위해 뼈 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
 는데

[A]

[B]

물가의 진창에도 폭폭 빠지는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 이여,
 네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얇은** 것이냐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없는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저 운암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C]

—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

43.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과 점층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44.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인 김광균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의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싸여 작품과 인간이 격양하고 충혈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

- ①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③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시인이 힘들게 살았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은 힘든 상황에서도 문학적 의지를 잃지 않았던 고독한 ‘노신’을 시인이 떠올린 것이겠군.
- 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4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가 ‘청둥오리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살얼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 나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무거운’ 삶을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속된’ 집착을 자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⑤ [C]에서 화자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새들처럼 ‘가난해져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